

文鮮明先生말씀選集

314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
니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
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
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眞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세계인 천일국, 제4이스라엘국 곧 평화의 왕국을 향해 평화유엔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하나의 심장권으로 묶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제위께서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평화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머리말	3
고향과 조국	9
제17회 애승일 기념예배 말씀	133
새천년 천국 완성의 길	157
새천년 천국 완성은 조국광복으로부터	221
천년왕국시대의 도래	257
구원섭리사의 종결과 여성의 사명	285
우루과이의 사명과 여성 대회	310

고향과 조국

오늘은 이상헌 씨의 증언이 있는 것을 읽자구요. 《성약시대와 이상 천국》 1권의 그거 읽자구요. 그거 없나?

성약시대에는 영계를 알아야

일본에서 다 왔나? 오늘 오나? 「예. 오늘 옵니다. (양창식 북미 대륙회장)」 「오늘 꼭 뉴욕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지? 오늘 나가야 돼? (어머님)」 「오늘은 아니구요, 내일 가능하면 점심을 드시고 나서...」 「아니 그건 아는데, 뉴욕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 (어머님)」 「예. 내일 점심을 여기서 잡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김효율 보좌관)」

성약시대에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영계를 모르면 낙제예요, 낙제. 지상과 영계가 하나되는 시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계에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지상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거 읽으라구. 「예. 1장부터 읽을까요, 아버님? (정원주 이

1999년 12월 30일(木),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순서에 의하면 313집에 수록해야 하나 편집상의 문제로 314집에 수록하였고,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사) 1장부터 읽어. 오늘 내일 이것을 다 끝내야 되겠다구요. 다 왔어요. 뉴요커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없지요? 「오늘 주로 많이 도착합니다.」 그래, 됐어요. 읽으라구요. 서론부터 읽어요.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이상헌 선생의 삶사상신앙』

이상헌 선생은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면 화동리에서 유학자인 이수영 선생의 2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생은 한국 동양철학계의 원로이며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를 창설할 이상은 박사의 실제(實弟)이기도 합니다. 선생의 선친은 3·1만세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한 애국지사로서 유아시부터 선생에게 민족주의적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3년 전인가? 3년 전이지? 「예.」 그때 가게 된 것은 영계에 가서 영적인 모든 실상을 지상에 전부 다 연결시키기 위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상에서 명령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쓴 보고의 내용들이라구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구요. 역사이래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영계의 구조적 내용으로부터 내막의 모든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 실상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에요.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은 있었지만, 실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계에 대해 내적인 인격적 기준에서, 지식적인 분야에서나 분석적·의학적인 면에서 권위 있는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보내온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아이커스(ICUS; 국제과학통일회의)의 8개 분과위원회 의장이었어요. 8개 분과위원회는 모든 사상계 종교계가 총합되어 있어요. 거기의 장(長)으로서 세계의 학자들, 종교계, 혹은 철학계 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했지만 영계에 대한 사실을 물으면 그것은 확실히 대답 못 했어요. 추정했을 뿐이에요.

영계론을 기록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영계에 간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지상에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해 가지

고 저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계와 관계를 못 맺어요. 그 이상을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예.」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때

『1. 참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소자의 편지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옵소서. 참부모님, 그간 옥체무강하시옵지요. 소자 상현이……』

이제 통일교회를 개방해야 된다고요. 7년노정, 이제 2003년까지 모든 것이 수평이 되어야 돼요, 수평. 금년이 제일 고개인데, 2000년 6월까지 영향이 있는 고개예요. 넘어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때까지 자기들이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생애에서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동, 상대적 세계에 미친 악영향, 이런 모든 것을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읽으라구.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이곳,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는 천도의 이 길, 천상에 와 보니 식구님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천벌에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통과하여 모두 다 하나님께 바로 올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 어떤 흉악범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감성을 갖게 하는 것이며, 사랑의 체취나 향기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편안한 포근한……』

낙원도 없어지고 통일교회 식구들이, 축복받은 가정들이 천국 들어가는 데는 계열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축복받고 난 이후에 생활한 모든 것, 공적인 생활 기준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내용이 비춰져서 차이가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축복가정의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축복가정의 낙원이 생겨난다고요. 중간 낙원, 중간영계와 똑같은 축복가정의 지옥이 생겨나요.

축복가정의 지옥이 생기는데, 거기에서는 옥에 들어가 있지만 사탄

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통해 자기 스승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조상들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강제로 끌고 올라가요. 때려 몰 수 있다구요. 사탄이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을, 동생을 죽여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의 반대로 천사장의 입장에 서서 강제로 때려 몰아서 수련시키는 거예요. 탕감하는 기간이 세상 같으면 몇천 년이 될 텐데, 그 기간을 수고해서 넘어가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따라서 자식들이 전부 축복받아 가지고 있는데, 가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참소하고 후손들이 참소하는 그 환경적 여건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철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밝혀져 가야 본연의 천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읽으라구.

『4) 하나님의 특혜. 영계인은 지상에 있는 후손의 기도, 헌금, 봉사 등의 공적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면 나오게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구요. 축복받지 못하고 영계에 간 조상들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있는 정성을 다 들여야 돼요. 자기 부모보다 더 존경하고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조상을 모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의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조상을 모시면 천사장을 모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천도를 거역하면 길이 없다

『영계에서 고충의 기간이 길면 지상인의 후손은 알게 모르게 자꾸 고장이 난다. 조상이 불편하니 후손도 불편하다. 더 쉽게 말하면 조상

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이 벌받는다'는 말이 노골적이다. 천도를 거역하면 길이 없다.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영계와 육계가 대등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의 자기 계열에 따라... 종족적 메시아가 그래요. 종족적 메시아는 국가적 메시아의 계열에, 국가적 메시아는 세계적 메시아의 계열에, 세계적 메시아는 천주적 메시아, 하나님의 계열에 쫓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는 국가적 메시아의 권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기 생활이 아니예요. 필요한 것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에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그 순리가 벌어지지 자기를 주장했다가는 우주의 힘이 쳐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만 공이 있어도 쫓아 버려요.

쫓겨났다가, 한번 떠났다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다시 돌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은 돌아 들어와야 돼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개하고, 또 위에서 끌어 주고 그래야 됩니다. 복귀역사와 같이 전부 다 끌어 주고 그래야 그 자리를 피해 간다 이거예요. 한번 자리잡으면 영원히 저세계에서 자리잡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축복 가정들, 통일교회 누구 한 사람의 아들딸이라도 상하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끌어 주고 후손이 밀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 조상들을 위해 정성들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조상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것도 말이에요, 제사드릴 때 혼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라든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친구들, 후손들이 관계되어 있는 인맥까지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전체 인원들이 동원돼서 밀어 줌으로 말미암아 혜택권 내에 들어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구요. 자, 읽으라구.

아는 대로 실천하라

『영계인은 지상생활을 터전으로 하여 자기의 삶의 위치가 결정된다. 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특별한 특혜가 없는 한 천년이 가도 그 위치에서 살게 된다.

즉 지상의 삶을 통하여 정해진 영계의 자리가 편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후손들도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 자신의 삶이 잘못된 사람은 영계에 와서도 지옥 등 불편한 곳에서 살게 되며 후손도 항상 힘들고 문제가 생긴다.

예들 들어 보자. 영계의 생활이 지옥에서의 삶과 같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 자를 보면 주위는 어둡고 감옥과 같이 자유가 없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다. 이런 위치에 있는 자의 후손들은 그들의 지상생활이 풀려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를 찾기도 한다. 그리하여 조상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임으로써 영계에 있는 조상이 특혜를 받는다.』

여기 지상에서 영계의 내용을 알고 가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감의 세계가 실현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전부가, 옳은 생각이면 그 모든 대상 세계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생활에서 한 발짝, 하루라도 그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알았으면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고 그 길을 나가려고 하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 넘겠다고 하는 생각이 영계에서는 선한 권의 모든 영향권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내용을 중심삼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혼독한 모든 말씀을 중심삼고 걸리지 않게 매일같이 비판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비판해 보라는 거예요. 딱 막혀 버려요, 저나라에 가서. 자, 읽으라구.

영계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은 통일교회에 준 최고의 선물

『지상에서 무당이 춤을 추면서 조상을 들추어내는 것은 그 조상에 게 위로만 될 뿐이지 위치 변화는 안 된다. 그러나 차원이 높은 바른 기도에 의해서 특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천국의 사자가 찾아와서 데려간다.

2) 지상인의 삶.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영계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위치가 옮겨 간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무지해서 잘 모르기 일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거나 지상의 삶을 정리하면서 사는 삶이 현명한 인간이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이것이 통일교회에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상현 씨를 통해서 영계의 구조 내용으로부터 그 활동 범위 내용, 단계적 모든 환경 여건을 밝혔다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스웨덴 보르그 같은 사람이 본 것은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영계를 중심삼고 그 가운데서 확정된 세계지, 전체를 모른다구요.

이것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이루어진 영계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환경이 되어야 되고, 지상세계의 대응적 관계의 실천장이 되어야 할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지상과 영계가 둘이 아니에요.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자, 읽으라구.

『어차피 오게 될 이 나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나라는...』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맹세 5번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렇다고요. 전진하고 있는데 발전을 촉진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이 죄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시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살면 동네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안 돼요.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시켜야 돼요. 마을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르면 일체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 마을에서 재판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다고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처리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으로 추방하고, 남극으로 추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 하라구.

『어차피 오게 될 이 나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나라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영원을 위하여 순간을 잘못 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방대한 이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삶의 열매요, 결실이다. 자기 농사의 추수이다. 더 쉽게 말하면 죄 지으면 지옥행이요, 선하게 잘 살면 천국행이다. 영원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

지옥은 썩어지는 데예요. 알겠어요? 열매가 씨가 없으면 썩어 버려요. 그러면서 영원히 있으니 얼마나 고통이에요? 자, 읽으라구.

우주 존속의 공식 기반은 가정

『1)…… 2)영계인. 그러나 영계인은 다르다. 영계인은 육체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활동 범위가 무한하다. 예를 들면 본다거나

만진다거나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지상 완성이 우주 해방의 모든 기틀이에요. 개인이 완성하면 어디서든지 체재할 것이 없어요. 완성한 아담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권내, 그걸 그냥 그대로 무한세계에 확대한 것이 영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은 주체 대상, 수수작용, 사위기대 원칙, 삼대상목적 기반의 틀 가운데서 살게 돼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면 우주의 존재 전체는 파괴적입니다. 반대가 벌어진다구요. 그 기틀에 맞게 되면 무한 확대가 벌어져요. 무한세계가 다 그 법도의... 물결과 같아요. 돌을 던지면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이 전부 다 다르다구요. 넓게 치면 넓어지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식적인 움직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 기반이 뭐냐? 개인 완성, 부부 완성, 자녀 완성이예요. 이게 일심정착(一心定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정분합(正分合)이에요. 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늘을 중심삼고 몸 마음이 갈라져요. 이것이 사위기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사위기대를 중심삼은 남자와 이 사위기대를 중심삼은 여자가 하나돼야 돼요. 그것이 정(正)에서 분(分)되었다가 사랑으로 하나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되면 이것을 중심삼고 연결된, 이 중앙으로 연결된 그 선을 통해서 여기에서 자녀가 하나되는 거예요. 종적 기준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상현과 하현이 연결 안 돼요. 또 좌현과 우현, 동서가 참사랑이 아니면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전과 후가 연결되는 것도 그래요. 3면이 합해야 구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참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참사랑이 하나님이라구요.

사위기대를 통한 삼대상목적 완성과 일심정착

사위기대에서 모든 것이 연결돼요. 사위기대 여기의 연장선에서 부부가 되고, 부부의 연장선에서—연장 중앙선이에요.—자녀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실체 대상, 부부의 실체 대상이 돼요. 삼대상 목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일심정착, 한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자 아담 해와의 마음이고, 아담 해와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자 자식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부모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부모와 하늘을 모시고 존경해야 돼요. 부모를 모시면 횡적인 기반의 사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을 모시면 종적인 사다리가 연결돼요. 아기사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두 세계의 교육을 받아야 삼대상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열매요, 부모의 열매입니다. 모든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삼대상목적이 귀한 거라구요. 사위기대를 통하지 않고는 삼대상목적이 완성 안 돼요. 사위기대는 일심정착인데, 정분합작용으로 3단계예요. 개인 단계, 부부 단계, 자녀 단계라는 3단계의 정분합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운데를 중심삼고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절대 필요로 하고, 아내는 남편을 절대 필요로 하고, 그 부부는 절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삼은 자녀들은 절대 부모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기준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심정착(一心定着)’이란 글을 언제 썼어요? 1987년 7월 20일에

썼구만. 그래서 일심정착이에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일심정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오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심정착이에요. 그 다음에 '승한성취(勝恨成就)'라는 말이 있지요? 한을 이겨야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해방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인은 들고나고 앉더라도 언제든지 명상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심이 되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삼대상목적이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랑으로 엮어져야 영원히 정착해요. 참사랑이에요. 어제 말씀했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천사장을 지은 거예요. 뿌리는 같대구요. 각도로 말하면 천사장은 45도 각도로 연결돼 있고, 아담은 90각도로 연결돼 있어요. 45도를 합해서 90각도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장이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0각도니만큼 이 90각도가 완성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돌아간대구요. 돌 때 구형으로 돌아요. 수직으로 못 와요, 원이니까.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 각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사방이 되면 360도를 중심삼아서 모든 것이 완전히 둥그래진다는 거예요. 정 구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에요.

운동하는 것은 정 구형이 되어야만 상충이 없고 소모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되어서 모든 세포가 그런 상대적 관계를 그림과 마찬가지로 중심삼아 가지고 연결돼 있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삼대상목적을 완성한 자리면 하나님을 모시고 비로소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이나 가정의 마음이나 아들의 마음이나 우주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일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분합, 삼대상목적이 정착할 수 있는 구형적, 내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생활할 수 있어야 어디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

는 이 기준만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우주가 자기의 마음 몸과 마찬가지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생각하는 직감적 느낌, 생각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몇백만 명이 있다면 ‘누구누구 이런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모여라!’ 하면 일시에 다 모여요. 뱅긔를 해야 되겠다 하면 순식간에 준비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특권이 뭐냐 하면, 아들딸의 권한이에요. 아들딸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들딸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해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 아담 해와의 아들딸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전부 아들의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나 자기 몇천 대 후손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대등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씨가 되는 거예요, 같은 씨. 저나라에 가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형님, 형과 같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만큼 큰 형님과 마찬가지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원칙에 있어 다말이 형제끼리 안 되니 아버지에게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읽어요.

영계는 흑백 얼굴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세계

『(4) 질문에 대한 이상헌 원장의 답변.』

질문 : 살아생전 한 번도 잘 모시지 못한 불효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 주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 미스 코리아의 얼굴과 못생긴 얼굴이 영계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 지상에서의 예쁜 얼굴은 물론 이곳에서도 예쁘다. 그러나 못생긴 얼굴도 하나님 광채 속에서 마음의 표현이 얼굴에 나타

나므로 무한히 아름답다. 지옥에 간 미인 얼굴과 천국에 간 못생긴 얼굴은 비교가 안 된다.』

텅스텐 필라멘트가 새까맣다구요. 불이 오면 까만 게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예요. 흑인이니 무엇이니 없어요. 빛깔, 광채가 나는 그것이 전체 모양, 그 마음, 자기 그리운 마음의 상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흑인이고 무엇이고 다 안 보인다고요. 그 본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언제나 금과 같은 거예요.

금은 잡된 물건이 없어요.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은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 파란색이면 완전히 파란색 그냥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잡된 것이 다 동일화돼서 밝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적인 색깔이 없어요. 검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지개 빛이 7색 아니예요? 그걸 돌려놓으면 흰빛으로 변해요. 흰빛은 빛을 말해요. 뭐라고 할까? 전깃불은 저렇게 밝지만 산소땀 할 때의 그런 빛이에요. 그것이 투명해서 어디라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의 세포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확대시켜 가지고 분석된 세계라구요.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삶을 살라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죄를 짓고 가면 큰일이지요. 그런 걸 전부 수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 모델권 내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체화돼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일체화된 세계는 타락한 세계로, 영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구성된 부부는 전부 사탄의 혈통을 통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잠자리에, 이불 포대기에 사탄이 놓고 간 피가 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구요.

시집을 두 번 간 아내를 얻는다 하게 될 때, 그 아내의 본 남편이 부자여서 준 다이아몬드와 금은 옷을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두 번째 신랑 앞에 그걸 입고 나타나 보라구요. 원수 중의 원수가 돼요. 아예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타락한 인간세계도 그렇거든 사랑의 주인인 본연의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사랑의 주인은 절대적인데 두 사랑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맨 처음 만난 남편보다도 이 남편을 더 사랑해야 할 텐데, 더 사랑 못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길을 발전시키려니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위하여 자꾸 봉사함으로써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통일교회 여러분도 그래요. 수단 방법을 통해 인사 조치해서 좋은 데 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인연이 주류에 얼마만큼 얽여져 있고, 사랑의 뿌리를 중심삼고 얼마만큼 깊이 확대된 뿌리를 가져서 그 즐기와 잎과 나무가 컸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적인 뭐가 아무 것도 없이 외적으로 사기친 녀석은 지옥에 거꾸로 꽂혀요. 전부가 부정하는 거예요. 순부터 부정하니 거꾸로 꽂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마찬가지로요.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자기 뜻을 중심삼고 선생님과 통일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꽂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보기 싫어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통일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와서 선생님 앞에 앉게 안 되어 있어요. 아무나 와서 앉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티가 없느냐, 부끄러움이 없느냐, 그림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 그림자가 천리 만리 우주 끝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그 그림자를 드리운 사람이 누구냐? 집어치워라!’ 하는 우주의 합성이 들려온다구요. 무슨 말인

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성들이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몰라요. 사탄이 쫓겨나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 와서 아이들의 꿈무늬를 붙들고 있다구요. 제일 나쁜 자리에 처박으려고 밤낮 그러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세계를 전부 빼앗아 오니 선생님 뒤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 아들딸이 있으니 자연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살맞아 죽는 사람이 많아요. 손자, 3대에 있어서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 선생님 가정에 별의별 요사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자, 읽어요.

말씀의 실제대상이 되는 게 문제

『얼굴은 지상의 모습처럼 둥근 사람은 둥글고, 긴 사람은 긴 대로 변하지 않지만, 지상의 삶에 따라 영계에 오면 얼굴 모습이 달라지므로 마음을 닦아서 천국에 오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질문 : 대담하거나 소심한 사람이 영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 : 대담 소심은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담함과 소심함에 관계없이 지상에서 천국에 오기 위해 노력하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눈이나 오관이 어떻게 뜻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 실제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듣고 보고 하는 것이 그걸 위한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혼독회 시간이 그리워야 돼요. 선생님 자신이 그러고 있어요. 혼독회 시간을 그리워한다구요. 내가 다 얘기한 것인데, 다 아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것은 천년 만년 생명의 요소라구요. 그런데 여러분은 시간만 있으면 꿈무늬를 빼 가지고 시간 몇 분 넘었

다 하는데, 그러면 저나라에 가게 되면 천막이, 베일이,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벽과 울타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밤을 새워야 돼요. 일생 동안 붙들고 읽더라도 맛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놓을 수 없어서 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할 텐데 출발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놓아두었지만, 이제는 전체가 돌아가야 돼요. 고향을 떠나서 본향 땅에 가야 돼요. 자, 읽으라구.

하나님 앞에서의 인사가 부부가 사랑하는 것

『..... 9. 사랑의 근본 의미. 사랑이란 글자 그대로 상대를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사랑에는 육체적인 육적 사랑, 무형의 영적 사랑, 신앙으로 인한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

정성과 마음, 모든 것을 퍼부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위하는 데서 사랑이 생겨나지, 자기를 위하라는 데는 파멸이에요, 파멸. 파멸된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1) 육적 사랑. 육적 사랑이란 남녀가 성적으로 맺어진 사랑을 말한다. 지상에서는 육체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부딪치면서 감성을 느낀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체가 없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지상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여기 천국에서 하나님께 가까운 약간 고급스러운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육적 사랑이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두 사람의 체는 완전히 일체가 되므로 지상에서 사랑으로 느끼는 그런 감성과는 달리 영육으로 완전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무아지경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고, 신비

의 세계에 접하는 것 같은 감성이다.』

부부가 사랑하게 되면 우주의 모체만큼 그것이 전부 투명하기 때문에 만물세계가, 새나 만물이 거기를 향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아침 햇빛을 모든 만물이 숭배하는 것처럼 딱 그렇다구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세계와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영원한 세계의 가치 내용을 지니는 것이 결정되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선의의 경쟁, 발전을 위한 경쟁 과정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보다 위하고 보다 투입하겠다는 관계를 가져서 만물 자체가 사랑하는 그 모체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새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만물까지도 전부 환영한다는 거예요.

상헌 씨도 그렇잖아요? 8년 만에 자기 여편네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러 들어가는데, 면사포를 쓰고 들어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와서 그 보이지 않는 내적 빛의 줄기가 자기를 감싸 줌으로써 신비경에, 황홀경에 들어가서 그런 놀음을 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것이 인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인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라구요. 그거 나오지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에게 면사포를 쓰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인사하는 자리라구요.

사랑 없이는 거동하지 말고, 사랑 없이는 그림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라구요. 사랑이 없으면 저나라에 그림자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의 빛이 전부 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참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상대에게 천태만상의 사랑의 기쁨을 주는 것이 부부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볼 수도 있다. 지상에서의 부부는 안방에서나 침실에서 주로 사랑한다. 여기 영계인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안방에서만 사랑하는 숨겨진 사랑이 아니다.

넓은 들에 만발한 꽃 속에서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대지 위에서도,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도 사랑의 행위를 한다. 새들이 노래하는 산 속, 숲 속에서도 사랑하는데 그것을 보는 이도 너무 아름다워 취하게 된다. 지상에서처럼 창피하다든지 수치스러운 듯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아름답게 느껴지며 평온한 마음으로 본다.

지옥의 한 장면을 잠깐 이야기하면 그곳은 이곳과 정반대이다. 사랑을 숨어서 하고 그것을 보는 이들은 욕을 한다. 추하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지옥에서의 사랑의 장면은 지상생활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게 이렇게 돼요. 거울에서 하나될 때 이렇게 된다고요. 대번에 알아요. 하나되면 여자의 마음속에 남자가 들어가고, 남자의 마음속에 여자가 들어가요. 마음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천태만상으로 상대 앞에 사랑의 기쁨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지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여기도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계를 깎아 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의 빛이 된다면 그 세계의 해당하는 것만 하나되지, 하나 안 된 분야는 반드시 자기 자체의 원형을 깎아 버리니만큼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우주 공간의 수수작용의 세계에서 천운이 쳐 버려요.

여러분, 병나면 왜 아파요? 우주가 쳐 버리기 때문이에요. 주체 대상으로 하나 안 된 입장에 있으니 그것을 반대로 몰아내기 때문에 아픔이 오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천운의 도수에 따라서 비교된 가치 기준이, 실체권이 얼마만큼 본연의 세계에 일치권을 이루느냐 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아픔이 병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주력이 몰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

위하면 위할수록 커지는 사랑의 세계

『.....3) 아가페적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에게 무한한 요소를 부여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주고 주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커지냐 이거예요. 이만한 것을 투입하게 되면 그 사랑의 상대가 나타나 이것을 받았으니 기쁨이 되어 사랑으로 느끼는 기쁨이 보태진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서 이만큼 투입했는데 아들의 사랑이 보태져 커지기 때문에 돌아오면 자극 받는 거예요. 점점 커간다는 거예요. 위하면 위할수록 큰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상세계, 물리세계는 입력과 출력을 보면 언제든지 입력이 크고 출력이 작다구요. 그렇지만 영계에서는 사랑을 중심삼고 투입하면, 투입한 열만한 사랑이 와서 실체대상이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 열만한 사랑에 플러스시켜서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열둘, 열다섯이 되는 거예요.

열다섯 사랑이 본래 사랑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부모님이 사랑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구요. 형제의 사랑이 늙어 죽도록 저나라에 가서도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태서 돌아오니 자극을 받는 거예요. 투입하고 잊어버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큰 사랑의 세계에 접할 수 있어요. 무한한 세계인 영계는 이렇게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확대 세계와 마찬가지로, 가중된 사랑의 환경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우주에서 자유 활동하는 거예요. 일순간에 몇억만 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대한 세계가 우리 생활 무대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해야 돼요. 만물이 환영하고, 산이 환영하고, 모든 것이 환영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주체적 존재, 그런 상대가 있으면 우주 전체가 따라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태양 빛을 중심삼고 북극 남극이 따라다니지요? 딱 그와 마찬가지로요. 먼 거리 추운 지방, 거기에 얼음이 있는 북극 먼 나라가 그렇듯이 딱 그와 같이 돼 있어요. 자, 읽으라구.

자기 주장이 강하면 하늘에 손해를 끼친다

『부부관을 바로 세워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믿어야 한다. 때로는 용서하고 화해도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체적 사랑으로 하나됨으로써 인류의 해방의 길이 열리게 되며, 영원의 나라에 지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 지옥이란 것이 있을 수 없고, 우리 인류에게 전쟁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근본을 잘못 알고 지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신음하는 지옥의 형벌이 생긴 것이다. 사랑을 사랑답게 가꾸자. 부부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근본된 본연의 사랑을 우리가 잘 가꾸고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삼고 볼 때, 대번에 알아요. 누가 자기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통일교회 최고의 간부들을 볼 때, 누가 자기 주장이 강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늘에 손해를 끼쳐요. 끝날에 가서 상대가 됐다 나갈 때 완전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하게 메워 줘요. 알겠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이거예요. 구멍이 뚫어졌으니 이 자체가 메워 줘서 소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언제든지 누구를 비판하게 될 때는 동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성격을 중심삼아서 전부 되어 있잖아요? 통일교회 최고 간부가 누구예요? 통일교회 하계 되면 선생님을 중심삼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간부라고 하면 세 가정의 아들딸이에요. 김원필, 유효원,곽정환이라구요.

거기에서 중심이 누구냐? 그게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제멋대로 결혼해서 타락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결혼하러 왔다가 약혼만 해 놓고 갔어요. 사랑했지만 가정을 못 이뤘어요. 그것이 신약시대예요. 성약시대는 정착이에요. 야곱이 21년 동안 탕감해서 정착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의 3차 7년노정, 즉 21년노정을 통해서 가정적인 정착을 한 거예요. 777가정부터 세계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삼 칠이 이십일(3×7=21), 그 시대부터 세계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곽정환이 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다 곽정환을 미워해요. 선생님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끝날이 돼요. ‘이놈의 자식은 뭘 했다고 몰라준다고 대가리를 흔들어?’ 하며 들이 까 버린다고요. 그러더라도 자기가 갈 길이 많아요. 선생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지상의 차이와 영계의 차이를 메워야 할 텐데, 그 차이를 자기 주장하면 못 메워요. 끝까지 영계에 가서라도 지상에서부터 갭이 있어서 메울 수 있는 조건이 남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 완전히 하나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갭을 만들면 들이 치는 거예요.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테스트해 봐요. 끝에 가서는 들이 죄겨 놓아요. 와서 ‘선생님, 많은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위신을 세워 주십시오.’ 할 때 ‘음, 그래?’ 하면 금 긋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들 그거 주의하라구요.

우리 아들딸들도 그래요. 받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 동생들을

대해서 마음대로 안 된다구요. ‘내 말 들어라!’ 하는데, 이놈의 간나 자식들! 개성이 강한 폐들이 가정에 혼란을 가져와요.

하늘나라의 기준에서는 남자가 정통

또 하늘나라의 전통적 기준에서는 남자가 정통이에요. 아기 씨를 가진 아버지가 정통이지 여자가 정통이 아니에요. 여자가 가문을 상속받는 법은 없는 거예요. 천상세계도 마찬가지라구요. 그런데 여자들이 잘났다고 해서 동생들은 바보라고 하며 ‘내가 아버지의 전통을 받겠다.’ 하는 그런 여자들은 사탄이에요. 해와의 대표자예요.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파괴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들딸 가운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런 아들딸을 높여 주면 안 돼요. 저 양반은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선생님 아들딸이라도 마찬가지라구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누가 어떻다는 것을 계열적으로 다 부모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원리 원칙을 중심삼고 아들딸이라도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여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등한 가치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리예요. 하나님까지 법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아들딸을 모른 척 할 수 없다구요. 통일교회 36가정이라고 법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대로 전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그러니까 보라구요. 세 아들 중에 광정환이 혼자 여기에 와서 있는데, 원필이니 3가정의 아들딸들을 전체적으로 부른 거예요. 야곱이 압북강가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가정적 이스라엘권을

책임졌기 때문에 곽정환이 축복 기반을 전부 넘어설 때까지, 미혼남녀 4억쌍까지 책임질 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구요. 곽정환, 알겠어? 「예.」

청평과 교회도 곽정환이 지시 하에 있어요. 암만 반대하더라도 이걸 때 버리면 전체가 무너져요. 그걸 부정하면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알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해서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중간패들, 외적으로 나가서 ‘젊은 세대인 우리가 주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외도하려고 설치는 녀석들이 많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최후에 완성한 축복을 다 해주고 다 상속해 주고도 더 상속할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상속을 받겠다고 끝까지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라구요. 선생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름 있는 자리에 내가 안 나서요. 그 말이 뭐냐? 이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포해야 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를 내세워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름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의 중앙에 앉겠다고 생각 안 해요. 후대를 위해서 밀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남긴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 꼭대기에 타고 앉아 있으면 올라갈 길이 있어요?

이번에 혼동회 할 때도 그래요. 세계 최고 정상들을 모아서 혼동 세미나를 할 때 사흘에 한 번씩 내가 가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이 앞으로 세계를 순방하더라도 기반이 다 연결되고 축적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다리를 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내 데리고 가야 돼요. 선생님이 가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곽정환

을 데리고 가 가지고 그 나라의 혼독회를 코치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 교회 가정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4차 아담권을 선포하고... 이제 내일이 지나면 시대가 달라져요. 내일 연두표어는 무슨 표어가 될 것 같아요? 모르지요? 6천년 4천년을 중심삼고, 섭리사를 중심삼고는 6천년이고 구원사로 보면 4천년 역사예요. 야곱으로부터 4천년 역사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때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제4차 아담권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줄 모르고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서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 차이를, 천지가 변화되는 것을 모른다구요. 그러니 언제나 선생님과 하나되지 않으면 변화된 환경을 따라 넘어갈 수 없어요.

보다 위하고 맞는 자가 승리하고 복을 받아

아무리 하이웨이(highway;고속도로)를 뚫았더라도 거기에 돌을 갖다가 막아 놓으면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나가던 길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돌을 놓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지금 혼독회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앞뒤에 걸리지 않게끔 말이에요. 그걸 믿고 그렇게 하겠다 할 때는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의 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혼독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이 말씀은 선생님이 혼자 말씀한 것이 아니예요. 이번 연두표어도 어제야 결정이 났어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사흘 전에, 끝에 가서 원리적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대로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더라도 마음대로 못 해요. 혀가 갈려요. 그걸 여러분은 몰라요. 그런 자리에 서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천기누설을 하면 천하가 뒤집어

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인사 조치할 때는, 같은 입장에 있더라도 양심적이고, 예배시간에 찬송을 열심히 하고, 현금한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는 사람을 중용해야 돼요. 선생님이 자기 몸뚱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노랭이예요. 식당을 가더라도... 선생님이 중국집에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데 가서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서 머무르면 소모되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휘익 가속도를 붙여 밀어 준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반작용 하던 힘이 밀었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해 쭉 올라서면 자기를 휘익 밀어 준다는 거예요. 휘익 밀어 줘서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앉았다가는 여기까지 못 오고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된 자리를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피해 가게 되면 올라갈 때 반대하던 힘이 거꾸로 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쁠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후퇴하는 거예요. 누가 현금을 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안 써요. 나를 위해서 한푼도 안 써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을 사더라도 뭘 사더라도 자기 것은 제일 나중에 사야 돼요. 제일 못사는 아들을 사 주고 난 후에 부모가 그걸 사겠다고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천년 만년 지나 한바퀴 돌면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게 자식이 밀어 주는 거예요. 점점 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법도, 천리의 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위하는 자가 승리하고, 보다 위하고 맞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 광정환이가 위한다고 하지만 천대받고 맞기는 싫어해요.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 하라고 했는데 저러고 있다구요. 자기가 유교사상의 전통을 받은 것이 원수예요.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이 그거예요. 때가 왔으면 체면이

고 무엇이고 없어요. 해치우는 거예요. 해치운다고 해서 나는 안 걸려요, 그들이 맞지. 꼭정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자, 읽으라구.

선생님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 심판받는 자리

『10. 지상인을 통한 영인들의 활동. 1) 지상인에 대한 영인들의 협조.』

조금 가까이 와요. 저기 다 들리는지 모르겠다. 「잘 들립니다. 스피커가…」 들리는데, 끝에 말이 잘 안 들려. 쪽 같이 들려야지. 처음엔 들렸다가 나중에 안 들리면 안 돼.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중심삼고 심판 받고 있어요. 심판 자리와 마찬가지로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자신이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장이 되어서 검사 논고를 통한 그 논고에 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내가 심판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실천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는 내용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 6천년을 총결산하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혼독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이것을 읽는 거예요. 내일이 31일이지요? 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읽어 주려고 그래요. 이것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그런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니만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하나되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차 이것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지상에 대해서는 내가 다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전부 다 행하고 했어요.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언제나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계에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자리라구요. 여기서 줄고 어찌고 할 수 없어

요. 눈뜨고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책들 다 사라는 거예요. 내일은 무엇을 읽는다고 해서 같이 읽어야 돼요.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읽어야 돼요. 10분 20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 읽지 않으려면 혼동회에 참석을 못 해요. 눈감고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참석하지 못해요. 여기에 참석 못 하면 얼마나 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들딸이라도 앞으로 참석 못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80세가 될 때는 선생님의 아들딸을 전부 다 세상을 내줘야 돼요. 세간 안 나갔다고요. 지금까지 통일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천릿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아래 가지고 오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옆드려서 세상 천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어. 엄마도 그거 똑똑히 알라구. 알겠어?

마음대로 하는 간나들은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 들어오면 들이는 거예요. 독수리도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어올라 오는 것은 꺼내 주고 안 올라오면 차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 가정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한 가지 특권이 있는 것은, 선생님의 아들딸은 장성기 완성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기 소생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이 관여 못 해요. 그건 부모님 마음대로 구해 주고 싶으면 구해 주고, 내버리고 싶으면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민들 전체가 환영해야 돼요. 전체 앞에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가진 것은 가치 있게 인정 못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선생님의 아들딸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와요. 사탄이 전부 빼앗겼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 오지요? 이제 선생님 뒤에 있는 아들딸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해방해 준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

앞에 잘못된 것은, 부모님이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은 자체가 탕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나라 부모님이 간 곳에 내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잘못된 아들딸에게 무슨 님 무슨 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효율이! 「예.」 바로 가라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 힘으로 할 때는 힘으로 하는 거야.

이제는 말씀집 전집을 훈독하고 소감문을 써라

이제 여러분도 읽어야 된다고요. 내일 누구누구 읽어라 하면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읽는 거예요. 이제 팔순 생일이 지나서는 훈독회 하는 책들을 다 사라구요. 우선 말씀선집을 훈독하는 거예요. 말씀집 280집을 훈독한다 하면 280집을 전부 다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석 못 해요.

집안의 조상의 훈시를, 회사의 사시(社示)를 사원들이 집에 붙이고 매일같이 그걸 보고 반성해야 할 텐데, 책은 책대로 놓고 있어요. 그런 천대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을 천대하는 녀석보다 더 못된 녀석으로 보는 거라고요. 말씀을 존중해야 실체가 대접받지, 말씀은 다 밟아치우고 실체가 대접받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금식을 해서라도 말씀집 전집을 다 사서 쟁여 놓아야 돼요, 축복가정들은. 알겠어요? 「예.」 지금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선집과 주제별정선 12권, 가외 출판한 모든 책을 전세계 사람들이 사 봐야 돼요. 여기서 이메일(e-mail)일로 해서... 앞으로 그래요. 어느 날에 어떤 말씀을 읽고 난 소감을, 이런이런 데에 있는 것을 읽고 소감문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감문을 보고 우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빼내야 된다고요, 세계적으로.

이것으로 앞으로 뭘 할 줄 알아요? 세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인물 선택 교본이에요. 선발 교본이에요. 이번에 306집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이것을 전부 다 사야 돼요. 300집을 아무 날 몇 시에 혼독회 한다고 하면 300집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안 가지고 오면 참석을 못 해요.

그 참석 못 하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영계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고 담을 넘고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길이 막혀요. 그 떨어지는 수가,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계열의 사람들이 발전을 못 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통일교회 사람들은 영계에 가서도 이것 한다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권 세계에는 공산권 세계의 무신론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여기에 다 있지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상에서 믿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요. 슬쩍슬쩍 해 가지고는 안 통한다고요.

선생님과 슬쩍 통한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본부에서 접붙이려고 해도 접을 못 붙여요. 슬쩍해서 접붙인다 해도 떨어져서 이게 돌게 되면, 한 바퀴 돌아서 '휘익!'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차 버려요. 지옥으로 차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저울질해서, 원리를 중심하고 수평 기준에 내가 어떻게 맞춰 살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자체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한 혼독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초등학교에서는 글을 배우게 하기 위해 큰소리로 같이 읽게 하는 거예요. 별의별 놀음을 다 하라는 거예요. 곽정환은 선생님의 말씀집 전집을 다 샀나? 「예.」 말씀집 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이놈의 자식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87년부터 주제별정선 12권을 만들었다고요. 주제별정선 말고 말씀집 전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별정선을 중심삼고 하지만 주제별정선에는 몇 집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박아 넣어야 돼요. 언제

한 말씀으로 몇 집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주제별정선에 나오는 문구가 전집 가운데 있는 것을 중심삼고, 그것이 미분명하다든가 하면 그것을 끌어다가 혼독해야 된다고요.

주제별정선 혼독회가 아니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밝혀 쓰고,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한국이 그렇게 안 돼 있지,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곽정환 회장)」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전세계적으로.

1년 365일을 중심삼고 거기에 관계된 것을 미리 정해서 혼독하는 거예요. 이제 2000년 혼독회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일원화시켜야 돼요. 그걸 매일같이 친구들과 회사 사원들을 중심삼고 ‘오늘 혼독할 말씀이다.’ 하며 혼독하는 거예요. 서로가 밥을 먹든 뭘 하든 시간만 있으면 토론해야 돼요. 잡동사니, 사탄의 말을 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점심때나 시간만 있으면 혼독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먼저 읽고 또 전체적으로 읽는 거예요. 내적 개인을 위한 생활과 세계를 위한 길 이 있지요? 자체 보호와 세계 보호의 이중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읽어 가고 전체적으로 읽어서 둘 다 보조를 맞춰야 돼요. 자기 가정에서 읽는 것하고 교회에서 읽는 것을 보조 맞춰서 혼련해야 된다고요.

앉아서 눈감고 졸고 그러면 사탄이 물어 간다고요. 하나님, 영계가 지금 이런 혼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결사적인데 졸 수 있어요? 영계도 시작하지요? 이제부터 원리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이 처음이라구요. 여러분 중에 이것으로 정성을 못 들인 사람은 저나라에 가서 혼독회의 끄트머리에 가서 앉아요.

원래는 부처끼리 다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독회에 남편이 참석했으면 아내에게 ‘오늘 혼독회 한 것은 뭐다.’ 해서 남편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읽으라고 해서 그걸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싸, 모를싸? 「알싸!」 대학교 교수고 무엇이고 전부 다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과 관계 없으면 전부 사기꾼이 돼요. 자, 읽으라구.

훈독회 시간은 자기 자신을 살살이 비춰 보는 시간

『..... 2) 영인들은 어떻게 협조하는가. 영인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해방받으려면 지상인을 통하지 않고는 고통을 면할 수 없다. 또 지은 죄를 벗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처소로 꼭 찾아간다. 자기의 혈육이나 관계된 이에게 찾아가서 계속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지상인이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환자가 생기거나 재난이 닥쳐오고 교통사고가 생기는 이변이 일어난다. 모처럼 그 원인을 알게 되어 후손들이 기도하거나 그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그 공로의 혜택을 입어서 자기 처소에서 조금 승진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전연 알지 못하면 계속 사고가 나고 죽고 또 사건이 터지면서 문제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크고 작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은 틀림없이 조상에게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기도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통일교회에 백만한 잘못이 있으면 80만한 잘못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교회 교인들이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다구요. 최후의 고개까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기준을 중심삼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진짜 아들이 되겠다고 해서 과거지사를 전부 다 이 훈독회를 통해서 청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절대적인 신앙을 하지 못한 과거를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복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없어진 자리에서 영원히 부모님만이 제일이고 절대라고,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중심이라고 해서 자기는 거기에 새로이 접붙여 가지고 그 진핵과 가지의 몸과 모든 씨앗의 근본 된 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접붙여야 된다고요. 접붙이는데 자기 요소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게 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데는 자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선생님의 원리 말씀을 중심삼고 자기 스스로 비판하는 거예요. 공판정에 선 검사의 논고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 나간다고 했는데 못했으면 비판을 받아야 돼요. 협법을 대통령이 지어 놓고 헌법대로 못했으면 뉘달을 당해야지요. 그런 입장에 서야 정의의 공판정에서 자기 자체가 정의의 인격으로 남아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심각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노라리꾼으로 왔다갔다 한다고요. 애들을 데려올 때는 12분 전, 10분 전, 7분 전에 언제나 참석하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하늘을 중심삼고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와서 정좌할 때까지 인사도 하고 그러려면 정식 시간을 까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엄정히 지켜야 돼요.

선생님은 그래요. 제일 부끄러운 것이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대중 앞에 용서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 공법의 시간을 놓치면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지금 이 혼동회라는 것은 여러분을 샅샅이 비춰 보는 거예요. 샅샅이 비춰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림자가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이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그림자는 지옥 그림자예요. 지옥 캄캄한 데라고요. 그 기준에 간다면 안 없어진다고요. 캄캄한 지옥, 그림자가 된 것을 대해 ‘그림자 치워라!’ 하면 대번에 드러나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

림자가 없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지옥을 안 찾아가려야 안 찾아갈 수 없어요. 전후 좌우가 명백히 드러나니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라 말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적당히 생활해 가지고 출세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번 나라에 대한 일도 그래요. 당리를 위한 모든 것은 물러갈 때가 왔어요. 국가 이익을 위한 당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어요. 국가보다는 세계를 위하는 당 주인이 선생님이예요. 선생님한테 붙지 않으면 다 망해요. 지금까지 8대 정권들을 중심삼고 자기들이 잘한다고 했지만 다 나라를 팔아먹고 이제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선생님의 말씀집 전집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전의 말씀, 1960년 전의 말씀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더 심각한 말들이예요. 통곡이 아니면 말을 못 했다고요. 선생님이 목이 메여서 말이예요. 그럴 것 아니예요? 하늘나라의 뭐라고 할까, 곡(哭)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곡. 누가 울어요? 누가 울어 줘요? 내가 울어 줘야 돼요.

울어 주는 그 기준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 완전한 마이너스는 완전한 플러스를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은 슬픈 골짜기 이상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내 등에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탕감복귀역사를 알겠어요? 「예.」

일생 동안 요만한 것도 자기를 중심삼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고 또 가도 다 못 갔으니 자면서도 내일 아침에 여기서 한 발짝 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남겨진 것, 한 발짝 연결되지 못하면 아침에 두 발짝을 떼어 출발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탕감복귀의 정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제 잘하고 과거에 잘했다고 ‘선생님, 나를 알아주소.’ 하는 이놈의

자식들! 통일교회에서 다 따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등을 파먹고 통일교회를 파먹던 별레 새끼들이 축복받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오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유정옥도 선생님이 인정한다고, 가만히 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빼서 외국으로 내보내야 돼요. 지금 통일교회에서 자기 생각하고 지적거리는 패들은 선생님이 보기 싫어요. 앞으로는 아무나 찾아오지 못해요. 정신차리라구요. 무서운 때가 온다구요.

영계에 간 통일교회 36가정의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심판관이 돼요. 축복가정들이 전부 다 심판관이 돼요. 4억쌍이면 4억쌍이 전부 다 심판관이예요. 그 앞에 지나가지를 못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틀렸으면 대번에 그 이상 못 가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자, 읽으라구.

말씀과 하나되어 있으면 하늘나라의 권속이 돼

『이때 심령기준이 얇은 점술쟁이가 해결하면 영계에 있는 영인은 잠시 위로를 받을 뿐, 자기의 고통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영혼은 위안이 되어 잠시 조용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영인들은 지상인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위치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인으로서의 삶의 고통이 심할수록 지상의 후손들의 삶은 어려워진다.』

탕감해서 다 풀어 줘야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역사시대의 모든 인류가 매어 놓은 것을 다 풀어 주는 거라구요. 풀어 주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부모가 책임져서 사탄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탕감조건을 세워서 넘어갔어요. 문을 다 열어 놓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는 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구요. 천국 생활에 있어서는 나머지 시간이 남아 있는 거라구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남겨 주고 가는 거예요. 법을 남겨 주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국법이 있어요. 국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리 국경을 넘더라도, 몇천 나라를 넘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법, 말씀 가운데 하나돼 있으면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무시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뭐예요? 증거서가 없는 거예요. 시민권이라든가 국가 증거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지금은 축복 천주화시대

『영인들이 영계에서 지상인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지상의 후손들을 찾아오지만, 지상의 후손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가는 길이 어려워지는 등의 어려움이 되풀이된다.』

종족적 메시아를 다 알지요? 종족적 메시아, 축복받은 가정은 야곱 가정과 마찬가지로요. 야곱 가정의 열두 아들, 모세시대의 72장로, 그 다음에 국가시대 예수의 120문도예요. 그리고 선생님 시대는 160가정이예요. 원래는 180가정이라구요. 180가정을 거느린 장(長)이 되어야 입적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세 아들에서부터 777가정, 삼 칠이 이십일($3 \times 7 = 21$), 777가정하고, 그 다음에 1800가정을 넘어서면서 9수에 들어가요. 7, 8, 9, 10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0쌍, 그 다음에 6700쌍이나 7000쌍, 7수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삼아서 10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수는 귀일

수예요. 9수에서 귀일수에 들어가는데, 그게 3만쌍 아니예요? 3만쌍 36만쌍, 이 산을 넘어가요. 그래서 최고 정상에서 해방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축복 세계화시대에서 축복 천주화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360만쌍과 3600만쌍, 3억6천만쌍, 4억쌍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산이 없어졌어요. 그게 평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해방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지상 위의 미혼남녀, 청소년이 남았어요. 이걸 다 축복해 주면 지상에는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논리가 벌어진다구요. 또 이미 자주적인 입장에서 해방권을 주었기 때문에 축복을 안 받았더라도 믿음의 세 아들이 대신 누가 되느냐?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이 믿음의 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천사세계에 축복가정들이 생겼다고요. 축복받아서 가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천사세계의 가정이니 가정을 중심삼아서 믿음의 세 아들 기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3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아벨 된 손자 앞에 절대복종해야 돼요. 복종 안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지만 어린아이들이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데 말이에요. 혼독회를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아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다 넘어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방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따라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축복으로 이어받은 축복가정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시대는 지나간다고요. '제4차 아담권 아무개'라고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상천국을 완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읽으라구.

『3) 지상인과 영인과의 관계. ……오늘날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중

죽적 메시아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대단한 특사이다. 나의 이름으로 내 조상들에게 기도하여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사요 특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복가정이 그렇다구요. 자, 읽어요.

『.....혈통이란 인연 때문에 좋은 것에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나쁜 것에 보내기도 한다. 지상인은 이것을 원리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며 영인들은 지상인들이 혼란을 겪게 해서 안 된다. 혈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른 삶이 되는 것이다.』

그만 읽으라구. 기도하자구요. 유정옥, 기도해요. (유정옥 일본회장의 기도) (녹음이 잠시 중단됨)

중국에서의 활동상을 주변국들에 알려라

「이것은 북경 사범대학 학생들입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순결서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범대학 학생들입니다. (석준호 회장)」
(중국에서의 순결운동 축복 등 활동에 대한 석준호 동북대륙회장의 보고)

「.....중국의 최고 학술단체가 중국 사회과학원입니다. 지난번에 거기의 학자들에게 알맞게끔 우리가 논문을 써서 10개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원리와 통일사상, 성약시대의 말씀을 중심삼고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사회과학원에서 출판하기로 해서 1월에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그 동안의 모든 활동 내용을 앨범으로 만들라고 하셔서 지금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석준호)」

앨범도 만들고, 비디오로도 만들어요. 중국에서 활동하게 되면 중국

의 주변국가, 열세 나라가 주변에 붙어 있거든. 그 나라들 전체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한테 빼앗겼다는 것을 선전해야 된다고요.

미국에는 세계적인 사관이 없어요. 세계관이 없어요. 공산당은 세계 제패라는 관이 있었다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들지요. 이것을 양창식은 참고하라구. 「예.」

「아버님, 이것을 벌려 놓았는데 사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 그래. (사인하심) 「감사합니다.」 (박수) 「아버님, 어제 저녁 늦게 김중수 회장(코스타리카)한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김효율)」 읽어 보라구. (보고서 낭독)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말씀의 실체권을 어떻게 완성하느냐가 문제

그래, 오래 된 사람이 있으면 다 내보내라구요. 그게 사는 거예요, 훈독회 교육보다도. 옛날에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얼룩덜룩해 가지고 흐린 물같이 건더기가 많아요. 여과장치를 해야 된다고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미국도 그래요. 전부 이제 배치해야 된다고요. 마을까지 전부 다 배치해야 된다고요.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이제 바쁜 시대가 왔어요. 선생님이 영계와 육계를 통일해 놓았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를 통일한 것이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훈독회의 말씀이라구요. 앞으로는 영계나 육계나 매일같이 선생님 말씀을 중심삼고, 훈독회 내용을 중심삼고 토론회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독보회(讀報會)를 하는 것같이, 노동신문이면 노동신문을 중심삼고 독보회 하는 것같이 매일 해야 돼요.

하늘땅이 그것을 중심삼고 모든 전부가 말씀의 상대, 말씀의 실체권

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구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충고해야 되고, 여편네가 잘못하면 남편이 충고해야 돼요. 상하 고저가 없어요. 부모님 앞에 형제니까 형제지권에서 충고할 수 있는 때라구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한 사람이 나와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훈독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50년 전에 한 얘기가 그거라구요. 매일같이 평준화 교육이예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중심삼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해서 영계를 보고 조상들을 만나서 영계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통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의하고 그래야 직접적으로 영계나 육계가 연결되지, 자기 생각이 접해 들어가면 통하지 않아요. 막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거라구요. 자기들의 개념이 들어가서 무슨 대학원을 가고 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인정 안 해요. 그런 시대로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독회를 하루 종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미지의 세계를 알려는 사람이... 세상으로 말하면 금광, 다이아몬드 광을 전부 다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걸 알고 거기에 관심 가지면 대번에 상대적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세계의 어디든지 가더라도 상충이 없어요. 쑥 끌려나가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앎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환영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요. 영계에 가서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부처끼리 앉아서 그 놀음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삼고 기뻐하고, 거기에 실체적으로 영계가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 둘이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만 하면 모든 만물이 환경이 되어서 환영하는 거예요.

날이 더우면 더운 환경이 되잖아요? 사랑이 빛의 근원이니만큼 사랑

의 마음을 가지면 환경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거기에 하나되는 거예요. 이 순들도 전부 다 보고 느끼는 거라구요. 앉아서 동산이 다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앞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 무한대의 천상세계 지상세계와 통할 수 있는 거라구요. 이 공간세계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무한 세계의 존재들, 그 내정을 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상대이상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만물이 사랑 앞에는 전부 다 지남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주의 존재 전체는 참사랑 앞에, 참사랑이 큰 플러스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모든 존재는 마이너스 상대가 되니 종별에 따라 입력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닿기만 해도. 참사랑의 환경만 되면 조그만 물건이라도 큰 물건으로부터 자기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될 때 오늘날 우리의 세포들이 대응적 관계에 있어서 천국을 이룰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4백조 개나 되는 세포가 만 우주 모든 전체와 대응적 상대관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싫으면 관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외로워요. 무한대의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안 후에는 너무나 짧은 생애라구요. 뭐가 그립고 뭐가 좋아요? 꿈같은 거예요. 하루에 지나가는 꿈이에요. 꿈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를 소유로 받아 그 세계에 가면, 이 세계는... 야기 배꼽 줄에 달린 태를 말려 가지고 부모들이 항아리에 넣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와 딱 마찬가지로. 게를 봤어요? 게가 허물을 벗으면 그냥 그대로라구요. 가만히 엎드려서 사는 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게 어떻게 쪽 빠져 나오는지 참 신기해요. 죽은 사람이 딱 그거예요.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뱀도 1년에 다섯 번씩 허물을 벗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허물 벗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으로 시종여일해서 개인완성하여 가정완성해야

다들 오늘 안 가도 괜찮아요? 아까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을 혼독했는데, 우리 혼독회 하자구요. 가져오라구. 양창식, 읽으라구. 많이 읽는 사람이 많이 듣는 사람보다 나아요. 내일까지 전부 끝내려고 해요. 자기들이 어떤 영계에 갈 것인가를 알고 가야 되겠다구요. 저것을 앞으로써 나는 어떤 영계에 가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중간영계 라면 중간영계도 여러 급이 있다구요. 저 책을 보면 예수가 있는 곳, 석가가 있는 곳, 공자가 있는 곳, 마호메트가 있는 것이 다르지요? 마호메트가 그 중에 제일 낮은 데에 있어요.

이번에 영계의 사실이 소개됨으로써 그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에 태국에서는 왜 선생님이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했느냐고 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모르고 가면 큰일나요. 여기에서 옮겨지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지금까지 불교에서 믿던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은 결가지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앞으로 큰 나무 줄기가 생기면 결가지가 오래 되면 썩는다구요. 결가지를 밟고 올라가서 차 버려야 돼요. 따 버리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요? 불교나 통일교회나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아까 읽었던 데를 계속해서 읽어요. 「제3장 ‘원리로 본 영계의 삶’입니다.」

『제3장 원리로 본 영계의 삶. 1. 주체 대상과 영계법. 1) 주체』

만유원력은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근본의 힘이라고 그랬다구요. 원리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2) 대상. 대상의 힘은 주체로부터 받고자 하는 근본 된 힘을 받음

과 동시에 돌리고자 하는 힘이 스스로 발광체처럼 일어나야 한다...』

말씀을 중심삼고 하나돼야 돼요. 이 말씀을 중심삼고 하나돼야 될 텐데, 하나 안 되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이 여기에 붙었다 하면 여기 차이난 만큼 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시종여일(始終如一)해야 된다고요. 개인시대의 몸과 마음을 중심삼고 수직관계는 양심적 기준인데, 개인적 완성이라는 것은 마음 기준을 중심삼고 시종여일해서 여기 딱 위에 올라붙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올라붙는데 이 종적 기준을 중심삼고 개인시대면 개인시대 요것 딱 해서 시종여일해서 올라붙어요. 가정시대로 올라가는 데는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은 이 운동의 연장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돼야만 개인에서부터 완성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을 따라 올라간다고요. 알겠어요? 다른 데는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시대에 해서 가정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시대에 여기하고 하나되어 종족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는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반드시 시종여일해서 개인 완성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체 대상,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그 다음에 가정시대로 가려면 반드시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正)인 하나님으로부터 분(分)돼요. 정분합(正分合)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합으로 돌아가 하나돼야 된다고요.

올라가는데 개인적 완성을 하면 그 위에 수직이 되는 것이 가정이예요. 가정의 완성도 전부 다 하나되어서... 이것도 삼대상으로 정분합작용이예요. 하나님을 중심삼은 몸 마음이 정분합작용을 해요. 여기에서 하나된 이 기준을 중심삼고 뺏어가서 완성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 인격 완성, 이와 같이 돼서 이 가운데로 되어 연결된 여기에 비로소

여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완성된 것이 여기 중앙에 들어와서 하나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나된 것이 쪽 내려와서 그 기준을 통해 여기에 와서 비로소 하나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이에요. 삼대상 주체와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분합작용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침에 얘기했던 일심정착(一心定着)이에요. 비로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정착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주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강론》에 만유원력은 뭐냐 하면,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근본적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가 그래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구요.

4대 사랑을 완성한 가정이 우주의 중심

『그러므로 주체와 대상은 잘 주고 잘 받기 위하여 근본적 힘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세계는 모두가 주체와 대상의 힘에 의하여 생겨나고 있으므로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지 않으면 모두가 파멸이다.』

그래서 일심통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판서하시면서 말씀하심)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만물의 사랑,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삼고 정착하는 거예요. 1차 정분합작용, 2차 부부관계, 3차 정분합작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가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결론이 있어야 된다구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정착하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4) 영계법은 원칙 그대로이다』

몸 마음, 부부는 여기와 하나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대해 원형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다 연결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이 되기 전에 아들딸이 나와야 전부가 벌어지는 거예요. 1, 2, 3, 4 표시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만물의 사랑이에요.

이 만물을 먹어야 돼요. 태어나서 만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1이 하나님이고, 2가…」 맨 처음이 정(正)이에요. 남자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이성성상이지요? 하나돼야 된다고요. 여자도 이성성상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하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부부가 하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합하니까 구형 전체, 1, 2, 3, 4,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평면적인 면에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만물의 사랑이에요.

남자 여자, 그 중간을 통해야 돼요. 그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데, 그 하나된 입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타고 내려와요. 하나님이 타고 내려오는데 여자 남자가 하나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여자 남자가 하나된 사랑이 저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 꼭대기부터 내려와서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삼대상목적 기원을 통해서 그 중심을 연결시키면 그것이 중심에 정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가 결합하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자녀가 안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 다 없어진다고요. 그래, 제일 문제가 참사랑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혈통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해요? 「참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사랑과 혈통이에요.

참사랑은 변할 수 없고, 혈통은 부모가 다름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핏줄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요. 핏줄 가운데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에는 생명의 씨가 연결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뭐냐? 혈통은 영원하지만 한 생애는 간단해요. 그러니 육적 세계가 갈라져 있다구요.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현실세계고 하나는 영원한 세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원형은 뭐냐 하면, 사위기대 형태가 전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중앙부, 중심부예요. 이게 구형이에요. 구형이 되려면 이게... (관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심.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만물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주의 근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완성을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대신 조상을 잘 섬겨야 되고, 부부끼리는 하나돼야 되고, 부부가 부모 되면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 핏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생명·혈통 중에 혈통이 뿌리

제일 중요한 것이 핏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수많은 조상들이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남긴 것이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민족이라고 안 하지요? 생명 민족이라고 안 하지요? 혈통을 통해서 민족이 벌어지는 거예요. 핏줄, 거기서부터 세계가 벌어져요. 개인에서 가정·종족·민족·국가로 핏줄이 퍼지지 사랑이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시대 그 시대에 있어, 나무로 말하면 매해 꽃이 피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해 꽃필 수 있는 혈통이 뭐냐 하면, 나무

의 삶 자체예요. 핏줄과 더불어 하나되어 핏줄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생명으로 혈통을 통하게 되어 있는데, 혈통을 중심 삼고 보면 여기서부터 생명이 발생하고, 사랑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생명이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주의 모든 내용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거 알겠어요? 「예.」 사랑·생명·혈통인데, 혈통이 뿌리라고요. 생명이 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둘이 뻗어 나가다가 가지가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크느냐? 지상에서 보게 되면 혈통이에요. 혈통을 통해서 개인이, 가정이, 자녀가 벌어진다구요. 물론 거기에는 부모의 생명과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돼 있다구요. 하나님의 참사랑과 혈통이 우주를 창조했다구요.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났다는 거예요. 이성성상을 안 닮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물도 이성성상, 식물 동물도 이성성상이예요.

참사랑하고 뭘 남겨야 된다고요? 「혈통을 남겨야 됩니다.」 자녀가 혈통이에요. 그래서 자손만대로 뻗어 나가요. 그것을 중심삼고 가정이 벌어지고, 종족이 벌어지는 거예요. 커 가는 거예요. 세계가 벌어지고, 우주가 벌어진다구요. 이것이 한 줄기예요. 한 줄기라고요. 맨 근본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씨와 같아요.

이런 원칙을 두고 볼 때, 부부끼리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후손이 달라져요. 다른 세계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세계를 대신한 혈통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혈통만 바꾸게 된다면 주인이 달라지고 죄우의 체제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사탄세계의 반대되는 혈통을 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에 반대되는 혈통을 세웠어요. 복귀는 그 타락한 세계의 반대로 해야 돼요. 180도 반대예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완성하지 못하면 천상세계에서 막혀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구요. 3대 정분합작용이 연결돼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사랑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열두 문이예요. 상하전후좌우로 쪼개게 되면 열두 문이예요. 열두 문으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문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 가서 안식할 수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쪼개면 열두 개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수와 4수, 7수가 우주의 근본이예요. 이렇게 해서 죽 발전해 나간다고요. 3대면 삼위기대, 이 삼대상목적의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가정 하나를 완성 못 하게 되면 천상세계의 모든 것이 막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의 사람은 그 개방되지 않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완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부모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혈통을 다시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어떤 자리에서 창조했느냐? 절대신앙 위에서 지었어요. 내가 말하면 된다,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상이예요. 영원한 사랑의 실체를 지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짓기 전에 사랑이 앞서야 되고, 사랑으로 짓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큰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주인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은 자기보다 더 가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본성을 다 투입하고 더 투입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더 큰 존재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낮기를 바란다

사랑의 대상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더 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더 좋은, 더 큰 중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동물세계 식물세계가 노력해요. 새로 말하면 철새가 있고, 고기로 말하면 대표적 고기가 연어예요. 코디악의 연어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결혼하는데 자기가 온대지방 사람이면 온대지방의 사람하고 결혼하면 점점점 약화돼 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벌려야 된다고요.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돌아가야 한번 순회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북극에 있는 백곰하고 남양에 있는 흑곰이 결혼하게 되면 우수한 브라운 베어가 나온다구요. 백곰은 수렵시대를 상징해요. 수렵시대, 농경시대, 열대권 시대, 이렇게 나오거든.

플라 베어(polar bear;북극곰, 흰곰) 하게 되면 북극에 사는 베어고, 블랙 베어(black bear;흑곰) 하게 되면 열대지방에 사는 베어예요. 브라운 베어(brown bear)하게 되면 온대지방에 사는 베어로 황인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인종이 브라운 베어적이기 때문에 강해요. 황인종이 최후에 전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브라운 베어는 강하다구요. 추운 지대에서도 지낼 수 있고, 열대 지역에서도 지낼 수 있어요. 이 두 세계를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백인으로 와서도 안 되고, 흑인으로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황인종 메시아가 와야 하나 만든다 이거예요. 북극곰이 바라는 블랙 베어를 찾으려면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플라 베어가 제일 원하는 것은 브라운 베어예요. 브라운 베어가 있는 곳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요. 그곳은 8개월 이상이 얼어붙지만 이쪽에는 7개월 8개월 동안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곰은 브라운 베어를 원해요. 또 브라운 베어는 흑곰한테 가야 돼요. 흑곰은 사시장철 농사도 안 짓고 열매만 따먹거든. 그러니까 백곰은 브라운 베어, 브라운 베어는 흑곰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문명은 남미를 중심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천리 원칙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쌍을 맺을 때는 잡아서 안 돼요. 사랑할 수 있게 길러 줘야 되고, 그럴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동물의 집도 지어 주고, 새끼도 기를 수 있게끔 해주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들딸이 번창한다구요. 만물을 사랑하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 얼마만큼 좋고 나쁜냐의 차이에 따라서 당대에 어떤 아들딸이 나오느냐가 결정돼요. 아버지가 생긴 것과 어머니가 생긴 것이 합해서 좋은 분야가 몇 퍼센트, 나쁜 분야가 몇 퍼센트냐 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아들딸이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 원칙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안 하면 하나될 길이 없어요.

참사랑으로 주고받으면 발전하고 크게 되어 있어

참사랑이 뭐냐? 이 종적인 사랑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뭐냐? 발전하게 되어 있다구요. 크게 되어 있다구요. 한 바퀴 돌면 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시대에서 가정시대, 가정시대에서 종족시대가 되려면 올라가서 더 큰 것을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것에 대한 소원을 무엇이 일으키느냐? 가정에 서게 되면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그 가정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입장에 서면 여기는 진공 상태가 돼요. 알겠어요? 진공 상태에서 백만한 것을 보내 줬으면 여기서서는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만한 상대가 투입한 자체에 의해 150만한 실체가 되더라도 백만한 본래의 사랑의 힘에 50의 사랑의 힘이 가해져 가지고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은 따먹거나 뜯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참사랑에는 반드시 발전하고 증식돼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백만쯤 사랑했으면 자식이 그 백만한 사랑 위에 가치를 치는 거예요. 가치를 치거나 꽃이 피든가 하면 그 다음에 120만한 사랑이 돌아와서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더 크게 주려고 하니 이게 커 나가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커진 것은 열매맺지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서 발전하는 거예요.

개인시대 시종여일, 그 다음에 올라가는 데는 다른 데 올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라구요. 올라가야 힘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위한 세계에서는 이걸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올라가면 커지는 거예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서 올라가고, 커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를 중심삼고 개인시대가정시대-종족시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가정이에요. 남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상과 지상 인류 전체를 합한 남자예요. 여자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지상의 전여자를 합한 여자예요. 왜 그러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개인에서부터 우주까지 연결시킨 사랑의 발전 원칙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대표하고 보다 큰 것을 대표할 수 있게끔 투입하고 투입해서 최고의 이상 기준까지 하나님이 투입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스톱이에요. 80만 위하면 100까지 못 올라간다고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입장에서 자꾸 커서 최고의 기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수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 가운데 소생·장성 8단계, 여기서 90각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중심 삼고 커 가는 거예요.

이걸 꼭 누르면 이것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의 모든 중심은 여기에요. 중심은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8단계를 돌아와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수직 운동이 있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세상에 이 종적 순환이 연결되어 나옴으로 말미암아 횡적 세계는 자동적으로 부체(副體)가 된다고요. 그래서 몸 마음이 하나된 형태의 세계형, 인류 완성의 한 형상 실체권으로서 전개시킨 것이 우주 창조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매를 맞더라도 참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마음대로 하고 남자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미치광이들이에요. 돌아가다가 외도하는 거예요. 흑이 있으면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붙은 데는 이렇게 컸는데 둥그렇지 않고 외도한 데는 그만큼 차이가 나니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계의 하층 영이 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정도를 통하면 둥그렇게 될 텐데, 길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길쭉한 영계에서 길쭉한 환경에 걸맞은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적으로 된, 공식화된 생활 표준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1년에 몇 번이나 싸움하느냐 이거예요. 1년이면 1년을 정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오(○) 엑스(×)를 하는 거예요. 달력에도 기수(奇數; 홀수)와 우수(偶數; 짝수)가 있지요? 어떤 것이 플러스예요? 기수가 플러스예요, 우수가 플러스예요? 초하루, 3일, 5일, 이렇게 나가지요? 기수는 플러스고, 우수는 마이너스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끼리 싸워 가지고 남자가 기분 나빴으면 엑스 하라는 거예요. 우수에 여자가 나빴으면 엑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누가 더 잘못됐느냐 해서 통계를 내 봐서 남자에게 엑스가 많게 되면 여자가 잘못된 거예요. 여자가 엑스가 많게 된다면 남자가 잘못된 거예요. 기록을 내리는 거예요. 1년에 몇 개냐 하고 말이에요. (웃음)

이거 웃을 일이 아니예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상대기준에서 수평화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수가 재료가 돼요. 그렇게 되면 몽둥이로 두드려 갈기더라도, 여편네가 두드려 맞더라도 눈빛이 달라지고 코빛이 달라지고 오관이 달라져서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맞을 수 있는 건더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들이 찌서 여과 장치를 거쳐 그것을 뽑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을 때려서 그렇게 하면 암만 때리라고 해도 더 안 때려요.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때리더라도 때리는 사람이 기운이 빠져요. 한번 혼내고, 때리는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기를 바라는데 안 그렇거든.

내가 그것을 체험한 것이 뭐냐? 우리 어머니 성격이 대단해요. 이놈의 자식이 뭘 하라는데 말하는 것을 가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이라든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부모가 훈시한 대로 손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회개해야 된다고,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자식이 뭘 잘못했느냐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성격이 어떠냐 하면, 채찍을 들었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그런데 나는 어디 굴복시켜 봐라 이거예요. 한 시간, 두 시간 맞고 뺨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어머니한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때리라고 해도 ‘아이구, 제일 무서운 것이 저놈의 자식이다! 또 뺨으면 어떻게 되노?’ 이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편하고 같이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맞아 보면... 타락한 세상의 여자가 아담한테 뺨이라도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타락으로 천지를 뒤집어 놓았으니 하나님한테 구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놈의 머저리 같은 사내야, 그것을 가만두느냐? 코를 꿰든가 뭘 하든가 들이 패서 죽겠다고 달달 빌면서 사지가 다 오그라들더라도 행복을 받지 잘못했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가 남편한테 세 번은 쥐어 터지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든 살이 떨어지게 맞더라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해, 그렇게는 못 하잖아? 그런 것을 못 견디지? 그러니까 그 경지 이상 못 가. 언제나 김병우 앞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뒤에 가야 돼. 뒤에 가는 것은 여자예요. 남편이 앞고 나서 뒤로 옮겨가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뒤로 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알아요?

또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도 여자한테 한 대씩 맞아 보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맞아야지요. 여편네는 어머니 대신, 할머니 대신, 누나 대신 아니예요? 동생의 자리에서 잘못했으면 ‘이놈의 자식!’ 소리를 들으며 매를 맞아야 돼요. 동생보다 못하고, 손자보다 못하고, 3대에 걸쳐서 누구보다도 제일 나쁜 것이니 할머니한테 매 맞고, 엄마한테 매 맞고, 누나한테 매 맞아야지요. 후려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이상 해 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그 고개를 넘으면 해방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서로 서로가 몽둥이 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감봉 의식의 의미

탕감봉 의식이 그런 이치라구요. 알겠어요? 탕감봉을 또 들고 싶어요? 원래는 궁둥이 살을 후려갈겨야 돼요. 피멍이 들어서 음부까지 그것이 흘러야 돼요. 제일 낮은 데가 거기니까 그리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음부까지 반응적인 피멍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돼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뭘 잘못 써서 타락했다구요? 「환도뼈입니다.」 환도뼈! 환도뼈의 살은 없어도 되지만 뼈는 부러지면 안 돼요. 그것이 탕감봉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최고의 여자 레슬링 챔피언, 남자 레슬링 챔피언이 한 대 때린 기록이 있으면 미터기에 기록이 얼마라고 해 놓고 그 이상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때리게 하는 거예요. 탕감봉이 세 대만이 아니예요. 열두 대까지 치라는 거예요, 피멍이 들게끔.

그러면 궁둥이가 날아가고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나쁜 놀음을 하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궁둥이를 까기 전에 벌써 그걸 알아요. ‘아이구!’ 그런다는 거예요. 탕감봉 역사가 그렇다구요.

오늘날 이 세상은 여자들이 남편한테 들이 맞지요? 세상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지 않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박정해는 통일교회에 들어왔으니 때리지 말라는 것이... 선생님이 할 수 없이 가면(假面) 선생님 시대가 있어요. 가면 선생님 시대에 가면을 중심삼아서 도깨비같이 함부로 취급했지만, 올라가서 복귀해 양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탕감복귀하는 데는 사탄보다도 더 무서운, 도깨비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데서부터 복귀해 나가는 거예요. 사탄을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무자비해요. 백 번, 천 번을 해도 양보 안 해요. 그걸 안다구요. 혼났으니까 벌써 안다구요. ‘저 녀석은 대단하지.’ 하는 거예요. 밑창에서부터 세상의 왕 노릇 해먹던 것을 묶어서 쫓아 버렸기 때문에 개인시대를 빼앗기고 가정시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완전히 묶어 버리면 가정시대에 못 올라가거든. 그러니 끝에 경계선에 가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가정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종족시대예요. 8단계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복귀완성 시대, 마지막 권 시대에 온 거라구요. 세계를 탕감복귀해서 부모님이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돼요. 여기도 운동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직 둘이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물론 그림자 세계에 내려와서 붙어서 종적으로 운동하면서 이걸 당겨 줄 수 있는 횡적 운동을 해 가지고 종횡의 운동을 가려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제3차 세계대전은 사상전이에요. 1차대전은 독일이 일으켰지요? 누구를 중심삼고? 카이저를 중심삼고. 그때도 16개국이에요. 독일을 중심하고 16개국이 싸웠다는 거예요. 2차대전 이후에 유엔시대에 있어서 16개국이 연합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싸운 거예요. 16수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동란에도 16개국이 참전했어요.

판문점이 철문점을 거쳐 금문점이 돼야

한국에 16수를 중심삼은 유엔군이 진주했다는 것은 하늘땅의 결판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판문점이에요. 사탄의 참조권과 하나님 편이 불

는 거예요.

원래는 금문점(金門店)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판문점이 없다는 거예요. 금문점으로 시작해야 할 것인데 없으니 할 수 없이 판자대기 문, 그 다음에 철문을 통하는 거예요. 철문이 통일교회예요. 판문점은 사탄의 문이에요. 철문점(鐵門店)을 중심삼고 내가 이걸 조정 안 하니 판문점에서 금문점으로 못 올라가요. 망하는 거예요. 철문점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 광정환? 「예.» 무슨 점이 있어야 된다고? 「철문점입니다.」

사탄의 문이 판문점, 나무대기 문이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철문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문점입니다.」 3단계가 벌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철문점이 지금 없어요. 송가가 왔구나. 송 뭐야? 왜 나오나?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 「저… (송병준)」 앉으라구. 「경배를 대표해서 드러야 되겠습니다.」 경배는 했어. 가만 있으라구. 앉으라구. 떡을 줄지 말지 한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겠다고 해? (웃음)

그래, ‘송(宋)’ 자가 뭔지 알아요? 갓머리(宀)에 나무 목(木)이에요. 갓머리는 편안한 집을 말해요. ‘편안할 안(安)’ 자는 갓머리(宀) 아래 계집 녀(女)예요.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사고 패예요. 여자가 콧노래, 눈 노래, 입 노래, 귀 노래, 발 노래, 팔 노래, 몸뚱이 노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되어야 편안한 거예요.

‘송’ 자는 문 가운데 막대기예요. 내가 송장로를 사랑했어요. 송장로가 애국정신이 투철하다구요. 일본하고 원수고 공산당하고 원수예요. 내가 송가를 신문사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북 5도 민회 회장이 되라고 내가 활동 비용도 준비해 주었다구요. 이번 28일에 다 끝났지? 「예.» 5도 도민회 회장은 누가 되느냐? 이북은 평안북도가 가장 커요. 평안북도 도민회 회장 하는 사람이 이북 5개 도의 책

임자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 총책임자예요. 이번에 이 사람이 북한 대통령과 같이 됐다구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판문점에 섰는데 판문점 막대기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주의가 없어요. 여기 판문점 막대기 뒤에는 내가 있어요. 또 현재 이것은 판문점격이에요. 가인적 판문점이에요. 이 가운데 철문점이 생겨났으니 이것과 하나되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끼익! 이것을 반대하다가는 현정부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때가 그런 때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나, 이 녀석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잘 까라는 거예요. 철문점이 판문점 될 수 없어요. 정신차려야 돼요. 알겠나? 「예..」 현정부가 전부 문을 열고 바람잡이 화냥년, 굶주린 왕자와 같은 입장에서 발가벗고 헤헤 웃으면서 ‘아이구, 나 좋아라.’ 하고 있다구요. 궁해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타고 앉아서 벼락을 맞히자 이거예요. 내 말을 알겠나? 「예..」 송서방! 「예..」 송서방이야, 송망방이야? 서방이 뭐예요? 글방이라구요. 과거를 봐서 가문을 지키기 위한 서방이라구요. 송서방은 그걸 알아서 절대 판문점을... 거기를 타고 춤추다가는 망해 버려요. 알겠어?

무슨 점부터 타야 된다고? 철문점! 그 다음에 뭐라구요? 「금문점입니다.」 금문점이 돼야 돼요. 금은 굳지 않아요. 강철에 금이 3분의 2가 들어가면 참 좋다는 거예요. 만년 간다는 거예요. 쇠까지도 썩지 않아요. 그런 뜻이 있다구요.

정부를 찾아다니지 말고 교육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 누구처럼 발가벗고 헤헤거리며 와서 돈주고, 출세시키고, 통일교회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보호 필요 없어요. 뭐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로 어려운 통일중공업을 도와줘? 통일중공업을 안 도

와줘도 괜찮아요. 그 몇백 배, 몇천 배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구요. 임자의 후원 받을 아무런 무엇이 필요 없어요. 정부와 하나되기를 원치 않아요. 알겠나? 「예.」

실향민,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에서 남쪽 나라로, 애굽에 들어왔어요. 사탄세계의 경계선을 넘어 애굽에 왔던 것인데, 환고향하기 위한 이때가 지금까지 선생님의 40년노정이에요. 가정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넘어서 통일천하하는 거예요. 이젠 이북이 말 안 듣게 되면 선생님을 중심삼고 오래 안 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해는 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지금 몇 살인가? 「일흔다섯이 됐습니다.」 일흔다섯이면 살 대로 살지 않았어? 거리에서 매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면 다 된다구.

‘송서방, 이북 5도 대장이 매 맞아 죽었다! 신문사 사장이 매 맞아 죽었다!’ 해보라구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상적인 최고의 기관이 언론기관이에요. 사상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것이 언론기관이라구요. 그것이 3권 분립이 아니예요. 4권 주체성, 분립이 아니고 4권 통합시대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론기관을 만들어 왔어요. 방금 4권 뭐라구요? 통합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리예요. 심판할 때 말씀 을 가지고 하지요? 헌법, 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정의의 판단을 가지고 전부 다 정리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라구요.

지금까지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거지 바가지 모양으로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구. 알겠나? 「예.」 자기는 찾아다니지 말라구. 교육해야 돼, 교육. 김일성을 소화하고 민주세계를 소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적 사랑을 중심삼고 종대에 깃발을 꽂아야 돼요. 종대 우리나라라는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깃발이 휘날리는 나라에서부터 아시아의 깃발, 세계의 깃발을 누가 꽂느냐? 선생님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 끝내야 돼요.

1997년서부터 2003년까지 7년간이에요. 내년 6월, 7월을 넘어설 때까지 대한민국 국가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구요. 정신 안 차렸다가는 난동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만큼 위험성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제일 반대 자리에 있을 거예요. 판타날에 가 있는지 로키산맥,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정에 올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을 알고, 이번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구요. 이 기간이 6천년 막을 내리는 때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인간들한테 문화사를 중심삼고 가르친 6천년사를 막을 내리는 거예요. 문화적 섭리사가 6천년이에요. 6천년만이 아니라 몇천만 년이에요.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평균화되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수평이기 때문에 몇만 년도 괜찮아요. 문화사를 중심삼고 섭리사에 착지할 수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삼고 예텐 시대부터 하나님의 섭리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6천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외는 전부 다 같으니까. 그래서 큰 바다같이 세상이 전부 다 수평이라면 같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6천년사가 넘어가는 때고, 그 다음에는 4천년 섭리사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는 7년을 중심삼고 7천년 수, 섭리사의 7천년, 역사의 7천년, 6천년을 중심삼고 천년을 떼워 나갈 수 있는 때예요. 새 천년을 하늘의 6수에 붙여서 새로운 천지로 계대를 잇기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선포한 거예요.

섭리적 7개국 정상들을 모아 훈독회를 하면 해방세계가 돼

제4차 아담권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딸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딸은 천지간에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의 끝에 가더라도 아들딸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이 천지의 어디 가든지,

영계의 어디 가든지 선생님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지상도 영계도 선생님의 휘하에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는 밤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명이 안 됐다고요. 여명이 되는 날에는 천지가 알기 때문에 일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명의 시간을 유치하기 위한 놀음이에요. 맨 밑창에서부터 탕감 복귀해 올라와서 지식층, 선생님의 생활권 내에서 세계의 난다긴다하는 사람을 참석 안 시키게 되면 섭섭해할 때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신을 가지고 냅다 밀어. 「예.」

돈이 있으면 점보 비행기를 10여 대 사서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내주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날아올 거라고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선전적인 그런 놀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움직여 나가는 거라고요.

곽정환! 「예.」 이번에 우리 비행기가 있으니까 2차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 그 사람들을 불러와요. 한국동란 때 참전했던 16개국의 사람들도 불러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2차대전에 참전했던 6개국이 일독이, 영마불이예요. 그 6개국의 수상들을 우리 비행기를 통해 순방시키고 대접을 잘 해주겠다고 해서 초청해도 괜찮다고요.

소련을 대표해 고르바초프라든가 영국을 대표해 히스 수상이라든가 대처 수상, 2차대전과 관계돼 있던 사람들을 초청하라구요. 처칠은 죽었지요? 「예.」 남은 것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예요. 레이건이 건강하면 내가 데려다가 부러먹을 텐데, 지금 무엇에 걸렸어요?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럴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지시를 안 해요. 자기들이 비행기 표 돈을 낼 수 있는 실력자가 못 돼 있잖아요? 비행기로 한번 왔다 가려면 10만 달러가 나가요. 여기에서 남미에 갔다가

오려면 10만 달러가 달아나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열두 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이 갔다오는 데 1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한 사람을 태우게 되면 세금이 3천 달러, 4천 달러 돼요. 여러분이 비행기 1등석을 타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비행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태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공짜 비행기를 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적놈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 이제 선생님 비행기에 자리가 많아도 못 타겠지요? (웃음) 이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못 타요.

「3천 달러를 내놓고 탑니다.」 3천 달러를 내놓는다고 해도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다구요. 그리고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구요. 기름을 많이 소모한다구요. 우리 글로벌 익스프레스(Global Express)는 한 번에 한국으로 날아가요. 지구성을 한 바퀴 돈다구요. 거기 가서 기름만 넣으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비행기 중에 최고의 비행기예요. 지금 한대가 날고 있어요. 세계적인 제일 정상의 비행기예요.

이런 비행기는 부시도 현재 어디를 가겠다고 빌려 달라는 얘기를 못 해요. 빌려 주겠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라고요. 비행기 타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겠다고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2차대전에 참전했던 6개국을 중심삼고 초청하는 거예요.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든가 한국 대통령 해먹은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2차대전과 관계돼 있던 6개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해서 혼동회를 해 가지고 ‘만세!’ 하면 해방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고 통일천하 됐던 2차대전 직후를 탕감복귀할 때가 왔어요. 이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임자네들이 비행기를 벌써 서너 대쯤 사서 선전해야 돼요. ‘3대를 중심삼고 일개 대륙에서 선생님의 생일에 몇 명을 모셔 가겠다. 거기에 가담할 사람은 모여라!’ 해야 돼요. 선생님의 80세 생일이 끝나면 언제 또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이 10년을 더 살지 어떨지 알아요? 이

번 팔순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이내에 죽을지 누가知道吗? 역사상에 세계가 환영할 수 있는 때는 한 번밖에 없다구요. 뜻 때문에 내가 지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뜻을 다 이루면 내가 할 것이 없잖아요? 어영부영 신세 지는 것이 싫어요.

3시대 여성이 제물 돼야

보라구요. 어디 가더라도 선생님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어디 가든지 선생님을 팔십 노인 취급하면 기분 나빠요. 그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라구요. 선생님 곁에 와서 붙들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붙들어 주다가 굴러 나가서 사고가 생겨서 앓다가 죽는 것보다도 그것이 행복하지. 앓다가 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면 문충재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뜻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정해, 알겠나? 김병우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니 전부 다 빼앗아 오려고 그래요. 세상의 아주 악다리 같은 남자를 한번 만나야 돼요. 제2차 축복할 때 내가 저런 여자들은 세 번은 신랑을 다시 얻어 줄 수 있어요.

해와가 세 번째 시집가지 않았어요?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복귀된 해와는 신약시대에 제물 돼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해와는 성약시대에 제물 돼야 돼요. 성약시대에 제물 된 사람은 천지 해와의 해방을 위해서 제물이 돼야 돼요. 이렇게 3대 여성이 제물이 돼야 돼요. 생축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머니한테도 내가 아까 해줬어요. 어머니도 그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청평도 그래요. 어머니 제일주의가

아니라구요. 자기 제일주의가 아니라구요. 청평은 현재 영계와 육계의 관계를 뺏아서 지상에 표준화할 수 있는, 선생님 앞에 있어서 대모님이에요. 어머니를 중심삼고 어머니라면 대모님이에요. 성신이 여기에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신 역사예요. 어머니를 중심삼고 대신 역사하는 거라구요.

그러니 어머니 역사를 하지, 아버지 역사까지 자기들이 관여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께서 물어 보고 안 하면 벼락이 떨어진다구요. 자기 영계를 중심삼고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계를 자기들이 알게 뭐예요? 천태만상입니다. 불교권도 있고 유교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끝날에는 다 해와 앞에 상응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품어 주면 품은 것을 전부 다 오케이해야 된다고요. 싫다고 하면 안 돼요, 할머니도.

대모님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형님이나 대모님이나 충모님이나 영계에 간 모든 영들은 선생님이 하는 일을 돕게 되어 있지, 선생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안 돼 있어요. 알싸, 모를싸? 청평! 「예.」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알싸!’ 해야지, ‘알겠습니다.’가 뭐야? ‘알싸, 모를싸?’ 하면 답변을 ‘알싸!’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면 백점 만점에 80점밖에 안 돼. 산울림 할 때 ‘알싸!’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웃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저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영계에 가서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면... 2000년 6월까지 고개예요. 7수를 넘는 고개예요. 7년노정의 고개예요. 이 기간에 전부 정비해야 돼요. 금년에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3년 해서 7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4억쌍 축복도 내년에 못 하게 되면 한 해를 더 연장할지 몰라요. 한 해를 연장해도 안 된다면 3년까지 연장해야 돼요. 정성들일 수 있는 최고의 해가 선생님이 80세에 들어가는 이때예요. 정성을 지

금까지 못 들었어요. 여러 복잡한 행사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젊은 청년을 잡으러 다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젊은 청년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잡아다가 뭘 할 거예요? 「축복시킵니다.」 군대예요, 군대.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의 청소년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 군대도 가정 군대예요. 가정 군대인데 세상의 가정 군대의 대표가 여자예요.

해와가 세상을 망쳤으니 여자를 중심한 군대를 편성해야

해와가 세상의 가정을 망쳐 놓았기 때문에 여자를 중심삼아 가지고 군대를 편성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다리 군대도 전부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여자들이예요. 인민군보다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남쪽 나라의 어디에서는 게릴라 훈련을 여자들이 하고 있어요. 남자가 앞에 있더라도 그 앞에서 팬티만 입고 훈련하는 거예요. 남자도 훈도시(ふんどし;들보)만 차고 여자 앞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 건설, 하나님 해방, 부모님 해방을 위한 충성 어린 마음이 불타야 된다고요.

마음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몸에 불이 붙어 어느 누구든지 ‘승자의 권한을 내가 세운다.’ 해서 산이든 골짜기든 편답해서 쓸어 버리는 거예요. 고래든 호랑이든 스크루 뱀이든 무엇이든 쓸어 버린다 이거예요. 25미터짜리 뱀이 있어요. 한꺼번에 여자 다섯을 감아서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뱀을 잡아오라고 하면 잡아와야 된다고요. (웃음) 웃을 게 아니예요.

마닐라에 뱀이 많지? 「예.」 마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해)」 많은 것을 벌려 놓은 것을 마닐라라고 그래요. 마닐라, 그말이에요. 많이 벌려 놓았다 이거예요. 전라도가 벌려 놓은 거예요. 그걸 수습해야 돼요. 섬이 7천 개 되잖아요? 「7천4백 개입니

다.» 4백 개는 안 붙여도 돼. 7천 개라고 하면 된다구. 7천4백 개니까 얼마나 섬을 많이 벌려 놓았어요? 많이 벌려 놓은 섬이 마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나라에서는 누가 대장이 되느냐? 남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 한 남자를 중심삼고 결의를 못 해요. 제사를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장손이 됐어도 장손의 책임 못 다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을 모셔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맡기고 가더라도 그 친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를 여자가 모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나라는 대개 여권, 모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대개 그렇다고요.

요즘에 어디인가? 「마셜 아일랜드(마셜 군도)입니다.» 마셜 아일랜드도 모계 중심이에요. 그거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나라의 왕이 약하면 왕을 죽이고 왕녀하고 살아요. 점령당하면 왕의 부인이 첩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왕족의 미인은 왕의 종들한테 전부 다 시집보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왕궁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자기 나라의 여자, 승리했으면 패배한 나라의 여자 등 여자들이 많아요.

미국은 어때요? 없지요? 영국은 어때요? 버킹검 궁전에 여자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동양의 궁중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여자들이 수두룩한 거라고요.

훈장도 태평성대가 이뤄졌을 때 만국의 정상들에게 받아야

한국의 역사에는 3천 궁녀가 나오지요? 3천 궁녀는 3천 만조백관을 축복할 수 있는 수예요. 그게 무슨 강이라구요? 「백마강입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백제입니다.» 백제(百濟), 백마를 타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 백마를 타고 건너지 못해서 죽었지요? ‘건널 제(濟)’ 자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천마 축구팀이 잘하지요? 죽은 줄 알았더니 훌훌 날아요. 통일교회가 소식이 없더니 한꺼번에... 금년에 활약이 대단해요. 대통령상을 들썩이나 탔어요. 현진이와 훈숙이가 대통령상을 탔어요. 그 다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까지도 탔어요. 대통령상이 나라 상으로는 제일 큰 거예요. 문화관광부 장관의 단체상은 처음이라구요.

요전에 ‘호두까기 인형’을 예술의 전당에서 16회를 했더구만. 3만 명 이상이 관람해서 초만원을 이루었는데, 케이 비 에스(KBS; 한국방송공사)가 녹화하면서 한 말이 뭐냐? ‘문충재에게 국가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전통을 세계적으로 빛낸 분야에서 제일 좋은 훈장을 줘야 된다.’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훈장을 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장을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훈장을 주고, 나라와 천지가 태평성대가 될 때 만국의 왕들이 합해서 주는 훈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받아요? 태평성대가 뭐예요? 지상천국을 말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오늘 종일 얘기를 해야 되겠다구요. 내가 지금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내일까지 입을 벌려서 쉬지 못하고 얘기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보기 싫은 것들, 통일교회의 어영부영한 패들 다 모였다고요. 영안으로 보면 뭐 어떻다는 것을 내가 다 아는 사람이라구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미까지 통일교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 선생님이 무서운 때가 온다구요. 옛날 평양에 가 있을 때는 박수무당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지금까지 영계를 다 닫고 몸뚱이를 가지

고 사탄세계를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다 아니까. 기도도 안 했어요, 24년간.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영계의 협조를 안 받고 몸뚱이 가지고 사탄세계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20대에 원리를 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20대에 다 끝났어요. 40세, 14년만 되면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놈의 자식들, 기독교가 책임 못 해서, 기독교의 장자 차자가 하나 못 돼서 싸운 거예요. 그 판국이 부모님이 오는 것을 맞아야 할 천리의 대도를 밝히는 다리를 놓은 것인데, 그 다리를 다 끊어 놓았어요. 다리를 끊어 놓고 대가리를 끊어 놓고 두 팔을 끊어 놓으니, 암만 가운데가 있으면 뭘 해요?

구교 신교가 그런 거예요. 신교권이 미국이고 구교권이 남미인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끊어 놓았어요. 오시는 부모님의 길을 끊어 놓았어요. 부모님이 오는 데는 천군 천사를 거느려서, 이 땅의 누구보다도 대군단을 거느리고 오는데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지상세계 처리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신교를 중심삼고 연결시켜서 로마 교황청에 다리를 놓고, 남미까지 다리를 놓아 가지고 남미가 제아무리 반대해도 아무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 와서 허가받고 그러지 않았다구요. 내가 하고픈 대로 했어요. 통일교회 레버런 문한테 별의별 짓을 했지만 결국 레버런 문에게 굴복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다구요. 남미도 그래요. 어디 가든지 33개국에 가겠다고 ‘어서 오소!’ 하게 돼 있지,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있다구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2월 7일에 축복식을 일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외상을 중심삼고 세계의 왕과 수상과 외무장관을 부르는 거예요. 40개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천하에 없는 통일적인 이상가정, 청소년 윤락 해방의 이상가정 출동시오!’ 하고 선포했으면 일본은 세계적으로 수습되는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을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다 준비돼 있잖아요? 국가 메시아로 기리카에(切り替え;바뀌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번에 현정부도 그래요. 일본이 책임 못 했기 때문에 폰타 델 에스테에서... 폰타 델 에스테가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천주사적인 사사절을 발표한 거라고요.

천주사적인 사사절이 뭐냐? 인간세계만이 아니에요. 영계까지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결사적인 그 일을 중심삼고, 3억6천만쌍 축복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자리를 완전히 넘어선 거라고요. 그래서 사사절이 뭐냐? 사사절을 넘어서 해방시대에 왔으니 지상의 미혼 남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열두 살까지 축복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열두 살, 열한 살에 장가갔지요? 열두 살에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혜택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가정의 주류

금년에는 내가 16세까지 가담시켰어요. 내년에는 열두 살까지 가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억쌍은 문제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짝짓기 해서 3년 후에 결혼하면 되는 거라고요. 짝짓기를 얼마나 했어요? 「3억6천6백만을 했습니다. 4억 가깝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결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4억쌍을 생각할 때예요. 알겠어요? 「예.」 문제없을 거라고.

그걸 연장해서 뭘 하느냐? 짝짓기 패들이 '순결 천국으로 돌아가자! 복귀다!' 하고 데모해야 된다고요. 금년에 무슨 데모를 하라고 그랬어요? 참부모·참혈통·참가정을 외치라고 했어요.

참가정의 중심, 주류는 뭐냐 하면 청소년이에요. 열두 살에서부터

열두 해 되는 24세까지예요. 이 사람들만 딱 엮어매 놓으면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의 사람들을 부러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누더기 판이 되어서 잡동사니가 많아요. 거기에는 사탄의 글자가 없나, 발자국, 손자국, 옷 자국, 사랑하던 자리, 전부 더럽혀져 가지고 얼룩덜룩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요.

성진 어머니 일가에 대한 어머니의 처신

미안합니다. 불살라 버리는 사람의 대표가 선생님인데, 선생님 주위가, 가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안 그래요? 탕감조건 가정을 다 만들어 놓고 전부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이 할머니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7대 안에 있는 친척들의 결혼식을 영계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씨 한씨를 전부 해준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쌍쌍이 들어가요, 일족이 들어가요, 일국이 들어가요? 「일족이 들어갑니다.」 쌍쌍이 들어가요. 쌍쌍제도가 합한 민족과 국가가 들어가야 돼요.

성진이 어머니하고 이혼했지만, 성진을 버려서는 안 돼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치다꺼리한 거예요. 어머니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집도 두 번씩이나 사 주었어요. 어머니가 훌륭한 게 그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쁠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를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숭배해야 돼요. 이혼한 때가 언제예요? 어머니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이혼한 거예요. 관계도 없는 여자예요. 보기도 싫을 것 아니예요? 그래도 성진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노릇을 잘해 왔어요. 아들이 책임 못 하나까 아들 책임까지 지금까지 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전에 성진이한테 지시를 했어요. 어미를 그렇게 객사시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를 모시라고 한 거예요. 자기 어머

니 말이에요. 자기가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자기가 해야 할 것은 교회의 어머니를 어떤 어머니보다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가 와서 굴복해야 돼요. 복을 빌어 줘야 된다고요. 자기들은 담 너머에서 어머니가 낳은 이들과 어머니를 보호하는 책임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못 했어요.

보라구요. 광정환! 「예,」 통일교회 교인들이 그 책임을 못 했어. 요 전에 서울에 있다가 집을 팔고 천안에 갔다는 소식 들었대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선생님이, 추울 때라구요. 11월인가 이때쯤 될 거예요. 올림픽 스타디움 근처에 집을 사 주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걸 어머니가 사 준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 갔다 오자고 하니 어디냐고 하길래 알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며 따라나서라고 한 거예요. 그래, 따라나서서 누구 집에 갔느냐? 성진이 어머니의 집을 내가 처음으로 가 봤다고요. 그게 조건이 돼요. 알겠어요? 조건이 된다고요.

왼쪽을 중심삼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지옥에 차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고개를 넘어야 돼요. 성진이 어머니가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지만, 어머니만은 자기의 십 배, 백 배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해야 돼요. 요즘 언론이나 영화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모든 소문들, 얼마나 엉터리가 많아요? 그것을 볼 적마다 회개하고 ‘만민의 어머니 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도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지만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선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어머니가 3대 시험이 있어요. 그걸 몰라요.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은 알지요. 2대 시험은 패스했어요. 그런 데를 데리고 갔다 온 거예요. 어머니가 사 준 집이니까 알지요. 세상 여자 같으면 돌아보고 와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박정해,

어때? 기분 나쁘겠나, 좋겠나? 「좀 나쁘겠습니다。」 좀 나쁘겠어? 그럴 때는 참 나쁘겠다고 하면 백점을 맞는 거야. (웃음) 여자의 본성이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어머니가 벌써 성진이 어머니 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서 내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집이 큰 줄 알았는데 작으니 집 하나 다시 사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로서 패스예요. 그래서 내가 ‘알면 됐다.’ 한 거예요.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어머니가 그런 면에서 훌륭해요.

국가 기준을 넘기 전에는 일족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대적인 아들에 대한 거예요. 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통일교회 교인들을 누구보다,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일족, 마을이 동원돼서 붙들고 망하는 길로 떠나지 말라는 것을 박차고 뿌리치고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떠난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떠난 거예요. 그 마을을 차 버리고 뛰쳐나올 때의 그 울음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저번에 김일성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의 묘 앞에 섰는데, 돌아갔다고 생각했던 우리 누나하고 동생이 애절하게 우는 것을 보고 옛날 그 심정을 내가 느꼈어요. ‘내가 여기에 형제들의 뜻을 중심삼고 성묘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내가 다시 찾아올 때는 아들로서 찾아오겠다고, 남북을 통일해서 거국적인 순례의 한 때를 맞아 예방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이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복까지도. 알겠어요? 이복을 저주하면 안 돼요.

거기에 가서 영적으로 정권 이양식을 다 했어요. 그것이 녹음돼서 다 알아요. 새벽 세 시에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전부 다 선생님이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여자들이 어머니를 절대 반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수습한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준비한 거예요. 옥세현 할머니, 지승도 할머니, 김계원 할머니가 그랬어요. 김계원 할머니는 남한에서부터 선생님을 누구보다도 따르던 사람이에요. 벌써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밝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하고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아들까지도 전부 다 죽어 버렸어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래요. 선생님 친구 중에 제일 가까운 친구는 다 영계에 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뜻길에 있어 상대가 돼서 주변에 있으면 망해요. 그 말을 듣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딸이라든가 자기 일족한테 연락을 못 하게 했어요.

여기에 문용현이 있나? 용현이 아까 보이더구만. 용현! 「예.」 저 집에 3형제가 있는데 우리 사촌 집이에요. 한집에 살던 동생들이라고요. 아산에서 용기 공장을 할 때 1973년 전에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국가적 시대예요. 세계적 시대에 축복받은 가정들이 3년노정을 끝낸 1973년부터 오라고 한 거예요. 일본에서 현금하는 것도 그래요. 그 전에는 현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더러움 탄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외국 식구들한테 절대 현금 못 하게 했어요. 그래, 자기 일족을 불러들일 수 없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사셨습니까.」 저 사람은 생각 날 거예요. 1973년 이전에는 절대 못 온다고 했다고요. 1973년이 되어 수탁리에 데려온 거예요. 원리적이예요. 3년 노정이 끝나거든. 그래서 내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국가 기준을 넘어선 거라고요. 국가 기준을 넘어 가지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그들을 생각하게 될 때는 고향 친척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민족적인 입장에서 자기 일족과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1960년대에 3년 처녀 동원, 그 다음에 1970년대에 3년 가정 출동시켰지요? 축복을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준 줄 알았더니 쟁개비(냄비) 짜박지를 발길로 차서 똥가당똥가당, 어린아이들은 고아원에 집어 넣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선생님 명령이니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이 일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아들딸을 자기 친척집에 밤에 보자기에 싸서 집어 넣고 간 거라고요. 그래 놓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하나님을 도왔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못 잊어요. 내가 길러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사연들을 다 모르지요?

이화여대 사건과 박마리아 일기를 축복해 준 사연

그리고 양윤영 선생은... 양윤영이 영계에 갔지요? 「예.」 그 사람이 철딱서니 없는 여자라고요. 솔직해요. 또 한층화가 있어요. 한층화는 중간에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져 나갔다고요. 왜? 얘기한 거예요.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계에서 가르쳐 준 내용이라도 얘기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몇 번 경고한 거예요. 영계를 통하

니까 전부 다 거꾸로 가르쳐 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조정 못하고 전부 다 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박마리아 김활란을 중심삼고... 다 이름 있는 교수들이거든. 김활란이 통일교회를 조사하라고 김영운을 보낸 거예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종교 지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 이런 대표를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선 거예요. 다 돌아가니까 이제 더 믿을 수 없으니까... 세상이 다 뒤틀렸어요, 이대 연대 사건이 나기 전에는. 6개월만 더 끌고 갔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작전이라는 것은, 가인의 자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고 그들이 상처 안 받을 수 있게끔 아벨이 위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 돌아서게 될 때는 ‘당신들이 수고했다.’ 하면서 앞장세워 줘야 복귀되는 거라고요.

‘우리 세대문집의 선남선녀들이 하늘땅을 움직여서 축복을 받는데 당신(이박사) 가정도 그렇고, 연세대 이화여대도 전부 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고 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총재의 책임이 뭐냐?’ 하니까 재림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들이 뭘 알아요? 열대지방에 살던 사람이 눈 위에 밟고 다닐 수 있어요? 옷 벗고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세대문집에 와서는... 선생님이 그때는 잠바를 입고 촌사람같이 해서 피죤피죤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대문은 서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숙여서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세 번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면 방이 사각형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옆으로 자야 발이 안 닿는다고요. 다 닿아요. 그런 집에 딱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박마리아의 남편(이기봉)은 국회의장으로 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아들은 대통령의 양자로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입장인데, 세상에 그 눈에 보일 게 뭐예요? 왔다 가서 지지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미친 것들이라고 한 거예요. 나라 망신이라고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

서 다섯 명의 유명한 교수들이 쫓겨나고, 학생들은 퇴학 처분을 당한 거예요.

또 그때 미국 감리교단에서 매년 35만 달러인가 원조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달려 있으니 선교사와 하나되어 이단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영계에서 박마리아가 딱 걸린 거예요.

이번에 성인과 살인마를 같이 축복해 줄 때, 박마리아를 내가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가 왔으니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80세를 넘어서 영육 세계에서 성자하고 살인마들을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또 그게 원리관에 맞는 거예요. 다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해준 거예요. 벌써 2년 전에 내가 판타날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상헌 씨의 보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박마리아 내용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통일교회가 가정 천국 이념을 향해 나가는데 가정적인 파괴자가 누구냐 하면 박마리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강석이가 자기 부모를, 일족을 멸망시켜 버린 거라고요. 가정 천국 이념의 대도를 닦을 수 있는 목전에서 이 일을 했으니 그 집안이 편안할 게 뭐예요? 그래서 영계에 가서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사흘 동안 기도하고 해방시켜 주어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싸움이 끝나고 사탄까지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하고 살인마를 같은 입장에 세워 축복해 주고, 그 아들딸들이 죽었거든 영계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원수 원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국경 지대를 중심삼고 성인하고... 아담 가정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원수가 어디 있어요? 한 가정의 같은 축복 순서로 이어 주어야 할 사람으로 잡아 놓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타날의 아메리카노 호텔을 사지 않았어요? 그것이

원초 성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근원 성지, 승리 성지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식을 거기 판타날에서 했어요. 또 남미에 세계평화이상가정 교육본부, 축복가정의 교육본부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축복받은 가정들하고 영계의 축복가정들이 합하는 거예요. 영계에 있는 가정들이 내려와서, 가인적 축복가정과 아벨적 축복가정이 하나되는 거예요.

영계에 있는 가정은 본래 가인적 축복가정이라구요. 다 아담의 일족이라구요. 지상에서 세계적인 정상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해방시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의 특명에 의해서 영계까지도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라고 못 해요. 그러니 선생님의 특명에 의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인하고 살인마를 축복해 주지 못해요. 원리가 그래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 해 버리지요.

이제 사탄의 국가주의 시대를 넘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선생님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되고 사탄이 구속된 거예요. 그 일을 선생님이 밝혀 냈기 때문에 세계 정상을 넘어가는데, 사탄의 국가주의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국가주의 시대를 넘어선 천지에 그런 판도가 벌어짐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와 이름으로써 사탄이 아니라 누시엘 앞에 이리이러한 때에 있으니 시급히 굴복하라는 통첩을 한 것이 금년 3월 21일이예요. 3월 21일을 중심삼고 하나님 앞에 굴복, 참부모 앞에 굴복, 인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과 삼십절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칠팔절은 언제 선포했어요? 「1997년입니다.」 칠팔절이 뭐예요?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입니다.」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한 거예요. 1997년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권 선포, 선생님을 따라서 하늘땅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하나 안 되어서는 못 넘어가요. 하나님도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었으면 세상은 벌써 다 복귀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백 년도 안 가요. 순식간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했으니 완전한 아담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만이 죄를 탕감할 수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이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 해도 안 도와줘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되었는데 영계에서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전부 수습하면 될 텐데...’ 하는데, 못 해요. 그것은 선생님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앞장서기 때문에, 전부 다 빼앗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 와요. 선생님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대가리를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끌어나가는 거예요. 내 말을 알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철옹성 같은 전통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축복가정의 울타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넘어오겠어요?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국가적 메시아 시대가 왔는데 말이에요. 문이 다 열렸으니 사탄이 선생님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섭리에 협조했던 여인들을 축복해 준 사연

그러면 총결론이 그래요. 선생님도 천국 들어간다면 원리적이어야지요?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 할머니, 중년, 처녀들을 중심삼고 다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섭리사에 협조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야 될 텐데, 세 다리를 놓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할머니 다리, 중년 다리, 청년 다리예요. 소생·장성·완성, 세 세대가 있어서 세 다리를 놓아야

할 텐데, 그걸 그냥 데리고 넘어가요?

어머니의 삼위기대가 있다구요. 최선생의 삼위기대가 있다구요. 옥세현 할머니의 삼위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 해방, 신약시대 해방, 성약시대 해방이에요.

해방했으면 천국 사람이 어떻게 한 줄로 내려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리의 도리를 지켜야 돼요. 1968년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날을 책정했지요? 그곳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 통일식이니 무슨 식이니 해서 자기들의 갈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전부 상대를 묶어 줘야 돼요. 모든 섭리를 다 이뤘으니까 말이에요. 잔치가 끝난 후에는 고객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천리의 도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깝게 모시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상대를 묶어 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할머니로부터 누나 동생으로부터 성진이 어머니까지 전부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영계는 상대를 맺지 않으면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진이 어머니까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 나갔더라도 자기 갈 길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이니 그런 놀음을 하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축복 상대들을 다 묶어 가지고 선생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러니 영계의 4대 성인들을 중심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성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구약시대인 종의 시대, 양자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직계 아들딸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서 불쌍하니 전부 길을 열어 준 거예요.

불교인들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요. 4대 성인들을 배치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은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

로 자기 상대를 못 얻어요. 부모님이 결정해 줘야 돼요. 그들이 이제 부처끼리 다니면서 통고할 때가 온다구요. 알겠어요?

기독교 역사의 성인들 수백 명을 축복시켜서 미국에 배치했어요. 큰 교회의 배후에 배치되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벨베디아에 예수님의 생활 가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방문해야 돼요. 통일교회 식구들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찾아와서 인사드려야 된다고요.

탕감복귀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문대학교 총장도 왔구만. 누구 상대라구? 상대가 누구라구? 「공자입니다.」 공자 하면 공짜 아들로 생각하라구. 공짜 남편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고마운 거야. 그래, 선생님이 축복해 줄 때 기뻐서, 서러웠어? 어머니의 삼위기대예요. 어머니 삼위기대 중의 한 사람이라고요.

지나고 보니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예요. 여자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준에서 때에 따라 지도해 준 거예요. 동생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고개를 넘었어요. 오빠의 책임, 남편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을 다 했어요. 3시대의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남매 관계에 있어서는 오빠예요. 상대적 관계를 중심삼고 거기서부터 복귀되는 거예요, 상대 관계. 그 다음에는 어머니 관계, 할머니 관계, 여왕 관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8단계가 있지요? 복중시대,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할머니시대, 여왕시대의 8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태어나게 될 때, 박정해가 태어나게 될 때 ‘나는 8단계의 왕이 될 수 있다. 여왕이 될 수 있고,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참된 아내, 참된 약혼녀, 참된 형제, 참된 아기, 참된 쌍둥이가 될 수 있다.’ 하라는 거야. 쌍둥이가 복중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박정해가 복중에서 남자가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 자기

가 태어날 때 여자 생식기가 붙어 있는지 남자 생식기가 붙어 있는지 알았어? 몰랐어.

모르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합해서 사랑의 길을 트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중시대에 태어나서 유아시대를 거치고 8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여왕이 돼야 되고, 왕이 돼야 돼요. 왕자 왕녀로서 하늘의 상속권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지옥 해방의 방법

여러분이 영계에 가게 되면 특별하게 선생님이 높은 게 아니라구요. 전부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선생님도 아들이지요? 만아들이예요. 그러면 축복해 준 임자네들은 뭐예요? 후대 아들이예요. 아담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고, 아담의 수천 대 후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 수천 대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전부 횡적으로 서는 거예요. 횡적으로 개인·가정·종족... 전부 같은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적인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저나라의 계통, 원칙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표준시하면서 사는데, 그 표준 자체가 왕의 것이 아니예요. 그건 인류의 것이ら구요. 평등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걸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면 대등한 가치의 자리에 서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8단계가 벌어지면 대등한 가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8단계의 모든 것을 탕감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승리한 분이 지상에서는 횡적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중심삼고 연결되는 종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중심삼고 자기 아들딸을 낳아 세계적으로 탕감해서 하늘이 칭송하고 하늘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상이 되면 사탄세계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탄이 굴복했지요? 삼십절을 선포 안 했으면 사탄의 줄개 새끼들을 처리 못 해요. 그 전까지는 완충지대가 되어 대가리가 거꾸로 돼 있었다구요. 구구절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서 삼십절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뚫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줄개 새끼가 문제라구요. 사탄이 굴복한 후에 그 부하들이 사탄 누시엘을 반대하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선생님이 머리로부터 딱 묶어서 떨어질 수 없게끔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탄도 제일 나쁜 자기 조상들을, 지옥까지도 해방을 해야 돼요.

지옥 해방을 누구를 시켜서 하느냐? 앞으로 그래요. 자기 조상들 중에 제일 나쁜 조상, 축복받은 사람들을 시켜서 ‘너의 후손들, 조상들을 해방시켜라!’ 해서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자기들이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름 딱딱딱 불러 가지고 일사천리로 몇백 명 몇천 명이든지 ‘관계 돼 있는 사람은 모여라!’ 하고 명령을 해서 해방할 수 있다고요. 해방해 주고 상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는 자기가 옛날에 살던 사람으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중심삼고 아들딸이 있으면 그 아들딸이 원하게 되면 부모를 해방하는 거예요. 복귀가 그래요. 아담이 실수한 것을 두 번째에 탕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세계를 지은 이유

박정해, 앞으로 나라가 이뤄졌다 할 때는 누가 왕이 되나? 여자가 왕이 되나, 남편이 왕이 되나? 「남편이 왕이 됩니다.» 여자가 아니고? 「아닙니다.» 여자가 되면 좋겠는데, 왜 그래야 돼? 「원리가 그렇습니

다。」원리보다도 씨가 남자한테 있어서 그렇다구.

생명의 씨라는 것은 남자에게서 나오지, 여자한테서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밭이에요. 아무리 생리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무리 논리를 변경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여자는 밭이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직이 통하는 거예요. 장손을 통한 수직이에요. 수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말이 나와요. 왜놈들이 그렇잖아요? ‘만세일계의 천황을….’으로 시작되는 교육칙어가 있다가요. 마찬가지로 거예요.

천사세계도 남자를 대표한 거예요. 이것은 45도 각도예요. 이것은 90도가 아니고 45도입니다. 이게 90도면 내려가요. 그래서 천사가 중간이에요. 45도에서 전부 협조해야 돼요. 하나님도 협조하고 천사도 협조해서 둘이 하나되어 90각도를 이루는 거예요. 왜 천사를 만들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45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돼요. 문의의 대상이 되고, 위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저런 문제를 같이 협조해서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아담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천사세계, 영적 세계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기반을 만드는 것은 문제없어요. 순식간이에요. 아담 해와의 가정과 같은 상대적 이상을 천사세계에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문제없다구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수평을 만드는 거예요. 90각도 수평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투입해야 돼요. 연결시켜 협조해서... 이걸 따 버려서 90각도의 주인이 다르게 되니, 천지가 다 사랑 때문에 지어졌는데 이게 다 사탄 편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라구요. 그렇잖아요? 중심이 없어졌으니까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새끼를 쳐놓았으니... 이래서 지상의 실체권, 하늘의 장손권이 전부 사탄의 혈통으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겠어요? 세상이 비참한 역사가 안 된다는 거

예요. 이것이 다 끝나 가지고…: 선생님의 말대로 구교 신교가 하나되었으면 선생님이 40대면 세계 어디든지 메주덩어리 밍듯이 밍아 가지고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모가지를 쳐 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스탈린보다 더…: (녹음이 잠시 끊김)

이북 7도민 교육에 전념해야

한국에서는 몇 명이 왔나? 「한국에서 64명이 왔습니다. 국가 메시아 들은 말고. (황선조 세계 회장)」 어디에 있어? 「뉴욕으로 바로 갔습니다.» 전화해서 이리 오라고 그래. 「예.» 차가 없으면 걸어오든가 해서 오라고 해. 「지하철이 제일 좋습니다.»

미국 통일교인들은 이제 한국말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강제적으로라도 시켜야 돼요. 「예, 타일러는 모든 일을 쉬고 아예 한국에 한 2년 공부하러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양창식 회장)」 한국말을 모르면 앞으로 천대가 심해져요. 오래 됐다는 사람이 한국말을 못 배우면 말이예요. 선생님이 한국말로 언어를 통일 안 시키면 안 돼요.

자, 시작하자구요. 「지금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1권을…」 송병준이 잠깐 소개하고 하지. 아까 여기 나왔다가 경배하겠다는 것을 내가 하지 말랬거든. 자기가 28일에 뭐가 됐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실 향민에 대한 총책임자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봐요.

「제가 7도민을 대표한 7도민 연합회장 자격으로 제가 경배를 먼저 하겠습니다. (송병준)」 경배하라구. 7도가 전부 경배하면 복 받지. 「감사합니다. 제가 28일에 평안북도 도민회 회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 (이북 7도민회 회장 피선 경위와 포부에 관한 송병준 세계일보 사장의 보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일부 간부들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로 교육과 연수를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통일회관이라고 하는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지도자, 각계 각층의…」 몇 명이나 들어가나? 「3천 명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큼니다.」 이북 7도의 회관이야?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림살이를 차려야 되겠네.

「그래서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항상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북 7도민의 실정을 보면 1세는…」 교육은 곽정환, 박보희, 황선조, 설용수가 해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 세 도를 묶으면 서울과 강원도는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설용수는 서울 대표로 하라구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향민들이 완전히 하나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심삼고 교육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짜라구요.

교육 문제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도 곽정환한테 맡기라구. 지금 섭리사로 볼 때 하나 만들어야 돼요. 외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데리고 오고, 교회에서 한 가지 있을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임명한다구요. 알겠나? 알겠어, 곽정환? 「예.」

나가는 길이 틀리거든 나한테 즉각 보고해요. 송병준이 가는 길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보고해요. 정상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자기가 이북 7도의 책임자가 됐으면, 이북 도민을 교육하는 교육 책임자들이 있다구요. 교육 총책임자는 곽정환이라구요. 그 다음에 설용수는 서울, 곽정환은 경상도, 황선조는 전라도, 박보희는 충청도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사람이 하나 되어 교육만 하면, 나발만 잘 붙면 다 끝나는 거예요. 테이프를 만들어서 가정까지도 배부하는 거예요.

7도 실향민의 가정까지도 돈 받고 테이프를 배부하는 거예요. 5천 원이면 평균 5천 원을 받고 배부하는 거예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듣고, 아이들까지 자다가 들어 가지고 꿈 가운데서도 술술 외울 수 있게끔 하면 완전히 통일돼요. 알겠어요? 언제 만나 가지고 지시할 무엇이

없다구요. 알겠어? 「예.」

지금 누구누구를 걱정한다구? 「곽정환, 설용수, 박보희, 황선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야. 교육 책임자는 박보희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설용수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 곽정환이야. 그건 뭐냐? 3가정을 중심삼고 전체 섭리사의 책임을 지고 나와 가지고 지금 미국을 요리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구.

그렇기 때문에 서구사회에 연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주동문까지 가담할 거라구. <워싱턴 타임스>와 세계의 언론계가 가담해서 한국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들에 대한 지식적인 배경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책임지고 그것을 믿고 올라타 친 이 진영을 세계 중심의 힘으로 냅다 밀고 왔다갔다하면 세계가 다 소화되는 거예요. 반대하던 사람도 다 소화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지금 세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훈시로 알고 그렇게 나가라구요.

알겠어, 곽정환? 「예.」 방금 곽정환이 무슨 책임을 진다구? 「교육 책임을 집니다. (곽정환)」 교육 책임을 다 지는 거야. 사상적인 관의 교육 내용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곽정환이 임명해서 해야 된다구. 박보희도 공산당의 이론 분석에 미진해. 거기에 통일사상연구원을 배경으로 하고 그들과 언제든지 의논하면서 배후를 보고 받으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통일적인 교육안을 갖고 앞으로 움직여야 되겠다구.

한국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한국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 나라를 대표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스>와 언론계를 중심삼고... 지금 훈독 세미나를 하잖아요? 초종교초국가연합, 초대학연맹, 초언론계, 초은행관계를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을 발전시키는, 문화세계 창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계열적인 대표자들을 교육

해서 훈독회를 하는데, 광정환이를 통해 미국까지 하려고 한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미국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중심삼고 현재 그 관계적 계열을 묶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어려운데? 「예.」

광정환, 내가 얘기한 대로 얘기해 봐요. 일어서서 해봐. 「예, 이북 7도민만이 아니고 초종교초국가연합을 중심삼고 전체적으로 아버님 사상을 가지고 교육하는 그 일환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언론계하고 통일사상연구원하고 학계하고 전부 합쳐서 그 기반 위에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폐들에게 영향 미치라는 거야. 알겠어? 「예.」

정계·교육계·사상계·언론계를 교육할 곳은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세계를 언제나 앞세우고 나가야 돼요. 남북통일만이 아니에요. 아시아와 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섭리를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 풍토에 물려 버리고 말아요. ‘이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으로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과 차기 대통령 될 사람들을 내가 편성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과의 결탁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라구요. 여러분은 자고 있지만 선생님은 바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가는 길을 모르지만 그 가는 길에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판별해야 돼요. 중적인 계획이 횡적으로 펼쳐져야 돼요. 중국과 소련도 말이에요. 미국은 임자가 선전적인 능력이 있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예. (양창식)」 워싱턴의 애틀랜틱 비디오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는 인적 동원도 주동문과 하나되어서 하는 거야. 광정환이 앞으로 거기에 영향 미치는 권한을 줄 텐데, 양창식이기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워싱턴 타임스>의 편집국으로부터 광고 부처로부터 데려다가 교육해야 된다고. 들어가서는 교육 못 해. 끌어내서 교육해야 돼. 그래서 그 체제를 그런 면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고.

정치 풍토를 중심삼아 가지고는 거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교육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부모의 날'을 책정한 것도 다 그런 배후를 엮어 가지고 한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한 역량을 통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한 거라고요. 그냥 앉아 있어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살을 쏘는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대신해서 쏘는데, 아무리 큰 나라더라도 약속하고 화살을 쏘다면 몇천만 몇억이 하나의 화살에 의해 달려 돌아간다고요. 타깃을 못 맞추게 되면 몇천만 몇억이라도 전부 쓸어 버릴 수 있어요. 딱 마찬가지로요. 세계적인 총섭리사의 화살을 쏘는데, 선생님이 쏘는 것이 타깃을 맞추면 아무리 큰 나라 무슨 나라라도 지게 되면 따라가야 된다고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재 똑똑한 사람, 눈이 있고 관이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시대에 왔어요.

정치계를 누가 교육하느냐, 교육계를 누가 교육하느냐, 사상계를 누가 교육하느냐, 언론계를 누가 교육하느냐 이거예요. 언론계의 패권이 무서워요. 이걸 누가 교육해요? 선생님밖에 없다고요. 그런 체제권을 중심삼고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여기서 총공격해 가지고 타깃을 격파해야 돼요. 유엔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유엔 가입도 엔 지 오(NGO;국제비정부기구)를 통해서 1차, 2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유엔 강당을 빌려서 우리가 회의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울타리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지금 현 정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당적인 입장에서 나와서 김종필이라든가 박태준이라든가 이회창, 이들과 매일같이 전화로 만나면서 의논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남북통일을 위한 사상무장에 주력하라

7도의 책임자이니 임자 세력권이 그들 이상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당을 위하는 패들은 전부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천리, 하늘의 뜻과 나라의 살길을 위해서 가는 그런 당과 그런 인격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우리가 하겠다고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당리를 바라던 사람들이 반대 못 해요. 그래서 남북통일이예요. 남북통일의 주체적 교육 기반을 닦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너희들의 모가지 따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훈독회를 중심삼은 조직이 대단하지요? 「예.」 나는 어떤 당보다도 강하다고 봐요. 대통령을 만들고도 남아요. 알겠나, 이 녀석? 「예. (송병준)」 돈 보따리를 생각하지 말라구. 박정희 대통령이 내 신세를 지기 위해서 차에 돈 보따리를 갖다 놓았는데 내가 차 버렸어. 돈에 팔리지 말고 권력에 팔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거야. 「예.」 자기는 권력이니 돈이니 아무 것도 없다구,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의 레일을 까는 데 일하는 사람으로 충원돼서 그 척도에 맞게끔 레일을 깔면 돼. 밑창에 돌을 퍼부어 다짐을 잘 해서 갱목을 깔고 철도를 놓아야 만년 탈 없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송병준이 이름이 좋아. ‘병’자가 무슨 ‘병’자야? 「잡을 병(秉)’ 자입니다.」 준은? 「준걸 준(俊)’ 자입니다.」 이름이 좋아. ‘나라 송(宋)’ 자지? ‘준걸 준(俊)’ 자라는 것은 대표, 용맹한 대장이야. 잡아서 훑어내는 거야. ‘잡을 병(秉)’ 자니까 후려갈길 수 있다구.

알겠어? 지시했다구.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라구.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 이미 행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이 방문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것을 이미 알고….(송병준)」

그러니까 이북도민을 합해서 새로운 초당을 계획한다 이거예요. 초당을 만들어 교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북통일을 위한 사상적인 무장을 할 텐데 너희들도 협조해라 이거예요. 전부 사인하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협조 안 한다 이거예요. 조건이 그거예요. 남북통일이 목적이지만 남한 대통령이 아니예요. 남북을 통일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 규합해서 이북 7도를 중심으로 한 세력, 정치 파위를 형성하려고 한다…」 교육해 나가면 그 파위는 평소에 길러진다구. 현재 교회와 하나되어 준비시키면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사장 부사장으로 안방 살림을 만들어 준 거야. 황선조를 알아? 교육하는 것이나 실력에서 자기를 앞선다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과적으로 하는 거야. 전라도, 그 일당 가지고는 안 된다구. 경상도 일당 가지고 안 돼. 김종필이 총리를 하는데 충청도 일당 가지고 안 돼. 누가 연합적인 구성을 해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남북을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야.

내가 김정일한테 당장에 선거하라고 하면 할지 몰라.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니까 그 준비를 서둘러야 돼. 정신 바짝 차리라구. 「그래서 정치권하고 연계를…」 정치권하고 먼저 연결하지 말라구. 교육을 해야 돼. ‘야당 여당이 하나돼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부터 와서 교육받으소!’ 해야 돼. 교육을 먼저 해야지, 정치를 했다가는 팔려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7도 대표가 되면 당들이 서로 전국구 의원을 맡기려고 그래요. 그런

다고 하는데 의논해요. 현재 대통령하고 이회창하고 김종필을 모아서 ‘나는 이러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는 당은 전면 협조하겠다. 그러니 교육받아라.’ 하는 거예요. 전국구로 나가면 전국을 살리기 위한 책임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전국구 해서 싸움터에 안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아마 여야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 말이 그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잖아?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지 말라구.곽정환, 알겠어? 「예.」 의논들 해서 해요. 전라도 패를 교섭하고, 충청도 패를 교섭해요. 곽정환은 전라도 패한테 지금 들이 맞기 때문에 따오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래서 목이 걸려 있어요. 따오기 춤을 춘다는 말을 알아요? 기러기가 큰 고기를 물었는데 안 넘어가니까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오기 춤을 춘다는 말이 생겼다고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으니, 현정부의 원수와 같은 입장에 있으니 경상도가 지금 ‘아이구, 현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불쌍한 것들이다. 얼마나 못됐으면 그렇게 반대하느냐? 대표로 반대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대표로 반대 받았다고요. 알겠나, 곽정환? 「예.」 박철언을 붙들고 박태준을 붙들고 경상도가 하나되어서 이러한 남북통일의 교육을 하자 이거예요.

이제 당장 2001년에 북한의 김정일이 총선거하자고 하면 그만두겠어요? 세계적 정세가 안 돼요. 일본이 환영하고, 미국이 환영하고, 중국이 환영하고, 소련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위험 수위가 지금 찰랑찰랑 넘을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있어 나를 밀어 달라. 전라도 경상도의 지방색을 없애는 데 내가 선두에 서겠다. 당신들을 교육한 그것이 전라도를 소화하고, 경기도를 소화하고, 북한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경상도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황선조는 전라도 패들을 만나서 교육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경상도를 포섭하고, 서울을 포섭하고, 경기도를 포섭하고, 이북 실향민을 포섭할 수 있나 없나 봐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있다고 한다구요. 다 우리가 하고 있으니깐.

그리고 ‘서울 지역을 포섭할 수 있나 없나 봐라. 이북 7도를 포섭할 수 있나 없나 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으니 다 있다고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틀림없지? 「예.」 광정환, 틀림없지? 「예.」 그 다음에 누구 있나? 박보희도 틀림없다고 할 거예요. 송병준은 그런 결심을 가지라구. 「예.」

군 출신이니까 유사시 군대를 재편성하는 것도 생각하라

자기가 군대에서 대령 때인가 중령 때인가, 언제 하차했나? 「대령 때입니다.」 그때 장군이 돼서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떨어졌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거 사실이야? 「하여간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구. (웃음) 그러니까 변소간에서 제일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게 뭐야? 똥을 소제할 때 쓰는 막대기가 있지요? 그 막대기가 필요하더구. 얼어붙었으면 떼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도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 「예, 아직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 이름이 뭐야? 「재향군인회 중앙이사입니다. 또 대한청죽회 회장입니다.」 회장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 7도민을 중심삼고 경찰이라든가 장성들을 많이 임명하도록 해라 그말이야. 7도민 중 군대 장성 출신들을 결속하라는 거야. 내 말대로 해.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이냐? 이북이 군대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인민군을 무엇으로 대처할 거예요? 그런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재향군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을 통해서 일시에 군대를 편성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구. 내 말을 똑똑히 알아들으라구. 그래서 자기를 세운 거라구.

내가 돈 몇 억을 만들라고 했는데, 준비하나? 「예.」 얼마나 됐나?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제가 또 1월14일부로 또 하나 짐을 졌습니다.」 무슨 짐? 「육군사관학교 동창회 운영총회에서 동창회장을 하라고 해서 지금 거절도 못 하고 큰일났습니다.」 그거 하라구. 큰일나기는 뭐 큰일나? 물어 볼 게 뭐 있어? 군대를 어떻게 재편성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구. 「아버님, 제가 여담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래. 그거 하라구. 한다는 약속을 하라구. (송병준 사장의 보고)

이 사람은 턱을 보면 배짱을 가지면 출세할 텐데, 배짱이 있는지 없는지 코가 작아. 「제가요? (송병준)」 코가 작다구, 얼굴을 볼 때.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가 보통은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언제든지 자기가 자리잡으면 후퇴하고 양보하고 다 그랬다구. 그래서는 안 된다구. 타고 앉아야지. 이제는 뭘 시켜도 자꾸 타고 앉으라구. 「예.」

그래서 잡아다 교육할 능력이 있으면곽정환, 박보희, 설용수, 협회장을 통해서 때려잡든, 때려잡아서는 안 되지만 말이야, 어떻게 하든 입을 벌리게 하는 거야. 행복 받는 것이 뭐냐? 다 듣고 보고 느끼면 오관 전체가 움직이지 별수 있어? 입을 벌리고 행복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것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출동하려고 그래요. 내가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자네들을 내세워 임자네들을 출세시키려고 그래요. 팔십 늙은이가 대통령을 해먹겠어요, 장관을 해먹겠어요? 한국 장관, 한국 대통령이 나오면 똥 보자기를 맡아서 처리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구요. 이제 중국 대통령, 소련 대통령만 만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고르바초프가 내 말을 들었으면 열친도 그거 할 텐데... 그때가 내 생일이기 때문에 못 간 거라구요. 다 끝났어? 「예.」 자, 박수 한번 크게 해봐요. (박수)

이제 정치계가 우리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결성대회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결성대회 했다고 생각 하라구요. 이북 7도민회를 결성했으니 전국에 있어서 야당 여당, 중간 당도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그물 안에 다 들어와서 춤추고 나발 불고 날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때가 그런 때예요. 송병준, 알겠어? 광정환, 이제 알지? 「예.」 설용수! 없구만. 박보희! 없구만. 그 다음에 황선조! 「예.」 황선조는 ‘누를 황(黃)’ 자에 ‘먼저 선(先)’ 자야? 「누를 황(黃)’ 자에 ‘착할 선(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 자는? 「복 조(祚)’ 자입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는 이 사람들이 경력이 많으니 내세워서 하면서 후원하게 된다면 자기는 직접 안 해도 돼. 이 사람들이 애국정신이 투철하고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중심삼아서 교육하던 사람들인데, 공산당을 때려잡는 데 선도적이다 이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을 내세우면 영향이 크니 불러다가 교육시켰다고 하며 그 결과는 내가 책임 안 지겠다고 빼고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있다구. 알겠어?

법정 투쟁이 벌어져서 재판 받는 자리에 들어가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줄게. 나 하라는 대로 하라구. 알겠어? 「예.」 박상권이 이북에 들어가면서도 정보부가 걸려 넘어가게 생겼는데 빠져나가는 작전을 내가 다 했어요. 선생님의 말을 안 들었으면 박상권은 형무소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은 몰라요. 공산세계의 전략 방침이 어떻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 점잖은 양같이 앉아 있지만, 산꼭대기에 앉아서 점치고 있는 양과 마찬가지로요. 호랑이가 어떻게 산양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도 눈감고 못난이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송병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50년 동안 홀로 여기까지 싸워 나왔어요, 수많은 원수 나라 가운데서.

한위일인가, 우일인가? 「위일입니다.」 무슨 ‘위’ 자야? ‘위대할 위(偉)’ 자야? 「예.」 무슨 ‘일’ 자야? 「편안할 일(逸)’ 자입니다.」 우와! ‘한 일(一)’ 자 아니고? 독일(獨逸) 할 때 그 ‘일’ 자야? 「예.」 보니까 욕심도 많구만. 그 성격이면 남자다워서 더러 깡패 세계에 가서 감독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놀음은 못 해봤지? 「예.」 이제라도 해봐. 그러면 내가 부러먹을지 모를 거야. 싸움하면 여편네한테 못 견디지, 성격은 그렇더라도? 아, 물어 보잖아? 「제가 집니다.」 (웃음) 그렇지. 그러니까 저 여편네가 왈패야, 왈패! 저 여편네를 부러 가지고 여자세계에 나발 볼 수 있게끔 써먹겠나 내가 두고 보고 있는 거라구.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꿈쩍 못 합니다.」 아, 글썄 내가 시켜먹겠는데,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꿈쩍 못 하게끔 누구든지 타고 앉아서 인공위성의 발사대가 되어라 이거야.

자, 노래나 한번 해 보자, 어디! 기운차게! 정 무슨 선?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지? 「정영선입니다.」 정영선? 「예.」 이름이 또 좋네. 어디 노래 한번 해보자구. 오늘은 송병준을 축하하는 날이구만. 내가 축하를 못 해줬기 때문에 노래를 하라고 한 거야. 저 사람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친척도 된대구. 뭐가 되는 줄 알아? 누군지 알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아내야. 「예.」 그러니까 친하라구. 알겠어? 이 사람도 기독교를 믿지 않았으면 건달 될 소질이 많은 사람이라구. 「맞습니다.」 그런 소질이 있다구. 선생님이 사람을 볼 줄 안대구.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자, 노래해 봐요. (정영선 씨 노래)

김서방! 비울빈(필리핀)! 비울빈은 고기비늘도 되고, 귀한 손님을 비울빈이라고 한대구요. 노래해요. (김병우 아시아 대륙회장 노래) 축하 파티가 아주 신중해진다! 송병준! 「예.」 축하 파티야. 내가 축하 못 해줘서 대신 해주는 거라구. (화동회)

자, 다 일어서서 ‘통일의 노래’를 하자구요. 선생님이 일생을 바쳐서 소원하던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행동 대열을 정비하려는 선생님의 생각을 알아서 실천하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노래’를 하자구요. (‘통일의 노래’ 합창) 곽정환이 기도해요. (곽정환 회장의 기도)

같이 해요. 선생님을 따라해요. 송병준! 「송병준!」 북한 대표의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북한 대표의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식사하자구요. 한 시 25분이에요. 식사하고 모여요. (경배)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은 종횡이 하나되고 천지가 합덕하는 것

(식사 후 훈독과 말씀) 자, 아까 읽던 것을 읽자구요. 양창식, 어디 갔어? 「일이 여러 가지 있어서 협회에 나갔습니다.」 유정옥, 옛날에 많이 낭독했지? 「예.」 그 다음 부분을 읽으라구.

『제3장 원리로 본 영계의 삶. 1. 주체 대상과 영계법. 4) 영계법은 원칙 그대로이다』 부분입니다. 한국 패들한테 아까 연락 안 했나?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아마 버스 타고 오는 중입니다.」 자, 읽으라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된 힘이 만유원력의 힘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힘의 작용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것인가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10. 참사랑과 빛의 발광체. 2) 빛의 발광체. …… 만일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가 하나되지 못할 때는 완전한 참사랑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사랑은 무한히 주고받는 아가 폐적인 사랑을 연상한다. 하지만 참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전 일체의 사위기대가 이루어진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

지 못하여 중생하지 못한 자는 참사랑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 또한 천국에 올 수 있는 티켓도 없다. 모두가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혈통이 들어가야 돼요, 혈통. 혈통 문제예요. 타락한 것은 사탄의 혈통이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혈통권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부모와 자식지간을 부정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거라구요. 계속해.

『11. 본연의 사랑과 부부의 모습. 1) 본연의 사랑.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창조하셨다.』

뭘 할 때 아름답게 지었어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둘이 발가벗고 웃고 키스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리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을 위로하고 기쁨을 다시 찾아드려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인간의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예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 나쁜 것으로 취급했어요. 사탄한테 전락되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뒤집어 놓아서 제일 나쁜 것이 되었는데 바로잡아 놓으면 제일 귀한 거예요.

내가 오목 불록 얘기를 해 가지고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다 그랬지요? ‘선생님은 저런 말을 왜 하노? 안 하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그걸 내세우네.’ 하고 말이에요. 광정환이 어디 갔나? 자기가 그것을 강연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회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근본이에요.

상헌 씨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인사드리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사랑하는 것이 인사예요. 사랑의 인사예요. 결혼

해서 만난 첫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횡적으로 하나되고 종적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천지가 결합하는 거예요. 천지합덕 하는 거예요. 참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다구요. 보통 사람도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재해요. 자!

사위기대와 삼대상 사랑은 우주의 공법

『본연의 사랑이란 이미 참사랑의 주제에서 논하였으니 여기에서는 본연의 참사랑의 모습을 열거하고자 한다. 그것은 ①하나님 중심삼은 부부의 사랑 ②하나님 중심삼은 자녀의 사랑과, ③하나님을 중심삼은 참사랑이 곧 본연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부모도 그 사랑, 부부도 그 사랑, 하나님도 그 사랑, 자기도 그 사랑이예요. 삼대상 사랑이 전부 하나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하나돼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연결돼요. 삼대상목적, 사위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중심삼고 본다면 사위기대로 하나돼요. 이게 사위기대라구요. 사위기대니 나눌 수 없어요. 하나라도 뺄 수 없으니 일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의 삼대상 사랑이 일체 되면 구형이 되는 거라구요. 그걸 떼면 안 돼요. 그러니 자식이 없으면 안 돼요. 아기가 있더라도 딸만 있으면 아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공법이에요. 천리의 원칙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모셔 놓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부는 하나님의 아들딸인 동시에 자기 아들딸을 낳아야 돼요. 영육, 중형의 결합적인 참아들딸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딸들이 축복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먼저 죽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예요. 저나라에 가서도 커서 결혼해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요.

『……제4장 영계에서 만난 사람들. 3. 요셉. 요셉은 성모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마리아와 같은 위치에 살고 있으나 성모 마리아와는 별도로 독수공방하고 있었다. 요셉은 요셉대로 살아 간다.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전혀 남남처럼 살고 있으며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기에 미안해하고 있었다. 그보다도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였다.』

거기는 영적으로 사랑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낙원에 있는 거예요. 축복이 그마만큼 위대한 거예요. 자, 읽으라구.

『요셉은 자기의 지난날의 지상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단한 송구함을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속죄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 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역시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17. 통일영계권. …… 쉽게 요약하면 지상생활의 연장이 천상생활이다. 영계란 곳은 자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알곡보다 소중한 것은 상대를 위하고자 하는 자세이다. 원리에서 배운 수수작용의 근본이 상대를 위한 것이니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르딘 40일수련 받은 가정은 총생축헌납제를 하고 이동 준비하라

다 왔나? 한국에서 온 사람들 손 들어 봐요.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전 비행기로 왔고 저녁 비행기로 또 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황선조 회장)」 많네. 「30명 정도 됩니다.」 자기가 보고 좀 하지. 변

소에 좀 갔다 와서 할까? 「예.」 그래, 변소들 갔다 와요. (국가 메시아들의 활동 현황을 대화식으로 보고를 받으심)

유정옥! 요전에 총생축헌납제를 해야 되는데 자르딘에서 수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배치하는 것이 문제라구. 그렇기 때문에 빨리 총생축헌납제를 하게 하고 같이 배치하라고 했는데 이대로 하고 있나? 「예. 공문 보냈습니다. (황 회장)」 공문을 못 받았다는데? 「나중에 받았습시다. (유정옥 일본회장)」 나중에? 언제 보냈는데 나중에 받아?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보냈습시다.」 「이-메일로 보냈는데 일본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락할 때가 언제야? 한 달 이상 됐는데. 「그때 바로 팩스로 받았습시다.」 팩스로 받은 지가 언제야? 한 주일도 안 되잖아? 「예.」 「다른 데는 다 연락을 받았는데 일본만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 보고한 내용들 다 알아요? 「자르딘 40일 이상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이동에 대한 공문이 나간 것 다 받으셨지요?」 다 받았어요? 그걸 언제 받았어요? 「12월22일에 받았습시다.」 내가 언제 지시했나? 11월에 지시하지 않았어? 「12월16일에 지시하셨습니다.」 나는 11월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2월16일입니다. 제가 아버지님 지시사항만 적는 노트가 딱 있습니다.」 (웃음) 늦었구만. 22일에 받았으면 오늘이 30일이니까 8일 전이구만.

이제 대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이동이 뭔지 알아요? 지상에는 고향도 없고 조국도 없어요. 통일되는 날에 지구성이 조국이 돼야 돼요. 4차 아담권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이동이 벌어져요. 고향 땅을 찾아야 돼요. 참부모에게 축복받은 가정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지가 자기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조국이라는 것은 영계예요. 영계와 육계가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지상은 거쳐가는 숙박지예요. 일생은 영계를 중심삼고 지나가는 한 숙박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거라구요. 여기서 태어나서 영계에 가는 거예요. 영계가 조국이에

요, 파더랜드(fatherland).

고향은 뭐냐 하면 홈랜드(homeland)예요. 그게 지구성이예요. 지구성의 어디냐? 이제부터 배치되는 거예요. 입적해서 하늘나라 국민으로 입적된 그곳이 추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딘의 세계평화이사장정교육본부에서 40일 교육받은 축복가정은 총생축헌납기금을 바쳐서 소유를 전환해야 된다고요. 전환해서 보따리 싸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이제 명령했는데 안 가면 자기 고향을 잃어버려요. 고향을 잃어버리면 탈락돼 버려요. 입적에서 탈락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야 축복해 줬는데 믿겠으면 믿고 안 믿겠으면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향토, 고향을 만들어 주고 조국 강토, 갈 수 있는 수만 되어 국가 형태만 갖추게 되면 그 가외는 가졌으면 가고 말겠으면 말고, 내버리더라도 연관 관계를 중심삼고 조상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법적으로 하늘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전세계에 공문이 나가요. 법적으로 처단할 때가 온다고요. 그때 가서는 자기들이 고향 가는 것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것을 연장시켜서 선생님이 고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가르쳐 줬으니 믿지 못한 녀석들은 세상에서 처리하게 놔둘 수밖에 없어요.

가정적·종족적·국가적 메시아가 하나되어 나라를 찾아야

자, 보고해 보라구. 거기서는 공문을 며칠에 받았어? 아프리카 왕, 김수용이던가? 「예, 저는 못 받았습시다.」 내가 여기에 며칠에 왔나? 「12월 18일에 오셨습시다.」 18일인데 22일에 받았다는 것은 뭐야? 전화하니까 보냈다는 얘기지. 그 전에 지시했던 것인데 말이야. 자, 보고해 보라구.

앞으로 여기 모임 때는 누구나 못 와요. 다 못 온다고요. 입적한 사

람 외에는 선생님이 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전부 이별이에요.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 메시아가 하나되어서 나라를 찾아야 돼요. 전부 하나님 나라에 입적시켜야 된다고요. 국가 자체가 선거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하나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요. 그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릴 수 없어요.

선생님 책임은 다 끝난 거예요. 미혼남녀 4억쌍 축복만 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7년노정이예요. 1997년을 중심삼아서 7년노정이예요. 칠팔절인가? 「예.」 천지부모 천주안식권 선포를 한 그때부터 지상세계와 영계의 정비 코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평에 데려다가 영적 사람과 지상 사람을 결혼해 줬지요? 「예.」 그때부터 7년노정의 완결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이예요. 그 기반 위에 천주적인 사사절을 자르딘에서 1월 8일에 선포했어요. 다 떠난 보낸 후에 선포했어요. 천주적 사사절을 왜 선포했느냐? 천지부모를 중심삼고 사위시대 완성, 천지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방권을 선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 축복할 때 축복 책임을 일본이 지느냐 하는 것을 결정 못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 못한 거예요. 일본이 책임 못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한 나라예요. 일본 책임자가 필요 없다고요, 사실은. 그 나라의 주권자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전권을 가져서 책임한 거예요.

일본이 통일교회를 없애려고 별의별 놀음을 다 하더라도 못 없애요. 없앴다가는 벼락을 맞아요. 그런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모험을 무릅쓰고 통일교회 사람들을 일본 책임자로 전부 배치했다구요. 식민지 통치 이상의 기준을 실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전부 책임자 됐지요? 「예.」

180가정씩 전도해서 한국에 배치하고 섭리적 6개국에 배치해야

이번 코디악 교육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체제를 일신해서 하나되는 거예요. 부모님 나라와 장자권 국가로 설정한 이 나라가 한 나라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일본 나라하고 미국 나라하고 절반, 3분의 1을 교체할지 모르겠다구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전부 바뀌 가지고 한 나라의 형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문화의 격차, 습관성을 극복해야 돼요. 자르딘에서 40일수련 받은 축복가정들에게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줬어요. 그 사진이 뭐냐 하면 일족이에요, 일족. 직접적 부모의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어 준 거예요. 그게 우연한 사진이 아니에요. 그 사진이 없으면 앞으로 아무 데나 못 간다구요. 천년 만년을 지나서 대수를 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중심삼고 한국일본미국, 이 세 나라에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는데 축복가정 하나가 180가정을 중심삼아서... 그러면 몇 명이에요? 칠 일은 칠($7 \times 1 = 7$), 칠 팔은 오십 육($7 \times 8 = 56$), 1260가정이 되는 거예요. 1260가정씩 한국에 오게 되면 가인 가정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80 곱하기 7을 하셨잖습니까?」 그 180가정이 뭐냐? 보라구요. 야곱 때는 종족적으로 12종족이고, 민족적인 모세 시대에는 72장로이고, 예수시대는 국가적 120문도예요. 선생님 시대는 180가정이에요. 「7은 무엇입니까?」 7년노정이에요. 7수를 대해서 7배예요. 7배, 7단계를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7배를 해서 180가정을 중심삼고 7대가 전부 입적하는 거예요. 1대 1대, 이렇게 해서 7배를 하니깐 1260가정이 되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입적해 들어오는 사람도 이 세 나라에 배치하는데, 통일교회 사람 외의 사람,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해 놓으면 4천만은 몇백 명씩만 하면 복귀되는 거예요. 4천만을 180으로 하면 얼마예요? 빼 보라구요. 그 사람만 빼치우면 한국이 4천만이 아니예요. 통일교회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놓아 가지고 전부 축복받은 사람들이 될 때는 그 축복받은 사람들을 세계로 배치하는 거예요, 추첨해서. 한국에 배치될지, 미국에 배치될지, 일본에 배치될지 몰라요.

여기 이 수가 꼭 차게 될 때는 그 다음에 2차대전 직후의 한국을 중심삼은 7개국에 배치하는 거예요. 한국을 중심삼고 영·미·불, 일·독이예요. 이것은 선생님이 40년간 매일같이 기도하던 제목이예요. 눈만 감아도, 꿈에도 나와요.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면 대번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면 한국·일본·미국·독일·영국·불란서·이태리가 나와요. 아주 공식이 됐어요.

이 7개국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배치해야 돼요. 이 세 나라에 배치하고 나면 장자권 나라인 독일이라든가 2차대전 때의 국가인 불란서·이태리·영국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진국가에 배치해서 빼앗아 나가는 거예요.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일교회를 안 믿던 사람들은 자꾸 쫓겨나요. 나라에 다 차게 될 때는, 딱 배치될 때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순식간에 할 수 있다구요. 한국 나라에 배치해 한국 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독일, 영국, 6대국이 일시에 다 차 버려요. 한국과 일본 나라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안 그래요? 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 먼저 점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중심삼고 1대 2대 3대, 전세계 사

람들이 조상 대수에 입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대주의 사람이 한국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수련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제 그렇게 배치했다고 국가가 반대도 할 수 없어요. 유엔의 결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다구요. 거기까지 왔다구요. 그럴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입적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헌납해야 돼요. 헌납한 조건을 중심삼고, 대표적 임무를 중심삼고 160수, 1만6천 달러를 조건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 재산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입적된 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을 중심삼고 한국으로부터 입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빨리 처리하느냐, 수속을 끝낸 사람들이 먼저 입적하는 거예요. 현재 교육받은 사람들을 배치할 거라구요. 한국에 갈지, 미국에 갈지, 일본에 갈지 몰라요. 이 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들이, 축복받은 가정이 얼마나 돼요? 세계적으로 다 배치하는 거예요. 지상까지 배치하면 영계도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이든지 축복받은 가정의 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이동을 해서 차별이 없이 하나 만들어야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입적하기 위해서는 7대가 하나되어야 돼요. 축복 가정들은 160가정에서 180가정을 전도해야 돼요. 어디의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해야 돼요. 160을 채울 거예요, 180을 채울 거예요? 전부 180을 채워야 된다구요. 그래서 1800가정을 축복했다구요.

그래,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구성이 고향이에요. 자기가 난 곳은 사탄세계의 지배권이 있는 나라들이예요, 한국이나 모든 나라가. 이제부터 남북이 통일된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면 대번에 입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민족 대이동을 중심삼고 자르딘에 가서 축복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사람들을 축복받게 해서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굽고 있는데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해서 몇십만을 불러다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180개 국가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새로이 한국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통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전부 같은 전통을 갖는 거예요. 한국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니 역사의 차별이니 하는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동양은 정신문화이고 서양은 물질문명인데 이로 인한 동서 문화의 격차, 남북 빈부의 격차, 하늘땅의 선과 악의 투쟁사, 이 모든 것을 정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향이 하나예요, 지구성을 중심삼고.

모세 시대에는 민족 대이동을 했어요. 민족 대이동을 해서 국가를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때는 축복가정이 없었어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생님 시대에는 4천3백 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가정적 메시아가 돼서 세계 가정, 지구성 반환이에요. 알겠어요? 지구성을 바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요.

남북이 통일되는 날에는 동서가 통일되고, 동서가 통일되는 날에는 천지가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적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적으로는 영계가 통일됐어요.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이 돼 있고 영계의 기성가정을 축복해 줬고, 노아 가정과 같이 약속만 하고 가정을 못

이뤄서 저나라에 가서 혼자 살던 패들을 축복해 줬어요. 전부 갈라져 살던 것을 붙여 준 거와 마찬가지로요. 합해 줬어요.

그 다음에 어린애들, 16세 미만의 나이로 죽은 아이들을 길러 가지고 축복해 줬어요. 아기로 죽은 영들을 기르는 거예요. 후손들과 조상들이 제사해 주고 정성들여 주면 자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헌금해 주고 기념 날에는 축하해 주고 그러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 이상된 영계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축복해 준 거라구요. 알겠어요?

축복도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원수하고 해주는 거예요. 개인적 원수, 가정적 원수, 국가적 원수하고 해주는 거예요. 전부가 원수들이 생겨난 거예요. 네 집안 식구, 네 동네 사람, 네 나라 사람이 원수예요. 국경을 중심삼고 국가 국가가 원수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끼리 교차결혼, 섞어서 해주는 날에는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축복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세계로 대이동하니까 자기 나라니 무엇이냐 하는 관념이 없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빨리 한 사람들은 한국에, 부모의 나라와 장자권 나라, 3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갈지 어디에 갈지 몰라요. 쫓겨나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요. 한국의 기성교인들같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쫓겨나요. 못 살아요.

말씀선집은 참부모가 남겨 준 최고의 경서이자 법

매일같이 국가적으로 훈독회를 하는 거예요. 훈독회를 하는데 지금처럼 주제별정신을 훈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305권? 「306권입니다.」 306권? 이제 360권이 돼야 되겠구만. 내가 죽을 때까지 말하면 될 거라구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겨 준 참부모의 최고의 경서예요. 그것은 헌법이에요. 헌법과 법이에요.

나라가 없어도 가정을 가져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라가 없더

라도 하늘나라에 다 간다구요, 일족을 중심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경찰도 없어져요. 자치제 형태로 바뀐다구요.

매일같이 혼독회를 한다면, 주제별정선을 혼독회한다면 이 말씀이 306권 가운데 어디에 있다 하는 그 페이지를 기록해야 돼요. 그런 것을 참고해 나가면서 쪽 혼독회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혼독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 ‘오늘의 혼독회’라고 해서 시간만 있으면, 밥 먹을 때나 언제나 하는 거예요. 영계에 보조를 맞추어야 돼요. 영계에서도 그것을 하거든. 말씀을 중심삼고 자기 자체에 대해 서로서로 충고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즉각 보고해야 돼요. 아버지고 형님이고 그것이 없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혼독회한 말씀을 중심삼고 24시간 그 말씀의 실체대상이 돼 있느냐 이 거예요. 재창조 과정을 촉진화시켜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 절대신앙·사랑·복종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

‘가정맹세’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이 가정이 되며」 대표적 가정이 꼭대기라고요. 여러분이 맨 꼭대기의 가정이에요.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구요. 그 다음에 뭐예요? 꼭대기만 되면 안 돼요. 「중심적 가정이 되어」 중심적 가정이 되어야 돼요.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개인 가정이 완성되는데, 지상의 세계화 판도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합니다.’예요.

축복을 받을 때는 거꾸로 받았다고요.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 맞춰야 돼요. 탕감하면서. 탕감해야 된다고요. 축복받았다고 탕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 때문에 같은 자리에 서고 축복을 받고 해방의 자리에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할 수 있어야 이상적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뭐예요? 「대상적 지상세계의…」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를 알아야지요. 5번을 모르면 안 된다고요. 매일 천상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나? 영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지금 전진해서 발전하는데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채찍으로 몰아치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후려갈기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열여섯만 되면 쫓아내지요? 그럴 때가 온다고요. 몽둥이로 후려갈긴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5번이 그래요.

신인에 일체권을 이루어 천주의 승리권을 상속받자

1번, 2번, 그 다음에는 영계의 아담 가정, 본성의 자리를 중심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이 됐으면 영계와 분립할 수 없어요. 영계 육계로 가정이 분립했던 것을 통일해야 돼요. 통일하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을 중심삼고 강제로 하는 거예요. 아벨적인 기준이 장자권이 되면 가인적인 기준은 몽둥이로 후려갈겨서라도, 강제로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형님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결정됐으면 그 말에 절대복종해야 된다고요.

6번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하나되었으니, 통일되었으니 참부모님 대신 통일교회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환경에, 가정에 참부모의 천운을 번식해야 돼요.

그래서 7번에 가서 사랑할 것이 뭐냐? 영원한 본연의 혈통을 남겨야 돼요. 혈통을 더럽히면 안 된다구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즉각적 처단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술 먹고 깡패짓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마을 전체가 뿔뿔 뭉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이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금년에 집어넣었지요? 금년을 넘어 가지고 제4차 아담권 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이제 복귀예요. 자르딘에 가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선포했어요.

북쪽은 프로테스탄트, 남쪽은 가톨릭, 구교 신교가 갈라진 것을 전부 갖다가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를 맞이할 수 있는 재창조역사의 완결을 지어야 돼요. 축복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물에서부터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지어 올라와서 아담 해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권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구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제멋대로 결혼한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주시대는 약혼 단계예요. 결혼을 못 했어요. 약혼해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2천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에 사탄이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사탄세계에서 죽이고 죽이고 남은 찌꺼기들이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처참했고, 기독교도 로마 아래서 4백년 동안 탕감한 거예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catacomb)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인들의 무덤이에요. 송장, 해골 골짜기와 마찬가지로요. 그

것이 부활돼요. 주님이 와야 해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에 일체이상을 이루어'예요. 신인에 일체이상, 이건 사위기대 삼대상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이 없으면 큰일나요. 지상천국이 됐고 천상천국이 됐더라도 이것을 통일시킨 통일적 하늘땅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상대권이 돼야 하나님, 주체 앞에 대상적 가치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은 거기에 가서 받는 거예요.

상속은 가정에서 못 받아요. 천주의 대승리권을 상속받는 것은 8번에 나온 것처럼 신인에 일체권을 이루어야 돼요. 아담 가정이 이상하던 것으로,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모·부부·자녀 사랑의 통일이 이뤄져야

일심통일(一心統一), 여기에 붙은 것이 승한성취(勝恨成就)입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한을 이겨서 소원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식당에 붙은 것은 일심정착(一心定着)이에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세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통일이 이뤄져야 됩니다. 상하(부모) 통일, 좌우(부부) 통일, 전후(자녀) 통일, 이렇게 3세계의 통일 가운데,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3사랑을 통일시킨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통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관계 통일, 부부관계 통일, 자녀관계 통일, 형제관계 통일이예요. 동양사상에는 형제관계 통일이 없어요. 부자관계, 부부관계 통일은 있지만 말이에요.

동양사상이 뭐예요?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뭐예요? 오륜이 뭐예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에요. 오류에는 사랑에 대한 정서가 하나도 없대구요. 천사권이예요. 삼강은 뭐예요?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입니다.」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예요.

그것의 총평이 뭐냐 하면,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도지상(天道之常)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성지강(人性之綱)이라.’예요. 거기에는 원인적인 것이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원형이정은 천도지상’, 하늘의 도리의 길을 중심삼고 움직이는 것을 말했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 사람이 가야 할 도리인 인성지강이 뭐냐 하면 인의예지예요. 사랑이나 정서적인 것이 다 빠졌대구요. 그러니 천사권이예요.

그런 걸 내가 자꾸 말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다 빼 버려요. 유학 같은 것 말이에요. 《명심보감》을 보면 ‘위선자(爲善者)는 천(天)이 보지이복(報之以福)하고, 위불선자(爲不善者)는 천(天)이 보지이화(報之以禍)니라.’ 했대구요. 첫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선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고 악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어요. 가정이 중심이 되어 있대구요. 동양사상을 빼 버렸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유물을 정리해서 대이동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대이동 시대가 온대구요. 한국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정리해서 그 나라에 남겨 놓는 것이 아니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금은보화를 애굽에서 도적질해서 나오다가 애굽의 병마가 따라온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모세가 명령에 따라 전부 강탈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세계에 살던 자기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이웃사촌에게 빛을 지든 친척들한테 거둬서라도 보따리 싸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때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돈의 팔촌, 180가정, 거기 내외의 3대까지 대이동하는 거예요. 자기 외척이 있잖아요? 사위 며느리의 3대까지 전부 보따리 싸서 대이동하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자기도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기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이동되는 거예요. 일족권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정을 중심삼고 3형제면 몇 가정이에요? 삼 팔이 이십사($3 \times 8 = 24$) 삼 일은 삼($3 \times 1 = 3$), 540가정이 돼요. 540가정에 7백 가정 하면 얼마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말하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돈의 외촌까지 3대를 동원해서라도 살게 하려니, 도적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팔게 해서 대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바람이 분다고요. 몇 개 나라만 돼 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자동적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헌납하기 위해서 줄이 국경을 넘어서 뱀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끝장이 나니까, 한 나라 국경이니 두 나라 세 나라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국경에 뱀과 같이 되어서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족민족국가 관념이 다 없어져요. 알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없어집니다.」 6천년 전에 갈라졌던 모든 인류가 환고향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지요? 2천년 동안에 그런데 6천년 동안에 무슨 색깔이 없겠어요?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야 아담 세계가 돼요. 그래야 아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구성이 우리 고향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임자네들은 고향이 어디야? *오

쓰카! 고향이 어디야? 일본 고향이 어디야? 「니카타입니다。」 니카타가 네 고향이 아니라구. 본래 지구성이 천국인의 고향이야.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어디 가든지 세계를 무대로 하는 천국 사람이 돼야 돼요. 고향을 찾아야 돼요. 조국이라는 것은 뭐냐? 지상세계와 영계를 한 나라로 봐요. 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축복받고는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태어나서 축복받으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어요. 다 형제 아니에요? 이동하는 차이는 있지만 6대주의 모든 가정이 가정적 형제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적 형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 사돈 관계가 되어 있어요. 180가정에 다 사돈이 있지요? 사돈의 집으로 6대주가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구요.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지구성이 고향이니 취미에 맞춰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족 가운데서 국제결혼을 한 사람은 복이라고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180가정을 중심삼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산업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취미에 따라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냥을 좋아하면 산을 따라가고, 고기를 좋아하면 바다로 가고, 평지를 좋아하면 평지에서 농사를 짓든가 밭 하든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세계를 국경의 체재 없이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구성이 우리 고향이니까. 체재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되었다가는 선진국가 후진국가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 완전히 섞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1대조 2대조 3대조, 쪽 내려가요. 36가정이
고 뭐고 다 없어요. 36가정이 아프리카도 갈 수 있다구요. 밥 먹고 살
고 자기들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이구, 기금을 돈이 없어서 못 합니
다!’ 한다구요. 몇천 년 동안을 탕감복귀했는데 그것을 못 해요? 이제
라도 일가 친척을 중심삼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기금을 내라는 거예
요. 오아마다는 탕감기금을 네 아들딸하고 일주일 동안 해서 냈다구요.
일주일 동안에 6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더라구요.

소유권을 전환해야 돼요. 소유권을 전환하지 않으면 있는 것을 전부
잃어버려요. 명령받고 며칠까지 떠나라고 했는데 못 떠나면 문제예요.
군대 입대에서 탈락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내가 남미 40일수련을 받
은 사람은 보따리를 싸 놓고 기다리라고 그랬지요? 그런 얘기를 수련
가서 들은 사람은 손 들어 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
다.」 완전히 준비해서 언제 출동하라고 하더라도 미련 없게끔 하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때 뒤돌아본 것처럼 하
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다 팔아 가지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환영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구요.
지금 동네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반대도 아니예요. 동네 개는
지나가게 되면 짖는다고요. 자기 주인도 먼 데 있으면 짖는다고요. 짖
어요, 안 짖어요? 「짖습니다.」 먼 데 있어서 주인의 냄새를 맡기 전에
는 짖어요. 마찬가지로요. 대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서 제4차 아담권, 지구성 고향을 갖게 될 때 타
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요. 지구성이 고향이에요. 그거 맞아
요, 틀려요? 「맞습니다.」 조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예요.

게가 허물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곤충이 애벌레에서 껍데기를

벗는 것과 같아요. 그거예요. 게가 껍데기를 벗을 때 보면 껍데기가 산
계와 똑같아요. 몰라요. 어떻게 빠져 나왔는지 연구할 만하다구요. 뱀
도 그래요. 스크루 뱀은 10미터 이상 되는 뱀인데 허물이 나무에 걸려
있다구요. 올라가서 틀면서 벗기는 거예요. 쪽 반대로 이렇게 하면 벗
겨질 것 아니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아기가 태어나서 땃줄이 마르게 되면 보관하는 거예요. 집의 어머니
아버지가 놓 구석에 만아들의 무엇이다 해서 수두룩하게 싸 가지고 있
더라구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 그러니까 지
상이나 영계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이고
영계가 조국이에요. 하늘나라에 입적하면 조국과 고향이 없어요. 타락
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이 없어지지요?

위하여 투입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론적인 결론의 해방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4차 아담권 시
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참부모의 이
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 졌어요. 다 알아요.

자기가 천국 같지 지옥 같지 다 알아요. 개인 완성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부부 완성이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자식들과 어떻게 하나되
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종족 완성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
서 쪽 가는 길이 개인은 가정을 위해 투입하고 희생하고, 가정은 종족
을, 종족은 민족을, 민족은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세계는 천주를, 천
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 투입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까지 가서 전부 상속받는 거예요.

위해서 투입하고 희생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대상권이
우주화되기 위한 그런 상대권, 사랑의 대상을 만들던 것을 연결시키려

니 투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투입해서 대우주를 만들었지요? 통일교회가 그런 관이 일치해요. 개인관과 가정관이 떨어지지 않아요. 참사랑은 분리가 안 돼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투입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관계예요. 거기서 상속받는 거예요. 출발과 꿈지가 같기 때문에 대상이 하나님 앞에 가서 동등한 소유권을 받는 거예요. 이 동등한 소유물이 이 피조세계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요? 한 점을 중심삼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삼고 개인완성 가정완성, 이렇게 간다구요. 그걸 쪽 굿게 되면 개인완성 가정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굿게 되면 이렇게 되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누르면 한 점을 중심삼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세우려니 확대하기 위해서는, 큰 것을 바라기 위해서는 큰 희생의 탕감조건을 세워야 돼요. 가정 기반에 안식하고 가정을 찾아서 살게 되면, 가정을 위해서 투입하게 된다면 가정 천국밖에 못 가요. 그건 열매를 못 맺어요. 나뭇잎과 마찬가지로요. 나라에 소속해서 붙어 살지만 충신이 못 돼요. 나라의 가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되게 돼 있다구요. 선생님이 깨끗이 다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 영계의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영계에서도 혼동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상의 완성 기준으로서 선생님이 아담권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 안 된 모든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체제 정비예요.

다 아는 거예요. 개인완성, 가정완성... 다 알아요. 말만이 아니예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완성이예요. 가정을 중심삼고 일족 앞에 희

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고, 또 구세주가 돼요.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 아니예요? 투입하는 거라구요. 모른다는 말은 성립 안 돼요. 알겠어요? 「예.」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강제로라도 축복을 시키자

지금 대이동이 벌어져야 돼요. 7대 손이 하나되어 가지고 대이동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가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곳을 중심삼고 1대 2대로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천 수만 대가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 대가 되니 지구성과 영계가 대수권 내의 조상과 후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라구요.

그래서 고향과 조국이 하나예요. 만민이 다 같은 고향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지구성이예요. 조국도 하늘나라예요. 딱 채워야 돼요.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돼요. 그대 놓아야 지구성을 떠나면 조국광복이라는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급을 출발할 때 한 마리도 남으면 안 되는 것처럼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식·부활식·영생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남겨 놓으면 자기 일족, 강씨면 강씨는 늦어 버려요. 길을 못 떠난다구요.

그러니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하루에 작당해서 전부 해야 돼요. 자원하게 돼 있지, 작당하게 안 되어 있어요. 세상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다 가야 돼요. 알겠어요? 「예.」 어디로 갈지 모른다구요. 그러니 정성들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교육받으러 가겠으면 가고 말겠으면 말라구요. 내 책임이 아니예요. 선생님은 지시한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사랑하는 나라, 특별한 나라, 선생님이 정성들여 공이 많은 사람들을 선출해서 순서대로, 나라 대표에 충성한 수가 많

은 것을 순차적으로 복귀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일족을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가 활동할 수 있는 수를 누가 플러스시키느냐 이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런 나라를 중심삼아서 국민의 몇 퍼센트를 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이 많을수록 좋지 않다고요.

작은 나라, 약소 국가가 대부분 저개발국가지요? 그러나 선진국가가 하늘나라에서는 저개발국가예요. 돈 있지, 먹을 것이 있지, 마음대로 한다구요. 세상을 몰라 가지고 천대하고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밤이 됐기 때문에 낮이 될 때는 지구의 반현이 낮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대 확청(廓淸)운동이 벌어진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자르딘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때에 허락한 것이 뭐냐? 이번에 공문을 낸 게 이거예요. 안 간 사람은 총생축헌납기금을 조건으로 해서 빨리 바치라는 거예요. 바친 사람은 선생님의 생일을 중심삼아서 그때 가서 배치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4월 5일이 결혼기념일이니까 그때까지 연장할지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늘이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선생님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줬다고요. 대이동해서 한국에 왔다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예요. 세계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넘어서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소유권을 전환해서 대이동을 하여 취미생활 하면서 살자

말씀 훈독회 책임자를 교육해서 훈독회 해야 돼요. 열성분자는 전부 훈독회 하는 것이 숙달돼 있거든. 영계에 가서도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보따리 싸고 기다리라

는 거예요. 국가에 앞으로 헌병대가 통일교회 조직으로 생겨날지 몰라요. 경찰 이상의 세계 경찰대예요. 통일교회 경찰들은 와이로(わいろ; 뇌물)가 안 통해요. 선생님이 와이로를 받고 일해요?

일본 나라는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야 돼요. 어머니 나라가 말이에요.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남아야 할 텐데, 이놈의 간나 자식들, 망하려고 살림을 차리고 있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가 나와야 돼요.

통일교인은 소유권을 전환해야 돼요. 자기 사돈의 팔촌, 팔촌의 3대까지 전환해야 돼요. 팔촌의 외척까지, 며느리 친척의 3대까지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10대예요. 10수를 중심삼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를 치든 협박을 하든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 축복받게 해주면 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이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10대가 이동하면 몇 명이에요? 많이 있는 종족들은 몇천 명, 몇천 가정이 될 거라구요. 540가정에 7배 하면 얼마예요? 오 칠은 삼십 오 ($5 \times 7 = 35$), 사 칠은 이십 팔($4 \times 7 = 28$)....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 살던 사람은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몽땅 차지해서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공평하게 바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당은 소유권을 강제로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진해서 하는 이 행렬이 역사상 제일 길어요. 입적하는 수속을 해야 돼요.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일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어디로 갈 거예요? 태평양으로 들어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삼고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투입해서 전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활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통해요. 한국 지도자가 여기에 와서 활동하고, 일본 지도자도 여기에 와서 활동하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 한국말은 조국어예요. 왜? 자기 고향 말이라구요. 한국말이 영원한 조국어, 하늘나라의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의 세계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됩니다.」 그렇게 안 해 가지고 하나의 세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래서 그 가정 일족이 와서 종족적 메시아의 생활을 중심삼고 굶어도 세계를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굶는다고 해서 가나안 7족한테 가 가지고 동물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 망했어요. 알겠어요?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어디 가든지 땅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농사지어라 이거예요. 과일 나무를 심어라 이거예요.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을 길러라 이거예요. 그런 놀음을 선생님이 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거예요. 취미산업이에요. 취미예요, 취미. 세계 어디든지 자기 일족을 찾아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고향을 떠나 가지고 어디 가서 죽을지 몰라요. 죽더라도 저나라에 가면 다 만나잖아요? 80년, 백년 후에는 다 만나지요? 지구성이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세계에서 계가 허물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알맹이는 영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영진이가, 아들딸이 가더라도 그걸 생각한다구요.

국가 메시아는 각 나라에서 정성들여 본부를 지어야

성화식이에요, 승화식이에요? 「승화식입니다.」 승화가 뭐예요? 무슨 승 자예요? 「오를 승(昇)」 자입니다.」 오를 승, 거룩하게 안개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천상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화식인데, 저나라에는 혼자 못 들어가요. 이상적 가정이 돼야 돼

요. 알겠어요? 「예.」

돈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다 뿌려 버려요. 선생님이 지은 집 외에는 하늘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들여서, 통일교회 사람들 손을 거쳐서 지은 집은 미국의 이 집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선생님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천성 뭐라고요? 「천성왕림궁전입니다.」 그것은 영계가 지어 줬어요. (웃음) 영계본부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왕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 집하고, 그 다음에 자르딘의 호텔이에요.

우루과이에서는 제일 좋은 집을 샀어요. 560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요. 230만 달러를 들여 수리하는데 그 이상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루과이에서는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해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박물관과 같이. 거기에 문총재가 와서 살 줄 알지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나라에 선생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알겠어요? 정성들여 가지고 국가 메시아들이 집을 지어야 선생님이 안 가면 그 옆방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궁전같이 지어야 돼요. 국가 메시아들이 그것을 해야 돼요.

본부를 사탄세계 이상 지어야 된다고요. 네로 황제는 미쳐서 로마를 불살랐지만, 우리는 미치지 않고 정신 똑똑히 차려서 사탄세계를 불살라야 돼요. 하늘을 반대하고 하늘에 염려의 대상인 된 그 나라의 권력 기반을 전부 불살라 버려야 돼요. 책이든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돼요. 땅 위의 모든 건물이 심판받고 책이 심판받는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염을 만들어서 연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사상을 가져야 돼요.

어디를 거쳐왔으면 더러워진 발을 집에 들어설 때는 성별해야 돼요. 땅에 성별, 승화식을 해줘야 돼요. 생각해 보라고요.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서둘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겠어요?

참순결 자녀 짝짓기 운동의 의의

이때에 축복가정들이 4억쌍 핏말을 드는데, 기성가정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면 일시에 다 할 수 있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축복해 주면 2000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 못 했지요? 국가 메시아들이 전부 책임 못 했어요. 책임 할 수 있는 한계를 다 가르쳐 줬어요. 밤낮으로 울고 다닌 사람은 다 하게 돼 있다가요.

짝짓기를 해준 것이 몇 쌍이라구? 「제가 떠나오기 전의 통계가 3억 9천820만 명입니다. (황선조 회장)」 4억이 넘겠구만. 「오늘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억쌍이 넘을 겁니다.」 열두 살 이상이지? 「예.」 그러니 3세는 아담 해와 아들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대들은 전부 그 소속이 되는 거예요. 짝짓기 하라고 할 때 한국도 반대하고 일본도 다 반대했지요? 어디 갔나, 봉태? 김봉태, 안 왔나? 「저 녀 비행기로 올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했지? 「예.」 이름이 뭐라구요? 「참순결 자녀 짝짓기 운동'입니다.」

참순결 자녀 짝짓기 운동,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예요. 오빠 누나, 이러지요? 동생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누이동생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요? 오빠 누나라는 말은 하지만 말이에요. 누이동생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통일교회에서 누이동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이동생이라는 말 대신 재미있는 말을 하나 지어야 돼요.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생각해 봐요.

처녀들은 남자보고 자기 윗사람이면 오빠라고 하지요? 오빠는 뭐라고 해요? 누이동생이라고 그래요? 「누이동생이라고 합니다.」 글썄 누이동생인데, 누이동생이라고 해요? 「그냥 동생이라고 합니다, 여동생.」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여동생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야, 여동생아!’ 그래요? (웃음) 그 상대의 이름이 없어요. 사탄세계에는 없어

요. 하늘나라에서는 여동생이 상대가 돼요. 둘밖에 없으니까.

누이동생이 누구냐? 3대를 중심삼고 보면 할머니, 어머니, 딸이에요. 여기에 할머니, 부모, 젊은 청년 형제,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이동생을 중심삼고 4단계를 거쳐야 3대가 돼요. 거기서부터 횡적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누이동생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짝짓기 해서 오빠 누이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윗사람, 누나하고 짝지어 주어요, 한 살이라도 아랫사람하고 짝지어 주어요? 「아랫사람하고 해줍니다.» 아랫사람하고 짝지어 주게 돼 있다구요. 이것이 순결 남매 짝짓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라구요.

참부모를 중심삼고 성주를 마시지요? 앞으로 짝짓기하고 3년 이내에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7년 이내에 딸이에요. 열두 살이면 열아홉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만 3억6천만쌍을 데려다가 축복해요. 학교에 가서 강제적으로 해도 된다고요. 타락하기 쉬운 때인데, 젊은 사람들을 빨리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16세까지 내려갔는데 열두 살까지 결혼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정신 똑바로 차려서 관찰해 보고, 내가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요. 어디에 배치될 때는 일족 7대가 가입해야 돼요. 일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서라도 일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라구요. 그래야 통일이 벌어져요. 불평이 없어요. 국경이 없어지니 세계 어디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참새도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못 날아오지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성에 있던 사람들이 영계에 가게 되면, 조국에 가게 되면 한 곳에 모여 살아요. 자기와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몇 시예요? 「6시 5분입니다.» 보고해 봐. 「간단히 하겠습니다. (황

선조 회장)」 간단히 하겠으면 하고, 빨리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구.

「그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활동에 대한 황선조 회장의 보고)」

박보희! 유니버설 발레단 여론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8시까지만 얘기해요. 20분만 보고해요. 그리고 저녁 먹자구요. (박보희 회장의 보고)

몇 시간 됐어요? 저녁 먹고 헤어지자구요, 또 모이자구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현 씨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을 다 끝내야 된다고요. (경배) 선생님에게 이렇게 와서 경배하는 것이 잊지 못할 일이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구요. 「내일 아침에 남은 부분을 혼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먹자구요. *

제17회 애승일 기념예배 말씀

(애승일에 대한 곽정환 회장의 보고) 흥진군의 축복받은 가정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축복가정과 마찬가지로 아들딸과 색시를 두고 가게 되면 저나라에 가서도 지상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 그런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천상세계의 사랑의 대왕자로 갔지만 지상 세계에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영계에서 축복이상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대표자 흥진님

그래서 지상의 축복과 영계의 축복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연으로 영계 축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방적 인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구요.

이제는 그만 하고, 그 역사를 읽으라구. 「예. (곽정환)」 나중에 흥진군이 영계에 가서 어떤 입장에 있느냐? 참부모님의 사랑의 혈족으로서 영계에서 축복이상을 이룰 수 있는 문을 여는 최고의 대표자가 되게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책에 있잖아요?

2000년 1월 2일(日), 뉴욕커 호텔 2층(미국 뉴욕).

사령관으로서 사명을 한다는 부분을 읽어 주라구. 그 메시지를 읽어 주라구. 그리고 상헌 씨의 말씀을 중요시하라는 내용도 있다구요.

상헌 씨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은 주제별 정선 11권 12권에 영계에 대해 선생님이 말씀한 그 내용의 결과를 말했기 때문에 뺄 수 없어요. 전환시대에 하늘이 이미 그걸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헌 씨도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을 보게 되면 문을 열고 나갔다고 하지요? 그런 것도 전부 일치되는 내용이라구요. 그것을 읽어 보면 대개 영계의 실상도 알 것이고, 자기가 지상에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을 잘 모셔 달라고 효진군과 예진양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내 대신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효진아, 잘 들으라구. 부처끼리 잘 들으라구. 읽어 주라구.

참아버지 대신으로 영계의 총사령관으로 간 흥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흥진님은 아버님께서 지상에서 성혼을 해주시고 양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50일 만에 해준 거예요. 성령이 유월절 이후 50일 되는 오순절에 강림한 것같이 50일 만에 성혼식을 해준 거예요. 성신 강림을 영적으로 했던 것을 실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독교 전체와 앞으로 영육이 갈라진 지상 기독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화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훈숙님과 축복을 해주시고 신철님을 양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 성혼식을 해주시면서 아버님께서 120개 국가의 선한 왕들이 대표적으로 흥진님을 영계에서 모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자기들 나라에 재림해서 선한 주권자들을 협력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만국의 대통령들을 치리해서 통일천하를 이루지 못한 모든 사실이

예수님의 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홍진군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계 전체에 자유자재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변천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구요. 그것을 읽어 주라구.

청평에서 온 대표자 잘 들으라구. 홍진군이 보낸 거라구. (《마지막 인생이 가야 할 길》 74쪽 훈독)

『홍진님이 참부모님께 올리는 메시지.

참부모님께 올립니다. 아버님, 저 문홍진입니다. (중략)

저도 혼숙 씨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이곳은 사랑의 동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서 혼숙 씨를 생각하면 홍진이도 훌쩍 지상으로 내려가서 혼숙 씨와 신나게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숙 씨가 저 대신 오랫동안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곳 총사령관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총사령관이라는 말이 나온다구요. 영계 육계의 축복가정의 대표자가 되어서 영계 육계의 모든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을 진 입장에 있어요. 구도의 모든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총수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런 입장으로 보낸 거예요.

참부모님의 자녀로서 그런 탕감적 조건 내용을 중심삼고 통일식 위에, 통일의 조건 위에 간 사람은 홍진군밖에 없기 때문에 형님이건 동생이건 아버지 대신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홍진군과 같이 저렇게 특별히 대변할 생각을 하지 말라구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간 것과 같은 입장에서 언제든지 해야 돼요.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홍진군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계가 그렇게 돼 있다구요. 총수, 사랑의 세계에서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라구요. 다시 한 번 총수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읽어요.

『그러나 훈숙 씨가 저 대신 오랫동안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곳 총사령관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이 천하에서, 영계나 어디나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사랑 이상의 중심으로 가 있는 홍진군을 중심삼고 그 표상 밑에 상대적 입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천운이 돕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천운이 돕는 거예요.

제4차 아담권 시대와 입적 시대

이번에 일화 천마 축구단이 맨 꼴찌에서, 지옥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마 축구단이 꼴찌를 하니까 ‘아이구, 통일교회 축구단이 저렇게 떨어지니까 개운하다!’ 했다고요. 그런데 맨 꼴등을 하다가 하루에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 갔다는 말도 있고, 왕중왕이 되는 놀라운 놀음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박판남이 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부회장이 되었어요. 부회장이 실력적인 입장에서는 회장의 입장이에요. 앞으로 그 환경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대표자가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일교회가 전세계의 종교권 내에서도 올라갔지만, 앞으로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나라의 역사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4차 아담권 시대를 발표했다는 것은 무엇이나? 전세계 축복가정들이 4차 아담, 새로운 아담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부 축복받은 가정들과 같은 입장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축복받지 못해서 영계가 비었던 모든 사실,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축복받은 그 출발과 더불어 수천만 년 내려오던 모든 조상들이 남겨놓았던 집, 천국의 모든 자리를 메울 때가 되었다고요.

때가 그렇게 되었어요. 지상세계나 천상세계나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메을 때가 되었는데, 여기 지상에 새로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증족을 중심삼은 입적시대가 나와요. 나라에 입적하는 입적시대예요. 입적하기 위해서 현재 자르딘에서 40일수련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사진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직계 자리를 중심삼고….

선생님이 1대가 되는 거예요. 4차 아담권 승리 1대에서부터 2대, 3대, 4대로 쪽 내려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지상에서 채워 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의 아담 역사는 동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 복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장자권이 복귀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 입장에 있던 모든 영계는 동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 자체는 동생이 되는 거라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몸을 접붙여 가지고 영계 축복을 해서 가정적 형제가 되어 가정적 왕권을 중심삼은 하늘 부모, 천지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비로소 천지부모를 모시고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이제 정비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주일 전에 ‘천주는 우리의 고향과 조국’이란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천주가 조국이 안 돼 있고 고향이 안 돼 있다구요.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태어나기를 여기서 태어났으니 뒤집어져서 손바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이 손등이라면 영계는 손바닥과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포용하고 보호하는 거라구요. 그러한 하나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로서 장자권·부모권·왕권을 복귀했기에 축복해 줄 수 있다

제4차 아담권 해방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고향과 조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과 나라는 어디냐?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어디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타락한 세계의 유물이에요. 그것을 다 차 버리고 새로이 지구성을 중심삼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지구는 하나예요. 하나님 치리 하의 지구성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여기에 경계선을 이루어 지구성을 점령해 나왔다고요. 이쪽 돌감람나무 세계에 참감람나무를 심어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절반 이상 크게 한 것이 민주세계예요. 유심세계와 유물세계가 있는 거예요.

종교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재림주가 이 땅에 와서 돌감람나무 밭을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 있는 승리권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2차대전이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은 뭐냐? 기독교 문화권을 따라서 세계가 하나돼 있기 때문에, 참감람나무 민주세계의 밭 앞에 돌감람나무 되었던 추축국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라서 접붙여 가지고 거기에 축복을 해주어야 하는 놀음이 이뤄져야 했어요. 그것을 기독교가 반대하고, 유심세계가 반대하고, 유물세계가 반대했어요. 유심세계와 유물세계, 그 다음에 모든 종교와 모든 나라들이 선생님을 반대했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을 하나 만들어 넘어서서 재편성해야 돼요. 1대조 완성된 아담을 중심삼은 천주의 대주재 사랑의 주권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대표 왕권을 중심삼아서, 왕 대표를 중심삼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자권과 부모권, 왕권을 복귀해서 장자의 왕, 장자의 부모, 장자의 장남권을 선생님이 완성한 자리에 썼기 때문에, 이것을 쪽 해서 혈통전환해 가지고 축복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영계와 육계에 축복가정을 만들어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승리한 몸뚱이를 잘라서 접붙여 주는 거예요. 16세까지는 아담의 몸으로 있어요. 그 이후에 천사장의 몸을 이어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잘라 버리고 선생님이 16세부터

지금까지 승리한 모든 전체의 실적을 접붙여 주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을 품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본래 여자들은 사탄편의 아들딸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선생님 편에
전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대장이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천
상세계와 지상세계 여자들의 사랑의 대왕마마님이예요. 그렇게 됐다고
요. 그런데 이제 참부모가 와서 택한 어머니를 중심삼아 가지고 어머
니 분신과 같은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16세 이후에 사탄이
침범했던 것을 싸워 정리해서 타락하지 않은 승리의 판도를, 천국을
회복했어요.

그 회복한 실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한 승리의 부모님의 몸뚱이를 타락한 세상의 남자들에게 접붙
여 주는 거예요. 16세 이전의 타락하지 않은 기준까지 잘라 버려 가지
고 거기에 선생님이 승리한 것을—승리에는 영계 육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접붙여 줌으로 말미암아 여지들과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
요.

본래는 여지들과 축복 못 받아요. 접붙여서 아담 동생과 같은 자리
에 섰기 때문에 선생님 편에 있는 어머니 분신과 같은 여지들을 나눠
주는 것이 축복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엄청난 내용이라
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들이 천만년의 수난 길에서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이 고생한 이상 고생 못 하는 한 남편에게 순응해야 하고, 아버지
에 대해, 아들딸 장자 차자에 대해 순응해서 저끄러진 역사적인 전철의
모든 한을 청산시켜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청산해야
할 엄청난 생활적 조건이 남아있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
인지 알겠어요? 광정환, 알겠나? 「예,」 모르겠으면 선생님의 말씀을 녹
음해서 다시 들어 봐요.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
겠어요.

청평 역사는 총모님 대모님 어머니의 역사

읽으라구. 장자권으로서 영계의 총수로 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상에서 축복한 가정이 형님이라 하면, 영계에 있는 모든 축복받은 가정은 둘째 번입니다. 둘째 번에 축복받게 된 것은 홍진군이 다리 놓은 조건을 중심삼고 연결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홍진군을 위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게 될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계의 조상들을 해원하는 데도 홍진군의 손길이 미쳐야 돼요. 영계에서 홍진군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청평 역사는 홍진군의 역사예요. 할머니의 역사가 아니에요.

김장로(김효남)는 잘 알아야 돼. 청평이 제일이 아니야. 홍진군이 가고 있는 길, 부모님의 뒤를 따라오는 길, 홍진군이 바라는 모든 것을 돕고 협조해야 돼. 청평이 제일이 아니라구.

이것은 부모님이 탕감조건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갈라졌던 것을 청산지어서 축복의 혜택권 내에 홍진군이 바랐던 것을 재차 성사시키는 과정의 역사를 맡아 했기 때문에 홍진군을 중심삼고, 대모님 중심삼고, 총모님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총모님은 아담 가정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요. 대모님은 예수시대의 성신의 실체예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예요. 3대를 거치는 거예요.

총모님, 대모님, 어머니의 3대를 거쳐서 실체를 중심삼고 역사하는 거예요. 대모님도 총모님도 어머니에게 달렸다고요. 모든 여자들은 어머니의 분신이에요. 본래 선생님을 중심삼고 잃어버린 아담이 한 분이예요. 아담이 참부모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을 통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 약혼식 때 선생님이 손을 얹고 축도하는 것은 아담 가정에서 나누어진 해와 대신 세계 여성들을 아담 가정에 세워서 조건적인 혈연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혈통전환이라구요. 세계의 영계에 간 모든 여자들은 어머니를 중심삼고 선생님을 오빠로 모셔야 되고, 남편과 같이 모셔야 되고, 아버지와 같이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전부 어머니의 동생이 돼야 되고, 할머니가 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모님이 어머니 대신 영계를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대모님은 어머니한테 배운다고요. 타락한 세계의 어머니, 3대 어머니의 조상을 대표해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광정환? 누가 물어 보면 원리적인 관점에서 깨끗이 답변해 주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의 축복의 예를 그냥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날 완성과 부모의 날 완성과 자녀의 날 완성과 만물의 날 완성, 전체를 대표한 날을 중심삼고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1월 2일로 하나님의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예요.

참아버님 대신 제물 입장으로 갔으니 누구나 머리 숙여야

이와 같이 역사적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뜻이 영계와 육계가 구원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인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에 축하하는 정성을 모은 것을 제2차적 아들의 입장에, 영계 제2의 동생의 세계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날이 장남이라면 저나라의 날은 차남이에요. 장자 차자와 같이, 형님 동생과 같이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도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이치가 다 있어서 그런 해명이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맞기 때문에 사탄은 물러가지 않을 수 없다구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라구요.

홍진군이 언젠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님 앞에 받은 은사는 천만 번 죽어도 못 다 갚는다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정도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더라도 비참한 자리에 가서 탕감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 서게 됐으니 있는 수고를 다 하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한 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영계에 간 대표적인 입장에 서 있어요. 형님들이라도 그 자리에 모셨으니 위해야 돼요. 홍진 동생이 아니에요. 하늘땅의 부모님 대신자로서 제물로 갔기 때문에 머리 숙여야 된다고요. 제물 앞에는 머리 숙여야 된다고요.

원래는 나이 많은 형님들이 동생 앞에 인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런 섭리상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대신 간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지상에 남아 있어서 제물과 같이 대신 영계에 간 입장에 있으니 형제들도 존경하고 머리 숙여서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홍진 동생, 홍진 형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통일교회 전부가 그래야 돼요. 성진이니 누구니. 김원필! 정신차려야 돼요. 영계에 가면 걸린다구. 선생님이 한마디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찾아와야 됩니까? 원필! 「예!」 정신차리라구. 앞으로 성진 가정을 책 임질 수 있어? 「예.」 이놈의 자식, 대가리가 커 가지고 점점 어렵게 될 거라구. 땅에서 풀지 못하면 저나라에 가서 막혀. 36가정에서 탈락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참부모의 권한으로 성인과 살인마를 같이 축복해 줬다

이제 정비해야 돼요. 자기들이 진심으로 원리를 중심삼고 36가정으로 완성돼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체 생활에 있어서 비준을 세워서 자진해 물러가지 않으면 저나라에서 부과된 조건에 걸린다는 거예요. 36가정에게 경고한다구요!

80세 생일을 중심삼고 전체 통일교회는 나와 관계없어요, 입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적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조건을 지상에서 처리해야 된다고요. 입적하지 않으면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80세 생일 후에는 마음대로 나를 만나러 올 수 없어요. 광정환, 알겠어? 「예.」 황선조, 알겠나? 「예.」 양창식! 「예!」 유정옥! 「예!」 똑똑히 정신차려. 일본 식구들도 마음대로 선생님을 만날 수 없어요. 책임을 다 못 했어요. 다 책임을 못 했어요. 책임한 사람은 한 분 선생님밖에 없어요.

남겨준 것을, 실체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실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실체의 그분 앞에 재인정받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해방의 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라구요. 우리 가정맹세 8번이 뭐예요? 한번 외워 보라구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성약시대예요.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성약시대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시대예요. 구약은 약속을 잃어버렸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했지만 못 이루었기 때문에, 성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을 지상에 착지할 수 있는 것이 제1가정이예요. 성약은 제1가정의 모양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천 급이 돼요. 전통에 수평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90각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계열이

있어요. 영계에 가더라도 낙원과 중간영계, 그 외 모든 종교권의 영계가 있어요. 그런 영계를 통해서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과 연결된 그 영계는 결혼생활을 허락지 않아요. 지옥의 어디에 가서 자기들이 숨어서 타락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놀음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원래 낙원권에 소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혼자 살고, 모세도 혼자 살아요. 그런 것을 알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계와 영계 자체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참부모까지 아직 결혼 못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서 90각도 권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았더라도 이 90각도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45도, 어떤 사람은 20도, 15도를 이루는 거예요. 지상의 축복가정도 이 가운데 갔기 때문에 36가정이라도 그냥 그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90각도를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수의 차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선생님의 권한을 중심삼고 수평을 중심삼고 타락권 내에 있는 것들을 90각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90각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나 축복 못 받아서 지옥에 간 사람이나 같은 탕감노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고개를 못 넘은 것을 선생님이 전부 책임지고, 거짓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전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변소간에서 축복해 주고 길가에서 축복해 줬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특권이에요. 참부모님이 80세 될 때까지는 하늘나라 구원섭리의 종점(마침표)을 찍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수(潮水)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무슨 물이 먼저 나가느냐? 먼저 들어온 물이 나중에 간다구요. 들어올 때는 어떤 물이

먼저 들어오느냐? 맨 나중에 나간 물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한 물줄기로 보는 거예요. 한 때의 물줄기로 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성인과 나중에 들어온 살인마를 같은 자리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수평이 되는 거라구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같은 자리예요. 물이 차면 그렇잖아요? 나갔던 물이 들어와서 수평이 되는 거예요. 수평 될 때는 도는 거예요. 선후를 가릴 수 없는 그 시대에 서서 부모님은 양다리를 딛고 사탄세계의 살인마들과 천상세계의 성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998년 6월 13일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원래는 3억6천만쌍 축복식을 일본에서 했어야

일본이 거기에 참석 못 한 것은 영원한 한이에요. 일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축복을 했다면, 기독교가 그런 축복을 했다면 영계와 지상의 모든 총수들을 모아서 최후의 3억6천만쌍을 축복했을 거예요. 최후의 3억6천만쌍 축복을 일본이 했어야 돼요. 일본 나라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았다면—외무대신으로부터 수상, 천황까지 3단계예요.—천황 수상 외무대신, 세 사람이 합해서 전세계 국가들 앞에 선포했어야 돼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국가의 외무대신 수상 천황이 모인 가운데 축복해야 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망살이 뻗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년 정월 초하루에 푼타 델 에스테에서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일본 자체를 놓아두면 사탄이 물어 가는 거예요. 책임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뒤에 그림자와 같이 세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로 묶어 놓은 거라구요. 작년에 들어와서는 부모로 한 나라로 묶었어요. 미국까지도 장자권을 중심삼고 묶는 거예요.

작년 4월부터 정지작업을 해서 하나의 형태를 맞춰서 작년 10월을 중심삼고 3국 일체의 심정적 기준을 중심삼고 선포와 더불어 행동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미국을 따라갈 수 없고, 일본을 따라갈 수 없고, 한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정적 깊이는 한국 민족을 못 따라가요. 사랑의 정서, 제일 정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가외 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절대 순응해서 하나되어야 할 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이 일본한테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해외, 책임 못 한 것의 도움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실을 놀랍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공금의 미진한 부분을 집을 팔든 뭘 팔든 해서 청산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의 생일까지 연결된다고요. 알겠나, 일본의 유정옥? 「예.」

해외의 타락으로 만물이 사탄권으로 간 것을 탕감복귀해야 할 일본

*일본 멤버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통역은 안 하지요? 통역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안 되어 있느냐?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부모를 중심삼고 형제권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3억6천만쌍의 축복은 천지창조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통일교회 멤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권으로 흘러가 버린 것을 탕감복귀해야 할 것이 일본,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2차대전 후 40년 동안 영·미·불이 책임을 못 해서 사탄이 머리를 취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꼬리를 붙들고 세계까지 복귀하는 조건적인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

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의 모든 가정들을 대표한 3억6천만쌍의 축복은 일본이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어머니 국가입니다.

일본열도가 잿더미가 되도록 심판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40년 동안에 그만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재림주, 참부모가 영국의 기독교 문화를 중심삼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던 것을 전부 다 반대했기 때문에, 그 대가리를 사탄편인 공산주의가 거머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공산주의의 본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하나되어 가지고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머리 쪽을 사탄이 거머쥐었기 때문에 꼬리와 같은 일본을 선생님이 쥐고 어머니로 세운 것입니다. 영국의 대신이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영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이태리, 군대는 독일을 본받았습니다. 그 스스로의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해와가 시집을 감으로써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양에 있어서 일본이 그러한 입장에 서야 하는데, 사탄편 해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조건만을 세워 나온 것입니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해의 여신<일본 황실의 조상이라고 함>), 그것은 여신이라구요. 야오요로주노카미(八百万の神;뭇신들, 잡신들)라고 하는 것도 악마입니다. 지금 일본에 18만이나 되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수습할 길이 없고,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본을 해와 국가로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일본, 여자를 세워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국가에 일본 선교사 1300명씩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만 명 이상의 일본 여자들이 나라를 찾아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

는 거라구요. 그러한 시대에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제4차 아담권을 선언했기 때문에 탕감복귀의 활동을 횡적으로 상속시키게 되었습니다.

참부모가 일본을 붙들고 있기에 일본이 건재해

앞으로 2010년에는 세계가 평등한 해방권에 들어갈 거라구요. 10년도 안 걸린다구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전자우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50년 전에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는 모두 다 미친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섭리적 상대권이 될 수 있게끔 과학과 문화 등 모든 것이 수습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없는 거예요. 과학도 주인이 없고, 민족도 주인이 없고, 국가도 주인이 없습니다.

미국의 주인이 누구냐? 파운딩 파더(the Founding Fathers; 미국 헌법 제정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프리 섹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프리 섹스의 가정이 어디에 있어요? 동물세계에도 없어요. 식물세계에서도 종류가 다른 것들끼리는 접합시켜서 번식시킬 길이 없다가구요. 그런데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대표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 뭐예요? 호모와 프리 섹스와 같은 것은 사랑의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거라구요.

그것을 참부모가 없애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이 축복을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전 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가구요. 그러니까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더라도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소련이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에서 고장난 잠수함을 수리한다고 하면

서 한 척, 두 척 들어오고 탱크도 들어와서 북쪽에서부터 일본을 점령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구요.

오키나와도 일본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쪽이 그렇게 되고, 중국이 규슈를 점령하고, 미국이 오우 지방을 점령하고, 영국이 북쪽의 나머지를 점령하면 4개국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선생님한테 원수인데, 선생님을 고문해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패전 후 보따리 싸 가지고 되돌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일본 사람들이 입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생님한테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일본 여자들은 선생님이 남북으로 팔아 먹더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할 텐데 자기의 아들딸을 위해서 저금통장을 숨기고 있다구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걸려서 낙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에 걸린다구요. 소돔과 같이 되어서 에이즈가 만연할 거라구요. 모두 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일본 자체만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세계 만국의 시대라구요.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러한 것을 일본 멤버들은 확실히 알아야 안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일본에 교구가 몇 개라구요? 52개지요? 72개예요? 일본의 전 교구가 날아가 버려요. 작년까지 일본열도가 없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일본을 한국의 뒤에 어머니 국가로 세웠다구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복귀는 모자의 협조로 해 나왔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제4차 아담권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자협조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협조의 시대입니다. 어머니는 없어도 좋아요. 해와는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아담만 타락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재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하나되면 일본은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어

머니가 죽으면 아들딸이 새로운 어머니를 찾을 수 있고, 아버지도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일본 문화의 모든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흔적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차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뭐예요? 선생님의 비자도 안 내줘요. 그러한 국가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고 보라구요.

일본 식구들은 각성해 순결·중생운동을 펼쳐 축복으로 연결시키라

지금까지 선생님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소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련도 선생님의 권한 하에 있는 거라구요. 중국과 인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종교권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구소련은 러시아 정교, 중국은 유교, 인도는 불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생님의 영향권에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구요.

바보 무리들이 일본 정치인들입니다. 각성하지 않으면 두고 보라구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딸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7세 이전의 형제들끼리 프리 섹스를 하게 됩니다. 아들딸이 문제가 될 거라구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살인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일본 멤버들이 430명 정도 와 있지만, 모두 다 일본을 차 버리고 희망적인 조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일본 한국 미국 등 전세계가 하나의 국가를 찾아서 참부모를 중심삼고 정착해야 됩니다. 그러한 긴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성하라구요.

여러분 3대의 재산을 교회의 소유권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소유권을 못 가지고 있다구요. 사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소유권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교를 당해 왔습니다.

문선생도 국가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돌려 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민평등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세계가 반대하지 않게 되면 사탄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거라구요. 지금부터 고속도로를 막고 서서 순결운동, 혈통전환운동, 중생운동, 부활운동을 해서 축복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니혼진(日本人)? 「예.」

니혼진(二本人)이에요, 잇뽀진(一本人)이에요? 니혼진이면 도망을 갈 수 있지만, 잇뽀진이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참부모를 맞이해서 동양을 중심삼고 대동아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상의 승리권을 이루지 못하면 일본은 망합니다. 아무리 대사들이 반대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구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명령하면 일본 멤버들이 데모를 해요, 안 해요? 크게 대답하라고요. 데모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전세계의 각 국가에 1300명씩 보내서 일본 대사들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보따리를 싸 놓고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선생님이 몇 번이나 말씀했지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라고요. 언제 선생님이 명령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긴급한 제4차 아담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적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제로(영)에서부터 세계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돈 인격 가정 국가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용인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일본 멤버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고향, 본연의 조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 일본 통일교회입니다. 알겠어요? 「예.」 조심해서 자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 두라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영계의 내용을 표준으로 삼아 생활하라

자, 읽으라구. 「예.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할머니도 기도와 정성을 항상 드리고 계십니다. (중략)』

천주통일해방식과 더불어 영계와 육계가 더욱 더 가까이 있음을 특히 우리 모든 가족들은 실감하며 살아 주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아버님과 어머니를 잘 모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시고 싶어도 체가 없질 않습니까?

효진 형님, 예진 누님, 축하합니다. 만세! 부모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문홍진이 가족이 그리워서 이 글을 올립니다. 1999년 10월 29일.』

여러분한테 하는 부탁이에요. 부모님이 언제나 있어요? 나이 팔십이 되었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영계에 가 보라구요, 저 말이 거짓말인가. 잠깐이에요, 잠깐. 손등과 같은 거예요. 손등은 보일 뿐이에요. 손바닥을 중심삼고 안고 잡고 만지는 거예요. 영계가 그런 세계라구요. 이것이 고향 땅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으니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나라라구요.

홍진군이 승화한 지 몇 년 되었나? 벌써 만 16년이 되었어요. 그것도 16수를 맞췄네. 1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영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영계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영계 육계의 경계선이 없게끔 확실히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관계하지 않아요. 기도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도와줄 때는 지나갔거든요. 아들딸도 축복받고 18세를 넘어 자립할 수 있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부모가 그리운 것을 배워야 돼요. 갈라지니까 어렵고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그림고 형제가 그리운 거예요. 평안한 자리에 가서 배를 탕탕 통기면 그거 안 돼요.

이제는 참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시대로 세금을 바쳐야 돼

요전에도 내가 얘기했지요? 김원필! 「예!」 앞으로 통일교회에 다니면서 신세지지 말라구. 36가정을 팔아먹지 말라 그말이야.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김영휘! 「예!」 황환채! 「예!」 교회에 다니면서 36가정을 팔아먹지 말라구. 지금까지 팔아먹는 것을 용서했어요, 다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준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체의 일족을 중심삼고 자기 연결될 수 있는 국가와 세계를 평화스럽게 할 수 있는 공동 책임의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부모님이 도와줘서는 안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전세계의 통일교회 식구들은 선생님 아들딸에게 집 한 칸씩은 마련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계실 궁전은 나라에 못 만들어도 말이예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선생님의 직계 자녀들에게 마련해 줘야 돼요. 손자들에게 마련해 줘도 좋아요. 자기 나라에 집을 세우는 대신 살고 있는 곳에 응해서 그것을 플러스시킬 수 있는 것을 정성들여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일대가 하늘 궁(宮)을 중심삼고 하늘 아들

딸과 관계를 맺고, 잃어버린 3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 흩어진 모든 식구들은 부모님의 자녀들에 대해 집을, 2세 3세의 집이라도 짓겠다고 자신해야 돼요. 자기 사는 나라와 그 나라 자체의 플러스 마이너스 집을 지어 놔야 자기들의 거처가 생겨요. 소생·장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빛을 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세금을 바쳐야 돼요. 앞으로 자녀들 후세를 위해서, 또 후세 세계의 조국을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요. 조국광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정성어린 모든 조건을 세워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나라와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보태줄 수 있는, 위해 사는 생활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 족보에서 탈락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탈락되면 몇천 년 몇만 년 가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고 하라고요.

섭섭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80세 생일을 지낸 후에는 전부 선생님이 끊어요. 36가정이니 무슨 가정이니 전부 다 같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36가정을 왜 세웠어요? 타락 때문에 세운 거예요.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7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360만 가정, 3천6백만 가정, 3억6천만 가정을 세운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된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한 수난 길을 거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양창식도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주눅주눅하지? 「예.」 뭐가 부끄러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이런 모든 역사적인 빛을 진

거예요. 36가정부터 3억6천만쌍까지 전부 빚진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가서 해방의 기치를 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돌아보면 천년 만년 하나님과 천지부모가 눈물 흘리고, 성인들이 죽음의 피살을 연이어서 성을 쌓은 성터를 인수받은 거예요. 그 성안의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성인 성자의 자격을 갖춰야 할 자리에 선 것이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실적보고예요. 기도가 보고라구요. 오늘보다 내일 한 가지를 더 플러스시켜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플러스시키는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쉴 사이가 없어요. 선생님 이상 바빠야 돼요. 임자들 나이가 육십이 되고 살 날이 며칠 안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신앙·사랑·복종해서 참부모님의 뒤를 따라가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서 죽도록 부모님의 꿈무늬를 붙들고 따라간다는 기준이 있어야, 생활한 조건이 있어야 자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뒤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따라가는 길이 막혀요. 운이 막혀 버린다고요. 확실히 다 가르쳐 줬어요. 알겠어요? 「예,」 확실히 내가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자신이 탄 것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기도해서 다 이루었어요. 또 선생님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일을 행치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개인 완성을 다 알지요? 개인 완성·가정 완성·종족 완성·민족 완성·국가 완성·세계 완성·천주 완성·하나님 해방을 다 알아요. 부모님 해방, 천지부모 해방 다 알고 있어요. 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번에 혼독회로 확실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기신 전통, 피눈물나는 고통의 역사가 있으면 자기 일족의 후손 앞에 그 전통을 자랑으로 남길 수 있는 핏줄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핏줄이 틀림없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 가문과 일족의 핏줄을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해방 4차 아담권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것을 더럽혀 보라구요. 핏줄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수만 대의 부모들이 사랑하고 수만 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황적이예요. 황적이라구요. 그러나 수천만 대의 핏줄이 여러분에게 연결돼 있어요. 아담의 핏줄이 연결돼 있고, 지금까지 몇천만 대 조상의 핏줄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핏줄은 살아 있어요. 그 핏줄을 깨끗한 핏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피를 투입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과장치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 안 나갈 수 있는 물이라면 프레스로 눌러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불지 않고 깨끗이 청산되어 정수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하는 것을 최후의 하나님이 보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똥 찌꺼기를 품고 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깨끗이 알겠다는 사람은 양손을 들어서 맹세해요. 영계와 더불어 흔들라구요. 환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홍진군도 손 들어 주고 영계도 손 들어 준다는 것을 알고, 홍진군과 예수님과 참부모님의 전통을 이어받아 통일적 천상지상 천지인 통일교회의 해방적 제4차 본연의 세계 아담권 시대로 돌입할지어다! 아멘! 「아멘!」 돌입할지어다! 아멘! 「아멘!」 돌입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계도 같이 대답해 줘서 통일적인 행동, 통일적인 결론을 짓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필하겠어요. (박수) *

새천년 천국 완성의 길

(강현실 회장의 성 어거스틴과 축복받게 된 사연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말씀을 다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하고 하겠다거나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순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옛날 초창기에 제가 아버님을 만났을 때에 아버님은 잊어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고 그랬어요. ‘강현실이, 내가 거지하고 짝을 맺어 주어도 살겠느냐?’ 그러셨는데 대답을 별로 신통하게 못 했어요. 거지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대답을 못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신앙이 성장되었다고 할까, 아버님 말씀은 절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아버님 말씀의 골자는 절대신앙이요 절대사랑이요 절대복종이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을

2000년 1월 3일(月), 맨해튼 센터(미국 뉴욕).

* 이 말씀은 세계 지도자 회의 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믿을 때에 신앙으로서 열매 맺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어쨌든 아버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다는…」

참부모님을 절대 믿고 따르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아멘!」 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구석에 가 보니까 앉는 것도 이렇게 앉고, 별의 별 모양으로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믿을 것을 잘 믿어 봐야 될 텐데 못 믿을 것을…」

못 믿을 게 어디 있나, 못 믿을 게? 뱀 잡아먹으라고 하면 뱀 잡아 먹고, 소 잡아먹으려면 소 잡아먹지요.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잡아먹으려면 사람도 잡아먹고 말이에요.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다더구만. 한번 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사람을 잡아먹어서 하나님이 해방된다면 왜 못 해요? 잡아먹는데 자기 어머니면 어쨌고, 아버지면 어쨌고, 자기 여편네, 자식이면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하니 못 믿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통일교회에서 내로라하는 패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을 세우고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절대 안 믿었다가 많이 혼났다는 얘기는 안 하누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합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 「해야지요, 이제,」 (웃음)

「정말로 기성교회에서 저는 자라 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니까 못 믿을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부지, 전부. (웃으심) 「예, 전부예요.」 전부 새로운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구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성교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끝까지 남아지고 또 이 신앙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되어졌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어쨌든 마음으로 순응을 해야겠다, 절대적인 신앙을 세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객회장님이 옆에서 금방 순응하라는, 대답하라는 눈짓을 하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표정이시더라구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경배도 했어요. (중략)

그래서 2월 7일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을 다 지내고 나서 청평에서 만나는 무슨 식도 했어요. 그런 의식들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실감이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구요. 보통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강하게 오는데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고 몸도 젊어지는 것 같고, 생활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생활로 다 바뀌더라구요.

그렇게 바뀌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이구, 강 선생 요즘 젊어졌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바뀌고 생활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려고 하면, 모든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참부모님 편에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중략)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알고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천주교인들도 역시 이분에 대해서 좋게 평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랬어요. ‘기독교를 움직여야 되겠는데, 제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정말로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이 지상에 협조를 많이 해서 활짝 뒤집어 놓는 역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70이 넘는 사람입니다. 70이 넘는 사람이 자기의 무슨 안일이나 자기의 무슨 영광이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한번 정말로 개혁하고 새롭게 참부모님 앞으로 들어오게 할 있는 그런 길을 여는 한 큰 다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기도해, 기도하라구.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흐뭇해하시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루속히 이 땅 위에 나타나신 우리 참부모님을 알고, 참부모님을 믿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그네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박수)

참부모님 말씀을 절대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믿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은 다 행동하면 되는 거라구요. 이제는 다 안다구요.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 해방까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사람은 통일교회 교인이 아니예요. 다 알면서도 못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계속하라구.

‘레버런 문’이 아니라 ‘참부모님’이라고 해야

「그래서 또 하나 잊어버렸는데, 아버님이 비밀 없이 활짝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때 40일 기간이 지나고 3일행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웃음)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우리 원리 말씀, 또 아버님의 말씀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때 더 많이 느낀 것은 내게 조금이라도 확신 안 하는 점이 있을까봐 이렇게 확실하게 큰 증거를 보여 주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세밀한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웃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

리면서, 이 땅 위의 기독교를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기독교에 대해 지금은 재림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참부모님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재림주님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이제부터 ‘레버런 문’이라는 말을 그만 두고 새 천년에는 ‘참부모님’이라고 써야 돼요. 레버런 문이라는 말은 집어치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한번 해 봐요. 「레버런 문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참부모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라.」

「확실한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은 콩을 팔이라고 해도,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근거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정말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서 열매 맺어진다, 만사를 믿으면 만사가 믿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꼈는고 하면, 내가 한 50쯤 믿을 때는 50퍼센트밖에 그 결과가 안 나오는데 백퍼센트 절대로 믿게 되면 백퍼센트 절대적인 그 결과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저를 사랑해 오신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 면에서도 염려하시고, 이 면에서도 같이 하시고, 여기에도 내가 알 수 없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진짜 돈을 보따리로 갖다 주더라구요. 옷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아주 좋은 옷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먹고 싶다고 하면 누가 뭘 싸 가지고 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혼자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강현실의 하나님이로구나!’ (박수) 그렇지! 박수하는 거야!

「옛날에 아버님께서 저보고 난데없이 ‘너 선전포고를 해라.’ 그래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선전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전도는 안 해도 좋으니 가는 곳곳마다 새 시대가 도래했으며 새 주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났다는 것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증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멤버들한테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참부모를 일본 전국에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구요.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뜻을 위한 의욕에 불타서 나가면 원하는 것을 하늘이 다 이뤄줘

「그래서 한번 나가면 40일, 60일, 80일 동안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한 곳도, 식구가 한 사람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먹는 것은 얻어먹어야 되고 자는 것은 빌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 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얻어먹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저와 더불어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가는 길은 제가 잘되기 위해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오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고 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 같이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가게 되면 잠자리도 생기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야, 정말로 힘들구나.’ 그러면… 그때 제가 20대였어요. ‘젊은 내 자신이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웃음) 가는 데마다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들도 반대하고 장로들도 반대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심정이 정말로 의욕

에 불타고 소망에 불타 펄펄 뛰게 될 때는 모두가 다 내 편에서 도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길이 하늘의 길이라는 걸 이것을 통해서도 내게 보여 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열만한 것을 다 써 버려서 하나도 없게 되면 ‘스물만한 것을 써야 될 텐데 이 스물이 어디 있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 보면 ‘조금 기다려라.’ 하고 해결해 준다구요. 스물을 또 다 써 버리면 ‘아이구, 이제는 마흔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언제 마흔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조금 기다려라.’ 그런다구요. 마찬가지로요. 다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간나 자식들, 정신 차리라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물어물 해 가지고 넘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폭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사탄세계의 무기예요. 그걸 차 버리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걸 세상에 뿌려 버리고 가는 게 나아요. 뿌려 버리면 그것이 사랑의 씨를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제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뿌리면 그것이 씨가 되어 가지고 십 배 백 배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그런 자리에서 수고하게 하면 자기 아들딸 주변 친척의 자녀, 나라의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무엇 하러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돌아가야 될 텐데, 두 시간 뒤면 돌아가야 될 텐데, 전부 다... 경고하면서 하는 훈시를 고맙게 받아들이라구요. 알싸, 모를싸?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알싸!’ 그래야 돼요. 「알싸!」 묻는 대로 대답해야지, 딴 것, 어떻게 어떻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안 통한다구요. 알싸, 모를싸? 「알싸!」

간단하다구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게 설명이 뭐 필요해요? 묻는 대로 하겠으면 하고,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해라 이거예요. 간단하다구요. 뭐 이렇고 저렇고 꾸물거리고, 이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건 필요 없다구요. 그건 자기가 도망가기 위한 피난

길을 닦아 놓는 거라구요.

솔직(率直)해야 된다고요. 솔직은 만고의 진리와 결탁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솔직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솔직하라구, 강현실! 「예.」 솔직! 「솔직히 얘기해요?」 (웃음) 그래. 솔직하면 만고의 천국 문이 열린다고 그래. 그런데 뭘 숨겨? 솔직하려면 다 폭로해야지. 솔직해 가지고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디 갔는고 하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식구도 없고 교회도 없는 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어떤 때는 목사들한테 매도 맞고 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시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주에 가게 되었어요. 수중에 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어요. 옛날에 아버님은 진짜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었는데 안 썼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을 원치 않았지. 「저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돈을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웃음)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대구 개척 갈 때도 그랬지만 딱 여비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 돈이 한푼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공주에 가서 길을 걷는데 어떤 부인이 척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쓸 방 하나 빌립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은 왜 빌리려고 합니까?’ 그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공주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 공주 땅이 달라질 겁니다.’ 했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귀가 솔깃해 가지고 ‘아이구, 공주 땅이 달라진다면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머무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저 밥을

해서 차려 가지고 왔는데 날이 갈수록 반찬이 많아지대요. (웃음) 뭐 생선도 사다 놓고 고기도 사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쌀밥에다 소고기에다 무슨 조기에다 많이 차려서 저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50대였고 저는 20대였거든요. 나이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말끝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선생님! 기분이 좋았다 그 말 아니야? 「예,」

「그래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의사인데도 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초가집이고 사립문이 있는 집이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사립문 밖을 나오는데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들어가더니만 돈을 이렇게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면, 기성교회의 권사인데 의사니까 꽤 수입이 많아요. 많으니까 십일조를 떼서 농 안에다가 착착 챙겨 두었는데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 두 달 치라는 거예요. 두 달 치 십일조를 떼어서 농 안에 넣어 놔두었는데 웬지 모르게 강 선생 뒷모습을 보니까 이 십일조를 강 선생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벌 떨었어요.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또 내가 받으면 큰일납니다.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돈은 일원도 없는데 말입니다. (웃음)

그랬더니 그분이 ‘이것은 사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걸 받아야지.’ 하고 그걸 받았는데, 그게 두 달 치니까 봉투로 이만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 모르게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참부모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서서 움직이는데 배후에서 영적으로 많이 역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동행 동사 동역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느끼고 거기서 제가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강현실의 하나님이다! 강현실의 하나님이다! 강현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번을 큰소리로 외치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하라구. 이 사람들이 부럽게 한번 크게 해보라구.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다!’ 하고 크게 외쳐 보라구. (웃음) 세 번 크게 하라니까?

「거기서 정말로 저는 그걸 느꼈어요. 보통으로 느낀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내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고 얘기하러는데 왜 안 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강현실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을 빼앗아 가라! 그러려면 씨름에서 이겨야 된다!’ 그말이라구. 하라는데 왜 안 해? (웃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강현실의 하나님이다!」 (박수) ‘내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나보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겨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라구. 「그래서 이 강현실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넘겨 주겠습니다!」 (박수) 열심히 한다면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열심히 하면. 이제 그만하자구. 너무 하다가는 다 까무러진다구. 됐어, 이제 들어가라구. 「끝났어요?」 그래, 끝내라구. 뭐 색시 신랑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한 걸로 하고… 「고맙습니다.」 (박수)

통일교회 축복가정 한 사람 당 소 한 마리 값을 저축하자

곽정환! 「예.」 혼독 세미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그동안 6차까지 했나? 「6차 했습니다.」 그거 끝난 모든 사실에 대해 골자를 잠깐 보고하라구. 다 알고 가야 돼. 이제부터 혼독회 역사를 각자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가야 할 내용을 전수해 주니까 잘 들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겠네. 열두 시까지, 점심때까지 끝 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의 날을 경축드립니다. 새 해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받았습니다.’라고요. 큰 복을 받았지요. 「큰 복 받았지요? (곽정환 회장)」 「예!」 (박수) (곽정환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회장이 국제 혼동 세미나 개최와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 당선 경위에 대해 보고)

그래서 곽정환이 거기에 가서 약속을 해서 한국의 축복 때에 그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게끔 다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구요. 그렇게만 하면 다 끝났다구.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박수)

어제 저녁에 떠들면서 한 일이 무엇이던가? 어제 저녁에 떠들면서 한 놀이가 무엇이던가? 「웃놀이입니다.」 웃놀이가 뭐예요?

120만 달러 사인을 이 종이에 한다구요. 1900, 1900이 아니구나! 습관이 되어서 1자가 먼저 써지니까... 습관성이 참 무섭긴 무서워요. ‘2000년 1월 3일, 새천년 기념 웃놀이 대회 상금 120만 달러(소 6천 마리)!’ (웃음) 왜 웃어요? 박수를 하지 왜 웃노? (박수) ‘1등에서 10 등까지 배당 소수 합 14,000마리 준비 기념사육 10대주 분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하소서!’ 120만 달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120만이면 다섯 개입니다.」

이건 기념물이구만. 나와요, 1등이 누군지. 죽 나와 서라구요. (시상을 함)

자, 소 열 마리 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구요. 양준수, 나오라구. 현재 자르딘에서 모든 경리문제라든가 관리문제를 책임지는 대장이기 때문에 120만 달러를 맡긴다구. 알겠어? 「예.」 이것으로 소를 사는 거야. 한꺼번에 다 못 산다구. 1천4백 마리, 아니 1만4천 마리를 사야 된다고요. 1만4천 마리를 사는데 전부 다 어느 주에 주어야 되는가 해

서 이것을 분할할 거라구요. 될 수 있으면 한 지역에 열 개를 연결해서 사려고 그래요. 자, 박수해요. 6대주에 소 1만4천 마리가 생긴 거라구요. (박수)

1등은 소 한 마리 값도 안 내더라도 이미 1만4천 마리는 찾았다구요. 그 다음에 등수의 차이에 따라 꼴찌로부터 얼마나 배당된다는 걸 얘기하라구. 그거 다 알지?

한 가지 얘기해야 할 것은 이제 소 사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각 6대주가 분할한 소 목장이 생긴다구요, 목장. 우리 목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남미 목장이 될 때는 33개국에 우리 목장을 하기에 좁아진다 그말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런 가망성이 있느냐, 없느냐? (녹음이 잠시 중단됨)

6천4백 마리, 그렇게 되지? 거기에 보태게 되면 2만 마리면 2만 마리를 하게 되면 이 팔이 십육($2 \times 8 = 16$),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라구요. 거기에 식구에 있어서 한 사람씩만 사더라도, 우리가 현재 4억3천만쌍을 축복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소 한 마리씩 전부 다 예금해 놓으면... 소 한 마리가 얼마라구요? 「2백 달러입니다.」 2백 달러. 그러면 누구든지 할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 4억3천만쌍 중에 3천만을 떼어 버려도 4억이 되는 거예요. 4억 하게 되면 가정이 몇 가정이예요? 가정이 말이에요, 남자 가정, 여자 가정, 그 이외의 친척까지 전부 다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친족하고 외족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8억 가정에 네 사람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사 팔이 삼십이($4 \times 8 = 32$), 32억이니까 인류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소가 몇 마리가 되겠어요? 32억 마리가 돼요. 그거 봐 돼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잡아먹더라도 못 다 먹을 거라구요. 알겠어요? 이런 놀음은 누구나 다 생각한다

면 할 만한 일인데, 여러분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쌍수를 들어서 큰소리로 ‘합시다!’ 해봐요. 「합시다!」 선생님은 맏시다! 「합시다!」 이놈의 자식들, 맏시다! 「합시다!」 그래, 나도 할 수 없이 행복하고 ‘합시다!’ 했어요. (박수) 이거 결정이라구요, 결정.

그래서 세계 통일교회가 순식간에 남미에서 제일 큰 목장주가 된다 이겁니다. 누가? 통일교회 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남미에 몇억 마리 소가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자랑하지 못하고 산 통일교회 불쌍한 께들, 그거 한번 하고 싶지 않아요, 어때요? 「하고 싶습니다.」 나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나 구경 좀 하자구요.

그러면 한 마리씩 할 거예요, 몇 마리씩 할 거예요? 이거 정하자구요. 국제회의에서 정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가담해야 된다구요. 송아지를 사게 되면 절반 가격이면 사요, 절반. 절반 할까요, 큰 소 살까요? 송아지를, 10원짜리 사는 것하고 20원짜리 큰 소 사는 것하고 볼 때, 10년을 계획하게 되면 큰 소를 사는 것이 30퍼센트 앞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사겠어요, 한 마리를 사야 되겠어요? 2백 달러 짜리 사야 되겠어요, 1백 달러짜리 사야 되겠어요? 「2백 달러짜리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2백 달러짜리로 정할까요, 말까요? 「정하십시오.」 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이거 왜 손을 안 드노? (웃음) 손 들어 봐요! 내리라고요.

그럼 결정했어요. 그러면 몇 마리로 할까요, 몇 마리? 「식구 하나에 한 마리씩이요.」 식구 하나에 한 마리씩 하게 된다면... 「열 식구면 열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씩 하는가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두 마리 했으면 더 좋고, 세 마리면 더 좋다는 거예요. 몇 마리씩 하는가 정하자는데 자기들 멋대로 한 마리라고 하면 되나? 빨리 천하를 전부

다 탕감복귀하려면 열 마리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 마리씩이면 통일교회 얼마예요? 그 열 마리가 2천 달러밖에 더 돼요? 2천 달러는 헨드레이징을 하면 일주일 동안이면 할 것인데 말이에요. 그거 걱정할 것 없다가요.

그러니까 몇 마리로 할까요, 몇 마리? 반 마리 하지, 부처끼리 한 마리 하게. (웃으심) 그러면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 다음에 낳은 새끼는 내 것 한다, 그 다음에는 가위 바위 보 하자고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반 마리는 안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한 마리밖에 할 수 없는데, 한 마리는 상대가 없어요. 새끼를 못 낳는 간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로 정했다구요, 한 마리씩. (박수) 그러니까 통일교회 축복가정 사람들은 금년에 소 한 마리 값씩, 열 명이면 2천 달러를 납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일본 멤버들,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의 식구들은 소 한 마리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열 명이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에 2백 달러니까 10배면 2천 달러가 됩니다. 그것도 헨드레이징을 일주일만 하면 문제없다!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박수해야지, 이 쌍것들아! (박수)

세계적인 목장 운영 계획

이 아이디어가 멋지다가요. 선생님은 6천 마리를 샀는데 뭐. 6천 마리를 샀는데 열 마리 사 가지고 큰소리 하겠어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보라구요. 지금 우리가 땅을 샀는데 한 곳에 3개월씩, (판서하심) 3수 3수 하면 열둘이에요, 열둘. 10마리인데, 10주인데 둘이 모자라요. 10수는 열둘로 잡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목장을 중심삼고 여기서 이만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다 전부 다 추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

게 갈라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소가 자꾸 불어나게 된다면, 한 헥타르에 한 마리씩 필요해요. 그러면 불어나니까 소 수에 대한 땅을 사고 소를 사 나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이동을 하게 될 때는 이동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되면 그것을 중심삼고 큰 브라질 주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주 하나를 사서 옮겨가는 거라고요. 볼리비아 주, 이렇게 12주를 분할하는 거라고요. 뭐 세 번만 하게 되면 33개 주니까, 3주가 모자라요. 이래 가지고 목장 전체는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거예요. 흥미 있어요? 「예.」 밥을 굶더라도 이거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해마다 통계해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보고하고,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각 주에서 ‘통일교회 목장을 방어하자!’ 하고 세계에 여론이 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각국에 하나씩 전부 다 옮겨가자고 해서 나눠 갖는 것입니다. 소를 전부 다 배로, 바지 배로 오대양 육대주에 싣고 가는 거라고요. 운수회사를 이미 만들었다고요. 항공회사, 운수회사, 철도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로 옮겨다가 어디든지 전부 다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50년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선생님이 남겨 준 위업 가운데 이 이상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낳고 낳고 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번 해보자구요. 낳고 낳고, 낳고 낳고! 죽지는 말라고요. (웃음) 소는 안 죽어요. 사람은 죽지만 틀림없이 안 죽어요. 매회 한 마리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80퍼센트가 돼요. 인공수정까지 하면 90퍼센트까지 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천년 시대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다! 아멘! 「아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약속한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만둘까요, 어머니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킬까요? 그만뒤요? 어저께 같으면 선생님의 늙은 얼굴은 실컷 봐서 싫증날 것

아니에요? 예쁘지도 않고 잘난 미남자도 아닌데 말이예요. 싫증 안 나오요? 싫증나지요? 싫증나지? 「아닙니다.」 나지, 이 쌍것들아! 「아닙니다.」

그래, 어머니와 약속한 것을 이행 못 하면 아버지의 위신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는 아버님이라고 그 이름이 하늘 천상세계의 생명록에 기록될 텐데, 그렇게 엄청난 사실인데 한 8백 명 앞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낫지요. 영계까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심각한 시간이라구요. 그래서 순식간에 몇 시간 할 것을 총결론을 단축시켜서 얘기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라구요. 알겠어요?

탕감복귀섭리 시대가 끝났다

세상은 변했다! 한번 해보라구요. 「세상은 변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은 변했다는데, 뭐가 변했어요? 물어 보잖아요? 세상은 변했다고 떠들었는데 뭐가 변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변했어요, 집이 변했어요, 하늘이 변했어요, 땅이 변했어요? 내용이 변했다 이거예요, 내용이.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될 때까지, 1999년까지 올 때 얼마나 천년 사연이 엮어져 있어요? 이제부터 2000년을 넘으면 2001년은 3000년을 향한 1년이에요. 1년이 3001년과 마찬가지로예요. 그렇지요? 1살을 더 산 거와 마찬가지로. 2000년 개념이 아니에요. 3000년의 1년이에요, 이게. 3000년을 향하는 1년이기 때문에 한 살에서부터 3000년까지 전부 다 텀(term;기간)이라구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차원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는 급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도 변했고 시대도 전부 달라졌으니 그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

우리 섭리사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사로 보면 6천년 역사인데, 6

천년 전후 역사는 수천만 년 역사로 잡는데 아무리 길더라도 6천년 전부터 문화사라고요. 이전까지는 수평이니까 몇천만 년이더라도 수평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문화사 6천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부터예요? 6천년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섭리사로 보게 되면 4천년이 끝난 때라고요. (판서하시면서 말씀하심) 여기 이 4천년이 끝나는 거예요. 섭리사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삼고 이렇게 해서 4천년이 끝난다고요. 요 6천년이 끝나고 4천년이 끝난다고요. 4천년 역사는 이스라엘 선민사입니다. 이것은 실패 역사를 복귀하기 위한 역사인데, 이걸 다 걷어치우고 제4차 아담권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진 게 뭐예요? 내용이 달라진 것이 뭐예요? 구원섭리라는 말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인데, 복귀섭리는 탕감복귀지 그냥은 복귀 못 합니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구원섭리 시대가 끝났으니까 탕감복귀섭리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탕감이 라는 조건은 없어진다 그말입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나라만 찾으면 자동적으로 세계는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세계의 나라를 이겨 놓으면 세계권 내에서는 사탄이 간섭 못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광복, 한 나라만 찾는 날에는 세계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앞으로 7년 동안에 나라를 찾아야

지금 때가 어떤 때냐 하면, 나라를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나라. 나라를 찾아 넘어가야 할 경계선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중심삼

아 가지고 전 3년, 후 3년 함으로 말미암아 7년이라구요.

1997년부터 영계와 육계의 정리작업을 선생님이 했다구요. 영계 축복, 기성가정 축복을 했어요. 계약결혼과 같이 전부 갈라져서 지옥에 가서 산산이 헤쳐진 것을 다 모아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범죄적 사건을 일으켜서 아들딸이 결혼도 못하고 젊어서 죽은 아기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영계에 가 있어요. 영계에 가 있지만 자란대구요. 자기 부모라든가 형제가 정성들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한식날이면 일가 전체가 모여서 조상들한테 절하잖아요? 그때에 아기를 잃어버린 부모들도 전부 다 마음을 놓고 기념하고, 그런 때가 되면 정성들여 주게 되면 자라는 거라구요. 중간에 아기로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영들과 16세 이상 된 사람들을 전부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4천억 쌍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합해서 4천억 쌍이 넘어요. 전부 다 축복을 해주었다구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36가정에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야곱 가정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 가정은 구약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락한 부부들, 제멋대로 만나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주 예수님이 왔다가 실패한 거예요. 약혼만 하고 결혼식을 못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 결혼식을 해서 남아진 것이 2천년 동안의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그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해 가지고 약혼을 했는데 지상에서 누구하고 약혼했느냐?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부교회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 신랑이 올 수 있는 어린양 잔치를 중심삼고 바라 왔던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노아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노아는 뭐냐 하면, 뜻을 못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가정을 중심삼고 심판해서 만유(萬有)를 제거했지만 사탄까지 추방하지 못해 가지고 사탄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약혼한 거와 마찬가지로 되

었다구요. 가정적 이상이 착지 못 해서 절반밖에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연장되잖아요? 이삭이 제물 됨으로 말미암아 그걸 전부 다 반환해서 3시대를 거쳐서야 비로소 야곱 대에 가서 착지하는 거예요, 착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신약시대와 맞먹고, 야곱 시대는 성약시대와 맞먹는다고요. 이렇게 된 것을 세계적으로 횡적 탕감을 하는 거라고요. 구약시대에 출발한 것이 연장돼서 메시아 재림시대까지 3시대를 거치는 거예요. 아담 시대, 예수 시대, 재림시대입니다. 종적인 기준에 있어서 아담 시대, 이건 예수와 마찬가지로예요. (판서하시며) 노아는 절반밖에 못 이루었다구요. 야곱에 이르러서 비로소 착지한 거예요.

여기에서 민족 편성을 하고 세계를 중심삼은 지구성 완성과 더불어 지구성 주권국가를 이루어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부 탕감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연장이라구요, 연장. 아담 가정에서 출발한 모든 전부가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리로 내려왔지만, 지상세계나 전부 다 축복받지 못하고 타락한 전부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 선민권을 중심삼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아담 완성 기준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가 기준, 그 다음에는 세계 기준 복귀라고요. 그렇지요? 노아 시대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예수 시대에 국가를 못 이룬 거와 마찬가지로예요. 이것은 야곱 시대의 착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착지는요 한 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적 착지의 기준이 되는 곳은 남미 자르딘

이 한 점 기준이 오늘날 우리의 활동기지로 볼 때 한국이 아니고 자르딘이에요. 남쪽이라구요. 남쪽 나라예요. 반대지요? 끝과 끝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전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담 가정 완성, 노아 가정

완성, 야곱 가정 완성, 종족적 민족적 기준으로부터 세계 전체, 하늘땅을 중심삼고 재림주가 국가 완성, 지상천상천국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계평화이상 가정교육본부가 있어요. 그러니 지상세계에서 축복받은 가정하고... 천상세계도 축복했지요? 지금 지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 기성축복이 세계적이라구요. 그 다음에는 계약결혼한 것이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혼남녀가 4억쌍이에요. 알겠어요? 기성가정 4억쌍이 한 집에서 한 가정을 대표해서 세워서 타락한 것을 총탕감한 아들로서 축복해서 해방권으로 넘겨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방되어서 넘어가는 그 가정을 따라서 기성축복을 받은 4억쌍도 동생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미혼남녀가 축복받은 그 기준을 중심삼고 기성가정들도 전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동생이고 지상이 형님이 돼서, 비로소 영계 육계가 형제가 돼서 본래의 천국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가 구형이 됐는데 이쪽으로 보게 된다면 축복받은 가정이 있지만, 영적 축복받은 것이 여기에 와서 40일수련을 받아서 이쪽에 서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민족적 결합을 중심삼고 자기 조상과 이 땅 위의 후손이 하나되어 가인 아벨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조상을 잃어버렸어요. 1대에서부터 수천 대 되는데 그 대수가 전부 다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 타락한 지금까지 천국이 비어 있어요. 알겠어요? 몽땅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수를 맞춰서 전부 다 같은 평균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탕감이 아니에요. 해방의 자리에서 전부 다 맞추면 된다고요. 탕감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이예요. 맞춤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육계의 통일권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상이 형님의 자리에 서고, 영계는 동생의

자리에 서는 거라구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형님 되는 지상의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영계의 축복가정은 동생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일렬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억쌍 미혼남녀 축복과 더불어 해방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늦더라도 2003년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문제없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수 있나 없나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구요. 알겠어요? 「예.」

천국이 3년 이내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30년 이내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3년 이내에...」 2000년까지 합하면 4년이 돼요, 4년. 올해부터 4년 동안에 4수를 탕감복귀하면... 뭐라고 그래? 「미국 사람들이 통역을 듣고 늦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말을 배워라

*이렇게 모일 때는 언제든지 말이 문제라구요. 말쑥을 듣고 난 다음에 통역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언어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구요.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하나의 국가이지 두 국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영원히 하나의 국가입니다. 알겠어요?

유럽 멤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천적인 데스티니(destiny; 운명)가 아니라 페이트(fate; 숙명)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운명은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명은 다릅니다. 완전히 운명을 개척한 다음의 차원이 숙명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젊은 사람들은 3년이면 한국말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해 보라구요. 미국에 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때는 무엇이든지 잊어버리기 쉬운 때라구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문제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국말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딸을 교육해야 할 때

이제부터는 탕감복귀가 끝났으니 어디로 가느냐? 탕감복귀가 끝날 수 있는 그 연령은, 그때는 어떤 때냐? 에덴에 있어서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나기 직전의 자리요, 그 다음에는 가인 아벨을 중심삼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직전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갔지만 이제는 복귀라고요.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전세계의 여성은 단결해야 돼요. 이것은 해와의 자리라고요. 전세계 여성들의 참모총장이 누구냐 하면 남편이에요. 아담이라고요. 오시는 재림주입니다. 오시는 참부모예요. 알겠어요? 해와가 복귀되고, 그 다음에는 가인 아벨이 복귀섭리를 뒤집어 박았기 때문에 아들딸을 교육해야 됩니다. 누가 교육해요? 어머니가 교육해야 돼요, 어머니가.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시대가 달라져요.

지금 그걸 알아야 세계가 어떻게 전환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 걸 모르면 안 돼요. 복귀시대에 있어서 어머니, 해와를 중심삼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이 뭐냐? 해와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판서하시면서 말씀하심) 본래 기준은 여기에 있는데 떨어져서 여기에 내려와서 또 떨어지게 된 것이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가인이고, 아벨은 두 번째예요. 이것이 완전히 지옥을 향해 떨어진 기원이에요.

어머니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인 아벨 교육을 잘못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섰다고요. 2000년을 넘어서는 이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을 해서 하나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교육해요? 가인 아벨 하면 남자 여자 다 들어가지요? 남

자만이예요, 아니면 여자도 들어가요?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남자 가인 아벨이 있고, 여자 가인 아벨이 있다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정에서 그렇게 됴므로 말미암아, 남자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자도 그냥 따라 들어가게끔 돼 있지만 그걸 갈라서 남자 가인 아벨, 여자 가인 아벨 문제가 그 후손에 연결돼서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형제를 가르는 놀음이 벌어졌다고요. 그런 복잡한 내용이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가인 아벨을 교육 못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이예요.

어머니와 자식은 하나되었으니 참부모와 부모만 하나되면 돼

그런데 탕감복귀시대에 있어서 세계가 이 단계에 넘어왔으니, 여자들이 복귀돼서 이 선을 넘어서서 오늘날 선생님이 와 가지고... 본래는 기독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게 되면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요. 여기서 축복을 했더라면, 2차대전 이후에 그렇게 됐으면 그때서부터 7년 이내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교회 기반이고 뭐고 다 부정해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자리에서 재창건해서 40년 동안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것이 하나돼야 돼요. 이것이 지상의 절대 의무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상의 절대 의무라구요. 그러면 오늘날 통일교회로 말하면, 어머니 쪽 종교, 어머니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본래는 영국이 돼야 되는데 영·미·불이 책임을 못 했어요. 영·미·불이 선생님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영·미·불은 물론 기독교니

천주교니 다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게 공식적이예요. 사탄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마·불, 그 다음에 사탄세계까지 합해서, 종교권이고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할 것 없이 가외의 세속적인 가정으로부터 종족 전부 다, 신앙 없는 모든 나라가 합해서 문총재 타도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문총재가 누구예요? 아버지라구요. 에덴에서 쫓아 버렸다고요. 이 천부가 하나돼서 아버지를 쫓아 버렸다고요. 이 땅 위에 왔지만 아버지가 설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짓 아버지를 칭산하고 다시 여기까지 돌아와서 이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타락은 뭐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이상은 믿어도 절대믿음이요, 사랑해도 절대사랑이요, 복종을 해도 절대복종이예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할 때 절대신앙 위에 썼고, 절대사랑 위에 썼고, 절대복종 위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체를 자극적인 충격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자기보다도 잘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예요. 여러분도 사랑의 상대가 잘나기를 바라지요? 그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남편과 여편네, 상대예요. 남편은 부인, 부인은 남편을 바라다구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사랑의 상대가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식이라구요. 아내가 누구예요? 해와예요. 또 아담 해와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두 성격을 가졌습니다.

천지가 그렇게 갈라져 있다구요. 사랑을 중심삼고 상대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안 된다구요. 상대적 개념이 있으니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주체 대상 관계, 남자 여자 관계,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것이 하나의 형태로 묶어져

야 되는데, 사랑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 여기에 왔으니 참부모를 중심으로 축복을 해주어서 어머니들을 중심삼고 자식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나됐어요. 참부모님의 말을 들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된 이것만 하나되는 날에는 천지통일이 됩니다. 알겠어요?

몇 시간 됐나? 몇 시부터 모였어요? 「여덟 시 반부터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변소 좀 갔다 오자구요. 10분만 쉬게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갔다 오라구요, 잊어버리지 말고.

장자권 완성, 부모권 완성, 왕권 설정이 이뤄졌으니 탕감이 없어

어머니가 잘못해서 아들딸이 싸움 붙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 떨어졌던 것을 복귀해서 잘못 결혼한 모든 것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해와, 어머니가 잘못 결혼했다구요. 그래서 참부모가 와서 축복을 완성해서 세계적 정상을 다 넘어 가지고 어머니 중심삼은 나라가 나오고 아버지 중심삼은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원래 백퍼센트 받아들였으면 7년 이내에 다 끝나는 거예요. 7년도 안 가요. 3년 이내에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차 탕감해서 선생님이 지난 수천년 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탕감복귀해서 승리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지상에 어머니를 세웠어요. 가정적 어머니, 종족적 어머니, 민족적 어머니, 국가적 어머니, 세계적 어머니, 천주적 어머니 입장을 복귀해서 지상에 있어서 가정적 가인 아벨, 종족적 가인 아벨, 민족적 가인 아벨, 국가적 가인 아벨, 세계적 가인 아벨, 천주적 가인 아벨을 복귀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 육계를 공히 축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둘이 하나되는 거예요. 해와의 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인 아벨이지요? 여기서 장자 문제라구요. 여기서 장자가 사탄 편

이고 이걸 아담 편인데, 장자권이 복귀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대복종하는 형님만 생겨나면 동생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를 해야 돼요.

지상에 반드시 이런 세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장자권 나라, 그 다음에는 부모 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상 천상의 왕궁 나라라고요. 타락이 뭐냐 하면, 아담 가정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참부모를 중심한 가정을 잃어버렸고, 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장자권을 복귀해서 어머니와 하나돼 가지고 이걸 이뤄야 돼요. 모자(母子) 섭리라고요. 하나되면 탕감이 없어요. 탕감이 없어진다고요. 이론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모자 중심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작년 10월 초하루로부터 미국하고 어머니 나라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한국을 중심삼고 40일간에 4천년을 대신한 통일적 운세권을 만들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 완성, 부모권 완성, 이것은 천지간의 부모권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과 천상, 영육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부모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지상과 천상세계, 끝과 끝까지 왕권 설정이 벌어졌기 때문에 탕감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탕감이 필요 없지요? 탕감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이제 전체가 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로 넘어서는 때이니 영원한 나라를 찾아 대이동해야

본연의 세계로 넘어서니까 본래의 창조이상으로 타락이 없었던 아담 가정 이상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나옵니다. 그 세계가 지구성이예요, 지구성. 경계선이 없어요. 지구성이 고향 땅이라고요. 그 고향 땅과 영계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이니만큼 하나님이 계신 나라와 지상의 부모 나라가... 부모는 잠깐이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 고향에 태어나서 조국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고향이니 자기 조국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니 이것을 완전히 지워 버리고 새로이 대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동하는 것은 뭐냐? 축복받은 순서가, 축복받은 가정들이 결속된 순서가 입적하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일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입적하는 순서가 조상 계열의 핏줄, 혈통적 연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접적 혈통적으로 관계돼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세계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들이 가는 세계는 어제와 사흘 전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예.」

아담 자체는 장자요, 아담 자체는 아버지요, 아담 자체는 왕이었는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계를 불러내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해 온 것은 아담 하나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찾고 해와를 찾아 가지고 지상에서 결혼식 하는 게 문제라구요.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바라던 가정이상권을 지상 세계 천상세계에 일체화하지 못한 것이 한이기 때문에,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참부모님이 와서, 거짓 부모가 하나님의 한을 남겼던 것을 걷어치우고 해방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상천상천국 해방권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끝날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 세계로 비약할 수 있는 신천지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 맹세문 8번을 한번 읽어 보라구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결론이 다 들어가 있다구요. 지금 설명하는 내

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성약시대입니다. 성약시대는 뭐냐 하면, 참부모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이상세계의 혈족권을 완성시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 혈족이 없어지고, 사탄 계열을 청산하고, 지상에 여러 나라가 다 없어집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가정들이 그 가정과 고향과 국가를 다 부정하고 지구성이 내 고향이요, 하늘나라가 내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자랑스럽게 맞이해서 그 시대권에서 자주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축복가정들로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설명을 그만큼 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이걸 전부 다 녹음해서 기록해 가지고 읽어 보라구요. 그러면 다 알 거라구요.

여자(어머니)는 죽는 자리에서도 아들딸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어

이 원칙을 중심삼고 이제 전세계의 여자는 동원할지어다! 공산당은 말하기를 ‘세계의 노동자 농민은 동원할지어다! 하나될지어다!’ 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통일교회는? 세계 여성들은 전부 통일될지어다! 노멘, 아멘? 「아멘!」 왜 아멘이에요? 천리의 창조 원칙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시 이 일을 성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여성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본래의 해와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먼저 돼야지요?

세계의 여성들이 타락권 내의 사탄의 피를 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돌려놓아 가지고 하나님의 딸로 만드는 거라구요. 여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축복받은 가정의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대답해

봐요. 딸이에요, 뭐예요? 「딸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뭐예요? 「아들입니다.」 타락한 아들이 아니에요. 참부모가 낳아 준,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의 핏줄을, 하나님과 일체 된 핏줄을 이어 받은 딸이 됐고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 될 수 있는 것이 아담 해와였는데 아담 해와는 찾아졌지만 문제는 뭐냐? 타락을 누가 시켰다구요? 아담 해와 다음에는 가인 아벨이지요? 가인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가인 아벨을 교육할 것이냐? 하나님이 해야 되겠어요, 아담이 해야 되겠어요? 누가 타락을 시켰어요? 일본 식구들, 똑똑히 알라구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타락시켰습니다.

어머니 나라는 자기가 죽으면서라도 그 아들딸 나라를 죽여서는 안 돼요. 죽으면서도 젓을 먹어서라도 살려 놓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뭘 하면서라도? 사실로 죽으면서라도 아들딸을 살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식기 전까지 젓을 먹여서 살려야 돼요. 어머니는 죽더라도 피가 전부 다 굳어질 때까지 젓이 안 나오더라도 살리겠다고 젓을 물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할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피살을 죽기 전까지는 몽땅 빼서 아들딸에 넘겨 주어야 될 것이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일본 나라가 그렇게 했어요? 일본 나라가 선생님한테는 지금까지 원수예요. 일본 나라가 선생님이 못 들어오게 비자도 안 내주지요? 이제 보라구요. 그 나라는 문제가 자꾸 벌어져요. 청소년들이 전부 다 문제가 돼요, 이제. 알겠어요?

*해와 국가가 중요합니다. 희생에 희생의 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그 어머니의 실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자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지고 남자와 하나되어 완성해서 세

계의 아들딸을... 세계의 아들딸한테 부모가 없으면 안 되지요?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 아버지도 물론이라구요. 생활필수품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쌍둥이와 같은 입장에서 투입하고 잊어버리면서 여자들과 함께 세계의 아들딸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책임이에요. 그거 틀렸어요?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습니다.」 틀림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웃음) 문제라구요.

제4차 아담권 시대를 맞아 절대신앙사랑복종의 자세로 살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조건을 세워 가지고 넘겨 주는 거라구요.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새롭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칸셉을 갖지 않으면 제4차 아담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이라구요. 그거 틀렸어, 가미야마? 「틀리지 않습니다.」

가미야마는 어때? 지금까지 불평을 잘 했지? 입으로 따따따... 그런 사람은 입이 없고, 코가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오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관. 오관이 없는 사람이라구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도 없다구요, 고향.

지금까지 모두 다 마음대로 해 나왔던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 그러한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강림해서 여러분을 일으켜서 손을 잡고 넘어갈 거라구요. 그것을 선생님이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돌아가면 과거의 모든 것을 각성해서 새로운 마음

으로 당당하게 전진해야 되겠다구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아내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살아 왔던 습관적인 나라라든가 습관적인 전통 같은 관념에 얽매어서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라구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구요. 원리를 생각해 보라구요,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안 맞다구! 「맞습니다.» 안 맞다구, 고노야로타치(このやろうたち;이 녀석들)! 「맞습니다.» 야로(やろう;녀석)가 좋아요, 야카라(輩;패거리)가 좋아요? 「야로가 좋습니다.» 야카로보다 야로가 좋아요? 야카라가 좋다구, 야카라. 일본말도 모르는 녀석들이구만! 확실히 알겠어요? 「예.»

확실이 알겠으면 손발을 다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해요. 이렇게 하고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는 구약시대입니다. 발을 내리지 말고 돌라구요! 돌라구! 두 바퀴는 신약시대, 세 바퀴는 성약시대니까 세 바퀴를 돌라구요. 발을 내리지 않고 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고개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뭘 하고 있어요? (웃음) 그래서 탕감복귀를 하는 거라구요. (웃음)

오쓰카(大塚)! 「예.» 오사마(王様;왕)의 무덤 같으면 안 된다구! 「예.» 확실히 하라구! 「예.» 봐주면 안 된다구! 무자비하게 때려 몰아야 돼. 그럴 때는 사랑이라든가, 인(仁)이라든가, 선(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구.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사탄적인 전통이나 타락의 혈통이 연결된다구. 알겠어? 「예.»

덴카와케메(天下分目;승패의 갈림길)의 싸움에는... 어디의 싸움이 라구? 「덴카와케메의...」 어디야, 그러니까? 「세키가하라(關が原;기후(岐阜)현의 지명)입니다.» 세키가하라의 싸움이지요? 한번 패하면 영원히 동군이 아니면 서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쪼개져서

메차쿠차(めちゃくちゃ; 엉망진창)가 되어 버렸습니다. 왕권복귀라고 하는 관념이 없었더라면 큰일났을 거라구요. 확실히 알겠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집입니다. 올해의 연두표어가 뭐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이다! 그런 뜻을 알지요,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새천년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이름까지 잊어버려야 돼요. 아까 강현실이 이름도 잊어버렸다는 말을 했지요? 맞는 말이라구요. 저세계에서 귀한 것이 이 세계에 와서 잊어버렸다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라구요. 세계 축복화권을 넘어가는 때니까 전부 다 완전히 부정해서 그 세계가 되면 본연의 제4차 아담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주는 피조 만물이 살아야 될 집

*확실히 알겠어요? 「예.」 우주는 피조 만물이 살아야 될 집입니다. 귀는 소리가 사랑과 더불어 사는 집입니다. 사랑과 관계가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눈은 보는 것의 사랑의 집입니다. 참사랑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랑의 집입니다. 코도 마찬가지로요.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의 집입니다. 입은 말하는 집, 밥 먹는 집입니다. 내외의 모든 오관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심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입니다. 알겠어요?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러한 관계라구요. 상하 관계, 좌우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를 연결해서 일가(一家)를 이룬 다음에 성숙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 자라면 쫓아내 버리는 거라구요. 모든 만물이 그래요. 광물세계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금이나 보물들은 맥(脈)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맥을 이루고 있느냐? 사랑

을 중심삼고 모이려고 하는 심정적인 내용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쪽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세계도 전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쌍쌍제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중심삼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원자 같은 것이 안 맞다구요. 아무리 화학자가 맞추려고 하더라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되게 되면 아무리 안 맞추려고 하더라도 꼭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 가운데 하나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절대로 안 만납니다.

여러분도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오는데, 손해를 보게 되면 안 따라온다구요. 이렇게 못생긴 남자도 들어와서 선생님을 안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손해를 보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요? 「예.」

뭘 하려고 몇천 달러의 여비를 들여서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듣게 되는 한 말씀의 내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지, 손해를 보게 되면 아무리 ‘와라, 와라, 와라!’ 하더라도 안 온다구요. 그렇지요? 플러스가 돼요? 「예.」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그 가치가 몇 엔(円)짜리예요? 「에이엔(永遠) 짜리입니다.」 뭐라구? 「에이엔!」 에이엔이라고 하면 몇억 엔이라는 말이지요? 무한정의 금괴라는 말도 되잖아요? 정말이라구요, 정말. 보통의 인연으로는 선생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희생적인 탕감을 다 합하더라도 부족하다구요.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결실체입니다. 앞에서 강현실도 얘기했지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이예요. 그거 틀림없이 맞는 말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참부모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의 여자들은 하나될지어다

그러면 제4차 아담권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의 여자들은 하나되어라!’ 하면 하나돼요, 안 돼요? 「하나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안 듣나? 이어폰이 없나? 한국 놈들은 말을 배우려고 안 하기 때문에 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다 배우라구요. 그거 말해 줘요? 「예.」

전세계의 여자들은 참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가 될지어다! 「아멘!」 세상 여자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 하나될지어다, 자기 아들딸에게 하나될지어다, 그 나라 대통령에게 하나될지어다, 문총재의 말에 하나될지어다! 어떤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참부모님과 하나될지어다!」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여자들보다도 남자가 먼저 되면 안 돼요. 그건 천사장이 완성하는 거라구요. 그건 공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 시대가 왔습니다. 여자 시대는 뭐냐 하면, 지금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를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여자들이 남자를 부정해 버렸어요. 왕 남자 부정, 할아버지 남자 부정, 자기 신랑 남자 부정, 약혼 남자 부정, 그 다음에는? 장자 남자 부정, 차자 남자 부정, 이렇게 다 부정해 버리고 다 쓸데없다고 그래요. 요즘에 부모들이 자식이 쓸데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다 부정이에요. 하늘로부터 전부 다 부정입니다. 한번 해봐요. 전부 다 부정이다! 「전부 다 부정이다.」 우주 부정이다!

세상이 그래요. 세계가 어디 있어요? 미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미국 나라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의 주인이 있어요, 없

어요? 전부 다 도적놈들이라고요. 나라 주인이 있어요? 전부 다 도적놈이에요.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세계니 무엇이니 하늘나라니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려 가지고 여자들도 지금 벌거벗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벌거벗고 서 있어요, 혼자.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다가 타락했지요? 옆에 뭐가 있다고 가리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녀가 벌거벗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의 단계

남녀가 벌거벗고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유정옥! 「생식기입니다.」 생식기가 뭐야? 사랑하는 거라고 해야지. 그렇게 비약하면 50점밖에 못 맞아. (웃음) 선생님 말이 맞잖아? (웃으심) 생식기라고 그러면 안 된다구. 순차적인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지. 둘이 벌거벗고 있으면 대변에 생식기인가? (웃음)

에덴 동산에 벌거벗고 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같이 손잡고 다니고, 잘 때도 한 이불에 남자가 여자에게 비비고 여자가 남자에 가 붙더라도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면 그게 와 닿으면 왁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강정자! 「예.」 그런가, 안 그런가? 강정자, 이 간나야! 강정자가 유정옥하고 결혼할 때 밤잠 안 자고 나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구요.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없으면 저런 전라도 사람, 거지 떼거리한테 해줬다고 밥을 안 먹고 버티고 잠을 안 자고 그러던 게 엇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좋다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걸 볼 때 ‘야, 세상에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있나! 탕감복귀역사보다 더 어려운 것을 완성했구만.’ 생각했다구요. 그래서 유정옥이가 복받는다고 생각한다구요. 가는 데마다 천대 안 받아요.

벗고 남자 여자가 좋아하며 살면 그 자리에서 타락할 수 있는 행동

이 무엇이겠어요? 남자가 선악과를 만지고 싶겠어요, 여자 젖을 만지고 싶겠어요? 물어 보는 거예요. 이거 실례의 말이 아니예요. 에덴 동산에 가만 보니까 선악과도 아름답지만, 남자가 여자를 가만 보니까 가슴이 특 나와 있다 이거예요. 특 나왔으니 가슴을 만지고 싶고, 여자는 내려다보니까 자기는 위에 있지만 남자는 아래에 있으니 서로가 그걸 만지고 싶어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아니고 정상적인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거 이해해요? 「예.」 이해 안 하는 간나 자식 손 들어 봐라. 손을 잘라 버리게. (웃음) 왜 웃어요? 웃지 말라구요.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웃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둘이 손을 붙들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둘이 앉아서 장난하고 놀면 이렇게 놀았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여자가 열두 살이 되면 젖이 통 나오니까 ‘여기가 달라졌다.’ 하고 만지고 싶겠고 말이에요, 남자도 털이 나오고 다 그러니까 ‘이놈의 털이 왜 나오노?’ 하면서 만지고 싶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웃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가슴을 생각하게 되는 거라구요. 가슴이 없던 것이 동산같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또 가만히 앉아 보니까 남자는 시켜면 털이 나 있으니 그거 만지고 싶지 않겠어요? 자연히 관심이 생겨서 그걸 만지게 될 때는 털 나온 게 전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상진이! 「예.」 자기도 통했어? 「예.」 나는 안 통했는데. 왜 웃어? 그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젖과자를 따먹겠어요? 젖과자! (웃으심) 만져 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빨아 주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아담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사랑은 몰랐더라도 저쪽은 머니까 제일 가까운 곳, 일어서다가 한번 빨아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빨 것 있잖아요? 그때는 빨고 싶을 때라구요. ‘저게 왜 특 나왔나?’ 하고 빨아

보면 여자가 붙이 붙어요. 자궁이 운동해요. 하체가 운동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일 때는 아기를 안 배요, 1년 반 동안은. 그런 것을 알아요?

양서방도 더러 그래? 잠자다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일어서면 힘들니까 여편네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넣고 볼록볼록 해서 일어서면 일어서기가 쉬운 거 알아봤어? 오늘 저녁부터 해봐요. (웃음) 혼자 일어서지 말고 손을 넣고 배밀이 숙 하게 되면 대변에 일어설 수 있다구요. 그런 거 다 연구 안 해봤나? 그렇다구요.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여편네는 발길로 차는 것보다도 뒤로 숙 만져 주면 그 시간이 사랑하는 시간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웃음) 한번 해보라구요.

여자도 그렇지요. 일어날 때 혼자 자다 말고 다리를 버티고 이불을 차 버리고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가슴에 손을 넣어 베개 모양으로 해서 숙 밀게 되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요. 그럴 때는 서로 발길로 차지 말고, 그때는 궁둥이를 만져 주고 젖가슴을 만져 주고 뒷잔등(등)을 쓸어 주면 그 이상 행복한 시간이 없지 않지 않지 않다 이거예요.

나라를 찾으면 왕궁을 짓는데 그것은 하늘땅 중심 본부의 왕궁

통일교회 교주라는 사람이 별의별 교육을 다 하는구만. (웃음) 잘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쌍것들아! 한번 틀어지면 천지가 요동이 벌어지니, 그게 얼마나 염려되면 경고에 경고, 주의에 주의로써 가르쳐 주겠어요?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참부모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참부모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맙소!’ 하고 손 들면서 한번 소리쳐 봐라. 「고맙습니다!」

나는 고맙지 않아요. 다 빼앗겨 버려요. 가르쳐 줘야 다 빼앗겨 버린대구요. 나는 다 쥐 버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절대복종이니 있는 재

산을 다 털어 주고, 없으면 빗을 얻어다가 주고 싶어서 주었으니 거지 판이라구요.

그래, 다 쫓으니까 이제부터 한데 갖다가 모아야지요? 선생님도 여편네가 있고 아들딸이 있으니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노동판에 가서 벌여 먹어야 되겠어요, 앉아서 여러분이 갖다 주는 것을 가지고 벌여 먹이고 우리 아들딸들을 여러분에게 대학을 만들고 다 공부할 수 있게 했으니만큼 여러분이 도와줘서 공부시켜야 되겠어요? 어떤 거예요? 「도와주어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래, 선생님 집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집이야 내 집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세를 안 지겠지만, 나라를 찾게 되면 왕궁을 누가 짓느냐 하면 국민들이 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왕궁 터는 누가 잡느냐 하면 아들, 왕자가 잡아요. 그런 거 알아요? 왕자하고 궁터, 왕궁 터를 닦아야 됩니다. 전부 다 돌아다녀 가지고 모든 산천의 좋은 재목이라든가 좋은 물을 보아 두었다가 거기에 왕궁을 지어 우리 아버지를 편안히 모시고 살아 보겠다면서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왕궁을 짓게 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왕궁이에요, 하늘땅 중심본부의 왕궁이에요? 하늘땅 중심본부의 왕궁입니다. 그게 영계예요, 영계. 그 왕궁은 영원무궁한 왕궁이에요. 그것이 우리 조국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은 지구성입니다. 지구성은 내 고향이다! 한번 해봐요. 「지구성은 내 고향이다!」

이것은 손으로 보면 손등에 사는 거예요, 손등에. 손등은 이렇게 쥐게 되면 굴러나가기 쉬워요. 그래, 다섯 손가락이 전부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구요. 싫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납니다. 전부 다 여기 쥘 것을 찾으려면, 쥐어 가지고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기를 찾지, 이렇게 하면 찾을 것이 없어요. 이건 꺾테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등과 된 것 같은 것이 지구성인데 내 고향이고 태어난 곳이라구요. 80년쯤 여기서 주워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고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짝 쥐어지게 되면 영원무궁토록 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섯 손가락 이것이 춘하추동 열두 마디, 하나님까지 합동해서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삼 사 십이(3×4=12), 열들이지요? 이것이 이성성상이예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판도가, 운명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구요. 알겠어요? 하나예요. 한 나라라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잡으면 이것이 이것만 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잡게 된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는 영원히 열두 달을 중심 삼고 이 속에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영원 보관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태평무궁한 세상이 연결되는 것이다! 영생적 세계가 내 천지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여당 야당을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하려면 말씀으로 깨쳐야

그러면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없어지고 가정만 남는 거예요, 가정. 가정만 남아서 세상 나라를 흡수해서 나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나라를 보게 되면 현재 여당 야당, 미국도 여당 야당이 그냥 그대로 통일교회에 들어오겠어요, 할 수 없어야 들어오겠어요? 할 수 없어야 들어오겠어요, 그냥 놔둬도 들어오겠어요? 「할 수 없어야 들어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건 어떤 자리냐 하면, 힘에 못 이겨서 지든가 죽든가 할 수 있는 때, 그 다음에는 진리에 있어서 설명이 너무 좋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이 두 길밖에 없다구요. 참된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깨친 것하고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자기 혼자 깨칠 수 있어요? 힘 가지고 싸워서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누구든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은 만고의 보화라구요. 미국 몇천 개, 몇만 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수천억, 영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주게 된다면 전부 다 한 골수로 가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 어때요? 자신 있어요? 요전에 통일교회 반대한 텔레비전 회사가 어디예요? 에이 비 시(ABC)니 시 비 에스(CBS)니 전부 다 그래요.

그 전부 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미국은 대통령 해먹는 것도 바람 타고 해먹어요. 조직이 없어요. 그래스 루트(grass root;민초, 뿌리)가 없다구요. 문선생만큼도 못해요. 공화당 민주당이 전부 다 뺑이에요. 전부 다 바람 타고 대통령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잡이들이 바람을 못 타게 내가 언론기관을 만들어서 전부 다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무력한 나라예요. 주인이 없어요.

임자들이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오, 프라우드 오브 아메리카(proud of America;자랑스런 미국이여)!’ 하는데 프라우드가 뭐예요, 프라우드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키 큰 것 가지고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 에이즈, 가정 파괴... 무엇을 자랑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구요. 그렇지요? 「예,」 정말이에요? 「절대적입니다.」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지?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웃음) 문제가 큰 거예요.

영계에서의 하나님께 하는 인사는 부부가 사랑하는 것

전세계의 여자들은 문선생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섹시는 어디 갔

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전부 다 문선생 것이라구요. 죽도록 충성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편네를 가지려면 죽도록 충성하는데, 충성을 나한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대표 딸을 세워서 나 대신 충성하면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옛날에 해와가 책임분담을 못 했기 때문에 해와가 책임해서 그 해와를 뒤따라가서 절대복종해야 된다고요. 남자가 그렇게 절대복종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남자니까 그래도 남자가 뒤에 서면 안 되니 내가 끌어 줘서 바른쪽에 세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앞에 세우지는 못해요. 옆에 세워야 비로소 사랑하겠다고 여자가 먼저 일어서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해야 돼요. 탕감복귀라구요.

첫날밤에는 여자가 남자의 귀를 잡아당겨서 사랑해야지, 남자가 가지고 여자를 사랑하면 그건 가짜예요. 원리가 그래요. 왜 웃어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듣고도 꿈쩍 못 하고 이려고 있는 것은 원리적 관에 일치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에텐 복귀시대에 들어왔으니 먼저 여자 귀를 잡아당겨도 괜찮아요. 여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룻밤에 세 판을 하려면, 한 판 두 판도 겨우 했는데 세 판까지 하려고 하면 발길로 찬다고요. 그래도 잡아당겨서 몰고 가 가지고 사랑을 해도 죄가 안 돼요. 하룻밤에 열댓 번까지 해봐라 이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밥 한 술 먹고 한 번, 또 한 술 뜨고 또 한 번 하는 거라구요. (웃음) 한 백 번 해서 기록을 깨뜨려 놓으라구요.

그게 무슨 죄예요? 자기 부처끼리 그러다가 죽었다고 누가 고소하겠노? 둘이 좋아서 그랬는데 고소할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묘 자리를 잡아 준다는 거예요. 죽어 보라구요. 하나님이 묘 자리 잡아 주냐, 안 잡아 주냐? 영계에 가 보라구요. 저런 교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웃음)

그런 걸 보게 되면 세상은 안됐다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멋지다는 겁니다. 이상헌 씨 아내가 8년 전에 갔는데, 상헌 씨가 영계에 가서 처음 아내를 만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사포를 쓰고 인사하러 들어가자... 영계의 실상이 그래요. 면사포를 쓰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니까 모르는 한줄기 빛이 쓱 자기들을 감싸고 나가는데 황홀경에 들어가서 몸인지 마음인지,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가운데 둘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였더라 이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러 가서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하는 인사가 아니고 둘이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좋아서 하나되어 기뻐하는 자리가 첫날 만나서 사랑하는 인사였더라 이거예요. 그거 그렇게 돼 있지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좋겠어요? 현재 어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못생긴 남자도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야 핏줄이 사랑과 연결된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남자 여자의 핏줄이 합하고 핏줄이 연결되는 거라고요. 어디에서 핏줄이 연결되느냐? 키스하는데 핏줄이 합해요?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도장, 사랑의 무도 기지, 춤추는 기지가 그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알겠어? (한 식구에게) 네 얼굴이 너무 심각하구만! ‘파더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 나는 모르겠다.’ 하는 뜻이야?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색시하고 둘이 날아다니는 참새와 같이 해 가지고, ‘너희들 내 사랑 받아라.’ 하고 참새 사랑을 해 가지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토끼가 깹깹 뛰듯이 귀를 만들어 가지고 토끼 모양으로 사랑하라

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 가지고 봄철이 돼서 새가 지저귀고 새끼 치고 말이에요, 토끼 무리들이 쌍쌍이 사랑하다가 둘이 지쳐서 자는데, 그 옆에 가서 토끼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예요? 토끼 사랑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현실이! 「예.」 고기 사랑은 어떻게 하나, 고기 사랑은? 고기 사랑도 생식기로 하나? 물어 보잖아? 나도 몰라서 물어 보는 거라구. (웃음) 옆에 까만 점줄이 있대구요. 그걸 비비면 쉬익 전기가 직통으로 통하는 줄이라구요.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마련이에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했으면 다 알겠지요?

모든 만물은 완전한 인간의 생식기의 요소가 되기를 바라

어디에 가서 남자 여자가 만날 것이뇨? 집에 가서 만나는데 무슨 집이냐? 사랑의 집입니다. 그 사랑의 집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모든 만물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집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귀한 인간을 위해서 이런 작은 세포들을 흡수해서 인간의 사지백체를 구성할 수 있는 세포 분배지로서 배치해 놓은 것이 만물입니다.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의 집이에요.

만물은 강자한테 흡수되는 거예요. 작은 집은 큰 집에 들어가야지요? 여자들이 설거지할 때 큰 그릇을 얹어놓고 작은 그릇을 얹어놓나, 큰 그릇을 바로 놓고 작은 그릇을 갖다 집어 넣나요? 마찬가지로요. 작은 그릇을 큰 그릇에 넣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조금만 크면 다 들어간대구요. 딱 그 격이에요. 큰놈이 세상 천지 억만년 움직이지 않고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 가 섬으로 말미암아 억만년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사랑의 집, 부부의 몸뚱이의 생식기의 요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곳이 최고의 정거장입니다. 식물이고 무엇이고 주변의 모든 것이 나도 돌아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느냐 할 때, 광물을 통해서 흡수되고, 작은 식물을 통하고 작은 동물을 통해 가지고 돌아 돌아서 사람한테 먹혀서 본연의 집,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집 자리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만물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작은 것을 우리가 전부 다 흡수,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아내가 되고 아들딸 된 그 몸뚱이를 구성하기 위해 우주가 전부 다 흡수됐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참사랑의 본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물은 결사적이라는 거예요. 참된 주인 때문에 만물은 희생되는 거예요. 말 같은 것도 그렇지요? 개 같은 것도 참된 주인한테 목숨을 바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도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데 생명체는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걸 다윈은 약육강식이라는 논리를 세웠는데, 그게 아니예요. 약육강식이라면 전부 다 강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고 불고 멍이 저요, 멍이. 피멍이 진다구요. 좋아하면 전부 다 죽을 때도….

그래서 양 같은 것은 죽더라도 비참하지 않아요. 목에 칼을 쏘더라도 ‘매애!’ 하고 죽지, 발길로 주인을 차고 받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제물로 성립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기, 부처끼리야? 색시를 사랑해? 「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예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웃음) 물어 보잖아? 남자 같은 성격이 있지? 여자에게 물어 보는 거야. 여자는 윤희성이 있어야 돼. 알겠어? 「예.」

*그곳은 천주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침범당했는가 안 당했는가를 감정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절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인 부인들, 알겠어요?

미인 부인들이 봄바람이 불면 그 삼각지대를 열고 바람을 쐬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구요. 절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여 줄 사람은 자기의 남편과 하나님이라구요. 자기를 창조한 주인과 사랑의 주인인 남편이 그것을 처음으로 점령하게 되어 있지, 다른 사람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범하면 천지가 뒤집어진다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이제 참부모가 세계 여자들을 동원하여 국가를 세워야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의 여자들을 동원해서 선생님이 뭘 할 것이냐? 국가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 국가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3일 전 2000년 벽두부터 내려진 결론입니다. 여자들을 동원해서 국가를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뒤집어 박았지요? (*부터 일어로 말씀하심)

여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뒤집어 박았어요. 아담 해와 자체가 사랑의 기관을 잘못 씌우므로 말미암아 나라를 뒤집어 박았으니 이 기관을 중심삼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탕감복귀하는 데는 타락한 현상 그대로 갖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쫓아 버렸어요. 이상적인 남편을 쫓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상적인 아들딸을 전부 다 타락시켜 버렸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남편, 이상적 부인, 이상적 아들딸이 없어요. 이것이 끝날에 가서는 전부 다 원수가 돼요. 아담 해와가 원수요, 부부가 원수요, 자녀가 원수요, 자녀와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천주를 뒤집어 박았기 때문에,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을 참부모가 와서 전부 복귀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돼야 되고, 부부가 하나돼야 되고, 자녀와 부모도 전체 하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세계의 그런 하나된 가정들이

합해서 나라도 싸움 없는 통일적 세계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복귀해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찾느냐? 국가를 찾아야 할 과업이 남았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몇 개 국가도 만들 수 있는 가정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조국광복입니다. 부모님이 나라를 어떻게 찾느냐? 남북을 어떻게 통일하느냐? 여기는 공산당과 민주세계의 사상적 대치, 종교적 대치, 문화적 대치,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역사적인 원한, 인류역사의 곡절 등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풀어서 환경적 여건은 다 해방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국가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가만 정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계도 이미 국가를 편성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후보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남고도 남아요. 한국이 안 되면 남태평양에 섬도 많은데 그것을 사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워서 유엔에 대사관을 만들어서 세계 대사관들을 6개월만 교육하면 세계를 다 통일할 수 있습니다. 통일세계는 문제없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땅을 다 사 놓았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 정부와 절충해서 3백만 헥타르를 조차할 수 있는 소생적인 상징적 계약이 돼 있어요. ‘남미의 어떤 나라라도 반대하게 되면 우리가 문충재를 환영할 텐데, 이렇게 합시다!’ 이라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유엔에 우리 종교 대사관을 만들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구요.

나라를 찾는 데 있어 여자가 해야 할 일은 교육

나라를 찾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자들을 동원해야 돼요. 여자들의 책임이 뭐냐?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라를 찾는데 어떻게 찾고, 세계를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 새천년 새세계 창건 여성 집이 생겨

야 된다 이거예요. 당(堂)이라는 것은 ‘정치 당(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집 당(堂)’ 자라구요.

(판서하심) 이게 뭐예요? 이 당(黨)은 형제(兄弟)예요, 형제. 형제끼리 싸워요. 여당 야당의 이당제(二黨制)로 돼 있다구요. 이 당은 집당(堂) 자입니다. 집은 땅 위에 섰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편안하다구요. 여기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냐? 서당(書堂)이라고 그러지요, 서당? 배우는 집이요, 사는 집이예요. ‘새천년 새세계 창건 여성당’입니다. ‘집당’ 자예요.

지금 민주세계는 형제주의지만, 옛날에는 무슨 당을 썼느냐 하면 이 ‘당(黨)’ 자예요. ‘검을 흑(黑)’ 자, 새까맣어요. 이걸 사탄입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형제 시대가 왔으니,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형제가 싸우지 말고, 알겠어요? 이건(黨) 구약시대, 이 형제시대(黨)는 신약시대, 이것(堂)은 성약시대라구요.

그거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여자들,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이 해와를 대표하는 일본 멤버들!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지어야 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놈의 한국 놈들과 미국 놈들은 말이에요, 이제 지상에 지옥 말고, 싸우는 나라 말고 통일된 하나의 세계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집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집이예요, 집.

금년 표어가 뭐예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입니다. 집이 없어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요. 만물, 모든 전부는 집이예요. 사랑의 집이라구요. 자기 나름의 사랑의 집이예요. 그래서 작은 집은 큰 집에 들어가고, 큰 집은 더 큰 집에 가서 맨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속에 까지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지요, 사랑의 집으로서?

전부 다 그것을 위해 발동하고 있는 거라구요. 쉬지 않고 억천만 년 그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하는 길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고생했지만, 질서적인 주류의 이 길만 연결시켜 놓으면 해방적 지상 만물세계가 되고 하나님도 자동적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 완전한 마이너스는 완전한 플러스를 적응시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이만하면 알겠지요? 「예.」

그러면 일본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느냐? 일본에 여당 야당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당이에요? 이 당(党)이지요? 어떻게 이걸 이당(堂)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당(黨)은 아니예요. 사탄세계는 아니라고요. 민주세계에 들어왔다구요.

이것(尙)이 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 「쇼(尙)입니다.」 그것은 숭상하고 높이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뜻이라고요. 한국 경상도의 '상'이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사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가 신라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도는 전부 다 드러내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권을 못 쥐었던 거예요. 지금 김대통령은 중간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도!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기독교가 하나로 만들었더라면 선생님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곳을 공산당이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남한에 내려와서 반쪽짜리의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탕감의 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입장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명을 생각해 보더라도 한국은 신비한 나라입니다.

아담도 그렇다구요. 아, 한탄스러운 담이 생겼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한 거라구요. 아담의 '담'은 담을 말합니다. 해와는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부터 일어로 말씀하심)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요. 남자 여자의 비법적인 관계를 따먹었다고 그런다구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자를 따먹었다고 그러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 친척들 몰래 타락의 관계를 맺은 것을 따먹었다고 합니다. 일본말에는 그런 뜻이 없지요? 그러니

까 한국말이 신비적인 것입니다. 한국 역사의 배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는 소생·장성·완성입니다.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버리고서라도 부모를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일본 여성은 완성한 여자로서 어머니의 책임을 다 해야

그래서 해와 국가의 일본 사람들이 선생님을 맞이한 입장에서 있지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완성한 여자로서 어머니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의 남편은 그렇게 여러분이 어머니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장입니다. 아담 자신이 복귀되기 이전까지는 하늘 편 천사장이라구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탄의 혈통 3분의 2를 잘라 버려야 됩니다. 천사장 누시엘이 3분의 2를 속인 것입니다. 알겠지요? 「예.」

지금부터 여자들은 ‘이 못된 남자들! 국가의 재산을 당리당락을 위해서 낭비하는 패거리들은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교육해야 돼요. 누가 교육해야 되느냐? 여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선두에 섰던 여자들이 하늘 편에 서서 뒤집어 박아야 됩니다. 그러한 여자들이 훌륭한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게 어머니의 입장이 되었으면 형제와 같은 여당과 야당을 대해서 ‘내 말 들어!’ 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지 않으면 그 아들딸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구요. 복귀원리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와 같이 어머니의 책임을 느끼는 여자들은 세계적인 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모든 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을 말려서 교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통일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자들이 하나되고 24세까지 청소년들이 하나되어 가지고 그 둘 모두 하나되게 되면 천지의 모든 것이 복귀됩니다. 알겠어요?

여자들은 남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구요. 먼저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계를 뒤집어 박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천사장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복귀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가면 모두 다 ‘모든 여자들은 모여라!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줄 테니까 3박4일만 시간을 내라! 이 시대에 필요한 완벽한 교육이 될 테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세카이닛포의 마쓰시타(松下)! 「기노시타(木の下)입니다.」 아, 기노시타! 기노시타야, 이시시타(石下)야? 「기노시타입니다.」 기노시타라면 베어 버리면 없어지잖아? (웃음) 이와시타(岩下)라든가 야마시타(山下)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기노시타야? 기노시타는 이것을 신문에 틀림없이 발표해! 알겠어?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한국의 세계일보는 어머니가 아들딸을 완전히 교육하고 일체가 돼서 부모님한테 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적 복귀가 되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들딸이 하나되어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안내해 주느냐 하면, 뒤에서 보호해서 ‘딴 데 가지 마라 이놈의 간나, 이놈의 새끼들아, 이놈의 여편네야! 전부 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된다!’ 하고 발길로 차서 때려 몰아야 돼요.

이제는 복귀시대에 왔기 때문에, 남편 행세, 어머니 아들딸 행세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천사장을 시켜서 ‘야, 이놈아, 너 복귀의 자리에

온 어머니하고 아들딸을 관리 잘 하고 보호해서 데려와라, 이놈아!’ 하면, ‘예,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하늘이 축복해서 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받았을 때 자기 남편은 뒤에서 ‘천년 만년 은사를 고맙습니다.’ 하면 ‘그래? 그게 좋아, 이 녀석아?’ 할 때 ‘좋습니다.’ 해야 둘이 짝패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귀의 논리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건 선생님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리 말씀을 가르치면 이것이 최고의 부정할 수 없는 결론으로 딱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반대할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이라구요. 절대·유일·영원·불변 없어요. 절대 복종, 유일 복종, 불변 복종, 영원 복종이에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세계를 훑어내야 되겠다구요. 품어야 되겠다구요.

여당 야당에 들어가서 교육하고 각 선거에 출마하라

그러면 이걸 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나? 소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여당 야당이 있다구요. 그 여당 야당한테 하늘 편이 완성할 수 있는 어머니 대신자를 보내면 됩니다. 여당에도 보내고 야당에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당선한 도 의원, 군 의원까지 있지요? 그 다음에 대통령, 도지사, 군수, 면장 전부 다 개의치 않아요. 어디에나 야당 여당의 조직이 있는데 ‘둘이 싸우지 마라. 우리 말 들어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둘을 보내는 거예요, 여당 야당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299명이라구요. 3백 명으로 잡으면 3백 명 여당 패, 그 다음은 3백 명 야당 패 해서 6백 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당신네 당에 소속하는데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같이 출마할 수 있는 장소를 그렇게 해놓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 여자가 합해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로 하지만 남자의 권한, 여자의 권한을 가지고 누가 이기나 봐라 이거예요. 이긴 녀석이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당도 그렇고 말이에요. 야당끼리는 남자 패들이 싸움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 남자 두 사람이 나가지만, 여당 야당이 하게 되면 몇십 명이 될지 몰라요. 두 사람 이상 되게 되면 이걸 선거하면 할수록 지게 돼 있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물어 보잖아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우리는 여당 야당에 한 사람만 집어넣어 가지고 당선되는데, 저쪽은 서로가 해먹겠다고 무슨 당 무슨 당 해서 한 선거구에 두 사람 세 사람, 나오면 나올수록 구더기 새끼가 되는 거예요.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우리가 하나돼 가지고 남자들의 사악한, 세상을 망쳐 놓은 천사장권을 전부 다 정비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시에 세계는 일방통행으로 다 꺼져 갈 것입니다.

천국 해방이 몇 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그렇기 때문에 전 당원들, 여당 야당에 배치 받은 여자들을 끌어다가 교육하는 거예요. 당수의 여편네, 당의 모든 부인들을 끌어다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 같으면 4천만 중에 2천만이 여자인데, 1년에 한 번씩 1백 달러씩만 내라고 하면 얼마예요? 2백억 달러예요. 2백억 달러인가? 2백억 달러의 선거 비용이 매회 나올 것이니 한 4년 되면 8백억 달러 선거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1년에 1백 달러씩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선거 비용이 필요 없어요. 이놈의 자식들, 선거에 팔려 다니고 있는 거라구요. 전부 다 국가와 국민을 옹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가 미국에 가서 22일에 이 내용을 발표할 거예요. 망해 가는 미국 구도의 대안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되

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남자도 상원의원, 여자도 상원의원, 4년 만에 한 번씩 바뀌치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어요. 하나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이겁니다.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주동문! 「예.» 어디 갔나? 왜 그리 가 있어? 오늘 별스런 말을 들어 봤어? 어저께 대강 윤곽은 얘기했지? 「예.»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이거 신문에 발표해야 돼.

곽정환! 「예.»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면서 문총재가 세계 인류 구도의 길, 가정의 구도의 길, 국가 구원의 길, 세계 천지 구도의 길을 선포했다. 만민 앞에 통고하나니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복을 받아 갈지어다!’ 하면 미국 상하원 의원이 아멘 하겠어요, 노멘 하겠어요? 노멘 할 때는 저 지옥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교만한 녀석들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미국과 서양 멤버들, 선생님이 말씀한 내용을 알겠어요? 「예.» 정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성공합니다.»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거라구요. 돈은 필요 없다구요. 여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지요? 여왕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남자를 컨트롤할 수 있지요? 안 그래요? 「예스, 파더!» ‘예스, 파더!’ 하게 되면 ‘예스, 마더!’도 대번에 나와야 된다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온 세계의 여성들은 하나되라 이거예요. ‘노동자 농민은 공산당 기치 아래 뭉치자!’ 하는데 그거 안 돼요. 그러나 통일교회의 선언, 참부모, 참아버지의 말씀 선언은 온 세계의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여성 전체는 참아버지 품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스!’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만 들으면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 무슨 기? 「사광기입니다.» 사광기 할 때 광 자는 ‘미칠 광(狂)’자 아니야? 사광기! 「예.» ‘역사가 미치는 틀거리(史狂器)에 섰다.’ 하

는 게 사랑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정신차려, 이 녀석아. 빛 광(光)자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 복귀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구.

개인·가정·국가·세계·하늘땅에 대한 정의의 교육을 하라

이거 선생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내용을 기재하려고 해도 하늘이 기재하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오늘 새벽 다섯 시부터 기재하라고 해서 기재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의 특명이에요. 사람 말로 생각하지 말라구요. 주동문! 「예.」 그런 운곽은 알았지만, 이렇게 펜을 들어 기록한 것은 다섯 시에 일어나서 기록한 거라구. 중요한 문제예요. 천지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나라를 찾고 국가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국가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가구요. 영계는 지금 다 축복해 줬지요? 축복가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리 와라!’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난 둘째 주부터 ‘천주는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조국’이라는 말을 했다가구요. 이거 결론을 지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참부모는 섭리사관적 책임 완성을 했다는 말씀을 했어요. 총개론을 지어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새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 표어는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이라구요. 근절했으니까, 축복했으니 사랑이 이겼으니까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이다 이거예요. 천국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타락한 반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성이 단결해서 아들딸을 포섭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가면 어머니 협회를 중심삼고 동네의 아들딸을 교육하는데 무슨 교육이나? 아버지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교육, 가정의 교육, 국가의 교육, 세계의 교육, 하늘땅이 어

디로 간다는 정의의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어머니를 여왕으로 모시고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되고, 본연의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왕자 왕녀의 가정을 거느린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연의 세계인 천국을 개문하는 데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전세계가 연결되어 수억천만 가정들이 타락하지 않은 결과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방과 참 부모의 해방, 종교의 철폐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상적 가정, 이상적 천국, 이상적 조국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느냐? 최후에는 뭐냐 하면 집이예요, 집. 새 세계를 창건해야 돼요. 다시 창건해야 된다고요. ‘창건 여성당’입니다. 여성당이 교육의 서당이 돼서 참된 서녀와 참된 딸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참된 신부 교육, 참된 어머니 되는 교육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래 놓고는 참된 어머니가 돼 가지고 참된 아버지가 되게 교육해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서는 안 돼요. 아들딸을 교육해서 전부 다 그들이 ‘아버지, 와!’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비로소 가정당 천국 안정시대가 됴므로 말미암아 지상·천상천국 해방권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다 끝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이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스, 파더! *예스, 파더!」 하기 이전에 먼저 ‘예스, 마더! 예스, 칠드런!’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스, 파더!’ 해야 된다고. 그게 원리관이야.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다 알았지요?

오늘 선생님이 말한 그 내용, 개관적인 모든 것을 틀림없이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모르면서도 손 안 드는 녀석들이 있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다고요. 자 그럼, 알았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

라면서 폐회를 선언할까 말까 생각합니다. (박수)

여성교육당을 만들어 참부모의 지시에 따라 교육해야

나라를 구해야 돼요, 국가 메시아들. 선생님은 벌써 3년 전에 신구국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거 기억해요? 「예.」 신구국연합을 세계로 창설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나라의 33명, 혹은 34명, 국가 메시아를 중심삼고 34명으로 해서 여성단체 780가정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때를 준비한 거예요, 이때를.

어때? 문난영이랑 누군가?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봤어? 「예.」 세계에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안 한 나라는 곤란할 거라고요. 당장에 국가 메시아는 이 놀음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원리의 복귀의 첨단 결론이 뭐고, 지상·천상·천국 잃어버린 것을 재탕감시대를 거쳐서 대전환시대, 1차 2차 3차에 실패한 탕감의 시대에는 그랬지만, 제4차 해방적 아담 복귀시대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책임과 아들딸의 책임이 이래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천리를 통해서 창조원칙 기원까지 넘어서는 해방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신천지의 국민이 될 수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줄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다구요. 알겠어요? 「예.」 가르쳐 줘야 된다구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하고 청소년을 수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외 세상은 안 따라오면 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프리 섹스니 호모니 레즈비언이니 필요 없습니다. 여당 야당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들을 내버려두고 우리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구요. 교육당을 중심삼고 자동적으로 당이 된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당이라구요? 「교육당입니다.」

교육당이 이 교육을 당장에 시작해야 됩니다. 참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길, 참된 신부가 되고 부인이 되고 그래서 참된 어머니가 돼 가지고 아들딸을 교육해야 돼요. 교육하는 것은 혼자서는 안 돼요. 전부가 하나돼 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서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맡깁니다. 가르쳐 주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었던 도리를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나라를 찾기 위한, 세계와 지상천국에 갈 수 있는 훈련을 아버지 앞에 받아 가지고야 천상세계의 국민이 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잘 아는 구만! 입을 벌려서 아멘 할 줄 알았으니 그것도 많은 수고의 결과지요. 듣고 배운 게 나쁘지는 않구만. 이제는 다 커지는 거예요.

원리 내용을 중심삼고 더 원하는 것은 오로지 나라와 세계와 천국이에요. 나라는 장자의 나라, 세계는 부모의 세계, 하늘땅은 왕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 왕권은 영원불변이라구요.

자, 이거 기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부르는 대로 써 놓고 돌아가서 연구해 보라구요. 알싸? 「예.」 돌아가서 뭘 할 것인지 알지? 「예.」 신문에 내라구. 집 당 자가 아니라 교육당이다 이거예요. 그건 여자들을 내세워서 여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요전에 얘기한 것도 그 거라구요. 돈은 국민이 50달러씩만 해도 선거 비용은 쓰고도 남아요. 돈이 필요 없대구요. 요사스러운 것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해서 부정하는 걸 선생님은 못 참는대구요. 이거 좀 기록할까요, 말까요?

세계 지도자회의 지시사항

보라구요. ‘제4차 아담시대에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늘의 축복이 영

원히 같이하소서! 아멘!’ 송별사예요, 송별사. 망년사라구요, 망년사.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2000년 원단 신년사! 신년사인가, 뭐인가? 신년사인지 나는 잘 모르겠구만.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뭐냐 하면, ‘승리의 천국이여, 영원히 발전하소서! 아멘!’ 표제에 대한 하늘의 축복을 빈 거라구요. 뭐라구요? 승리의 천국이여, 영원히 발전하소서!

새천년 표제를 중심한 세계 지도자회의 지시사항입니다. 이걸 아까 얘기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제 얘기한 거와 같기 때문에 다 안다구요.

1. 천주는 참사랑의 집

천주는, 이 모든 전부는 참사랑을 위한 집입니다. 주체 대상관계, 상하전후좌우의 구체(球體) 형태를 갖춘 세계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시골에 가서 살더라도 만물을 붙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곡식을 아기와 같이 키우고 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는 참사랑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1) 만물세계의 집

하나님께서 첫째로 만물세계를 지었어요. 만물세계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입니다. 참사랑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필요로 하고, 아들딸도 필요로 하고, 부부도 다 필요로 한다구요. 부모가 필요로 하고, 부부가 필요로 하고, 좌우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세계의 집이라구요. ‘위하여 상하좌우전후가 작용함’ 이걸 말해요. 상하 관계의 하나(부자), 좌우관계의 하나(부부), 전후관계의 하나(형제).... 만물도 다 그런 관계예요. 다 가정 형태라구요.

2)인간세계의 집

인간세계에는 부모 부부 자녀가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중심삼고 이익이 돼서 영원히 운동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 모든 주체 대상관계와 상관하는 존재들이 가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몇십 배, 몇백 배 도수가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상대적 관계로써 운동하는 곳, 살 수 있는 집이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세계의 집입니다.

3)천상세계의 집

하늘나라의 집이에요. 하늘 부모, 하늘 부부, 하늘 자녀가 살 수 있는 사랑의 집입니다. 대개 알지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 그런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2. 참사랑 가정은 천주의 핵심

참사랑 가정은 천주의 핵체, 뼈다귀라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삼고 보면 가정·종족·민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뼈라는 거예요. 8대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뼈라는 거예요. 참사랑 가정은 천주의 핵체다! 뼈라는 말이에요.

1)남편은 부인의 참사랑의 집

2)부인은 남편의 참사랑의 집

3)부모는 자녀의 참사랑의 집

4)자녀는 부모의 참사랑의 집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 양창식의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여편네예요. 집이라구요, 그것이. 알겠어요? 알겠나? 「예.」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랑이 창식이서부터 생겨난 게 아니예요. 상대로부터 생겨납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의 사랑의 집은 자기가 아니예요. 사랑의 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은 누구냐? 남편을 주인 만들어 주는 것은 아내고, 아내를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남편이예요. 주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의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분이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은 위하는 데서, 희생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말이라구요. 간단한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남편은 부인의 참사랑의 집이고, 부인은 남편의 참사랑의 집이고, 부모는 자녀의 참사랑의 집, 자녀는 부모의 참사랑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3. 참사랑 국가는 천주의 안식처

가정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안식이 벌어져요. 주인만 가지고, 둘만 가지고 안 된다구요. 참국가 형태가 돼야 가정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식이 벌어집니다. 알겠어요? 가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사랑 국가는 천주의 안식의 집, 안식처다 이겁니다.

상하관계는 나라가 아무리 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하관계인 부자지관계는 군신관계와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둘째 번으로 좌우는, 부부는 남자와 여자관계이고, 셋째 번인 전후는 자녀관계라구요. 백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4. 참사랑 천국은 영원히 생활할 수 있는 집

참사랑 천국은 영원 생활의 집이예요. 머무는 집이예요, 집. 그렇잖

아요? 첫째 부자지관계는 상하를 영원히 묶고, 부부관계는 좌우를 영원히 묶고, 그 다음 자녀관계, 형제관계는 자녀를 영원히 묶는 거라구요. 그래서 영원히 생활할 수 있는 집이 되느니라! 아멘!

5. 새천년 새 세계 창건은 여성당으로부터 시작한다(신구국연합 목적 완성)

다섯 번째는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전체의 결론이 된다고요. 다섯 번째 가운데는 신구국연합 목적 완성이 들어가요. 3년 전에 이미 전세계에 준비하라고 한 것은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국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 걸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괄호 해 가지고 신구국연합 목적 완성이라고 해서 의식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천년 새 세계 창건은 여성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집 당(堂)’ 자예요. 그 싫은 ‘무리 당(黨)’ 자를 썼다가는 반대받아요. ‘집 당(堂)’ 자예요. 알겠어요? 집이다 그말이에요.

1) 참여성 교육 창건

여성당을 중심삼고 참여성 교육 창건으로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중심이다 그거예요.

(1) 참효녀 양육하는 집

(2) 참부인 양성하는 집

양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두고 말해요. 혼자 이루지 못한다고요.

(3) 참어머니 완성하는 집

양성과 완성이 달라요.

(4) 참남편 완성하는 집

(5) 참가정 복귀의 집

(6) 참자녀를 낳아 참지상·천상천국 상속

여기서 비로소 상속이 벌어집니다.

2) 참국가 창건을 위한 국가 체제 2부제 형성(상원 하원)

어머니 아버지가 완성해서는 상원 하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당제(二党制) 당리를 해소해야 된다고요. 당과 당끼리 전라도 당, 경상도 당이 당리를 위해 싸우니까 국가는 영망진창이 돼요. 그걸 해소해 버려야 됩니다. 국가 창건을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 여당은 여당을 중심삼고, 전라도면 전라도를 중심삼으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전라도는 전라도만, 경상도는 경상도만 자기 멋대로 당리의 한 굴레, 도리를 중심삼고 국가를 망쳐 놓았다구요. 그걸 해소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창건을 위해서 이 부제 체제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3) 여야당 남자 출마 동수 여자 출마 분쟁 해소

동수로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해소하자는 거예요. 여야당 남자 출마자와 동수로 여자가 출마해서 분쟁을 해소하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아까 얘기한 거라구요. 여자들을 중심삼아서, 여당에도 자기 당에 출마하는 남자의 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여자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또 야당에도 같은 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싸움을 말리고 당리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여당 야당, 상원 하원을 교체 투표해서 전부 다 바뀌치면 전통적인 지금까지 당리라든가 분쟁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4) 참세계 창건으로 상하원

세계가 상원 하원이예요. 유엔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상하원 유엔이예요. 그 다음에는 국가당 완성입니다. 가정당이 벌어진다구요. 이

당은 서당이 아니에요. 가정이 세계를 대표해서 중심적인 지도체제를 갖춘 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집 당(堂)’ 자라구요. 알겠어요? 집 당 자야 돼요. 이 당(黨) 자를 쓰지 말라구요.

5) 천상 지상 통일당 완성함으로 이상천국 실현

천상 지상 통일당을 완성함으로 이상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총결론이 뭐냐? ‘새천년 시작과 참부모님 신년사 천주통일 이상 완성을 바라 새세계 출범을 바라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길어요. 아아, 동서남북 사방으로 멘. 이렇게 길다구요. 새천년 시작과 참부모님 신년사 천주통일 이상 완성을 바라 신세계 출범을 바라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라구요. 알겠지요? 「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겠지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원리원칙을 총결론 내려서 세계 문제, 천주의 모든 문제가 이 원칙 공식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줬다구요. 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참어머니 대신 책임을 하고,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철저히 교육해야 돼요. 혼동회에 전부 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교육해야 된다고요. 이래 가지고 그 원리원칙에 맞게끔 탕감 해원이 필요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의 궤도를 타고 억천만년 해방된 천국 백성이 될지어다! 아멘! (박수)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요. 부모님이 어디 가시는지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구요. 지장이 많아요. 일본 식구들은 선생님이 어디 있다고 연락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은 소리 없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끔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혼독교육을 아까 말한 거와 같이 세계적으로 전통으로 표제만

딱 되었으면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표제를 세워서 표제가 된 대로 각 대륙에서 그걸 할 것이고, 국가에서 하게 된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활동이 적응될 수 있는 환경여건은 자동적으로 창조된다 이거예요. 먼저 창조한 세계는 반드시 주체 대상이 있는 것이고, 주체 대상이 있으면 작은 것은 흡수되어 큰 것을 중심삼고 발전해서 하늘나라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가요.

그렇게 알고, 일본은 앞으로 전부 다 이 활동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 1억2천5백만이 있으면 6천만 이상이 여자 아니예요? ‘6천만 여자들은 동원할지어다!’ 이렇게 교육해 가지고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아들딸과 하나되고 남편과 하나돼서 일족을 수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 야당도 배치할 때 선거운동을 하는 데는 그 당에 의지해서 선발시켜서 그 당수의 부인을 가입시켜 가지고 투입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자들은 출세하는 거예요. 여자 국회의원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 여자 국회의원, 여자 줄개새끼들은 말이에요,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여자 도지사, 여자 군수들도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어느 나라든지 온다 이거예요. 대통령 오라 하면 여자 대통령이 올 거라구요. 그래, 남자 대통령보다 많게 되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해방 천국을 향하여 전진! 명령했다구요. 자, 그럼….

가만 있거라. 선물 줄 것이 어디 있나? 그거 나눠 줄 거야? 그거 가지고 오라구. 앉으라구요. 이렇게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이것을 준비했으니… 「이게 백퍼센트 실크라고 합니다.» 얼마짜이야? 「이거 시내에서 30불에서 50불 합니다.» 전부 다 몇 개 가져왔어? 「1천 개 있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사온 것은 어떻게 했나? 「그것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그러합니다.» 이거부터? 벽에 걸어 봐요. 실크예요. (박수) (이후 말씀은 녹음이 중단되어 수록하지 못함) *

새천년 천국 완성은 조국광복으로부터

전부 몇 사람이나 모였나? 오늘 황선조가 올 줄 알았는데, 황선조 안 왔어? 「오늘 간다고 그랬습니다. (참어머님)」 내가 한마디하겠더라고요.

6천년 섭리사의 종결의 때인 새천년

이제 남미로 떠나야 할 오늘 한계선에 서 있는데, 왜 5일에 떠나느냐? 다섯이라는 것은 열을 중심삼고 절반을 넘어선 수라구요. 그래,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7년을 중심삼고 볼 때 2000년을 맞는 이때가 절반 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전에 연결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서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머니는 늦게 떠나기를 바랐지만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출발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참사랑 천주화’는 뭐라구요? 「새천년 천국 완성!」 새천년이라는 것은 기독교로 말하면 6천년 섭리사의 종결이요, 구원섭리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선민적 4천년이 끝난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4천년이

2000년 1월 5일(水),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후에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끝나고 성약시대도 끝났다는 거예요. 섭리사가 다 끝났다는 거라구요. 이제 사탄세계의 모든 전부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인수받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각하다구요.

이번에 내가 기도한 것이 잘 맞았어요. 감격된 이 전환시기에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 심각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청중과 모든 것을 생각해서 그걸 억제하면서 이렇게 지낸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전달하는 거예요. 심정의 배후에 엇뜨러진 한의 뿌리를 뽑아서 태워 버려야 할 이런 소명적 전체 책임을 할 것을 결단해서 이것을 무의 자리에 쳐 갈라야 할 책임이 참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복귀시대는 어머니를 중심삼고 여자를 중심삼은 어머니 분신을 세워서 아들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들딸을 연결시켜서 그 아들딸과 어머니가 하나되어 전세계적으로 참부모님과 하나되어야 돼요. 이것이 소명적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사의 결론이요, 인류 역사의 목적을 중심삼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님 대신 가정으로서 가인 아벨을 소화하고 나라를 찾아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가정 기반 세계 승리권 위에 정착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위에 정착한 그 가정이 천주의 대표요, 세계의 대표요, 국가의 대표요, 민족종족가정·개인의 대표의 자리라는 것을, 전체를 대표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까지 주장한 것은 여자들이 전부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자를 찾아서 여자가 사탄세계의 남자, — 천사장이예요. — 천사장이 승리하게끔 만들고, 그 아들딸을 거느려서 천사장 위에 끌어올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의 남편, 신랑을 모셔 드려야 할 것이

각자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벗어날 수 없어요.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선생님을 중심삼고 하늘땅의 부모의 자리에서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귀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나? 아래서 복귀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해야 할 것은 부모 대신 가정으로 여자들을 중심삼고 나라를 찾아야
돼요. 사탄이 더럽힌 나라를 찾아야 할 책임이 먼저 있고, 그래서 승리
의 자리에 서서 가인 아벨을 소화해야 돼요.

국가적 기준에서 가인 아벨이 여당과 야당이에요. 알겠어요? 이 여
당과 야당을 타고 앉아야 돼요. 타고 앉는 전통적 과정에서 승리를 하
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것을 아들딸에게 보여 줘야 돼요. 그 아들딸도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
야 돼요. 모든 결판의 싸움의 첨단에 서서 하나되어 어머니와 나라를
중심삼고 뒤넘이침으로 말미암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 순간에 축복받은 남자들의
권한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설자리가 거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똑바로 얘기해 줘요.

여기에 6대주의 책임자, 국가 대표자들, 머리가 모였기 때문에 얘기
하는데, 국가 이상의 기준을 중심삼고 어머니를 세워서 여당 야당을
승리하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자녀들이 그와 하나되어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눈물 어린 입장에서 하나된 후에 부모님이 천지부모의 가정을
중심삼고 승리한 그런 기준을 중심삼고 여러분은 국가 기준에서 승리
해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비로소 축복받은 남자들이 아버지
대신 자리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참부모라는 것은 사탄 국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
은 중요한 것입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노라리(심심풀이로 놀이 삼아 하는 일)로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생

사지권을 걸고 칼을 꽂아 놓고 이 칼을 꽂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칼로 말미암아 둘 다 없어져야 돼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닷새 되는 이 날을 중심삼고 이것을 밝혀 주는 거예요. 밝혀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미 땅에 가더라도 마음놓고 다녀올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을 넘어서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기준의 소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말뚝을 박고 남미로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닷새가 중요해요. 닷새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것이 한 고갯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걸 해야 돼요. 귀한 것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나라의 주권자를 소화해야 돼요. 새로 낳아야 돼요. 낳아서 주권자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중심삼고 여당 야당이 싸우는데 주권자의 대표 기준에 서서 여당 야당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올라가니까 여자들이 야당 여당을 낳아야 돼요. 낳아서 아들딸과 하나돼야 돼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느냐?

우리 가정을 임명한다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비로소 남편을 모셔서 천지부모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 땅 위에서 모든 사탄세계와 싸워 어머니를 중심삼고 자녀인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의 기준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야 돼요. 이러면 사탄세계가 국가 기준을 중심삼고 역사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핵의 기준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무엇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딸을 희생시켜서라도 이걸 해야 돼요.

아들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승리하게 된다면

제물로 바친 아들딸 실체가 부활되어 다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총결산시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경고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황선조한테 광정환은 전해 주라구. 「예.」 똑똑히 알겠지?

한국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우리가 동참해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여자들이 아들딸을 중심삼고 나라의 승리의 패권을 세우기 위한 결사적인 과정에 중심과 하나되어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는, 나라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탄에게 양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자리에 비로소 선생님이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는데, 그 자리에 자기 남편을 세워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 자리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기준에서 하늘 부모가 아버지요 세계의 아버지가 참부모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참부모로부터 여러분 나라의 책임자로부터 가정 전체의 조직 편성이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지상의 일개 개인 몸 마음의 집까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집이에요, 집! 개인의 집, 가정의 집, 종족의 집, 민족의 집, 국가의 집, 세계의 집, 천주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기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승리의 심정 천하가, 지상과 천상이 연결되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천국이 이 천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똑똑히 알려구요. 「예.」 이 사상을 철저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선생님은 세계적 기준에서 영계 육계를—영계 육계가 가인 아벨이예요.—통해서 장자권·부모권·왕권 복귀의 천리의 대도를 갖췄기 때문에 지옥이 없어져요. 지옥에서 천상세계까지 고속도로를 통해 만민 해

방, 만인류 만인간의 해방권, 영계 육계의 해방권을 이루어 천국이 비었던 것을 채울 수 있는 입장을 향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 기준과 세계 기준을 세웠으면 국가 기준은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국가 기준의 주권을 가지고 사탄세계를 해소시켜야 되겠어요. 방망이로 때려 가지고 거기에 전통적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각자 가정의 해가 돼요. 알겠어요? 해와 복귀, 자녀인 가인 아벨 복귀, 남편 복귀예요. 거기서 부모님이 축복해 준 핏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늘 부모, 세계 부모, 국가 부모, 민족종족을 중심삼고 쪽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를 중심삼고 나라의 대표 지도자를 선출해 놓으면, 나라를 중심삼아 한국으로 말하면 도(道) 지도자 선출, 군(郡) 지도자 선출, 면(面) 지도자 선출까지 4단계를 이뤄야 돼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사탄세계에서 선출하는 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자들을 그렇게 내세워 가지고 아들딸을 하나 묶어서 하는데, 그것이 되거들랑 남자도 같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야 가정적 승리권에 국가와 세계가 연결되어 말려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말려 넘어가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건 말만이 아니예요. 이대로 해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예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게 알고, 아버지 대신 가정적으로 접붙이는 분신으로서, 타락했던 아담 해와가 종족을 잃게 했고 나라와 세계를 잃게 한 거예요. 그 대표적 자리에 축복가정 남편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퍼부어서 각자의 책임을 다 하라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내세워야 돼요. 알겠어요? 「예.」 아들딸이 따

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밟고 올라가서 나라의 대표, 가정의 대통령 자리를 탈환해서 못을 박아야 앞으로 하늘나라의 상속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앞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탕감복귀의 원칙이 완전히 하늘땅으로부터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맹세 8번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어요? 「예.」

문평래, 얘기해 보라구. 가정을 대표해 제물 삼아서 남편이 차고 올라가서, 점핑해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역사적으로 잃어버렸던 것, 가정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를 잃어버리고 하늘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궁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 천국 완성이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해방시대가 와요. 그러면 전부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족, 사돈의 일족까지 전부 어떻게든지 있는 재산을 퍼부어서라도... 자기 친척이라든가 통일교회 축복받은 가정들, 자기의 믿음의 아들딸이 전도한 모든 길 연합해 가지고 가인과 아벨 혈족권을 중심삼고 이 일을 단행하여 각자 책임 소행을 다함으로써 세계통일을 이뤄야 되겠어요.

그렇게 결의할 수 있는 마음을 전부 갖게끔 해서 이제부터 5일 고개를 넘어 6일 7일 고개를 넘어서 8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사흘을 앞두고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런 결의를 다짐하면서, 여기에 칼을 뽑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결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지요? 「예.」

2000년에 들어와 5일에 결론적인 말을 내리고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보라구. (문평래 파라과이 국가 회장의 설명)

어머니가 국가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성심성의를 다하라

남자들이 코치해야 돼요. 어머니를 내세우고 어머니가 움직이는 것을 봐서 아들딸을 교육해서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자기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라!’ 하면 안 된다고요. 여편네를 내세워서 하나되어 국가 최고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성심성의를 다해야 돼요. 어머니가 움직이는 데 아들딸이 하나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뒤집어졌으니 거기에 가서 묶어야 된다고요. 어머니를 중심삼고 자녀예요. 아담 가정이라고요, 아담 가정!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선 그 기반 위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담 복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적 고초를 느껴야 돼요. 그게 편안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상 재림, 착지하기 위해서 수천만년 수고했던 심정을 여러분이 이 기간에 있어 느껴야 돼요.

각 나라의 선거 기간이 다를 거예요. 여자를 중심삼고 그런 여자들이 어머니의 분신이 되고 아들딸은 가인 아벨의 분신이 되어 국가 기준에서 하나되어야 돼요. 사탄 국가를 뒤집기 위해 하나되어서 나가야 돼요. 결심한 그 관은 틀림없다는 각오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남자가 따라가서 위에 서 가지고 야당 여당의 전후좌우상하로 달라붙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하늘나라 앞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국회 형태가 벌어지고 새로운 방향이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 봐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여성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부터 4일이 지나고 한 고비를 지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반드시 수직을 통해서 올라가다가 4일을 지내고 5일이 되어 여기서 남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머니하고 아들딸이 하나된 기반 위에 국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서 여기서 전부 하나되

어 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돼요. 이 위는 종족민 족국가가 하늘에 다 달려 있어요. 사탄은 다 무너져요.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는 운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주인이 없어요. 세계가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일본도 그래요. 다 주인이 아니에요. 밀어 제치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한 많았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보라구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 자리에 서니 기도해야지요? 「예.」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나라와 세계를 통해 갈 수 있는 제4차 아담권 확립이 국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에서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제4차 아담권은 국가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모델이 되어 있으니 국가 기준의 내적 모델 형태에 있어 각자의 가정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이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모자협조지요? 이래서 하나되면 어머니는 장자에게 맡겨 주기 때문에 부자협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협조 시대가 되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요? 「예.」

모자협조 시대의 승리 기반 위에 영광의 부자협조 시대를 이뤄야

모자협조 기반 위에서 어머니가 승리했기 때문에 자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세워서 제3시대의 재림 아버지 입장을 중심삼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재림 이상 판도 가정 기반이 결정되므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천지인(天地人) 세계의 해방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평세 1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여기서 결정 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총결론이에요.

곽정환! 「예.」 왜 모자협조 시대에서 부자협조 시대가 된다고? 얘기 해 보라구. 「어머니 사명을 해야 될 어머니 대신 중심인 여성들이 가인 아벨의 자녀를 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보면 야당 여당, 혹은 세상 사람들을 자녀 입장에서 품어야 됩니다. 그 터전 위에…」

품을 때까지는 모자협조 시대예요. 자녀와 하나되어야 돼요. 하나되어 가지고 국가시대를 넘어서 아버지를 중심삼고 연결될 때는 어머니가 아니라구요. 핏줄이 연결돼 아담의 상속을 받는데, 내가 지상세계를 밟고 넘어서 영원한 아버지 세계, 부자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부자시대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벌어져야 된다고요. 선생님을 중심삼고 세계와 지구성에서 벌어진 대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모자시대는 탕감시대고 부자시대는 영광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을 중심삼고 팔순을 향한 해방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넘어섰기 때문에 7년 이내에 모든 것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3년까지 해서 7년을 앞으로 하게 되면 2010년이 돼요. 10수예요. 그때까지 21수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언론계가 환영하게 되면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인터넷이니 이메일(E-mail)이니 통신분야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앉아 가지고 화상 전화로써 세계적인 회의를 할 때가 왔다고요. 그렇지요? 「예.」 한 집안이에요.

지상천국, 만민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세계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제의 심정권으로 국경과 종족, 민족, 문화, 습관성 등 모든 것을 넘어서 균일적으로 새출발을 하니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신천신지(新天地)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한 번 더 해봐요. 「아멘!」

자, 그렇게 결심하고 각자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 맡겼

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내가 책임소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다 보여 줬어요. 또 이것이 연결되면 나라가 선생님을 중심삼고 하늘과 즉각적으로 연결된다구요. 그러니까 운세가 여러분 가정에 다 왔으니 칼이 되어서 쳐 가르느냐 못 가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종족,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습니다.’ 해야 돼요. 그것이 각자 축복가정의 사명이예요. 소명적 사명이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의 직접 명령이예요.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예요. 선생님이 여기에 와서 대표적 가정들 앞에 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면 평면의 기준에 서는 거예요. 선생님이 닦아 놓은 모든 것을 상속받아 가지고 평면 기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직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지요? 「예.」

칼을 뽑아 쥔 거예요. 어머니의 칼과 가인 아벨의 칼을 합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모자협조 부자협조하여 통일된 것을 중심삼고 아버지같이 후려갈기라는 거예요. 남편이 해서 남편의 승리권을 중심삼고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게끔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리잡아서 탕감해 나오던 자식과 어머니를 자리잡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 재림주의 사명, 참부모의 성약시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모권 나라에서 왕권을 복귀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가자

그것을 천주적 입장에서 승리의 핏말을 콧고 넘어서니만큼 국가적 기준은 그런 운세권에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피와 살이 그 박동에 의해서 같은 부모의 영양소권 내에 흘러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류하더라도 피는 다 동맥 정맥

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통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노라리로는 안 된다구요. 가정이 말초신경이에요, 말초신경.

탕감시대에 정맥권을 넘어서 동맥권으로 가는 거예요. 동맥을 끊어 났어요. 하늘나라의 동맥을 참부모가 와서 여러분 국가 기준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연합해서 4억쌍, 그레 가지고 8억쌍을 축복시켜야 된다구요. 8수예요. 그것을 중심삼고 안 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환경에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아담 해와지요? 천지를 대표해서 선생님이 전부 탕감했기 때문에 하늘을 다 메워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라를 밟고 올라서야 돼요. 나라의 집이에요. 여기서 날아가야 세계와 천국의 중심인 하늘과 참부모의 영원한 조국광복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이거예요. 확실하지요? 「예.」 알겠어요? 「예!」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라구요. 선생님이 확실히 안 가르쳐 줬다는 말을 못 한다구요. 어느 누구나 축복가정은 같은 책임이 있어요. 형님 된 가정들이 동생 가정들 앞에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동생의 집까지도 형님이 책임져야 되는 장자권 시대에 왔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장자권 나라에서, 부모권 나라에서 왕권을 수습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해서 생사의 판결을 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 가정이나 나라나 무엇이나 일사천리로 썩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틀렸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제멋대로 안 돼요. 각자에게 소명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네의 이장으로부터 전부 탈환해야 돼요. 자연히 그렇게 돼요. 3년만 지나게 되면 전부 교체되는 거예요. 전부 다 통일교회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라던 복귀 완성의 기준을 비로소 우리 가정에

서 부모가 아들딸이 하나되어 책임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추어 드려야 되는 것이 문제라구요. 2차대전에 병사가 출전할 때 승리 전날, 1초 전이라도 사령장을 받으면 2차대전에 출전한 병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승리하게 되면 전체가 혜택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받는 거라구요. 그러니 지도자들이 문제가 커요.

여당 야당을 도와주면서 각 지역의 책임자가 되라

총생축헌납제라는 것은 나라를 바치기 위해 활동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알겠어요? 헌납된 교회가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나라의 소유권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교회를 중심삼고 교체하는 거라구요. 여기에 수직이, 하늘땅이, 세계가 달려 있어요. 알겠어요? 「예.」

소유권 전환한 물건은 나라를 찾는 데 팔아서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다고 경제적 지원도 한꺼번에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구요.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커지면 국가를 넘어서 세계까지, 나라와 아시아와 세계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와 대륙과 세계로 돌아갈 때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연결된 놀음을 해야 돼요. 국가만 넘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다 넘어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한다고 그랬지요? 「예.」 리 왕, 면 왕, 도 왕, 나라 왕, 세계 왕이에요. 국가의 모든 전부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정치권에서 양당을 중심삼고 나쁘게 하는 것, 공격하는 것, 치는 것은 쳐야 돼요. 때려서 잡겠다는 패들은 없어야 된다고요. 그들을 도

와줘서 싸우지 않고 하나되어 가지고 당리(黨利)를 위하지 말고 국리(國利)를 위해야 된다고요. 나라의 이익보다도 세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장서부터 면장, 군수, 도지사... (녹음이 잠시 끊김)

여러분 중에 그 기반을 누가 닦느냐? 닦은 나라에서 선생님이 사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 소국가든 강대국이든 같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이제 쉬워져요. 국가를 전환하기가 쉬워요. 많은 나라가 생겨난다고요. 생겨날 것 같아요, 안 생겨날 것 같아요? 「생겨납니다.」

여자를 내세우고 아들딸까지 움직여야 된다고요. 남자도 두 명... 남자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버지 당, 아들딸 당, 어머니 당이에요. 싸우는 당(黨)이 아니에요. '집 당(堂)' 자예요. '집 당' 자는 '흙 토(土)'예요. '흙 토'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판으로 하는 거예요.

'무리 당(黨)' 자는 '검을 흑(黑)' 자를 쓰다가 '형 형(兄)' 자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세계가 분립되었다가 형제시대인 민주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혼합시대예요. 과거는 자리가 없어요. 세계는 관계없다고요. 마을에서도 망해 가고 지금까지 망했지만, 국가 형태가 되면 망하지 않아요. 껍거리 싸움을 해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 나라 시대지만 사탄세계였던 것을 지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시대로 들어와서 집의 주인은 부모가 되는 거지요? '집 당'이에요. 여기는 '집 당'이에요. 하우스(house)예요.

국가 책임자는 선생님 대신 그 일을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일선을 강화하느냐 이거예요. 정치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해요. 지금까지 망해 가는 나라, 자기 당을 중심삼고 나라를 살리자고 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나라를 파먹는 구더기가 됐어요. 나라를 파먹는 벌레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한국에서 기성 정치인들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그렇게 없을 수 없습니다. (곽정환)」 그럼. 우리가 나선다면 ‘와, 어쩐가 보자!’ 하는 거예요. ‘어쩐가 보자.’ 하며 부정하던 데에 여자들을 내세워 보는 거예요. 그걸 중심삼고 남자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만 내세워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람까지 내세우면 맨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져요. 하나 만들어 주면서 우리도 출마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에요.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가정적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놀음을 한다는 거예요.

남미 4개국 책임자를 중용해야

곽정환, 가서 회의를 하는 데 며칠동안 있나? 「10일 전까지 마치고 11일에 떠납니다.」 이 패들도 거기에 참석할 거라구. 「이번에요? 작전상 안 왔으면 싶습니다.」 왜? 「미국의 상원의원을 데리고 가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아버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증거하는데 회의를 하잖아? 모이잖아? 「예.」 거기에 참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전부 주도하기 때문에…」 주도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거지, 우리 4개국 대표들이.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주선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참석하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를 귀빈으로 초청하는 입장입니다.」

초청하는 입장인데 ‘귀빈 가운데 우리가 주의 책임자를 거느리고 간다.’ 한마디하면 되는 거지, 의논은 무슨 의논이야? ‘남미 판타날을 중심삼고 당신들을 협조할 사람들이다. 주(州)만이 아니라 4개국이 연결되었다.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를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으니 국가 대표들로 참석하려고 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소개해야 줘야 된다고. 「예.」

박구배는 어디 갔어? 「밑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달러를 댄다며? 「우리는 상파울루까지 도착하는 것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전부 냈습니다.」 상파울루 왕복 비행기표야? 「예.」 비행기표가 몇 장이야? 몇 사람이 가? 「열한 사람인데, 워싱턴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플로리다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착만 하면 자기들 수행원이 나와서 현지답사 식으로 합니다. 그걸 뿐만 아니라 캄보그란데에서 한 시간 정도 더 가서 거기에서도 현지답사를 합니다.」

네 사람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4개국 대표로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거기에 연결시켜야 앞으로 그 주가 마음대로 못 해요. 횡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했는데 자기들만 하겠어요? 판타날을 움직이는 핵심요원들이예요. 안 그래요? 걱정환! 「예.」 자기들만 갔다 오면 무슨 기반이 남아요? 옆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전부 동원해야 돼요. 자기 주(州)의 일이 아니예요.

「닥터 스왈스가 우리 대표로서…」 대표를 하지만 왔다가 그냥 가면 뿌리가 없어져요. 4개국 대표들이 참석해야 돼요. 가면서 얘기하라구요, 현지에서 올 거라고. 「예. 전에 우리 회의 할 때 의장으로 세운 사람하고 그 다음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의 경쟁자였던 사람하고…」 유엔하고 미국의 대표가 가니까 앞으로 뒤넘이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판타날 계획은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4개국도 자기들이 따라가야지, 대가리가 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4개국 책임자들을 중요시해야 돼요. 주지사 이상의 자리에서 교섭하고 만나서 의논해야 된다고요. 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

예요.

「그 사람들은 남의 땅에 와 가지고 아버님이 너무 엄하게 따르라고 한다고….(곽정환)」 내 말대로 하라구. 주체가 없이 자기들이 해서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그래요. 출세하려면 출세 시켜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내가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여기 책임자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사장한테 얘기해서 현지에서 4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다고 해요. 그래야 앞으로서 우리 일하는데 메르코수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메르코수르의 책임자들, 국가 대표들은 안 오나? 「누구요?」 남미의 4개국 대표들은 안 와?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국가 대표, 대통령이라든가 부통령이라든 하는 사람은 안 와? 「예.」 그러면 자기 급에 해당할 수 있는 각주의 대표들이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이 모임은 하도 아버님이 좋은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브라질 민족이나 국가가 아버님의 그 뜻을 알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을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육도 그래요. 브라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4개국이 연합해야 된다고요. 4개국을 전부 다 교육해야 돼요. 「여론을 나쁘게 내기도 하고 더군다나 주지사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생님은 그건 관계도 안 해요. 브라질이 떠드는 것은 관계도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나 팩트파인딩 투어(fact-finding tour; 실태조사 여행)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아버님의 배후가 미국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생각을 순화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순화하는데도 놀음자리를 봐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따라 들어가야지, 뭐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상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의를 거기서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상원의원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라고 그래요. 「예.」 그런 것을 어물어물 하지 말라구요. 그것을 안 정해 놓으면 날아가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옛날에 사탄을 잡던 방식으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잡겠습니다.」 이게 사탄 잡던 방식이야? (웃음) 평화적으로 형제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도 자기들이 미국하고 유엔 대표들의 명단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내가 닦아 준 국가 책임자들은 허재비예요? 왜 초청 안 하느냐 이거예요. 당신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나가야 된다, 레버런 문을 타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개국 대표들을 중심삼고 자기들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의논 대상이니 교육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심어 놓아야 돼요. 「예, 이제부터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가야 된다고. 말 한마디면 될 것 아니야? 4개국 대표들이 지방에서 지금까지 협조해 나왔으니, 앞으로 4개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청했다고 하는 거야. 만약에 비용이 없으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알겠어? 「예.」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끌려 다니지 말고 조종하면서 끌고 다녀라

신문사도 많이 오나? 「현지 신문사는 다 동원됩니다.」 4개국의 신문사와 우리 신문사를 불러서 가는 거야. 「그것은 현지에서 와야 됩니다.」 신문사 대표가 나라의 책임자 아니야? 언론계 책임자들이 국가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협조해 나왔기 때문에 조직적인 대표로 안팎으로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 올 수 없어서 왔다고 하며 소개하는 거야.

파라과이 <팀앰포스 델문도>의 사장이 누구야? 「닥터 지니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총책임자 아니야? 「예, 제가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문평태)」 그러니까 언론사의 책임자로 왔다고 하는 거야. 레버런 문의 직속 부하인 동시에 언론계를 대표한 주인의 입장에 있으니 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내는 거야. 알겠어? 「예.»

그것이 필요하다구, 광정환. 「예.» 자기 혼자 출세하겠다고 헬리콥터를 타고 옆에 소리 지르지 말라고 도둑놈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못 할 일을 하는 거야? 나라와 세계에 공포(公布)하겠다고 하는 거야. 「제가 이 이상 출세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다만 좀더...」 (웃음) 주지사 그놈의 자식이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대가리가 요즘에 갑자기 돌아서 그렇다구. 판타날 대회에 와 보니 유엔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니 자기 위신을 세워야겠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춤추면서 ‘왜 그러냐?’ 하며 우리는 자리를 잡고 말뚝을 받고 조종해야지 끌려 다니면 안 된다구.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선생님도 움직여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환경도 천만에!

「주지사가 손님들에게 리셉션(reception; 접대)을 하고 만찬을 베푸는데 그래서 제가 조용히 깊은 이야기를 못 하고 아버님을 다 소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별도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못 할 것 없어. 왜 못 해? 내가 이번 22일에 이런 얘기를 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폭탄 선언을 해야 유명하게 돼. 못 하기는 왜 못 해? 킁킁거리다가 놓쳐 버려. 적지를 올라가려면 갈고리를 걸쳐서 생명의 줄을 박아놓고 올라가야 돼. 줄 없이 올라갈 수 있나? 자기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그 줄이 끊어지지 않고 뽑아지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구.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하고 저하고 주지사하고 부지사하고 환경담당 책임자하고 골프 모임을 별도로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네 사람도 가담시키라구.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웃음) 국가 대표야. 아르헨티나 대표, 우루과이 대표, 파라과이 대표, 브라질 대표라구. 브라질 대표 아니야? 브라질 대표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지사보다 높은 자리에서 전부 의논해야지.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있다구. 주지사 모가지를 치려고 하면 쳐 버릴 수 있는 싸움도 하고 말이야.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 선생님은 손바닥밖에 없는 줄 알아?

「주지사 선거할 때 우리가 그 주지사를 지지 안 했던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주지사를 아버지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려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돼. 국가 꼭대기에, 브라질 연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조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구. 그렇기 때문에 김홍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르크 폴로 같은 사람을 좀 소개해줘. 「예.」 배후라든가 그런 것 말이야.

미국 상원의원이 가서 뭘 해? 지나가는 손님으로 술 한 잔 먹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잔치했으면 주인을 누가 할 거야? 자기가 주인이야? 선생님도 초청하지 않았어, 이놈의 자식들! 원래는 선생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야. 「아버님이 가신다고 그러셨으면 처음부터…」 아버님 가는 대신으로 보내는 거야. 내가 안 가더라도 초청장을 냈으면 4개국 대표를 대신 보낸다고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거야.

「원래는 국제회의 하는 데 대표도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런 것은 칭찬을 좀 해주셔야지…」 내가 칭찬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 반대하는 것을 굴복시켜서 칭찬 받아야지, 칭찬해서 하겠다고 하면 탕감복귀 원칙에 위배됩니다. 「알겠습니다.」

못 하면 못 하지,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서 내

가 허가도 안 내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몰라서 허가를 안 냈어요? 허가를 내려면 10년도 걸려요. 다리를 놓으려면 중앙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해서 자기 나라보다도 좋은 다리를 놓은 거예요. 싸움을 해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졸(卒) 하나 가지고 ‘장군!’ 할 수 있는 거예요. 상(象)이니 마(馬)니 포(包)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졸 하나 가지고 한 걸음씩 가서 궁(宮)을 먹는 놀음이에요. 그래야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광정환의 신세를 지거나 미국의 누구 신세 지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 같은 것도 제대로 해야지, 가외 예산을 책정해서 써먹으려고 하지 않아? 「안 그렇습니다, 아버님. 전에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고…」 글썽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 원칙을 따라서 정해야지, 그 사람들을 먹이고 길러 주고 달라붙어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 도와주겠으면 도와주고 말겠으면 말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탕감복귀의 길을 의논하고 교섭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나카소네를 내세워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국회의원들을 데려다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야 데려왔지. 요전에 갔을 때 요미우리 신문이니 아사히 신문이니 이런 패들이 나한테 인터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인터뷰하면 선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오라.’ 하는 데 가면 자기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 보태 주는 거예요.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레버런 문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발전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론계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안 만나 주니까

세계 언론을 두드려 패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 가지고 죽으면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안 죽으면 너희들이 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언론사를 만들어서 먹살을 잡는 거예요. 1천7백여 개의 신문이 있는데 하나의 신문을 가지고 모가지를 꿰찼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실력을 능가할 수 있게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워싱턴 포스트>니 <뉴욕 타임스>의 먹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뉴욕 타임스>니 <워싱턴 포스트>의 가는 방향이 전부 달라졌어요.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썼는데, 이제는 <워싱턴 타임스>를 의식해서 쓰는 거예요. 잘못 쓰게 되면 대번에 조건을 제시해요.

그게 탕감복귀의 길이에요. 사탄 대해서 명령해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섭해서 지금까지 이 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핏줄이 더럽혀졌는데 의논하게 되어 있어요? 약혼한 여편네를 빼앗아간 원수 패들하고 의논할 수 있어요?

그놈의 주지사가 나한테 와 보거나 했어요? ‘내가 자기 나라에 왔으니 자기가 나한테 와야지!’ 이런 거예요. 하고픈 대로 해라 이거예요. 내가 김홍태한테 ‘꼭대기의 누구한테 돈을 써서라도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들어 봤어? 「안 들어 봤습니다.」 (웃으심)

얼마든지 내가 하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기 전부터 미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넘어갔어요. 미국에 왔는데 누가 미국에 오는 것을 알거나 했어요? 와서 대회를 할 때는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 에프비아이(FBI;미국연방수사국)가 모를 수 없어요. 진짜 조사를 한다면 들어와서 1년이고 2년이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있었으니 못해도 10분의 1, 1년 7개월 동안 연구해야 돼요. 자기들이 통일 교회에 들어와서 1년 2년을 따라다니면서 알아봐야 돼요. 알아봤어요?

소문이나 듣고 알아보지도 않고 때려잡기 위한 뭉둥이질을 했어요. 이 놈의 자식들!

내가 임자네들한테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의논 안 해요. 내가 손대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미국의 누가 알기나 했어요? 전라도 패들로 전부 인사조치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 이름을 걸어놓고 국회의원에 출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예.」 전라도 사람이 지금 몇십 명 되잖아? 전라도 사람 이상 출마시킬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선호 저 경상도 사람은 ‘나도 들어가겠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웃음) 언제든지 입을 열어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넘어와도 선생님의 눈이 자기를 향해서 좋게 안 웃어 줄 것 같으니까 가만 있지, 나타나는 환경만 있으면 빙글빙글 해서 한마디할 거예요. 자기가 국회에 출마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한국에서 될 게 뭐예요? 세계 전체에서 되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지금은 세계 전체예요. 국가가 아니예요. 이제 뛰려면 뛰어 보라고요. 뭘 때가 왔어요. 자기 책임소행을 중심삼아 가지고 출마한 사람은 40일만 가서 하면 얼마든지….

걸려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라

이제 국가 메시아들을 다 배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국가 메시아들이 몇 명이에요? 2차대전에 참전했던 나라에 국가 메시아들이 다 갔다고 그랬지요? 「예.」 그 사람들을 중심삼고 선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냥을 갔었는데 하도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재워 주셔서 앉아서 조금 졸다가 나중에는 아침 먹을 여유도 없이 나와서 안 나오느냐고 호통을 치시니까 송장로님이… 정말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브라질에서는 남의 땅에 허락도 안 받고 오셔서 법규도 지키시지도 않고 온갖... (곽정환)」 (웃음)

법규를 안 지키길 게 뭐야? 도지사에게 조건을 거는 거야. 야곱이 떡하고 팔죽을 줘서 장자권을 샀거든. 그런 조건을 걸고 하는 거예요. 「훗져어 놓으셔서 나라가 별떡 뒤집어지도록 이렇게...」 그래야 다 알려지는 거야. 그게 제일 빠른 거라구. 「그런데 그 정도 되었다가 아무튼 이제 자기들이 초청하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정식으로 절차를 갖췄습니다. 다른 사람은 겁을 안 내고 상원의원을...」

이 사람아, 판타날 회의를 안 하면 그 일이 안 생겨요. 자기들이 나서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을 우리가 먼저 박아야지, 거기서 먼저 박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을 훤히게 아는 사람인데.

「이제는 털도 안 뽑으시고 그냥...」 (웃음) 털도 안 뽑다니? 스크루뱀이 산돼지 같은 것을 잡아먹을 때 털 뜯어 놓고 삼켜요? 똥을 짠 밀도 안 씻고, 안에서 오줌을 싸더라도 삼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예요. 똥도 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째로 삼켜요. 그게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여당 야당을 통째로 삼키고, 사탄 마귀하고 성인을 통째로 삼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를 가서 나타나 가지고 했어요? 전부 다 뒷방에서 한 거예요. 세상이 떠들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국장을 하나도 안 만났어요. 국장도 안 만났다고요. 장관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안 만났다고요. 만나면 뭘 해요? 떡살을 잡고 받아 버려야 할 텐데, 그래서 유리할 게 뭐 있어요? 상부 구조에서 반대했어요. 반대했지만 자기들도 몰라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꺼번에 넘어간다구요.

양창식도 그런 놀음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앞으로는 그래요. 중국 대사라든가 대사관 활동을 할 때는 그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걸려 들 수 있는 조건을 딱 걸어 놓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와서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격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뭐야?’ 하면서 잘못했으면 법정 투쟁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정비하는 거예요.

양준수! 「예.」 이제는 물이 많이 불었어? 「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호텔 앞에까지는 큰배가 짐을 싣고는 못 온다고 합니다. 보통 배가 다니는 것은 아무 지장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정상적으로 모였겠네? 「예.」 우루과이에 전화했어, 배에 대한 것? 「전화를 못 했습니다.」 박구배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박상권은 뭘 해? 이북에 또 언제 가나? 「이번에 내일 모레 허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라도 꼭대기들을 받아 버려. ‘햇빛정책이 뭐냐?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가 보니까 망조 들게끔 해놓았더라!’ 하며 아예 들이 까 버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번에 또 햇빛정책을 얘기했습니다. (박상권)」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죽을 때까지 붙들고 죽어야지. 말을 안 들으면 싸움을 하든가 하라구. 「한 동안 안 하더니 또 합니다.」 (웃으심)

여당 야당을 공격하지 말고 하늘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오늘 얘기한 것같이 전라도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를 내세워서 하늘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 패들은 이제 어디 출마하더라도 대량 출마예요. 출마하더라도 누구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낫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야당 여당 중에 누가 낫다고 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국민이 알고 있는 기준에서 연결하라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발라 맞추는 이런 놀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우리를 가입 안 시켜 주어도 우리는 당을 안 만들어요. 교육하는 기반을 닦아서 하는 거예요. 선거도 교육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하러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대신 교육하는데 다 믿지 못하겠으니 나를 찍겠으면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야당 여당처럼 당리를 위한 길을 안 가고 국가와 남북통일과 민주세계가 전부 호응할 수 있는 길을 간다 이거예요. 아예 선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실력이 없지만 두고 보라, 나라 앞에 플러스시키면 시켰지 절대 손해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또 그래요. 통일교회 하면 그렇다고 다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조직 판도가 얼마예요? 1천2백만 가정이 됐으니 그것만 해도 4천만이다 들어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다구요.

참부모가 미국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황선조, 갔나? 「아직 안 갔을 것입니다.」 전화해서 찾으라구. 안 갔으면 나한테 바꿔 줘. 새벽에 올 줄 알았더니, 그 녀석 오후 세 시에 떠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침에 왔다가 들를 줄 알았는데 안 들렀어요.

곽정환이 워싱턴에 가서 잘못하면 내가 올라가서 몽둥이로 후려갈기려고 그래. 「예.」 가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구요. 자기들이 못 하면 내가 선두에 서는 거예요. 황선조는 갔나, 안 갔나? 「아직은 출발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몇 시에 간다고 그랬어? 「아침 10시경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발했을 것입니다。」 「단체로 와서…」

내가 미국에서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가만 보니까 내가 세금을 일년에 180만 달러에서 2백 만 달러, 쓰는 돈 전부 해서 한 5백만 달러가 달아나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있을 필요 있어요? 박상권! 「계셔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쓰면서 있어야 돼? 한국은 한푼도 안 내고 얼마든지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비자를 안 내주겠어? 갈까 봐 가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예금했으면 몇천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대통령도 와서 인사하고 주지사가 와서 인사할 텐데, 이놈의 자식들! 세상에, 자기들은 주인같이 생각하고 나는 지나가는 고객만큼도 취급하지 않아요. 나라를 살려 주고 다 이러는데. 아이구, 그런 것을 생각하자면 한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요, 영계가 있기 때문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으로 운영할 계획

외국 대학 학점도 인정이네. ‘서울대 해외 학기제 도입’, 그거 잘 되는구만. (신문을 보시면서 말씀하심) 「대학이 국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창식)」 그래, 국제적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선거체제도 국제적이예요. 통일적이예요, 통일적. 이것을 두고 보라고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돈을 안 써요. 돈을 쓸 필요 없어요. 그 돈을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이번 선거에서도 돈 한푼 안 내고 하는 거예요. 돈을 왜 써요? 돈 쓰고 하는 패들은 물러가라 이거예요. 양심적인 인사를 동원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미국이 참 깨끗합니다. 큰 것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합니다. 한국같이

그렇게 무법적으로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도 인터넷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를 본부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본부에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하나님의 날 때 저희가 ‘2000 하나님의 날(God's Day 2000)’이라는 웹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세계에 내보냈는데 1천2백 개 주소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웹에 들어온 사람의 이름, 나라, 전화번호, 이 메일(e-mail) 주소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프린트해 보니까 1천2백 개 이 메일 주소가 나왔습니다. 전세계 각 나라가 다 있습니다.」 세계적이구만. 「한 열흘 정도 공고해서 보낸 것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오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강연할 제목, 원고를 만들어 놓아. 「예. 그러면 경배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연출했던 총 스태프들입니다.」 몇 명이야? (경배)

「타일러가 이번에 전체 연출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가 문화의 밤 전체를 기획했습니다.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뉴욕 심포니 지휘에 대한 평이 어때? 「아주 잘 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잘 했는데 지휘 경력 어때? 「처음 뉴욕 심포니에서 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도인데 1985년도부터 아버님의 은사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심포니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시작할 텐데 거기에 나가서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일등 할 자신 있어? 「예.」 이제 그걸 세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그런 네임밸류가 누가 먼저 갖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음악대학의 확장도 되고 총장도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네임밸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신 있으면 이제는 학력 기반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구요.

지휘자 위원회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누구야? 옛날에 지휘하던 사람들 다 같이 있나? 「케빈 피카드는 뉴욕에 있고, 브라운 센터스는 피닉스의 대학교수로 가 있으면서 거기서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양반, 키 큰 양반이 시드니 심포니를 지휘했습니다.» 누가? 「사이먼 필입니다.» 「비디오를 제작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러 가지에 소질이 있습니다.» 히든하고 비교하면 어때? 「저 사람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학력이 문제야. 「학력과 기술은 저 사람이 유명하고요.» 어떤 사람? 「시드니 심포니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해야 돼요.

위원회를 만들고 이사회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한국이나 일본, 선진국가 7개국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지도하기 위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구요.

*지금까지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중심삼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느냐 하는 거라구요. 나무의 가지처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서 전세계에 내보내서 많은 오케스트라 그룹들을 지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니버설 발레단을 키웠느냐? 그들이 전세계적으로 순회 공연을 하는 데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레와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황적인 똑같은 레벨로 만들 것인가를 파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시대입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빼내라구요. 내가 거기에 예산 편성을 해줄지 모를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체크 좀 해야 되겠어요. 체크하고 나서 말이에요. 주사장을 통해서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해서 언론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공연시키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총평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든지 미국 동부의 지휘자들 가운데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얼굴이라든가 체격은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지휘하는데 꺾어 넘어가는 데 박자를 주는 것을 보니까 됐어요. 강할 때 강하게 해야 돼요. 둘 다 강하면 하나는 유(柔)하게 해야 돼요. 강약이 되어야 돼요. 약한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하게 해야 돼요. 둘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구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준다면 여기서부터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서 보는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휘자가 조정해야 될 텐데, 그것이 맞지 않아요. 사방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연주자들보다도 청중이 더 흥이 나야 된다구요. 어떤 때는 이러면서 발로도 두드리고 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현진이 형진을 보라구요. 춤추고 이르는 것이 몇몇 사람만이 아니에요. 청중 전체, 꼭대기에 있는 사람부터 일어서서 춤추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지휘가 호흡이 맞아야 돼요. 올라갈 때는 말 타고 달리는 것같이, 격전해서 죽이고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와 된다구요.

예술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다음에는 체육분야가 정상에 올라야

「그리고 이번에 무대 조명이라든지 무대 디자인을 예술적으로 했습니다.」 컬러풀한 조명등 그게 전부 얼마라구요? 「프로젝터가 하나에

12만 달러입니다. 조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조명같이 생각 안 돼요. 관람석에서 보게 될 때 컬러풀한 전등같이 생각된다구요.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구요. 그리고 내가 효율한테 얘기했는데, 정면에 시커먼 막을 그냥 두어서 그것이 전부 까 버렸어요. 테두리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안팎이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잘 해요. 「예.」

선생님이 그런 면에서 예민하다구요. 바보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스테이지(stage;무대) 판을 보니까 울퉁불퉁하더구만. 그것을 기계로 돌판을 가는 것같이 다시 한 번 갈아야 돼요. 판판해야 된다고요. 자기들이 잘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얼굴을 잘 내는 것보다도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시커먼 옷을 마음대로 입지 말고 색깔을 맞춰서 하모나이즈(harmonize;화합시키다) 하게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나라(奈良)에서 온 팀이 춤추지 않았어요? 「예.」 그 팀이 집중시킨 것을 다 흐트러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프로를 핵심에 모이게 해야 된다고요. 맨 처음에는 모이게 했는데 나중에는 흐트러서 핵심이 떠나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한국 무용을 대신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해서 따 버릴 것은 따 버려야 돼요. 선생님이 그런 면에서는 센시티브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명이 한 20만 달러쯤 된답니다.」 그것을 주문하라구, 내가 지불할게. 「예.」 당장에 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줄게. 20만 달러를 주고 갈 거라구.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20만 달러를 달라고 해서 사라구. 「그리고 프로젝터를 하나 사겠습니다. 프로젝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가장 큰 영상효과를 낸 것이 프로젝터입니다. 형님들 사진이 잘 나와서 크게 뽑아 봤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타도 보통 스타가 아닙니다.」 (웃음) 그게 필요

하다구.

어쨌든 오케스트라가 세계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알겠어요? 「예.」
양창식! 「예!」 그런 소질이 있는지 모르겠다구, 둔해서. 「제가 학생 때
선버스트(Sunburst)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에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예술분야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체육이에요. 체육인데
무술과 합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마셜 아트(Martial Arts; 세계
평화무도연합)를 해 가지고 어디 가서 굴러 떨어지면 안 된다구요. 저
단체는 어디 가더라도 마피아가 따르지 못하는 무서운 단체라는 소문
이 나와 된다구요. 마셜 아트가 춤도 되고 체육이 되어야 돼요.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한다구요.

그래서 축구팀을 만들고 운동 팀을 하나 하나 만드는 거예요. 「미국
에도 만듭니까?」 남미 브라질에 만들지 않았어? 미국에 여자 축구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계의 최고 첨단에 서야 돼요. 예술
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오랫동안 훈련을 해놓으셔서 비디오 영상물을 제
작하는 데 두 사람이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이먼이 비디오를 만드
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비디오를 하는데 애틀랜틱 비디오 센터 책
임자들을 중심삼고 가끔 가서 거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거
기서 바빠서 못 하면 따다가 해줄 수 있게끔 연대관계를 빨리 만들어
요. 「예.」 비디오 오디오 시스템은 세상 정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상
대적인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구요. 그냥 그대로 버리지 말고 그
것을 묶어서 왔다갔다하며 연결해야 돼요. 오케스트라도 인공적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구요.

인터넷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신문사를 만들어야

「인터넷 쪽으로는 마이크 쇼어하고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프로입니다. 부인이 변호사이고 법률국에서 일합니다.» 인터넷한 것이 <워싱턴 타임스>하고 관계를 갖고 있어? 「<워싱턴 타임스>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를 가져야 돼요. <워싱턴 타임스>에 인터넷 창고 같은 시설을 해주었어요. 다른 곳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줬다구요. 거기에 관계를 맺어서 써요. <워싱턴 타임스>가 최고 첨단에 가 있으니 관계를 맺어서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지금 하나의 회사를 가동하면서 인터넷 책임에 굉장히 본인은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워싱턴 타임스>가 세계 제일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는데 이건 경제지예요. 전체 신문사에서 <워싱턴 타임스>가 인터넷 시설이 최고라구요. 지금 인터넷 관계에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했지만 탱크가 없어요. 창고가 없다구요. 창고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회사라든가 인터넷 회사들이 여기에 가입하면 창고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구만.

「<워싱턴 타임스>에서 이제 열어 주어야지요.» 열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구요. 자기가 해줘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비디오와 오디오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구요. 그것을 이용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조직을 이용하면 오케스트라의 연주음과 유명한 가수의 노래 소리도 문제없이 다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동문한테 얘기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대변에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너희들 둘 알겠어? 인터넷을 빨리 해서 <워싱턴 타임스>하고... 「지금 워싱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의 책임자들을 중심삼고 연결시켜서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 분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타임스>도 그것이 필요해요. 기술면에서도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세계

185개국에 신문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전문가를 빨리 길러 배치해야 돼요. 너희들 혼자만 있으면 대장이 안 돼. 부하를 많이 거느려야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묶을 수 있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 동안 미국에서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도 책을 꾸준히 내 왔습니다. 곧 이제 《미국 40년사》 책이 나옵니다. 아버님의 1959년부터 1999년까지…」

성가를 공모해서 성가집을 만들라

이제 남극 개발도 우리가 첨단에 서게 되고, 발레팀도 첨단에 서게 되고, 아시아의 예술분야에서도 첨단에 서게 되고, 체육분야에서도 아시아의 첨단에 서는 거예요. 축구팀을 중심삼아서 한국과 아시아를 제패했고 아프리카를 제패했어요. 이제 남미를 제패하려고 하고 있어요. 남미만 제패하면 구라파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삼고 올림픽의 상대적인 문화축제 올림픽 대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톱에 올라가요.

‘저 사람이 뭘 하더라도 그 무엇이 있구나!’ 할 수 있는 안테나를 올려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남미에도 축구팀을 만들었다고요. 현재 주(州)의 한 팀이지만 금년 7월에 국가팀으로 나갈 수 있는 선발대회를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상파울루에 있는 제1팀의 장이 우리 식구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약속해서 6대주 경영 팀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이래서 최고의 팀을 뽑아 내려고 그래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르딘에 팀을 만들었다고요.

이건 뭐야? 「아버님, 이번에 성가 216곡을 넣었습니다. 우선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보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크게 하라구. 여기는 작게 하더라도 이

건 크게 해. 여기에는 재미있는 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 넣든가 모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비례해서 색깔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 이렇게 공백으로 두어요? 이렇게 됐다면 내려서 가운데 맞추어야 돼요. 이것은 편집의 실수예요.

「증보판을 만들 때 그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가사를 다 못 넣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가사를 더 크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1절하고 2절은 크게 해서 누구든지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가 아니면 누가 봐요? 「예.» 이것을 여기하고 맞출 게 뭐야? 여기에 해서 1절을 크게 하고 2절은 이렇게 해 놓고 전부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활자를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전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요? 안경 끼고 봐야 된다고요. 1절하고 2절하고 3절을 전부 이어 나갈 것인데, 이것은 편집의 실수고 책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 증판을 할 때는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광정환한테 얘기했는데 전세계의 책임자들은 10곡씩 가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편집하면 천 페이지 이상의 성가집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민요, 구라과면 구라과 사람들이 주로 부를 수 있는 내용의 좋은 곡들을 넣는 거예요. 국가 대표자들은 그 국가만이 아니라도 좋은 곡조, 유행하는 곡조를 중심삼고 그에 해당하는 상대적 말을 붙여 가지고 성가를 만드는 거예요. 원판을 그냥 두더라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국가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리강론》을 광회장님이 지시해서 컬러로 만들었습니다.» 효진이가 자기 멋대로 곡을 짓는데 지금 천 곡을 만들었어요. 만곡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정을 올릴 수 있는 가사, 좋은 가사가 나오면 천 곡 중에 거기에 맞는 곡을

찾아서 맞추어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높여서 성가를 오케스트라라든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끼고 다니면서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고전이 들어가야 되고 록이니 현대음악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록 뮤직이니 해서 달라지는데, 전시대니 후시대니 하지만 이걸 종합해야 돼요. 우리가 종합해야 돼요. 종합해야 새시대 하늘나라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합하려고 효진이한테 록 음악하고 고전음악을... 그것을 하다가 말았지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이번 문화의 밤 행사를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님들 세 분이, 다들 느끼셨지만 그 앞의 전 프로그램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총책임이시지만, 저희들이 조금...」 아이들을 자꾸 해주지 말라구. 거기에 흥분되어 그리로 간다구. 딴 것을 생각 안 한다구. (웃음)

「형진 형님이 그렇게 또 완전히 날리셨습니다. 형진님이 더 큼니다. 형진님도 보통 큰 키가 아니잖아요? 두 양반이 서니까 완전히 무대가 찼습니다. 그리고 효진 형님은 중후하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이번의 노래가 부모님께 올리는 눈물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 효진 형님의 노래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좌우지간 다음부터는 문화의 밤 행사에 다른 사람은 일체 출연금지입니다.」 (웃음) 레버런 문 패밀리 문화의 밤을 하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세계일주 하면서 돈 벌어요. (웃으심)

이게 또 무슨 장사야? 어저께도 가지고 왔잖아? 「이것은 금색으로 했습니다. 어제 검은 것으로 하니까 안 되겠어서... 금색으로 하면 훨씬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것만 좀 받아 주십시오. 출연료는 못드리고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기념품에 사인하심) 자, 몇 시야? 그만 마치자구요. *

천년왕국시대의 도래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2000년 1월 9일 이 달 들어 두 번째 맞는 안식일입니다.

저희들이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이라는 표제를 중심삼고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가 합하여 당신이 이 땅 위에 우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몸의 집이요, 몸은 마음의 집인 동시에 사랑의 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의 집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집이요, 부모는 자식의 사랑의 집이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의 집입니다.

이러한 가정적 이상을 중심삼고 큰 것이 작은 것을 흡수하여 보다 큰 것을 향해 발전해서 최후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의 일체가 되어 정착할 수 있는, 안식의 집에서 살 수 있는 해방된 하늘의 아들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나 축복받은 가정들이 일체가 되시어서 당신의 창조이상인 사랑의 주권을 중심삼고 만세 영원토록 주인이 되어 치리하는 대왕마마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2000년 1월 9일(日), 폰타 델 에스테(우루과이).

* 이 말씀의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그들은 하늘을 모시는 이 땅 위에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성자의 도리를 완결하여 만민 형제지우애로 결탁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든지 그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나라든지 거쳐갈 수 있으며, 당신이 자유자재로 주관 주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안식할 수 있는 당신의 이상적이요 사랑의 안식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 우주의 존재들은 천지부모를 중심삼고 일심 일체가 되어 정착할 수 있는 참부모의 가정을 중심삼고 전체에 순응하고 참사랑·참이상을 중심삼고 참된 혈통을 통하여서, 참된 가정과 절대 사랑을 중심삼은 유일·불변·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된 하나의 나무와 같이, 생명의 원소를 하늘로부터 땅 전체 위에 공급하면서 받아 가지고, 만민이 소생하고 만민이 부활하여 영광된 하늘의 사랑의 연락처를 만 우주에 꼭 차게 번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탁드린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절대 당신의 심정권에 일체가 되시어 횡적이요 종적인 기준의 가정을 중심삼고 360도의 구형을 이루어 해방적인 가정의 터전이 되고,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일체 우주 전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곳을 향하여 전세계에 널리 있는 통일교회 축복받은 가정들과 자녀들, 영계에 있는 모든 축복가정들,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그곳에 하늘의 보다 높은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은사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통일된 기쁨의 환경을 맞아 지상 천상 해방 천국의 사랑의 주인을 모시고 영원 만만세 태평성대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원하오며, 오늘의 모든 모임 자리를 친히 주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제 2월 10일을 중심삼고 준비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모임 자리를 아버지께서 주도하시어서, 영광된 2000년을 다짐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점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씬> 나라에 있어서 가인 아벨이 야당 여당이고, 자기 가정에 있어 형제들이 가인 아벨이에요. 하나 안 된 가인 아벨이 안팎으로 하나 되어 외적 내적으로 수평을 만들어야 돼요. 지상에 있어서 세상과 가정에 수평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끝날에 여자들이 해야 돼요.

해와의 타락으로 전체가 갈라졌으니 여성이 하나 만들어야

아담 가정에서 해와가 타락한 것이 무엇이나? 자신이 하나님과 참부모, 천지부모를 알아서 대상적 자리에서 가지고 자기 아들딸을 새로 낳아 키워야 돼요.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은 가인 아벨이에요. 나라로 보게 되면 야당 여당이고, 동양 서양, 하늘과 땅 등 전부 가인 아벨과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갈라졌기 때문에 전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만드는 그 기준이 뭐냐? 가정이 핵이에요. 가정 자체가 핵, 출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천지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천지부모라는 말을 쓰고 있다구요. 천지부모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사랑으로 하나 만들어서 영계와 육계의 자녀들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가인 아벨권, 천사권 등 아담 가정에서 갈라진 것을 하나 만들고, 지상의 아담이 완성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가정과 천사권 내의 가정 형태...

영계에 없었는데 생겨난 것이 뭐냐? 천사장들의 몸을 연결시켜 이

땅 위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간, 미완성한 아담 기준에 선 이것들을 전부 접붙여 가지고 완전한 아담을 만들어 축복가정을 만들어야 지상의 축복가정, 영계의 축복가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계의 축복가정은 천사장형 가인적 축복가정이요 지상의 축복가정은 아담적 축복가정인데, 이런 가정 형태를 일체화시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나라와 나라, 영계와 육계, 동양과 서양, 민족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자면 전부 섞어 가지고 동서양의 모든 것을 넘어선 가인 아벨적 기준, 그래서 가인적인 축복과정과 아벨적인 축복가정이 하나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야 할 책임이 해와에게 있어요.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가정 해방권을 이루어 지상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이뤄야

지금까지의 복귀역사는 장자권 복귀역사인데, 장자권 복귀가 뭐냐? 이 땅 위에 성신이 와서 부모, 천지부모가 아니고 영적 부모가 되어 영적 기준에서 가인 아벨 형태를 세계로 묶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기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육을 대표해서 이것을 완성시켜야 할 끝날이니만큼, 여자들의 책임은 천지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천지부모를 모셔 가지고 타락권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재림주가 참부모의 자리에 서서 세계적인 정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중심삼고 아들 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엔 그것을 희생시켜서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말은 뭐냐? 세상의 가인 아벨인 야당 여당을 자기 아들딸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딸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딸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든 그 기반 위에서 나라가 하나되면 그

나라를 중심삼고 세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동서문화의 격차, 동양의 정신 문명과 서양의 물질 문명의 격차를 없애고 하나 만들어야 돼요. 동양과 서양이 하나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남북의 빈부 격차를 없애야 됩니다. 북쪽은 잘살고 남쪽은 못살아요. 불공평해요. 몸 마음이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종족민족국가세계가 갈라지고, 동서양이 갈라지고, 하늘땅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격차가 없이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계 육계가 지금 하나 안 되었으니 이걸 통일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엇을 중심삼고 이렇게 되었느냐? 타락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가정을 축복해서 복귀의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후의 정상 자리까지 우리가 책임져서 세계적인 축복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완성시대에 왔어요. 그 완성된 가정은 타락한 아담 해와 가정과 같은 개별적 가정이 아니에요. 세계 가정들이 완성한 아담 해와의 가정과 동등한 가치의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알겠어요? 수평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책임이 뭐냐? 여자가 친지부모의 참사랑을 대신한 어머니가 되어 가지고 자기 아들딸과 남의 아들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당과 야당을 하나 만들고, 동양과 서양을 하나 만들고, 남북의 빈부 차이가 없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엔 하늘땅에 축복가정 사랑의 일변도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를 일변도의 기준으로 전부 묶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데는 뭐냐? 자기들 부부라는 것,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은 나라 기준에서 타락했던 기준인데, 나라 기준을 못 찾았어요. 이것을 여자들이 해놓아야 됩니다. 그걸 앞에 서서 해 놓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이 위에 끌어 올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국가 기준이예요. 나라를 중심삼고 싸우는 국가 기준이예요. 그 국가 기준에 하나된 부부가

세계적 메시아, 왕 중 왕으로 오시는 참부모인데, 이 참부모가 세계적 정상에 올라왔으니만큼 그 참부모와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국가 기준의 가정 해방권을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국가를 중심삼고 수직이 생겨요. 국가와 세계와 천주니까 국가가 소생이라면 세계는 장성이고 천주는 완성이에요. 소생·장성·완성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중심이 생기는데, 그 축복받은 가정이 오시는 이 재림주, 세계의 왕과 하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세계와 하나된 왕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사랑 앞에 '절대 공평하다. 승리했다.' 해서 해방권을 선언해야 된다고요. 참사랑 앞에 최고로 올라가서 해방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천국의 해방이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약시대를 맞아해서 뭐라고요?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이루는 거예요. 신·인·애 일체이상의 해방권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거기 가서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미혼남녀 4억쌍 축복으로 천주적으로 축복을 평준화해야

그래서 남아진 것이 뭐냐? 미혼남녀 4억쌍 축복이에요. 노틀들의 결혼이나 계약결혼은 선생님이 해줄 것이 아니에요. 본래 선생님이 해줄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책임 못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잃어버렸으니, 선생님이 세계 무대에서 7년간에 할 세계적 축복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다시 아담 가정의 축복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치녀 총각 결혼만 해주었으면 결혼해 주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들이 가정을 이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할아버지요, 신약시대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성

약시대에는 미혼남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에 오는 거예요.

미혼남녀 4억3천만쌍이에요. 4억쌍 이상의 기준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한 이 어린 사람들이 뒤집는 거예요. 먼저 영계에 들어가 있는 제멋대로 산 조상들... 지금까지 영계인들은 갈라져 살았어요. 결혼이 없었어요. 축복을 해주니 이들이 끌어내서 결혼해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사탄세계에서 주관 못 하니만큼 지옥에 가서 찾아다가 선조들을 해방해 줘서 축복해 주는 거라구요. 이렇게 평준화 높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적인 실패권과 국가 기준의 실패권으로 세계와 영계까지 전부분쟁권이 벌어졌는데, 가정적 기준을 중심삼고 국가를 넘어서는 균일된 축복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탕감해야 돼요. 그러니 다시 아들딸을 낳아서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아들딸을 제물 삼아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딸을 제물 삼아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세계를 더 사랑해야 돼요. 제물이 안 되려면 천사세계를 먼저 더 사랑해야 돼요. 천사장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장이 안내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게 틀어진 거예요. 아담 가정의 국가적 기준을 넘어 가지고 축복받은 가정은 비로소... 이때까지는 여자들이 가정을 못 가져요. 가정을 갖더라도 탕감해 올라가는 길을 가지, 횡적으로 세계를 마음대로 해방 못 한다구요.

어머니는 장자권, 장자는 어머니를 복귀하여 아버지를 모셔야

그래서 지금 아들딸을 길러 가지고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때에 왔다구요. 그러니 어머니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장자권 복귀

예요. 알겠어요? 어머니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여인으로서 택해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담 가정에서 해와가 타락한 자리를 복귀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아들을, 가인 아벨을 찾아야 된다고요. 아들과 하나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중심삼고 전부 하나 만들었으면 어머니하고 아들이 하나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장자권을 복귀하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복귀하는 거예요. 국가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머니는 장자권 복귀를 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을 동서사방으로 사탄이 참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나 어디에 가나 지옥도 해방권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어서 어머니는 뭐라고요? 「장자권 복귀입니다.」 장자권 복귀를 해야 돼요. 장자권 복귀를 하는데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그럴 수 있게끔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장자권을 복귀하고 장자는? 「어머니 복귀입니다.」 어머니를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갈라진 거예요. 어머니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고,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딸들이 살육전을 벌였으니 세상이 혼란되고 지옥이 생겨났다고요. 그것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장자권을 복귀하고, 장자는 어머니를 복귀해야 돼요. 완전히 둘이 하나되어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적 기준에서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남편들은 7년노정을 못 넘었어요. 완성권 내의 소생적 출발 7년 과정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 7년 과정을 세계적으로 넘어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 모든 축복받은 가정들이 어머니는 장자권을 복귀해야 되고 아들은 부모권을 복귀해야 돼요.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에덴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딸을 쫓아내고 아들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다 쫓아냈으니, 해와가 아들딸을 복귀하고 아들딸은 어머니를 복귀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기도도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맨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축복으로 이어받은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자주적이예요. 완성권을 넘어선 그 기준에 서 있으니 자주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고 종교를 믿는 신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해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적인 입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비로소 하늘땅을 대신해서 나라를 찾고 난 후에야 천주의 어디든지 자주적인 자유 활동, 어디 가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형제지우애를 가지고 축복가정들은 하나의 혈족으로 묶어져 살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못 올라가요. 참부모와 접붙여서 참부모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세계적인 가정의 중심이 아니예요?

거기에 전부 하나되어 가지고 그 하나된 세계적인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그 세계는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맨 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에는 절대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사상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예요. 하나님도 사랑에는 절대복종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중심삼고 비로소 천주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 가정이 품으려고 했던 가정이 아니예요. 천주를 하나의 가정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서야만 지상·천상천국이 완료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4차 아담권 시대요, 새천년 천국 완성의 시대

그래서 금년 표어가 뭐냐? 6천년 섭리사의 종결이요, 4천년 이스라엘 선민권의 종결이예요. 천년 왕국시대가 온다고 했다고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이예요. 이것이 6천년 섭리사와 4천년 이스라엘 선민권의 종결이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지내서 재림시대에 뜻을 이루어서 완성시대로, 새로운 2000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고향과 나라를 찾아서 예수 시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그걸 복귀하는 거예요. 예수가 축복을 못 받았다고요. 예수의 한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가정을 중심삼은 가나안 복귀 40년노정이에요. 이것은 지구성에서 세계 문제까지 하나님까지, 천상과 지상이 하나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선생님은 40년 축복가정 가나안 복귀노정에 있어 지구성에서 경계선을 뒤넘이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뒤넘이치는데 다른 민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 민족이 되게 하려니 자르딘에서 축복가정 일체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심 일체 정착할 수 있는 놀음을 해서 하나되었기 때문에 축복가정은 하늘이나 땅이나 뒤넘이치더라도, 뒤집더라도 상충 없이 돌아갈 수 있다가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상륙을 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적인 기준에서 고향과 나라를 찾으려다가 못 찾았던 것을 오늘날 선생님이 지상천상천국 가정이상 완결을 목표로 한 모든 전부가 80세가 되는 이때에 여기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아담세계를 끊어서 청산해 버리고 4차 아담 해방권 시대, 역사시대의 모든 것을 정비해서 넘

어서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참사랑 천주화는 새 천년 천국 완성이예요. 천년 왕국시대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천년 지상천국’이라는 것은 기독교 사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새천년 왕국’이 아니고 ‘새천년 천국 완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 시대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총결론이예요. 막연하지 않다고요. 알겠어요?

국가 기준을 중심삼고 비로소 가정들이 국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타락하던 장성급의 기준을 넘고 아담 해와 완성의 기준을 넘어서 가정·종족·민족, 전부를 축복해 가지고 천지의 모든 전부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삼은 해방적 기반은 제1차 아담시대가 아닙니다. 제3차 아담 시대에 탕감을 해소해 버리고 해방적 제4차 아담권 시대가 되었으니 국가를 넘어선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나라 앞에서 나왔으니 입적할 수 있는, 그 나라에 호적을 올릴 수 있는 시대에 왔으니 자유 승리의 정착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해방이예요.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입적이 필요 없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유예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냥 그대로 하나되어 살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지상 천지 어디 가든지 행로를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런 해방시대를 향해 들어가니 이제 국경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인 입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의 그런 기도가 아니예요. 기도는 빌고 빈다는 거예요. ‘빌 기(祈)’, ‘빌 도(禱)’ 자예요. 지금의 기도는 빌고 비나이다가 아니예요. 보고예요. 선의의 보고예요. 개인적 시대, 가정적 시대, 종족적 시대, 민족적 시대의 관계를 가지고 천주까지 가서 8단계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는데 있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년의 모든 것, 일생 노정을 확실히 다 알아요.

세계의 어떤 민족이든지 형제와 같이 가정과 같이 사랑하고, 하늘 천지부모를 모시는 하나의 가정 형태로 평준화 가치를 충당시킬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이 서방, 알겠어? 「예.」 얘기하라면 한번 얘기하겠나? 「이해는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나라를 찾아야

국가 기준의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국가를 못 이뤘어요. 나라를 못 찾았다구요. 예수님의 한을 풀어 주어야 돼요. 아담 해와가 가정에서 완성하지 못했어요. 국가를 못 찾았다구요. 아담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재림주도 그런 기준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천신만고 해서 세계 기준을 다 넘어서 가지고 축복가정들을 그런 자리에까지 갖다 세웠다구요.

그러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사다리가 놓여졌어요. 이렇게 사랑의 사다리가 전부 다 놓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 ‘와!’ 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쪽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는 틈이 없어요. 어디든지 부작용이 없어요. 자기 나라라든가 자기 가정이라든가 자기 엄마 아빠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참부모를 중심삼고 사랑의 가정적 가정이에요. 세계를 대표한 가정적 가정이 천주적으로 승리한 참부모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여 가지고 나라의 기준에서 세계 인류를 사랑하고 천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를 세계를 대표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던 최후의 기준에 올라가서 저나라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본향 땅, 영원한 조국광복을 해서 천상세

계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은 저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이제 조국광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고향 광복이 아니예요. 고향은 거치는 장소라구요.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광복이예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이번에 ‘참사랑 천주회는 새천년 천국 완성’, 천년왕국 시대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이제 뭘 하느냐? 자기 아들딸을 제물 삼아야 돼요. 아들딸을 사랑하는 대신 나라의 야당 여당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이에요. 선생님은 국가와 세계에 승리한 패권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뒤에 서는 거예요. 나서서 아들딸을 포섭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아들딸들이예요. 아들딸이 합해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될 때 자기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은 참부모를 자기의 여편네와 자기 아들딸이 절대신양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이상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편네하고 아들한테 갖다 플러스시킬 수 있어요. 합했던 것을 붙이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보다도 아들딸보다도 더 희생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나라를 잃어버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인 아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적 기틀을 중심삼고 나라를 중심삼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딸, 전부 다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여당 야당에 들어가 교육해야

그래, 먼저 여자들이 야당 여당에 들어가서 생사권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나라를 망친 천사장은 물러가라는 이거예요. 천사장이예요. 알겠어요? 나라를 망쳐 먹던 천사장은 물러가라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

하고 분별된 야당 여당의 이익을 위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교육해야 돼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게끔 야당 여당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해야 할 국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사탄세계예요. 지옥이니까 여자들은 이런 하늘의 심정을 가지고 간곡히 눈물을 흘리며 외치게 된다면, 아들과 천리대도를 중심삼고 통일된 기준에서 외치니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가인 아벨의 마음은... 최고의 꼭대기를 사탄이 지배했지만 그 백성들은 2차예요. 1세가 왕이라면, 국회의원들이 1세라면 2세인 백성들은 우리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세워서 가인 아벨이 하나된 국가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를 받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닦은 기반과 더불어 아버지도 야당 여당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출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출마해서 나서게 될 때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처끼리 당선돼요. 그러니 야당이 없어요. 부모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 있으니 가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라구요.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 놀음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 교육했고, 120만 명 교육을 준비해 가지고 1만2천 통반 중에 70퍼센트 이상을 능가했어요. 우리 자체가 대통령 후보를 내서 당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 여당이 우리 꿈무늬에 붙어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수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련하는데, 누구부터 수련시키느냐 하면 여당 야당의 여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누가? 여편네하고 아버지 될 사람이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교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될 것 아니예요? 국가적인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딸이 합해서 그들을 교육해 가지고 당을 수습함으로 말미암아 당은 자동적

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남북한도 자동적으로 이런 운세를 따라서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을 완전히 묶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북의 공산당들, 첩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빨갱이가 한 마리도 없게 만들어서 이북의 방송하는 것, 자기들이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다 끊어지게 되면 이북은 자동적으로 우르르 무너져요. 그것이 최후에 졸(卒)을 가지고 궁(宮)에 들어가서 ‘장군!’ 하는 것입니다. 상(象)이건 마(馬)건 포(包)건, 뛰어 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졸병으로 전부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이라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신서방! 「예.」 신 자가 ‘새 신(新)’ 자면 좋겠구만. 무슨 신 자야? 신도성의 신(愼) 자지? 「예.」 신도성 그 녀석이 내 신세를 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맹세하고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더니 말이에요. 이 녀석도 또 그럴지 모르지. (웃음) 왜 웃어, 왜? 「도망 안 가겠습니다.」

돈 보따리가 생기면 전부 우루과이 나라에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 바쳐서는 안 돼요. 세계를 위해서 우루과이가 돈 보따리를 만들어서 참부모님한테 보태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망한다구요.

여기에서 지금 세밀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푼타 텔 에스 터에서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절대 신본주의로 인본주의 물본주의를 소화하여 조국광복을 해야

여기에서 천주적 사사절을 선포했고,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을 선포했어요. 오늘 또 둘째 주에 모여서 세밀히 가르쳐 준다구요. 오늘 제목도 딱 그렇게 맞았어요. 전부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섭리사라구요.

여기에서 얘기한 모든 전부가 앞으로에 있어서 연결된다구요. 선생

님이 그렇게 세밀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천상세계에 가서 ‘아이구, 선생님 가르쳐 준 것이 틀렸다!’ 할 수 없어요. 다 맞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자기 여편네 이름이 엄성미지? 「예.」 성미가 거룩한 쌀이에요. 성미(誠米)를 바치듯이 바쳐야 돼요. 쌀하고 콩하고 옥수수가 둥글둥글 굴러다녀요. 여편네가 둥글둥글 하더구만. 맨 처음에 좋아하지 않지 않았어? 「예? 좋아했습니다.」 이 녀석, 좋아할 게 뭐야? 자기는 똥똥하지 않고 훌쩍하고 날아다니는 제비 같은 여자를 바랐지, 똥똥한 여자를 바랄 게 뭐야? 결혼하고 나서 마음으로 흔들흔들하고 그랬지. 흰하게 다 보이는데 뭘 그래? 아니라고 하지 말라구. 요즘에야 자리 잡았더라구. 선생님 말이 맞나, 안 맞나? 「예. 맞습니다.」 (웃음) 아니라고 하지 말라구.

선생님이 도깨비 같은 사람이라구요. 모르는 줄 알지만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요. 속아 주기도 잘 해요. 속아 주는 것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잘 속는다고 생각하지요? 속을 게 뭐예요? 꿈무니를 쾨는 거예요. 좋아하다가는 꿈무니가 쾨다는 거예요.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를 찾아야 돼요. 조국광복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고향과 조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가 남북통일을 한 나라예요. 그곳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공산세계와 민주세계, 유신론과 무신론의 경계선이에요.

절대 신본주의는 절대 인본주의를 소화하고 절대 물본주의를 소화해야 돼요. 인본주의도 삼켜 버리고 소화하고, 공산주의도 삼켜 버리고 소화해야 된다고요. 통일교회 부모님의 사상은 인본주의도 삼켜 버리고 소화할 수 있고, 공산당도 삼켜 버리고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 삼켜 버리고 소화했기 때문에 지옥 해방이 벌어져요. 소화해도 탈이 안 난다고요. 알겠어요?

판타날의 동물들을 보면 삼켜 버려요. 스크루 뱀하고 악어 큰놈이 싸우게 된다면 스크루 뱀이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죽을 소리를 해도 졸라요. 죽게 된다면 그 다음엔 삼켜 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데 아무리 크더라도 3배 이상 입이 늘어나요. 들어가서 그냥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곡식 같은 것을 소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료 공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4천도 이상의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을 내서 녹여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땅 삼켜 버려요. 스크루 뱀이 악어 같은 것을 먹을 때 거기에 감탕이 안 묻었겠어요, 똥이 안 묻었겠어요? 별의별 것이 다 묻었다고요. 그렇다고 씻어서 먹어요? 그냥 먹어요, 씻으면서 먹어요?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다 약이에요. 흙도 약이에요, 흙 가운데 비료로 섞여 있던 것도 약이에요. 흙에 비료를 주잖아요? 땅은 약을 못 주지만 비료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것이 약이라고요. 그게 다 약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통째로 삼켜요.

동식물의 보고 판타날이 주는 교훈과 생물 멸종 방지 계획

판타날에 와서 선생님이 그걸 배웠어요. 무엇이든지 삼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덩더라도, 땀이 주루룩 나더라도 거기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4년 동안 그 놀음을 했어요. 남들은 죽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하며 야단하지만 말이에요. 속이 발랑발랑하고 더울 때는 손이 스톱되는 경지에 가도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꿈이 있어요. 이상과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넘어서야 돼요. 죽음 고개를 넘어가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넘어가야 그 기반이 부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덩더라도 죽기 전에는 전부

극복한다는 그 놀음을 다 거쳐 나왔다고요.

옛날 같으면 오자마자 낚시터에 나갈 텐데, 어저께도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오늘도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했어요. 낚시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길러야 돼요. 잡아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길러서 놓아 주는 거예요. 종의 전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박물관을 만들어야 돼요. 식물세계의 박물관, 꽃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식물원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또 여러 가지 동물을 중심삼고 수백 가지 동물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지역 차별되어 있는 것까지 전체를 남미에서 기르는 거예요. 기후의 차이가 있는 것까지도 온도 조절을 해서 기르는 거예요. 북극에 사는 폴라 베어도 여기서 양식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전부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폴라 베어는 겨울에 동면하기 위해서 6개월 땅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온도를 조절해서 사철 기름으로 말미암아 빨리 기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기를 수 있어요. 그런 온도 장치는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와 브라질에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파라과이는 49퍼센트밖에 사용 안 해요. 51퍼센트가 남아요. 그것을 다 무엇에 써먹겠어요? 그것을 해야 돼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지역을 중심삼고 종의 기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막대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사람들이 안 거쳐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학을 보면 대학이 학술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세계, 식물세계, 조직체 세계의 이 상향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조직 이상 구성면에서 이상적인 조직이 없어요. 삼권분립이 그거 아니에요? 폐, 심장, 위장이 삼권분립이에요. 이것이 전부 두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워야 돼요. 겨울이면 축소되기 때문에 지장이 많아요. 전부

수평이 될 수 있고, 열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더울 때라야 돼요. 그래야 사철 그냥 그대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수축되든가 팽창되든가 하는 게 없거든. 그런 자리에서 자랄 수 있는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강변을 중심삼아 가지고 만들자 이거예요. 강변을 중심삼은 2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모든 식목이 잘 자라요. 곡식도 잘 자라고, 짐승도 거기에서 먹고살고, 곤충도 거기에서 먹고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바다를 중심삼고 10킬로미터 내지 20킬로미터 이내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점령하자 이거예요. 그곳이 보화예요. 이제 도시시대는 지나갔어요.

자동화를 중심삼고 옷을 입는데 알록달록한 것보다, 전세계적으로 동서남북 사정이 다르고 계절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색깔을 중심삼고 맞춰 가지고 돌아가면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그 나라에도 동서남북이 있고 춘하추동이 있으니 섞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될 수 있게끔 의복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열두 가지 이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의 도수에 맞춰 입는 거예요. 많이 만드는 것은 사치예요. 소모라구요. 통일세계가 되어야만 그게 전부 통일되는 거예요.

세계의 비밀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하나님 주관의 세계가 가능해

지금 이 메일(e-mail) 시대 인터넷 시대에 왔는데, 인터넷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일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 정보를 받으면, 정보를 받아 가지고 안 내보낼 수 없어요. 밀창이 다 들춰져서 나가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세계를 망치려면 망칠 수 있고 흥하게 하려면 흥하게 할 수 있다구요. 그것을 하려면 정의의 단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엔지니어링, 스페셜 엔지니어링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통일교회에 와서 결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야,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대표자들이 요전에 와서 수련을 받고 갔어요, 다 모르지만. 이럼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정보와 소련의 정보를 완전히 안방에서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비밀로 해놓아도 그것이 어차피 드러나요. 맨 처음에는 꼭대기들이 전부 앞으로 말미암아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평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세계가 되어야 통일이 벌어져요. 그런 세계로 이행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경이니 무엇이니... 선생님은 교육할 때 국경도 잊어버렸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부 한 집으로 생각하지 두 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의 10개 지역에서 각각 항공기를 구입해 활용하라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를 사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스위스 비행기인데 7백 미터 이하를 나는 거예요. 「필라타스라고 합니다.」 필라타스인지 플라타스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라고 주동문한테 얘기했어요. 주동문은 좋지 않게 생각해요. ‘아이고, 프로펠러 비행기면 되지요.’ 이러더라구요.

그래, 프로펠러 비행기를 보고 내가 놀랐어요. 프로펠러 하나가 돌아 가지고 나는 거예요. 이 프로펠러가 기름이 떨어지면 스톱되는 거예요. 프로펠러를 돌리는 엔진이 왜 멈추느냐 하면, 기름이 가다가 막

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순환장치를 따로 해서 기리카에(切り替え;바꿔침)하게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하! 내가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나는 프로펠러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보완장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가 그렇게 안 났다는 거예요. 280여 대가 몇 년 동안 날았는데 두 번밖에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후 때문이고, 한 번은 조종 실수라는 거예요. 그건 기계 고장이 아니에요.

그런 보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만 피트를 올라가요. 3만 피트면 일반 기류를 중심삼은 태풍권, 번개 치고 이러는 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하да구요.

요전에 우루과이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것은 3만 피트를 못 올라간다구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 때는 비행기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때 같이 갔었나? 「저희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더라구요. (웃으심) 그러니까 한 5미터 10미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단했다구요.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넘어서서 안전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산악지대의 높은 곳이나 골짜기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니까... 비행기 사고는 뜰 때하고 내릴 때 나는 거예요. 비행 중일 때는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구요. 그래서 비행기를 사라 고 했는데, 사고 있는지 모르겠다구요. 안 사면 여편네에게 기합을 줘야 되겠다구.

비행기에 대해서 내가 곽정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세계적으로 선생님 비행기를 타고 다닐 텐데, 대륙을 횡단할 때는 우리 비행기를 쓰는 거예요. 비행기도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대륙만 넘어가게 된다면

몇천 킬로미터를 한꺼번에 못 가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비행기를 각 대륙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를 각 대륙에서 준비하는 거라구요. 새 비행기는 비싸니까 중고 비행기를 사도 돼요. 중고는 절반 가격이면 사는 거예요.

6대주인데 10대주로 하는 거예요. 10개 대륙에서 내가 사겠다는 필라타스 비행기를 한 대씩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대륙 책임자들도 그 비행기를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졌으면 말라 이거예요. 한 대 두 대를 산다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게 된다면 그 나라의 수상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세 나라의 수상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 나라에 데려다 놓고 두 나라 수상은 대회 할 때 사회를 보고 소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면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래서 세 사람이 타고, 그 다음엔 대륙 책임자가 타고, 거기에 세 나라의 모시는 사람이 한 사람씩 타면 삼 삼은 구($3 \times 3 = 9$), 아홉 사람이 타게 된다구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데 안 샀다가는 창피할 것이다 이거예요. 사면 내가 타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선생님이 가는 데 그 나라의 위정자나 훌륭한 사람들을 화합시켜서 내가 전부 하나 만들어서 소개해 주고 자기를 출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으면 그만둬라 이거예요. 후회할 거라구요. 이번에 선생님 생일을 기념하여 비행기를 사라고 하는 공문이 나갈 거예요. 150만 달러면 될 거라구요.

그래 놓으면 통일교회 대륙 책임자나 국가 책임자가 바쁘게 되면 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운영비는 자기 나라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구요. 책임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운영해야 돼요. 신치성 같은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비용은 문제 아닙니다.’ 할 거예요. 비용 문제로 도와 달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아니예요? 안 그래요? 「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차원이 달

라져요.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우리 워싱턴 타임스 재단 이름으로 비행기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재단 명의로 물건이 전부 등록돼요.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암만 큰소리했잖아 목사들이 어디를 가겠다면 태워 주고 그러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것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회사를 중심삼아 가지고 비행기 한 대에서 세 대를 만드는 거예요. (녹음이 잠시 끊김)

부부가 여당과 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라

나라를 책임져 가지고 주동문을 모셔서 남편과 하나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야당으로 출마하든가 여당으로 출마하든가 어느 하나를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야당 여당에 들어가 가지고 출마하는 거예요. 한국은 국회의원 299명이니까 두 명을 뺀 6백 명이에요. 6백 명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까지 배치하는 거예요. 몇 주일 후에, 출마해서 선거운동 하기 바로 전에 남편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여편네 혼자 외롭고 아들딸도 전부 나섰으니까 돕는다고 해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야당 둘 여당 둘, 네 사람이 전부 한 패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따로 따로 해서 그 지역에서 출마했지만, 전부 이래 놓으면 세상 사탄 편에서는 한 곳에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나오면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출마 때에는 남편과 여편네가 합하는 거예요. 또 야당 여당이 합하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에게 몰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백발백중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당수의 부인으로부터 국장 부인으로부터 교육해서 자기 당내에 있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부패하는 나라 망하는 나라

를 방지해서 흥하는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교육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자들이 교육해야 된다고요. 마음대로 교육해야 돼요. 이래야 탕감복귀가 돼요.

아까 탕감복귀에 대해서 말했는데 복귀가 뭐라고요? 여자들이 한의 고개를 청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계를 망쳤기 때문에 여자들이 탕감복귀해야 돼요. 어머니가 장자권 복귀를 해야 되고, 장자권을 복귀하면 가인 아벨 둘이 합해서 어머니를 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 출마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남편이 하나되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만왕의 왕 앞에 가정으로 국가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접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은 세계 국회의원으로 출마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출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시대예요. 가정이 출마한다고 했지요? 가정 임명시대라는 말을 했지요? 비로소 가정이 임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는 그냥 그대로 통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전부가 탕감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깨끗이 다 탕감복귀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개인가정-종족민족... 8단계를 세계적으로 혼자 꺾박 받으면 올라와서 축복을 다 해줬어요. 이것을 중심삼고 모든 가정들이 예수의 한을 풀어야 돼요. 아담의 한을 풀기 위해서 예수가 왔던 것인데, 예수가 국가 기준에 있어서 대통령 못 되었던 거예요. 세계적인 로마를 굴복 못 시킨 거예요. 그 기준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탄세계의 국가 기준을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타락한 것을 국가 기준에서 어머니가 장자권을 복귀하고 가인 아벨이 어머니를 복귀해서 둘이 하나되어 가지고 야당 여당에 당선할 수 있게 된다면 남편을 내세워서 남편까지 하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조직 편성을 해서 만왕의 왕인

참부모를 중심삼고 세계 왕권 앞에 가정적으로 접붙여 가지고 세계 국회를 중심삼고 출마하는 거예요. 상원 하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늘 앞에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신치성! 「예.」 알겠어? 「예.」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나라를 중심삼고 교육해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영계를 총동원해요. 영계를 동원할 수 있거든요. 원리 책에 종교 통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인들의 재림부활로 한다고 그랬지요? 인간은 못 해요. 영계와 육계에 눈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선생님을 중심삼은 이런 모든 기반을 가지고 이래 놓아야 꿈 짝달짝 못 하고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오케이예요.

창렬이 알겠어? 「예.」 저 둔쟁이가 통일교회를 알거나 했나? 삼촌뻘 되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알고 우습게 알았다가 들어와 보니 큰 벼락이 떨어진 셈이지. 잘해야 돼. 「예.」

알겠어요, 여자들? 임 뭐인가? 임정자야? 「예.」 정자면 남자의 정자로구만. (웃음) 어디 가든지 심어 놓으면 새끼 치겠네. 어디 군수가 될래요, 도지사가 될래요? (녹음이 잠시 끊김)

돈 없이 하는 거예요. 신문지나 큰 그림 그리는 책 같은 데에다 찍어서 붙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는 녀석은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국회의원이면 나라의 것을 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빚을 갚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추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경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전두환이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상 훈련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해야 된다고요. 역사의 한으로 맺혔던 것을 여자들이 탕감하며 천만번 죽더라도 감사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벌써 결심 기준이 서야 돼요. 북한군이건 소련군이건 중공군이건 전진 명령하면 다 끌어 버릴 수 있게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원화도를 가르쳐 주고 무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천지간에 있는 여성들의 총사령관이 참아버님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전부 선생님의 상대 입장에 서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해 놓고야 자기 자리에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지상에서부터 저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전부 천사장들이에요. 아담의 몸뚱이를 이어받은 거예요. 사탄세계에 관련되어 있으니 그것을 잘라 버리고 선생님의 씨를 접붙여 줘서 동생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축복은 뭐냐? 선생님의 몸뚱이에 잘라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승리한 아담 입장 위에 땀 때워서 제2 아담 동생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 외의 모든 여자는 어머니 분신이에요. 어머니를 완성해야 돼요.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4차 세계 순회노정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끝났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야 돼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라를 중심삼아 가지고 교육해야 된다고요. 교육할 때 남편들은 선생님 대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혼독회를 많이 하면 돼요, 혼독회. 혼독회를 하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나라를 찾아 하나님ی 죄정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

똑똑히 알라고요. 폰타 델 에스테에 오면 전부 청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청산하는 곳이에요. 맨 밑창이에요. 똥싸고 밑을 닦아 가지고 던

지는 곳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그런 땅이에요. 파라과이강을 중심삼고 보면 항문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일본과 한국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작년 정월 초하루에 그랬지요? 일본이 축복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책임 못 해 가지고 한국과 통일시켜 버렸어요. 부모의 소원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 하면 장자가 소원이지요? 그래, 작년 4월부터 어머니를 중심삼아서 예수의 가정과 아들딸을 자리잡아 준 거예요. 자리잡아 줬지요?

장자의 소원은 무엇이라구요? 부모권이예요. 어머니를 찾아서 넘어서 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는 나라를 찾아야 돼요. 나라 앞에 둘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나라를 찾으면 자동적으로 세계와 하늘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투쟁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부모와 가정적으로 접붙이면 대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4차 아담권이 연결되어 사탄의 참소를 안 받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주관권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기도가 아니예요. 보고예요, 보고.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시대... 자기도 중앙에 가서 조건을 세워야 돼요. 몇 년 동안에 간다 해서, 그 조건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래 놓아야 탕감 완성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좌정할 수 있고 사탄은 영원히 본연의 자리에 굴복해서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옥 천상세계 통일이 벌어진다, 천주완성이다! 아멘! 「아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게 주먹구구식이 아니예요. 이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꼼짝못하는 거예요. 자!

서서 인사해요. (경배) 배를 타고 나가 봐? 오늘은 바람이 안 부는
구만. 「예.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날이 좋아요. 「예.」 달려 봐요?
「예.」 *

구원섭리사의 종결과 여성의 사명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세계 여자들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성신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이 땅 위에 와서 세계 전체의 가인 아벨, 가정에 있어서의 가인 아벨을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를 중심삼은 가인 아벨이 가정 기반이요, 그 다음에 종족 기반, 민족 기반이에요.

여자가 가정을 파탄시켰으니 나라의 여당 야당에 들어가 교육해야

어머님을 중심삼고 이 모든 승리적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분신이 되어 가정복귀 완성, 종족복귀 완성, 국가복귀 완성을 하게 되면 세계적 복귀 기준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권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제4차 아담권을 중심삼고 최후에 결정지어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미국 국회에 가서 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강연회에 가서 이런 폭탄적인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계가 문제가 될 거라구요.

2000년 1월 14일(金), 폰타 벨 에스테.

* 이 말씀은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여자들이 동원해서 가인 아벨, 야당 여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구상은 뭐냐? 유엔을 만들 계획이예요. 유엔이 안 들으면 다 집어치우고 아벨 유엔을 만드는 거예요.

아벨 유엔은 통일사상을 중심삼은 유엔이기 때문에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정을 중심삼은 연합 유엔이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가정으로 출발했던 거짓 부모의 혈통적 근원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직결될 수 있는 이 세계 판도 정상이 되었으니, 제4차 아담권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복잡하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마지막 싸움이라고요, 세상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은 심각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그래, 여자들을 동원한다는 말을 알겠어요? 가정을 누가 파탄시켰느냐 하면, 여자가 파탄시켰어요. 어머니가 파탄시켰어요. 가인 아벨, 야당 여당이 싸우고 세계가 두 갈래가 되었어요. 두 갈래로 만든 것은 여자예요.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 투쟁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머니는 소원이 뭐냐 하면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장자권을 복귀해야 돼요.

장자권을 어머니가 복귀해야 돼요. 장자권을 누가 세우지 못했느냐? 해와가 가인 아벨을 수습 못 했어요. 타락해 가지고 수습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갈라 나온 입장에 있으니 어머니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가인 아벨, 야당 여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하늘과 땅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성해방 시대예요. 어머니가 4차 세계순회를 해서 정상급의 사람들을 전부 탕감조건의 자리에 세워 놓은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예요. 실체적인 기반을 닦아야 하니 여자를 내세워야 돼요.

여자를 내세워 뭘 하느냐? 가정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천사장이 장악해서 사탄세계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하늘나라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망쳐 가는 것을 여자가 전부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윤락 문제, 가정 파탄 문제를 사탄세계에서 수습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참아버지가 와서 여자를 내세워 가지고 종적인 탕감역사를 해 오는 사이에 그냥 번식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어머니 위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 못 해요. 여자가 나서서 전부 교육해야 돼요. 야당 여당을 교육해서 싸움판을 말려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국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세계의 국가가 가정적 기반을 중심삼고 부모의 가정, 가인 아벨의 가정,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의 종족, 가정을 중심삼은 가인 아벨 국가, 이러면 사탄세계는 없어지는 거라구요. 그렇게 외적 내적으로 정비해야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 있어서 여당 야당을 어머니들이 교육해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국가체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도시-군면리반까지 7단계예요. 자기 가정까지 8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들이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박는 거예요.

섭리의 첨단노정에 서서 나아가고 있다

총결론은 간단해요. 미국 대통령하고 김대중이 가인 아벨이라구요. 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돼요. 말을 듣게 하는 데는 누구를 시키느냐? 어머니를 시켜야 돼요. 부시 대통령 부부가 합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붙들어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엉뚱미? 주동문이 그 책임을 못 하면 안 돼요. 주동문이 주씨예요. 주기철 목사의 혈족도 되고 그러니만큼 그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가를 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가정 전체가 제물 되는 입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중요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시한 것을 혼자 못 하기 때문에 곽정환이 그 꼭 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강력히 미국과 언론계를 결속해서 남북미의 언론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번 회의도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4개 대표국의 회사에 가서 후려갈긴 거예요. 남미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티엠포스 델문도>에 이번 회의에 대한 것이 나와요. 17개국에 이 신문이 나가기 때문에 남미를 완전히 깔아 버린다고요. 이제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거예요. 배후라든가 힘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까지 반대하던 바람을 뿌리 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뉴욕 타임스>에서 반대했어요. <뉴욕 타임스>에서 6일에 질의 응답을 할 것인데, 이들이 몰리게 되니까 20일로 연장했어요. 20일로 연장했는데 우리가 미국 국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때를 중심삼아 가지고 뒤집어 박아야 할 섭리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임자네들은 그저 모르고 살지만, 섭리의 침단노정에 선 선생님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통일이라는 것은 섭리사적 견지에서 본 남북통일이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역사를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라구요. 자, 읽으라구.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이 말씀이 하늘땅에 전파로서 연결되고 기록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 295쪽 훈독)

미국에서의 초국가적인 훈독세미나와 국회 강연 계획

『하늘을 중심삼고, 민족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정의구현(正義具現)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고서는 이 민족을 구해 낼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대통령하고 다음에 미국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하고 내적인 모든 말들이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조건적인 연결을 시켜서 섭리적 관을 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국가적인 입장에서 훈독세미나를 하는데, 그것이 그 준비예요. 세계 정상인 사람들, 미국에 와 있는 세계 나라의 대사들, 유엔에 와 있는 세계 나라의 대사들이 이 훈독세미나에 참석하고 미국의 지도층 인사들도 참석할 거예요.

이번 22일에는 185개국의 주도적인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미국 조야의 지도자 3천 명이 힐튼호텔에서 22일에 모이는 거예요. 21일부터 23일까지 훈독세미나를 하는데, 22일에는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미국 전국에 있는 저명인사들이 모여서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월 2일에는 국회에서 강연하는 거예요. 상하의원을 중심삼고 4백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전부 지도층이에요. 주지사라든가 국회에 연결된 사람이라든가 행정부처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날에는 뭘 하느냐?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냉전시대를 종결짓게 하는 데 공로자가 레버런 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하원의장이라든가 상원의장이 나와서 표창하게 되어 있다구요. 이럼으로 말미

암아 한국이라든가 전세계가 지금까지 우리를 대했던 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국가적 기준에서 새로운 유엔을 향한 최후의 시대가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계 여성들이 새로운 유엔을 형성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중심삼아서 강력한 아벨 유엔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3분의 2는 될 거라구요. 절반 이상을 여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여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든 국가의 야당 여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자리에 서기 때문에 수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가게 되면 왕권 수립이라는 것은 남자 왕, 여왕이 되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런 기준을 중심삼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도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을 타고 앉는 것보다도 새로운 유엔에 정착하는 것이 쉽다구요. 그래서 참부모의 날을 유엔에서 책정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책정했는데 장자권인 미국의 참부모의 날을 세계 차자권, 수많은 나라 앞에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유엔의 참부모의 날로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아벨 유엔이 있어야 돼요. 아벨 유엔이 없으니까 상원 하원의 유엔 기구가 생긴다고 벌써 작년 12월부터 발표했어요. 그런 구조적인 내용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성교회가 그런 놀음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앞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앞장섰지만 할 수 없이 우리를 앞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천년 왕국시대를 중심삼고 참부모를 모시는 일을 전세계적으로 유엔 헌장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면 세계는 하나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003년까지 구원섭리사의 종결과 천년왕국 시대의 개문이 이뤄져야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하늘편이, 내가 밀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다 망쳐 놔서요. 도의적인 면이 땅에 떨어졌으니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더블류(W) 부시예요.

더블류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날에는 완전히 하늘의 뜻을 중심삼고 나가야 된다고요. 1세가 부시 대통령, 2세가 더블류 부시, 3세까지 대통령을 하게 된다면 왕권을 수립할 수 있는 시대로 연결된다고 본다고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코치해야 할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어요. 자기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최후의 정상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이 시기가 2000년이에요. 2000년을 넘어서 3년 기간이 문제되는 거예요.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0년이 4년째거든. 2001년, 2002년, 2003년이에요. 7년 동안에 전부 정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계와 육계의 통합 운동을 해서 2000년을 넘어서 가지고 4천년 구원섭리사의 종결, 천년 왕국시대의 개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3년간에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3년 기간에 내 말만 들으면 미국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전 7일에 엔 시 시 에스 에이(NCCSA) 회의를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삼고 했어요. 거기에 3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전부 국가기관 요원들이고 목사 장로들이에요. 주지사라든가 언론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혼동회를 했어요. 미국이 가야 할 외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한 것을 편집해서 혼동회를 했는데, 완전히 통일되어서 분화구가 터졌어요. 그들이 전부 기립해서 맹세하면서, 선생님한테 일단의 방문단을 만들자고 결의한 거예요. 뉴욕에 있다면 대변에 그럴 텐데, 지금 남미에 가 있기 때문에 나중으

로 미루었어요.

그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에이 엘 시(ALC;미국지도자회의), 엔 시 시 에스 에이(NCCSA)를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들을 중심삼고 행정부처 소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엔 언론계를 통해서는 외적인 가인세계 소화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이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시작되었으니 끝난 거예요. 시작과 끝이예요. 시작이자 끝이라구요.

세계 순회 강연 계획

어차피 선생님은 미국 의회, 미국 정부, 유엔까지도... 이번에 광정환이 올 때 미국 상원의원과 유엔의 엔지오(NGO;국제비정부기구) 책임자까지 데리고 왔어요. 남미까지 봤기 때문에 ‘아이구, 레버런 문의 기반이 보통이 아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획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순회강연을 내가 해야 돼요. 마지막이예요. 순회강연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하루에 두 곳 세 곳까지 할지 몰라요. 185개국을 전부 하려면 큰일났어요. 40개국을 먼저 하고 연결 관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85개국의 선교사들을 중심삼고 4개국씩 짰다고요. 사 사 십육(4×4=16) 사 오 이십(4×5=20), 45개국이에요. 45개국에 180국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45개국을 도는데 며칠 동안에 강연하느냐 이거예요. 120일간에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을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지금 사는 거예요. 글로벌 익스프레스가 제일 좋은 비행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비싼 비행기 말이에요. 전용 비행기로서는 비싼 거라구요. 구름을 타고 동에서부터 서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세 나라씩 간다고 봐요. 아침 10시에 하

고, 오후 3시에 하고, 저녁 7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어머니가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두 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면 셋이 하는 거예요. 대신 훈독회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강연문을 읽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0세 생일 행사 때 다 짜야 돼요. 예비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구요.

일족을 수습해서 새로운 민족 편성에 가담해야

여기에서 국가 메시아들의 수련이 3월말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4월 들어서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 메시아들이 있으나 없으나 지령을 할 수 있어요. 작년에 40일 훈련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대신 전화만 통하면 돼요. 전화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전화로 회의할 때가 왔고, 전화로 명령할 시대가 왔어요. 인터넷을 우리의 활동 기구로 쓰는 거예요.

내가 50년 전에 그런 말을 할 때, 앉아서 회의하고 집안에서 세계의 일을 의논하고 하루 생활권에서 의논한다고 할 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 범일동 꼭대기의 미남자, 아까운 사람이 미쳤다고 했어요. (웃음) 그때 말한 것이 다 났다구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벌써 1970년대에 이야기한 거예요. 30년, 25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다 이뤄져 나가고 있다구요. 그때는 믿지 못할 이야기였는데 지금 다 현재화된 일들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뜻이 앞에 왔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여러분 일족을 수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족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은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씨면 윤씨 일족을 움직여서 서로 편지하면서 이래 가지고 일족을 수습하여 민족 편성에 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씨족이 되려면 열두 성씨가 있어야 되고, 민족이 되려면 열두 씨족

이 들어가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열두 민족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열두 민족이 이번에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입적 시대예요. 세계사적인 열두 지파 편성이 벌어진다구요. 흑인이 될지 누가 될지 몰라요. 백인이 맨 플래미가 될지 몰라요. 공과 실적이 많은 데가 입적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앞설 것 같다고요. 백인들은 맨 플래미예요. 그래서 대이동이 벌어진다구요.

이동이 안 벌어지면 보류되어서 죽어 가지고 저나라에 들어가서 입적하게 되면 사탄의 뒤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굴복했지요? 「예.」 지옥 간 사람들을 전부 축복해 주었으니 사탄도 앞으로 구원섭리권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입적 못 한 사람은 그 가외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하늘에 바치고 대이동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일본을 중심삼고 청평에 가서 선조들을, 8대서부터 14대까지 조상들을 빨리 해원해서 축복해 주라고 했어요. 유정옥을 김효남 장로하고 만나게 해서 약속시켰다고요. 일본 나라와 한국 나라가 7대 7대, 14대가 되어야 소생 장성, 국가권을 넘어서요. 한국과 일본, 미국이 전부 그 일을 해야 돼요. 미국은 14대니 뭐니 대수를 모르잖아요? 부모 나라가 하게 되면 자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다 섞어서 같은 형제로 봐요. 한꺼번에 태어난 아들딸로 보는 거라고요. 나이 많은 쪽이 형, 같은 날이라도 시간만 빠르면 형님 취급해서 전부 해원성사해 주어야 돼요.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세상이 천국이에요. 축복가정으로 천국에서 살고, 영계에 가도 천국이에요. 장애물, 사탄이 없어요. 낙원이 없고,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신음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가셔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하늘나라를 옮겨요. 본

부를 옮겨 버린다구요. 영원히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영계까지 대이동을 하려면... (녹음이 잠시 끊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아들딸, 좋아하는 것은 전부 원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시에 다 까 벗겨 뒤집어 박아 가지고 내 것이 아니고 하늘 것으로 완전히 청산해 이동하지 않고는 자기 갈 길이 없어요. 자기 갈 발판이 없어요. 본래 완성한 사람은 천지 소유기반 위에 가는 것인데, 자기가 앞서서는 안 된다구요.

그래서 소유권을 전부 하늘 앞에 바쳐 놓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기의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소유권이 있으면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부모님의 것인 동시에 관리 분배하는 것도 부모님이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사 주고 ‘왜 내가 사 준 넥타이를 안 땀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구요. 자기가 점령하겠다는 조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물이 아니고 뇌물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선물을 줬으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왜 관여해요? 그것은 뇌물이에요. 현금을 하고 ‘선생님, 현금한 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하면 뇌물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대신 그런 현금을 자기들의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세계와 하늘땅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자기들을 위해서는 안 써요. 안 쓴다구요.

여러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을 자주 다니면서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어머니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저 아랫사람들, 거지 굴에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통일교회 사람들이 어머니를 좋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들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구요. 대표해서 이제부터 만민을 중심삼고 여러분을 시켜서 어머니 대신 주라고 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

층 전부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어머니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경제권을 맡겼어요. 어떻게 하느냐? 해와가 전부 뒤집어 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전부 맡겼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전체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식구들을 위해서 사 주고 싶은 것은 사 주라고 내가 허락했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대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세계 사람들을 먼저 위하고 자식들을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아들딸에게 옷도 사 주고 그랬다구요.

탕감시대를 넘으면 조건이 필요 없어

앞으로 탕감시대를 넘으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조건이에요. 훈독회의 말씀이 조건이에요. 사탄의 참소조건에 걸리면 그걸 탕감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걸리면 즉결처분이에요. 탕감이 없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탕감이 있지, 바뀌었는데 탕감이 있겠어요?

바뀌쳐서 뒤집어 박을 때까지 기다리는 때에 바뀌친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해서 세계적 기준까지 이 일을 뒤풀이해야 돼요. 작지만 다 마찬가지로요. (판서하시며 말씀하심) 이 한 점을 중심삼고, 자기를 중심삼고 이렇게 된다면 크지만 이것을 중심삼고 전부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라구요. 탕감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 해와가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횡적이에요. 남자 여자의 사랑은 횡적이에요. 핏줄은 종적이에요. 사랑은 한 시대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담 해와의 사랑이지요? 「예.」 아담 해와 후손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은 한 때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결착한 것은 한 때예요. 또 그 다음 대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도 그 한 때라구요. 이건 횡적이에요. 핏줄만은 종적이에요. 핏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횡의 사랑을 절대시하는 것보다도 역사적인 전통의 핏줄을 영원히 존중시켜야 된다고요. 핏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도 그래요. 어머니를 모셔 놓고 나올 때 1968년 하나님의 날을 선포할 때까지 절대 이것을 수습하는 놀음을 해 나왔어요. 어머니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다려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대신 세울 수 있는 시대라구요. 알겠어요?

그러니 전부 포섭해야 돼요. 어머니 기준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수직이 맞아야 돼요. 여자들 각자가 90각도를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대기는 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할머니니 뭐니 여자들은 전부 선생님을 대해서 자기 신랑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여자들도 이것을 중심삼고 수직 아니에요? 몇 달, 한 달에 하루라도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바뀌쳐 올라가야 된다고요. 좌우로, 횡적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들이 다리를 놓아 줘야 된다고요. 그걸 몰라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지가 않아요.

참어머님을 간택할 때의 섭리적 배경과 하늘의 봄바람

가정맹세에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 가정이고 중심적 가정이에요. 이래도 대표요, 이래도 중심이라구요. 이게 대표예요. 꼭대기예요. 대표는 꼭대기를 말하는 거거

든. 중심 가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연결된 여기도 90도가 되면 전부 신부예요. 전세계의 여자들은 오시는 재림주를 신랑으로 모셔야 돼요. 신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부 그래요. 봄 절기가 되면 큰 나무도 꽃이 피지만 썸바귀도 꽃이 피지요?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자기의 모든 환경 여건을 부정하고 뒤로 돌아서야 돼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어머니 분신이에요. 어머니가 커가는데 여기서부터 어머니 하나를 중심삼고, 한 개인을 중심삼고 세계의 여성들이 수천만 단계로 연결되는 거라구요. 8단계를 올라가서 어머니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방적 기반에 섬으로 말미암아 만국의 여성들은 해방의 자리에 분신과 같이 서는 거예요. 어머니의 분신이 된 그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아요. 여기서 축복하게 되어 있다구요. 여기서 축복하게 되어 있지요? (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며) 여기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중앙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중앙에 들어와 축복했기 때문에 이 계열적인 모든 사람들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리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세계는 여기서 반대로 가요. 이리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을고 올라간다구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사랑해서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는 참부모를 중심삼고 사랑하면 올라간다구요. 알겠어요?

각도가 올라가요. 각도가 점점 높아져서 수많은 다리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를 택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택하는데 80에서부터 70, 60... 10대까지 내려가요. 70년간의 여자들은 다 한때에 봄바람이 불어요. 자는 것을 잊어버리고 먹을 것을 잊어버려요. 길을 가면서도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교회를 찾아와요. 시장 간다는 여자들에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대하면 오빠같이 생각돼요. 언젠가 자기가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만났던 분같이 생각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오빠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된다면 형제시대를 지나 약혼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신랑같이 생각해요.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전부 버리고 선생님을 대해 남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부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을 보여 줘요. 꽃반지도 해주고 신부 훈련도 시킨다고요. 에텐 동산에서 벗고 살지 않았어요? 한 자리에서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부부, 형상적 부부, 실체적 부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단계 기준의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상징은 형상의 대신이고, 형상은 실체의 대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낮을 뿐이라고요. 높고 낮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는 길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상징은 형상을 따라가야 되고 형상은 실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거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참어머님이 완성하기 위해 가야 할 길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모든 여성들은 상징 부부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상징 오빠, 상징 약혼, 상징 결혼식, 상징 어머니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형상적이 되고, 실체적이 돼요. 맨 나중에 가서는 형상적으로 열두 사람이 돼요. 실체적인 세 사람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세 사람을 걸고 전부 추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형상시대에 반응한 내용은 전부 다 선생님을... 형상시대니까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는 집을 짓고, 가정 기물

을 있는 재산을 털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시키는 것은 나랏님 대신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예요. 하늘땅의 여왕을 만들기 위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라를 넘어서 하늘땅을 사랑할 수 있는 신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자기 일족을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완성하려면 세계까지, 영계까지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영계의 길도 열어 줘야 되겠으니 홍진군이 간 거예요. 홍진군이 돌아가는데 오순절과 같은 120개국 왕들이 재림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영계도 상징 결혼과 형상 결혼을 해서 실체 결혼을 해야 돼요. 천사세계는 상징권이예요. 다 축복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이런 내용은 원리에 없어요. 상징 신부니 형상 신부니 실체 신부니 말이에요. 실체 중심 왕의 총책임자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할머니 삼위기대, 중년 삼위기대, 처녀 삼위기대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 3시대의 삼위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충모님하고 대모님하고 어머니님이에요. 그게 열두 수가 되어 있어요. 거기의 중심이 어머니라구요. 그게 한 케이스니까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원리 책에도 없는 성약시대의 내용이에요. 원리 책에는 복귀시대, 예수시대의 가정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까지 나와 있지 그 이후부터는 몰라요. 안 나와 있다구요.

윤기병은 약혼했던 여자가 먼저 갔지? 「예.» 그러면 몇 번째야? 두 번째야? 「예.» 저나라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미국에 묻혀 있지? 「예.» 더러 가 봤나? 「자주는 못 갑니다.» 부처끼리 가서 축복해야 지상에서 계대를 대신 이을 수 있다구.

어머니도 그래요. 성진이 어머니를 대해서 어머니 책임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런데 있어서는 벌써... 어머니가 성진이 어머니를 만나기

를 했어요, 어떻게 하기를 했어요? 만나지 못했지만 책임을 해야 돼요. 돌아갈 때 ‘나 같은 여자는 그 주인 앞에 종이 되어야 된다. 종도 미치지 못한다. 그 아들딸을 내가 모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인연을 어머니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없는 성진이 어머니를 도와주고 집도 사 준 거예요. 집을 두 번씩 사 줬어요. 소생 장성이예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성진하고 갈라져 있는데 내가 직접 주관해서 훈시했다구요.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탕감복귀라는 것은 뒤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의 품으로 가더라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선생님을 가까이 모셨던 여인들이 천사와 같이 저나라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상대를 설정해 주니까 전부... 대모님 대신 어머니를 길러 준 입장이 최선생이예요. 레아와 라헬, 한 자매와 마찬가지로. 레아도 남편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성인들하고 해주었는데, 그걸 싫다고 하면 안 된다구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자기들이 갈 길을 가려 준 거예요. 어머니나 선생님도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훈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된다구요.

그래, 자기 사랑하는 여편네, 어머니, 누나가 원수 앞에 품겨 가더라도 복을 빌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의 일족들, 여자들이 자기하고 사는 남편이 싫어 가지고 떠 데 가겠다고 하면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결(缺)이 되지 않아요. 그러한 전통이 서기 때문에 성인과 살인마가 한 자리에서 축복받

는 것이요, 성인의 아들과 살인마의 딸이 축복가정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사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 가정의 타락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참사랑을 중심삼고 엮어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어디든지 사탄이 설 수 없게끔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종적으로 90각도를 만들면 여기도 90각도로 하나예요. 이것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되려면 두 개의 수직이 되었잖아요? 수직이 되었으면 이것이 연결되면, 사탄은 각도가 틀려지면 붙어 있는데 연결되니 못 붙어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영육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이 어머니가 살아 있고 성진이 집에 오게 되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가 아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지금까지 성진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나이가 3살 차이 밖에 안 나니까 어색하거든. 그래서 출발을 잘못해 가지고 뺨뺨어져서 저러고 있다구요. 그것을 지상에서 다 청산해야 돼요. 더더구나 사랑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뜻 가운데서 흠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가정에서 쫓겨나고 따라온 패들을 선생님이 전부 축복을 해줘서 복 받게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뭐라고 못 하고, 하나님은 고마운 거예요.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기준이 남아 있으면 천국 해방권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탄도 이제 참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지금 불교니 유교니 모슬렘이 원수 아니에요? 종교들이 원수거든. 사탄도 참부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본연의 기준을 중심삼고, 그게 힘들지요. 자기가 해 나온 일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자기가 극난(極難)한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생활로 3년 이상

을 지내야 돼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수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그래서 축복가정들은 그래요. 선생님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신랑이 선생님이니만큼 상징적인 사랑을 했던 아내든 형상적인 사랑을 했던 아내든 그 기준을 중심삼아서 자기 자리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대와 하나되어 나가야 돼요. 상대를 모시지 않으면 전부 깨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들 색시들도 선생님을 좋아하지요? 「예.」 (웃으심) 그렇지 않으면 갈 길이 막혀 버려요. 이 중심에 달려야 된다고요. 센터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서하심) 여기에 30억의 여자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여기에 와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모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절대 위해야 된다고요. 위하지 않으면 여기에까지 갈 수 있어요? 왼쪽의 공산세계나 어디나 내적 외적으로 절대 위해야 돼요. 위하지 않고는 올라갈 길이 없어요. 알겠어요?

아래서부터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입해야 돼요. 투입해야 가까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안팎으로, 내적 외적으로 위하지 않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지 않고는 이 선 권내에 들어와서 외적이나 내적으로 갈라져요. 갈라지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져요. 완전히 부모님을 중심삼고 딱 붙들고 여기서부터 하나로 맞추어 나가야 돼요. 자기를 주장하면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막혀 버리면 이 길을 비켜 주어야 돼요.

그러니 내적으로 맞추고 외적으로 맞춰야 돼요. 내적인 중앙을 중심삼고 내적으로 하나되면 이게 저변이에요. 이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구

요. (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며) 이것 이것하고 이것 이것하고 어느 게 기냐 하면 이쪽이 길어요. 이 길이가 짧은 것, 가까운 것이 내적이예요. 내적 90각도는 부모와 형제와 몸 마음, 3대 하나님의 사랑이예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예요.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라구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래서 하늘땅의 부모, 천지부모라는 말이 나와요. 천지부모, 플러스 부모와 마이너스 부모예요.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으니 어느 게 빠르냐? 이 중양을 찾아가는 것이 이거예요. 실체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아들딸이 많이 벌어지지요?

그래, 안팎을 맞춰야 꼭대기에 바로 가요. 절대신앙해야 돼요. 자기를 생각했다가는 중간에 굴러 떨어져요. 천야만야(千耶萬耶)한 벼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신앙, 그 다음에는 뭐라구요? 「절대사랑!」 절대사랑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었다가는 늦는 거예요. 절대신앙해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되었으면 여기에 와서는 절대 투입해야 된다고요. 투입해야 영계 육계가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영(零)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돌아와서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그게 공식이 되어 있어요. 적당히 안 되어 있다구요.

여자들이 선생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시대의 사연

선생님은 벌써 알아요. 여자들이 어떤 급에 있는지, 선생님을 얼마만큼 사모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상징적 입장에 서 있느냐, 형상적 입장에 서 있느냐, 실체적 입장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인정 안 해요. 그게 탈이예요. 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360도를 돌아 가지고 다시 와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하기가 힘들어요. 상대적 입장에 서

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아요? 엄명미는 그런 얘기를 알아? 어머니를 미워한 사람이 많았다구요. 엄명미 어머니도 선생님을 사모했어요. 세상 남자 같으면, 내가 나쁜 남자 같으면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깨끗이 인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의 위대한 것이예요.

나도 울고 다니고, 자기들도 피난 다니며 찾아와 가지고 울고 다닌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손수건에 싸 가지고 와서 눈물 흘리며 울고 불고 한 거예요. 세상 남자 같으면 별의별 짓을 다 했겠지만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자기의 무엇이든지 다 선생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바쳐야 돼요. 하늘의 기반을 닦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만민이 설자리가 생겨요. 자기를 위하게 되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그 딸들이 둘 다 외적으로 통일교회 축복을 받았어요. 성미까지. 이들이 남북미의 형제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동생이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형님이 더 열심히 해요. 그것을 내가 갚아 주려고 명미니 무엇이냐 데리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의 한이 있잖아? 그것을 알아? 어머니를 잘 모셔야 돼. 그러니까 복 받은 며느리가 불쌍한 시어머니를 살려 줘야 돼. 그래서 모시고 살라는 거야.

그리고 보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요? 「예.」 문중을 들고 나라를 들어서 칭찬하면서 모시자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나 가정으로서나.

원칙에 어긋나는 길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중심삼은 아주머니들 가운데는 별의별 아주머니들이 다 있어요. 방문을 뚫고 들어오는 여자가 없나... 내가 자물쇠를 들썩 채우고 잤어요. 문을 뚫고 들어와요. 그게 자기 정신이 아니라구요. 영적으로 포옹도 해주고 키스도 해주고 손목도 잡아 주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알아요. 사실은 안 했는데, 그런데 사실로 알아요. (웃으심)

선생님을 안고 벌거벗고 자고 사랑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방에 들어와서 ‘내가 먼저이고 너는 나중이다. 방을 내놓아라!’ 하는 거예요. 땀을 부리고 데모한 것을 알아요?

‘우리 딸이 어머니 자리이다. 너는 모녀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냐? 자리를 내놓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키스를 하고 손목이라도 한 번 잡아 줬으면 큰일나지요. ‘누구보다도 내가 선생님을 영적으로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보라구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이놈의 간나들이 호텔에 나가서 병이 났다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과하고 가서 11시 반쯤 되어서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면 30분 이상 되거든. 돌아가지 못하게 공작해서 선생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가려고 하면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별의별 놀음이 다 벌어졌어요.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무서워요. 무서운 게 여자들이예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부인들이 고관 집 부인들이예요. 그런 여자들을 다 동생과 같이 사랑하고 누나와 같이 사랑해서 길러 줘야 된다고요. 어머니 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쉬워요? 그런 사연들은 다 모르지요. 선생님이 얼마만큼 여자들 앞에 단련 받고, 여자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런 때는 여자들이 젖이 부어요. 음부도 부어요. 소가 암내나게 된다면 딱 그래요. 붓는 것같이 그렇게 붓는다고요. 타락한 여자들은 그것이 없어요. 통일교회의 그런 시대에 있던 여자들은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그 놀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에텐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것같이 하나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신백화점에 슬리퍼를 끌고 촌사람같이 하고 가게 되면 쪽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이구, 여기에 계시는구만!’ 하며 서로가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혼란세계를 자리잡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세상은 간단한 거예요. 영계를 수습하기가 더 힘든 거라구요.

참사랑을 해야 구원섭리가 이뤄져

영계에서 하나님의 어인(御印)을 받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맡길 수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부인을 선발할 수 있는 선발대회를 열어 모든 부인들을 대하려면 천사장 이상의 자리를 대표해서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섰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도를 밟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편네들이 선생님 앞에 가까이 가더라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축복해 준 아버지예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땅에서 만나서 사모하고 울고불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갔던 사람은 선생님과 가까운 영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반대해서 떨어졌던 사람들도 다 수습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다 수습해 줘야 된다고요. 사랑의 심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의 심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떨어져 있더라도 불러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마까지도 찾아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본래는 에덴에 있어서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회복해 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인마와 성인을 한 자리에

서, 가인 아벨을 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부부와 같은 대등한 가치의 자리에 세우고 싶었던 가정이상, 그걸 중심삼고 출발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든가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안 해 가지고는 구원섭리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 죽을 지경이지요. 그걸 다 참아 나온 거라고요. 하늘을 알았기 때문에 참아 나온 거예요.

780명의 여성 중심한 대회를 통해 활동 개시하라

알겠나, 알레한드로? 「예.」 밥을 못 먹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스페인계 사람들을 대해 그거 해야지. 내가 이제 어머니가 순회강연하던 것같이 할 거라고요. 17일 것을 번역하라고 했는데, 그거 번역했나? 「원고를 안 쓰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번역하라고 그랬다구. 「예.」 그것이 내가 뉴욕에서 한 것을 간추린 내용이에요.

이것의 상대적 기준이 우루과이 땅이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을 모아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요전에는 남자를 모아서 했어요. 33인을 중심삼고 했지만, 이번에는 여자 780명을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130명씩 6개 조, 삼 육 십팔(3×6=18) 780명의 여자를 중심삼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고요. 남북을 조건적으로 연결시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14일이지요? 「예.」 마그로드하고 맥스라는 사람, 정치인 언론인 대표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요. 12일에 온다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14일에 온다는 거예요. 다들 모이면 우루과이 정세

에 대한 모든 대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 개시해야 돼요. 그래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다 알겠어요? 「예.」

그만 하고, 이제 밥 먹고 또 무엇을 해야지. 오늘은 뭘 해요? 벌써 9시 반이 됐다고요. 알레한드로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스페인어로 번역하는데 알레한드로가 넘버 원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서 스페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귀한 일이라구. 「예.」 어렵더라도 정성들여서 해야 된다고요. 번역이야 말씀만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옮겨 쓰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 오래 있을까요, 미국에 오래 있을까요, 여기에 오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번 국가 메시아 40일수련은 내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하나되어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고 목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을 중심삼고 나라 나라에 분담해서 자기들이 훈련하든가 교육해 가지고 교구장들을... 그래서 각국에서 배 두 척씩 만들어 가야 돼요. 돈을 내서 사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서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훈련된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here의 특수 고기를 잡아 봐야 돼요.

그때 고기들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가뭄이 들어서 많이 죽지 않았나? 「지금 금어기(禁漁期)를 풀려고 해도 그 물이 너무 낮아서 못 풀고 있습니다. 물이 올라와야 낚는다고 합니다.」 이제 비가 올 거 아니야? 「예. 비가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어떻게 되겠나? *

우루과이의 사명과 여성 대회

〈기 도〉 사랑하는 아버지님, 오늘 2000년 1월 16일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맞는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주시하시는 이 자리, 세계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 모아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정성 들이는 곳곳마다 영육계가 일체가 되어서 심정의 은사와 하늘의 화평과 평화와 통일의 은사가 가득 찬 사랑의 주권세계를 당신의 승리권 위에 성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새날을 맞이하여 절반을 지냈사오니 이제 나머지 반 달의 기간도 축복하시옵고, 하늘의 뜻을 중심삼고 부모님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체 모든 행사들과 준비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일치되시어서 새로운 2000년을 중심삼은 역사적인 새로운 승리의 선을 긋고 사탄세계와 구별하시어서 해방적인 제4차 아담권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 왕국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늘땅에 존재하는 모든 전부는 하늘의 심정권을 통하여 하늘의 사랑의 마음에 일치되기 위해서 온갖 전체와 하나되고, 지상·천상세계에 당신의 사랑의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 무궁토

2000년 1월 16일(日), 폰타 델 에스테.

* 이 말씀의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록 승리와 영광과 찬양 가운데에서 주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독일을 중심삼은 185개국의 모든 축복받은 당신의 자녀들 위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을 중심삼고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이라는 표제를 중심한 모든 경륜과 계획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일치월장 승리와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의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중심 자리에 계셔서 사랑 주권의 만왕의 왕이 되시어 만세의 통치의 주도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푼타 델 에스테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우루과이를 축복하시어서 우루과이의 내일 모임 자리도 친히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고 가는 일체의 일들이 당신의 뜻에 플러스되고 승리의 영광의 전도를 높일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향심을 모으고 정성을 들이는 곳곳마다, 새천년을 맞이한 새해에 이 새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딸에게 당신이 같이하심을 증거하시옵고, 하늘이 주도하심과 하늘이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의 해방의 천국을 향하여 전진, 전진, 전진을 다짐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영계와 육계가 일체가 되시어 승리 영광의 동산과 해방의 동산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새아침의 출발이 온 천년시대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영광의 출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씬〉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오늘날 인간세계, 타락한 세계는 개인주의인데, 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라구요. 그러니까 사탄이 끌어온 세계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부정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고독 고독하고 혼자밖에 없는 다 잃어버린 자리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전체를 품어야 돼요. 옛날 아담 해와를 사랑하던 그때보다도 높고 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져요.

끝날에 인간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개인주의 절대권에 속한 인간 세계, 인본주의 혹은 물본주의 공산주의 사상권 내에 선 사람이 될 것이냐? 신본주의가 찾아진다면 이 신본주의는 절대주의로서 인본주의와 물본주의를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할 것이 무엇이나? 지금까지 고독한 하나님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타락하게 된 이상, 이상으로 삼던, 이상의 기준으로 세운 것의 몇백 배 희생하면서도 투입하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타락한 이 인간세계의 개인주의와는 다르다구요. 이곳은 지옥이라구요.

그러면 인간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개인주의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고독한 자리의 하나님과 같이 있어 가지고 실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과 하나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주체는 완전한 대상을 형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도 대상이 필요하고, 인간도 대상이 필요해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이상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상대적 개념에서 둘이 합해 가지고 이중적 목적의 결합이 현재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크려는 욕망이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큰 것하고 하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되었으면 종족과 하나되려고 하고 더 큰 민족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딱 반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요. 여기에서 제일 부정하는 것이 뭐냐? 사랑을 근본적으로 과탄시킨다는 거예요. 독재자니 무엇이니 자기 제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잃어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사회를 잃어버리고,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본 주류가 될 수 있는, 근본 수직의 정체가 될 수 있는 사랑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 기준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부모가 어디에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원리로 보면 4대 심정권, 사위기대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독단신(孤獨單身)이에요.

하나님이 고독단신으로 투입해 나오니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사탄이 목적을 이루려다가 사탄 자체가 고독단신이 된 거예요. 고독한 것은 운동하는 존재세계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권 내에서 탈락되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무저갱(無底坑)을 말했어요. 끝이 없는 구렁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딱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 사탄세계가 수천만 년이 되었어요. 수천년 투쟁의 역사를 하나님이 자연소화해서 순응적 자연굴복을 해 나오는데,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랑까지도 뒤집어 박는 거예요. 그러니 호모니 레즈비언이 나오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천벌의 철퇴를 내린 것이 에이즈예요. 병이 왜 생기느냐? 몸과 마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념에 하나되어 가지고 더 큰 소망의 기준을 갖고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막힘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상이 필요하냐? 고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고차적으로 주고받으니만큼 상대권 이상의 힘이 여기에서 남으로 말미암아 병에 안 걸려요. 그래서 사상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하, 고독단신이면서도 세상을 대해 지금도 투입해서 계속해 나오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통일교회 자체도 고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계가 고독으로 넘어가요. 온 세계가 전부 그래요. 집에 가나 어디를 가나 전부 그래요. 자기가 가게 되면 자기 동네 가정들을 전부 두고 간다는 거예요. 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경을 부정하지 않아요. 세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고독하면서도 깊은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짓고 위하는 마음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반대받던 통일교회가 이제는 원수를, 반대하는 이 세계를 구하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맨 끝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 때 절대적 개인주의, 종말시대에 모든 걸 부정하는 거라구요. 우주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종족가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 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 없다, 남자 여자가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잃

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은 프리 섹스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동물세계에도 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소 돼지와 같이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고독한 자리에서도 이 모든 것을 소화해서 하나 만들기 위해 투입해야 돼요. 여러 면의 책임을 내가, 각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투입하던 전통을 받았으니 그렇게 투입하면 확대된 결과가 나와

하나님과 같이, 부모님이 걸어온 것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구해 주고 원수의 아들딸을 보다 나은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한 자기 혈통을 통해서 복귀하려 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탄의 혈통이 된 원수의 자식을 보다 나은 자리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이상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보다 나은 자리에 서지 않고는 타락의 한이, 뿌리가, 그림자가 하나님의 심정에 남아요. 이것까지 부정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영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을 때 이러 이러한 관점에서 지어 가지고 이런 천국을 만들었는데, 보다 나은 천국의 주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 복귀의 이상적 아담 실체라면 지금 천국보다 몇천만 배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주소!’ 하면 만들어 주는 거예요. ‘타락해 가지고 지옥에서 탄식의 원성이 들려오는데 그 말을 영원히 듣지 않는 해방된 천국을 만듭시다!’ 하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되면 통일교회를 반대하던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되지

를 알아요. 지옥을 언제든지 계속할 수 없다구요. 세계 기준만 되면 문을 닫아 버린다구요. 이런 것들을 다른 세계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사상적 관을 결론지었기 때문에 위하여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고독단신, 혼자예요. 감옥에 가나 어디를 가나, 먹으나 자나 그러면서도 자기를 투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마을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전부 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세계에 있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투입하던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노력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을에 영향을 주어 천 사람 만 사람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세계는 승리하는 거예요. 선악의 투쟁 환경을 거쳐서 결과는 확대되는 거예요. 몇십 배 몇천 배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사랑으로 투입함으로써 해방권을 이뤄 사탄이 굴복하게 되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왔다구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제4차 아담시대를 선포하는 거예요. 탕감의 시대를 넘어서 자주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하나님 대신 고독단신으로 있으면서 ‘세계는 내가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부모로부터 이 나라와 세계, 전통적 사상을 하나님이 갖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부모가 이런 기반을 닦아 주었는데, 자기들이 국가 기준의 기반을 닦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이제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지면 옥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돌짜 밭에 뿌려지면 돌짜 밭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모래 밭에 뿌려지면 모래밭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면 바

람에 날아가고 새가 다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이냐? 가정적 축복을 다 해서 해방적 가정으로 올라갔는데, 그 가정은 어디에서 찾느냐? 막 뿌려 대는 거예요. 막 뿌려 대지 않았어요?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예.」 어디에 심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옥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언제든지 중앙을 향해야 돼요. 중심적인 자기의 주체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까운 데 가서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반대라고요. 하나님이 고독단신으로 지금까지 홀로 나왔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불쌍하지요.

그래, 선생님이 지상에 와서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것을 넘어서서 고독단신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 하늘땅 해방과 더불어 인류를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참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시켜서 지금 해방권 시대까지 넘어왔어요. 사탄이 이런 원칙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작년 3월 20일에 하나님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너도 이제는 다 아니까 굴복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참부모에게 굴복하고, 인류에게 굴복하는 향서(降書)를 쓴 거예요.

그 줄개 새끼들이 준동하고 파괴하는 게릴라 전쟁이 벌어질 것을 중심삼고 구구절과 삼십절을 선포한 거예요. 휴전선의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공간세계를 없애 가지고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대로 묶어 났기 때문에 해방시대가 되었어요. 해방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암만 했댔자 선생님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돼요.

여자가 타락했으니 여자들이 나서야

여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지금 나서는 거예요. 남자세계 대통령 대신 여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보라구요. 여자는 두 남자를 섬겼다고요. 대통령도 야당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는 두 대통령을 중심삼고 여자가 나서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말라, 너희들을 하나 만들어서 남편 자리에 세우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해서 우리 남편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여자가 대통령 되면 남편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가정 배치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의 대통령을 뽑는데 몇 명이 나가느냐 하면, 여당 야당, 우리 둘이에요. 남자들을 중심삼고 뽑으려면 야당 여당에서 나와 셋 넷 다섯, 열 사람은 될 거예요. 우리는 둘이에요. 둘이 하나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선거 당일 투표할 그 시간에 누구를 찍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싸움하면 완전히 지게 되어 있다구요. 백발백중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두고 보자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 그 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전부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여당이 이러 이런 것을 했다!’ 하고 공개하고, ‘야당도 이러 이런 것을 했다!’ 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둘을 바로 공개하니까, 여자들을 중심삼고 이것은 형제예요. 가인과 아벨을 중심삼고 레아와 라헬이 갈라졌다고요. 이것이 하나되어야 돼요. 여당 야당이 지금 라헬과 레아편이에요. 이게 가인 아벨로 싸우는 거예요. 이 상대가 합하기 위해서는 둘이 가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도 세울 수 있고 남자도 세울 수 있어요. 축복받았으면 여자가 앞에 나서고, 여자를 먼저 내세우고 언제든지 중반전에 들어가

서 남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선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299명이에요. 299명을 세우는데 우리는 여당을 따라 들어가고 야당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이 없어요. 여자들을 내세워서 어느 당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당이 되어도 좋고, 우리는 그 중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3형제가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여자는 뭘 하느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파괴했는데 이제는 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여자, 신약시대의 여자, 성약시대 여자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의 열매와 성약시대의 열매, 둘을 종합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상대권이에요. 이래서 이상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들어왔다구요. 한국에서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한 거라구요. 여성연합과 2천만의 여자를 동원해서 정치계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주일씩만 교육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쓰는 것은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선거 비용을 많이 쓰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비법적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력을 쓰고 모략 중상을 하고 자기 정의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의 힘을 빌린 것은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가르쳐 준다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이거예요. 여당은 야당을 치고 야당이 여당을 치는 거예요.

이 부인들은 여당에 있거나 야당에 있거나 어디 가든지 여당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말하고, 야당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나쁘면 나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나빠도 들이대는 거예요. 정치하는 남편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전부 사기꾼들이다, 여자를 한번 믿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세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인 아벨, 아들딸을 수습해야

어머니는 가인 아벨, 아들딸을 수습해야 돼요. 그게 청소년이에요. 알겠어요? 새천년을 창건하는 데는 에텐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기대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세계의 열두 살에서부터 스물네 살까지의 청소년 학생들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인 아벨이에요. 완전히 하나 만들어야 돼요.

또 학생 운동하는 것도 여자들이 책임져서 그들이 공산당과 싸우는 데 돈을 대주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아버지의 저금통장을 도둑질해다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버지의 저금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머니가 알아요. 어머니가 그 저금통장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줄 건데, 아들에게 줄 건데 나라를 살리기 위한 충신의 길을 가는 데에 내가 썼소! 뭐가 나빠요?’ 하는 거예요. 철계를 뜯어서 털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남편이 거짓 남편 아니에요? 천사장이예요. 그러니 도둑질해 온 것이니까 주인이 되어서, 해와가 그렇게 만든 것을 참된 해와가 관리해서 아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형님의 자리에서 동생을 쥐서 뒤집어 박는 거예요. 돈을 쥐 가지고 형님이 사는 거예요. 가인 아벨 자리를 뒤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또 이것을 여기에 와서 얘기하는구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다구요.

앞에서 정치해 나온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과 해와 입장이에요. 딱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는 청소년을 품어서 완전히... 학교에 학부형의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치맛바람이 나쁜 치맛바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치맛바람이에요. 어머니 치맛바람에 새끼를 품고 호랑이 굴에 집어넣듯이 집어넣어야 돼요. 매일같이 지키는 거예요.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역사에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전통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전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중심삼고 사랑을 배워서 형제가 하나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어머니가 아들딸을 사랑하는 그 이상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 이상 사랑해서 둘이 하나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사랑은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세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돌아와요. 투입한 것보다도 두 배의 사랑이 돌아오니깐 여기는 어머니가 타락권 내를 벗어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타락하여 가인 아벨이 가정을 파괴한 그 기준 이상의 자리에 타서 비로소 승리하는 거예요. 나라나 어디나 이 공식으로 가게 되면 하늘을 중심삼고, 이 말씀, 선생님이 가르쳐 준 참부모의 교훈을 중심삼고 이 길을 완전히 소화하는 거예요.

전세계 국가에서 말씀으로 교육된 가정 전위대가 나서야

알겠어, 신사장? 「예.」 이름을 가졌으면 그 놀음을 해야 된다 이거야. 내일 내가 여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일을 하는데, 우루과이는 받침이에요. 요전에는 33인을 모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780명을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130명을 중심삼은 6개 부처예요. 삼 육 십팔($3 \times 6 = 18$) 일 육은 육($1 \times 6 = 6$), 그래서 780명이예요. 거기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요 기관의 대표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120명씩 결혼식을 해줘야 돼요. 나라의 관료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까지 130수를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중심삼고 120명이예요. 여기에 6대 부처를 중심삼아 가지고 기관요원

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시대에 못 했으니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신구국연합을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우루과이에서부터 신구국 연합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 떨어지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여자들이 사탄세계의 아들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머니 대신 전부 빼앗겼던 것을 찾아와야 돼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야당과 여당을 자기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혈통적으로 축복받은 아들딸을 중심삼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인 아벨의 기준을 능가한 자리에서 어머니가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세계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낙방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절대 지지하라 이거예요. 지지하고 후원하면 남을 수 있어요. 절대 순응하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순응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위대를 세우는 거예요. 전세계에 가정 전위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부터 행정부처로부터 기관 전부에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출마하고 선발하는 놀음에는 반드시 여성연합, 어머니를 중심삼고 말씀으로 교육된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받아서 아들들도 왔다구요. 이 사람들은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잡지를 못해요. 여기에 굴복해라 이거예요. 굴복해야 된다고요. 자녀를 중심삼고 외적인 세계의, 사탄세계의 가인 아벨이 여기에 하나되어 있으니 모델 앞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삼고 나라의 대통령을 짊어진 아벨적 국가 메시아의 책임을 전부 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인 재림주에 소속할 수 있는 자동적인 계열로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이라구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따라가면서 ‘어느 쪽이 좋다! 야당과 여당 중에 누가 좋다!’ 하는 거예요. ‘좋은 놈들도 천사장이니까 어머니의 말을 믿어야 된다! 솔직히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냐? 그 어머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투표할 거야, 사탄세계 악당의 괴수, 나라를 팔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가인 아벨, 여당 야당의 대표들에게 투표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눈에 벗어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계에서 ‘물러가라!’ 하게 되어 있어요. 공산당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테모 시대가 온다구요.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서 이기겠어요? 싸움이 얼마나 계속되겠어요? 내가 그런 지시를 다 했어요. 이번에 광정환이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로 전문대학교 총장과 부총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자 대통령을 세우고, 여당 야당에 다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부총장 서영희는 세계여성전문기술협회가 있는데 거기의 한국 대표예요. 지성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공장에서 투쟁하는 여성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야당 여당에 미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필요 없어요. 공산당이 있더라도 가담시켜 당선되면 교육시켜서 하나 만드는 거라구요.

종족적 메시아로서 일족을 중심삼고 180가정을 하나 만들어야

훈독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상적 이론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이 어떤 것이 맞는지 지식이 있는 사람은 대변에 알아요. 많이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 거라구요.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비판하려고 연구하고 그랬어도 못

했어요.

일본에서 1987년인가 1988년에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통일교회 레버린 문 사상을 비판해서 뒤집어 박겠다고 12개국의 대표들이 와서 연구하다가 영계를 모르겠다고 해서 다 후퇴했어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떨어져 나갔다고요.

창렬이도 알겠어? 「예.」 삼촌뻘 되는 사람을 허재비 같은 사람으로 알았겠지만, 영계와 육계, 인간세계의 난문제, 하늘세계의 난문제를 비교해 결론지어 가지고 이 놀음을 시작한 거라구. 그렇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혀. 이제는 다 넘어왔어요. 다 끝났다고요. 4차 아담시대로 넘어서면서 기도도 다르게 하지요? 이제는 보고해야 돼요. 자기도 하나님같이 고독단신이에요. 혼자예요, 혼자!

하나님 마음같이, 부모님같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전세계에서 반대 받았어요. 지금은 반대받지 않아요. 80퍼센트, 90퍼센트 이상이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니 이걸 거저 먹기예요. 이거 못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5퍼센트는 해야지요? 「예.」

자기 일족을 못 거느리겠어요? 종족적 메시아가 됐으니 일족을 중심 삼아 가지고 180가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걸 동원해서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을 돌아서, 지구를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중앙에 와서부터 동서로 도는 거예요. 동서로 돌다가 또 중앙에 가는 거라구요. 그 다음엔 출발했던 여기서부터 주위 세계를 도는 거예요. 세 번 돌고 가야 돼요. 남북으로 돌고, 동서로 돌고는, 꼭대기에 가서 세계 일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계를 일주하려고 계획하잖아요, 끝날에? 하루에 세 나라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영계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영계에 가서 새로이 출발하는 거예요. 영계를 교육해야 돼요. 이 지상이 앞섰다고요.

선생님이 지상에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갈 것 같아요? 「오래

계셔야 합니다。」 이 쌍것들! 천년만년 늙어 죽도록, 병이 난 곰뽕이를 타고 부러먹으려고 그러지? 80세가 넘었는데 오래 살라고 그래?

이 세계만이 아니에요. 영계에 가야 돼요. 영계에 가서 조상들을 꼭 지 줄을 잡아 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이제 입적한다구요. 입적하잖아요? 입적한다고 그랬지요? 지구성에 입적하는 거예요. 이제 팔순 생일이 지나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 투입하는 거예요. 40일수련을 받고 사진 찍은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아무리 36가정이 라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빠지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할 수 있기 위해서 총생축헌납 기금을 빨리 납부해라 이거예요.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 아벨과 마찬가지로예요. 가인 아벨로 먼저 낸 사람이나 나중에 낸 사람이나 같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세계의 4억3천만 축복가정을 40일수련 시키자

그래서 40일수련을 하는데 10만 명 아니라 백만 명이라도 천막치고 마이크 시설만 하면 된다고요. 백만 명이 오고 천만 명이 오더라도 40일수련을 할 수 있어요. 이래 보라구요. 세계가 별꺼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뭘 보고 40일수련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남미 33개국의 행정부처 요원들이 꼬트머리에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지금까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4억3천만을 몰아넣는 거예요. 안 하면 몽둥이로 후려갈겨요. ‘이놈의 자식, 하늘을 이용하는 기생충이 되려고 했구만! 다시 해!’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거라구요. 일시에 수백만이 모여서 수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엔 라디오 장치를 해서 ‘세계 40일교육!’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흘에 한 번씩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시간도 맞춰 가지고 새벽이

든 언제든 같이하는 거예요. 전세계에서 같은 시간에 금식을 하자 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동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선생님이 축복을 괜히 해준 줄 알아요? 안 해주면 겨울에 바람이 불면 다 떨어져요. 낙엽이 되어 버리고 만다구요. 썩어요. 해줌으로 말미암아 전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에 누렇게 되지 않고 거름이 안 되어 있다구요. 푸른빛이 나기 때문에 세포분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랗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엽록소가 없으면 생명의 근원이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엔 전부 잘라서 한 곳에 몰아넣는 거예요. ‘마을이 전부 나서라!’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날이 언제라고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앞서려고 야단하고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이 며칠이다. 잘났던 뭐든 이장보다 내가 먼저 했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글썽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걸 기다려 왔습니다.» 기다리면 돼? 그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아버님이 그렇게 다 하셨잖습니까?」

통일교회 사상은 심정권 정착주의

그러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연합이에요. 가정연합을 만들어 놓았어요. 가정연합이 야당 여당의 주인이에요. 부모의 자리가 야당 여당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여자들이 청소년을 수습하는 거예요. 12세부터 24세까지 12년간을 수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예요. 그때가 되면 서양 여자들은 멘스를 하지요? 열두 살에 아기를 낳기도 해요. 청소년 시대를 중심삼고 어머니가 완전히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짝짓기를 하지요? 짝짓기 한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억이 넘었어요. 약혼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3, 4년 동안에 결혼만 하면 다 끝나요. 그건 안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일 방향으로 한 곳으로 결정 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공산당과 세계 학교들을 중심삼고 사상 평가 대회를 해야 돼요. 각국에서 해야 된다고요. 공산주의하고 인본주의 사상하고 신본주의 사상하고 말이에요. 통일교회는 무슨 사상이예요?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심정권 정착이예요. 주의가 아니예요. 정착이예요. 주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형제주의, 개인주의, 가정주의, 여러 갈래가 있다고요. 주의는 그렇지만, 심정권은 그것이 없어요. 정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비판하더라도 통일사상은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웠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고 앉아서 이걸 밀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다고요. 또 상대적 세계의 혼란 된 환경 여건을 정비했어요. 영계에 가서 영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지상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상 통일세계가 되게 되어 있지요?

임자는 어디 갔다 왔어? 어제저녁에 어디를 간다고 하더니 갔다 왔나? 「예, 만들어 왔습니다.」 가져오라구. 보자구. 내가 원고 새로 쓴 것은 미국에 가서 하려고 안 집어넣었어. 누가 읽어 보겠나? 잘 읽어 보라구. 「예.」 (녹음이 잠시 중단됨)

우루과이 대회를 거쳐 미국 대회를 마치고 한국에서 80세를 맞아야

여기 우루과이를 지나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돌아오려면 그것이

새로운 해에 있어서 43일 내에 있어요. 43일은 4천3백년과 마찬가지로 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40수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3일노정을 가는 거예요. 40년에 3년을 더해서 43년이에요. 40일과 3일 기간 해서 43일이에요.

그런 기간에 있어서 한국 역사시대에 했던 모든 것을 우루과이에 갖다 접붙였어요. 신구국연합을 만들 때 33인이 결성한 거예요. 그래서 급속한 시일 내에 교육하는 거예요. 언제 교육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모이라고 해도 33명 중에 3분의 2가 모여야 돼요.

여자들은 780명을 편성했는데 6백 명으로 하면 안 돼요. 8백 명 넘게 해야 될 텐데 6백 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넘게 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80명이에요. 6백 명으로 잘라서 했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780명이 다 오면 다른 사람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지시하면 그런 기준을 중심삼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서 맨 밑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장성인데 세계 185개국과 미국의 지도층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22일에는 선생님의 생일이 오기 전에 축하하는 거예요. 생일축하 잔치예요. 미국이 천사장이예요. 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와 국가예요. 여기는 해와와 마찬가지로예요. 맨 밑창의 천사장이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80세 생일을 중심삼고 새출발의 역사로 연결된다고 분다고요. 그래서 우루과이에 와서, 어저께 밤에 여기에 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것이 연결시키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80일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루과이의 책임

폰타 델 에스테가 중요하다구요. 알겠어요? 「예.」 폰타 델 에스테가

중요하니만큼 최정렬에게 책임을 준 거예요. 요전에 선생님이 폰타 델 에스테의 책임을 맡겼지? 「예.」 네 사람 가운데 대표로 세운 거예요. 맨 처음 초대시대에 있는 정성을 다 해서 냅다 밀고 싸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신사장이니 박구배니 이창열을 끌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흥 역사를 해야 돼요. 알레한드로도 여기 교회를 앞으로 후원해야 돼요. 폰타 델 에스테가 전위대예요. 거기에서부터 돌아가니만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돌아갈 수 있는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세계 사람들이 모인다구요. 1월부터지요? 1월부터 90일, 80일간 세계적으로 전부 알려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 우루과이의 책임이에요. 몰려오는 사람한테 선전이라도 해야지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신사장은 비용을 대는 거야. 호텔에서 빛을 지더라도 후원하고, 우루과이 교회에 협조해야 돼. 내가 돌아오려면 며칠이 걸리겠나? 한 40일 되겠나? 「예.」 돌아오는 기간에 얼마만큼 기반을 닦느냐 이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난장판을 벌인 것을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겠다구. 알겠나, 신사장? 「예.」

여기가 관광의 집약지인데, 호텔을 하나 사서 비용을 조달해도 돼요. 여기에 사람을 보내서 그런 운동을 해야 할 전초지예요. 그것도 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소생이라면 중간이 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안고 추어야 돼요. 그래야 우루과이가 살아요.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에서 분립되어 독립했지요? 세계로 가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독립을 했는데 그것도 33인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접붙여 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파라과이에도 영향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기지로 봤다구요.

또 해양 면에서도 그렇고, 육상 면에서도 그렇고, 공항 면에서도 그

래요. 육해공의 기지를 중심삼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이 남미의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육해공의 문화가 되고, 구라파의 문화가 되고, 미국과 아시아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루과이에 18년 전, 20년 가까운 세월부터 4억에 가까운 돈을 뿌려 버렸다고요. 잃어버렸어요. 그 대가의 사람과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이 기반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는 길을 선생님이 지도해야 돼요.

하늘의 종적인 기준과 횡적으로 90도를 맞춰 나가면 망하지 않아

이 나라의 여자들이 선두에 서서 이 놀음을 하면,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이 조그만 나라를 순식간에 말아먹을 수 있다구요. 그래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제 모자라는 인원을 더 불러 모으라구요. 자기들 멋대로 6백 명을 했어요. 나는 이번에 4천 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최정렬! 「예!」 과거에 임자가 한 것은 다 실패했다구. 사실은 감옥 가게 되어 있어. 세상 법을 중심삼고는 그런 처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대신 일선에 서서 뜻 앞에 수고하고 뒤넘이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심정적인 인연을 맺는 것이 자기의 남겨진 역사적 결점을 커버하고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내세우는 거라구. 알겠나? 「예.」

기도하는 발음은 똑똑한데 책을 읽는 발음은 왜 똑똑하지 않아? 잘라 놓고 읽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혀 한쪽에 혀바늘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혀바늘 있어도 기도할 때는 똑똑하던데? 책을 자기가 알면서 읽어야 된다고. 빨리 읽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책의 내용을 알면서 읽으면 무리가 없단구.

박구배! 「예!」 박구배는 빛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면 발

전 안 해. 내 말을 알겠어? 「예.」 은행 돈을 빌려서 뜻 앞에서 일하는 것을 하늘이 원치를 않아. 빚내서, 제3자의 손을 빌려서 하겠다는 것은 사탄세계에 관계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행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은행 돈을 절대 빌리지 말라고 본래 지시했는데 빌리기 시작해서 다 망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제 돈이 얼마나 필요하더냐? 「3백입니다.」 언제까지? 「3개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1월에 나가서 조업할 때 얼마나 필요해? 「이번에 나갈 적에 백만 달러가 필요하고, 잡부가 백만 달러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기름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대줄 거야. 신사장! 「예!」 백만 달러를 여기에 돌려줘. 은행에 들어왔지? 「예.」 미스터 윤한테 연락해서 당장에 돌려주라구. 돈이 있지? 「예.」 얼마 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 「지난번 그대로입니다.」 백만 달러 돌려줘.

세상을 믿지 마요. 세상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늘과의 종적인 기준이 확실해서 내가 황적으로 90각도를 맞춰 나가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통일교회 사람들이 어려워도 내가 돈 한푼 안 대줬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뜻길을 가게 되면 절대 굶어죽지 않아요. 의인이 되면 굶어죽지 않아요. 돈이 어디서 날아오든, 나가자빠져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병원 침대에 돈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낙심이 아니에요. 불행한 것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key)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그래요.

10년 전부터 통일교회가 망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혼자 안고 나왔어요. 뭘 믿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해요. 자기 책임인데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행동을 못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박구배, 알겠어? 「예.」 선생님한테도 그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몇 번째야?

알겠어? 「예.」 그것은 내가 대줄 거야. 빗쟁이가 되어 어려운 지경인데 그것을 어떻게 안고 줘요?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테를 떠나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떠나기 전까지 은행 문제를 신사장을 중심삼고 주사장이 해야 된다고. 주사장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벌써 몇 전부터 얘기했는데 못 하고 있다구. 알겠어, 신사장! 「예.」 그것을 안 하면 아예 문 닫아 버릴 거야. 그냥 문 닫아 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들 상통이 뭐가 돼? 넷이 협력해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주사장을 중심삼고 등록해서 <티엠포스 델문도>를 중심삼고 통합해 버리는 거야. 그 전체 책임은 신사장이 지는 거야. 신사장! 주사장하고 하는 것을 알겠나? 「예.」 서로 협조하라구. 그리고 여기에 마그로드와 맥스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과 짜고 들어가서 하는 거야. 요전에 폰타 델 에스테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후원회를 만들어 메워 나오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다들 알겠지요? 답변하라구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제별 정선 12권을 스페인어로 빨리 번역하라

알레한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을 빨리 번역해.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해? 벌써 시작을 했어야지. 그 다음에 주제별 정선 12권은 다 번역됐나? 「12권은 다 안 됐습니다.」 무엇이 되었나? 「《목회자의 길》과 《참된 자녀의 길》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은 《효심편》 하나만 번역했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만. 그것을 임자가 해야 돼. 「예.」 임자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 8년 동안 허송세월 했는데,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신도 서고 ‘서구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공부했구

만!’ 이렇게 평가받아 가지고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고.

색시는, 세쓰미는 어디 갔어? 「주방에 있습니다.» 아, 괜찮아. 가서 세쓰미에게 얘기해. ‘내가 번역하는 데 당신이 후원하라고 선생님이 기합을 줬다!’고 하라구. 알겠나? 「예.» 열심히 해. 「예, 알겠습니다.» 남편을 외롭게 두지 않고, 위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웃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울타리를 만들고 길을 닦아 놓아야

자, 그렇게 알고... 다 끝났다고요. 알겠어요? 「예.» 정리를 재차 해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는 떠날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신 양-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입장에 서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최정렬이 먹고사는 것은 신사장한테 달라고 그래. 그것도 못 하면 호텔에 불을 놓아 버려야 돼. 알겠어, 신사장? 「예.» 그건 지부라고 해요. 폰타 델 에스테에 있는 지부예요.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지부예요. 배도 이제 사지요? 「예.» 10척을 살 계획이에요. 돈이 없으면 내가 빌려서라도 줄 거예요. 배를 은행에 저당 잡히면 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은행에 배를 저당 잡혀서 한 척에 얼마씩 하면 얼마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담보물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자기가 울타리를 만들고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울타리를 안 만들고 길을 안 만들면 늑대니 무엇이니 온갖 맹수들이 와서 삼켜 버려요. 길을 닦아 놓아야 돼요. 도망가던가 일하기 위해서는 말이예요. 이것 하나만 중심삼고 비행기 타듯이 승천할 거예요? 앉아서만 사업하면 안 돼요. 확장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문제를 위해서 40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 세계적인 대학 총장을 끌어낼 때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자기 학교의 급사도 못 되고, 종도 못 될 사람이 자기들을 모아 가지고 대회 한다고 기분 나빠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계를 망치는 놀음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서구사회의 학술세계는 상대적 가치를 말하는데 무슨 절대 가치를 주장하느냐고 그랬어요.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구요. 그들을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가 질문하고 골통을 틀어질 수 있고 기합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구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구요.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창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환경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주가 있어서 거기서 땅을 창조한 거예요. 거기는 해와 물과 공기와 흙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환경이에요. 생명이 절대 존속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라구요. 환경을 만드는데,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물도 주체 대상, 식물도 주체 대상, 동물도 주체 대상, 인간도 주체 대상, 하나님도 주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총평의 논리가 다 적용되기 때에 그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서로 협조해서 주고받으면 실적이 남게 되어 있어

‘탑 오션(Top Ocean)’이 남극에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기간 동안에 다 파악해서 ‘저 놈들이 돈이 없으니 빌려줄 것이다. 우리 은행의 돈을 빌릴 것이다.’ 해서 잡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놈들이 전부 거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결점이 있으면 낚아채겠다, 성공하기 전에 낚아채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것을 봐서 다 감정할 수 있는

그 케이스 내에 들어가요. 사탄세계의 전면 프로그램, 게릴라 작전 한 계권 내에 들어가서 승패의 결정을 자체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귀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제시하게 되어 있지, 누구한테 의논하게 안 되어 있어요. 알겠어, 박구배? 「예.」

여기서 실패하면 박구배는 아예 거꾸로 날아갈 생각을 해. 박구배라는 것이 그래. 구배가 뭐야? 고비길이고 언덕바지 아니야? 한국말로 하면. 박씨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을 알아주는 거예요.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도 뜻 앞에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탕감적인 이런 역사를 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박씨, 박가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박가를 뭐 하러 데려와요? 박상권을 뭐 하러 그런 일을 시켜요? 또 박보희를 왜 시켜요? 김정일을 만나라고 지시했어요. 박정권 때 못 했으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김정권도 그래요. 디제이(DJ) 정권도 박씨가 많아요. 박태준 박철언 박주선 박지원, 전부 갈래가 박씨들이예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좋겠는데 말만 듣고 있지 세상만사를 몰라요. 나 같으면 그 사람들을 몇 번씩 초대해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3단계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무엇이든 할 텐데, 말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할 줄 모르니 이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암만 꽃밭을 날아다녔잖아 꽃 앞에 꽃가루를 묻혀 주고 꽃 안의 꿀을 가져가서 먹을 줄 모른다 이거예요. 꿀을 먹는 대신 번식할 수 있게끔 꽃가루를 묻혀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조해서 상대기준에 맞춰서 주고받으면, 힘의 작용을 하면 실적이 남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박구배, 알겠어? 「예.」 조선소에서 배 10척을 만들래? 「만들겠습니다.」 만든다면 신사장은 두 척 값을 주라구. 「예.」 17만 달러, 두 척 값 주라구요. 내가 받은 것을 저쪽에 연락할 테니까. 당장에 그 돈이

필요하지 않지? 준비하는 것 말이에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야 사랑 하지? 서로 협조하고 말이야. 알겠어요? 신치성도 다 협조하라는 거야. 두 척 값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엔 내가 배를 10척쯤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서 몬테비데오의 호텔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값이 지금 얼마인가? 8만5천 달러이지? 어떻게 6만8천 달러로 낮추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획이라구요. 박구배는 그걸 생각해야 되겠다구. 그건 문제없다구. 가볍게 하면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알겠나, 신치성? 알겠지? 「예.」

나중에 돌아와서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벼락이 떨어질 거라구요. 이제부터 선생님은 가만 안 뒀요. 잘못되어도 덮어 줄 때는 지나갔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무자비한 사람이라구요. 선생님이 그야말로 뜻 앞에 분했던 모든 한계선을 넘어서서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것보다도 갈 데를 가게 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안 한 사람들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세들을 대학교 중심삼고 공부하라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쥐서라도 기르려고 생각한다구요.

송영석도 빨리 읽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예, 아버님.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떠날 준비를 하자구.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314卷>

印刷 2003年 12月 20日
發行 2003年 12月 3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